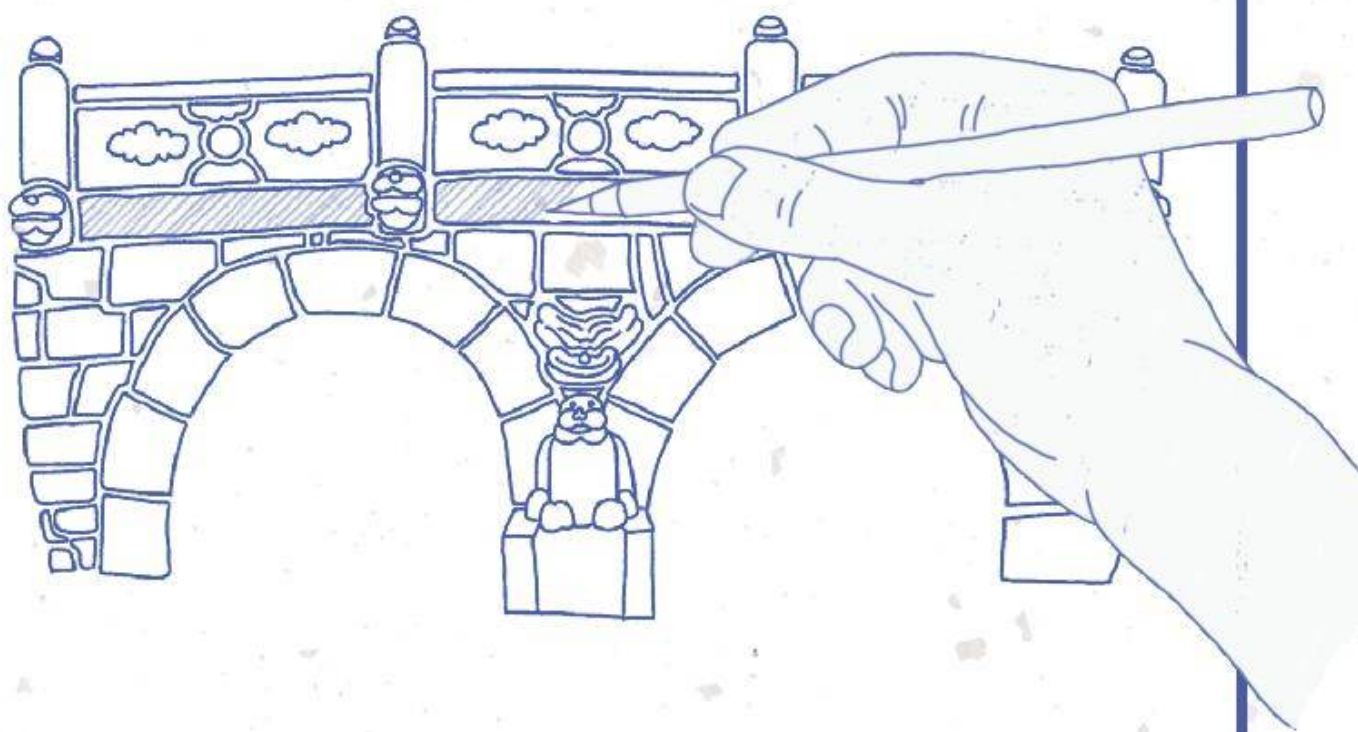


GUIDE-BOOK



한국불교 철학자들

K-Academic Expansion Center

Year. 01

C o n t e n t s

● 강좌 개괄	1
● 1주차강좌운영방안	3
● 2주차강좌운영방안	16
● 3주차강좌운영방안	26
● 4주차강좌운영방안	38
● 5주차강좌운영방안	48
● 6주차강좌운영방안	63
● 7주차강좌운영방안	77
● 8주차강좌운영방안	89
● 9주차강좌운영방안	97
● 10주차강좌운영방안	108

강좌개괄

강좌명	한국불교 철학자들	교수자	지혜경, 이병욱
수강대상	한국 불교철학에 관심이 있는 외국학생들, 대학생, 일반인	운영조교	
강좌분야	철학	난이도	초급

강좌개요	한국 불교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공부하며 삼국시대부터 조선시대까지 한국 불교를 배운다.
학습목표	- 한국불교의 중요한 철학자들의 삶과 사상적 특징을 이해한다. - 한국역사에서 불교철학자들의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한국의 주요 불교종파인, 화엄종과 선종의 차이를 구별하고 설명할 수 있다. - 한국불교의 전체적 변화의 흐름을 이해한다.

강좌주제		주요내용
1주차	한국불교 개관	부처의 생애를 공부하면서 불교의 윤회적 세계관, 불교의 핵심교리인 중도, 연기법, 무아, 사성제를 공부한다. 이후 한국에 전래된 주교 종파들의 특징과 한국불교의 역사적 변화과정을 공부한다.
2주차	유학승들 - 승랑, 원측, 원광, 자장	당시 중국으로 간 많은 유학생 가운데에 중국에 남아서 활동하던 승랑과 원측의 생애를 살펴보고, 승랑의 공부했던 중관철학, 원측이 공부했던 유식철학을 알아본다. 국내로 돌아온 유학승 중에서는 신라의 발전에 도움을 준 원광과 자장의 생애와 그들의 사상을 살펴본다.
3주차	화엄종의 철학자들 의상, 균여	의상의 생애의 주요사건들을 살펴본 뒤, 그의 화엄법계도와 평등사상을 알아본다. 의상이 지었다고 알려진 사찰들에 대해서도 공부해본다. 균여가 주목을 받게된 일화들과 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4주차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불교철학자 - 원효	원효의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설화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의 대표적인 철학사상인 일심(一心), 화쟁(和爭), 무애(無碍) 사상을 공부한다.
5주차	천태종 철학자들 - 제관, 의천, 요세, 운목무기	고려 시대에 활동한 천태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대각국사 의천의 역할과 백련 결사의 의미를 살펴본다.
6주차	일신라시대 선종의 철학자들 - 구산선문 (도의, 홍척, 혜철, 무염, 범일, 도윤, 현욱, 도현, 이엄)	먼저 선불교의 특징과 선불교 발달의 역사를 살펴보고, 한국불교에 영향을 준 홍주종을 공부한다. 그리고 구산선문을 시작한 도의, 홍척, 혜철, 무염, 범일, 도윤, 현욱, 도현, 이엄의 생애와 사상적 특징을 살펴본다.

7주차	고려시대 선종의 철학자들 - 순지, 이자현, 담진, 지눌, 혜심, 나옹, 보우	고려시대 선사상가들을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초기의 순지와 이자현, 담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이들과의 연속성에서 지눌과 그의 제자 혜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8주차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철학자들 - 진표, 도선, 혜초, 일연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던지며 수행했던 진표, 한국의 풍수이론을 세운 도선, 불교의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멀리 인도까지 가서 공부한 혜초, 한국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설화를 정리하여 후대에 남긴 일연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9주차	조선시대 불교 사상가들1 - 무학, 함허득통, 김시습, 보우, 휴정, 유정, 선수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불교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조선건국에 기여를 했던 무학, 유학자들의 비판 속에서 불교와 유교의 유사점을 이야기했던 함허득통과 불교적 사유에 긍정적이었던 김시습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후 탄압받던 불교의 부흥을 꿈꾸며 활동했던 보우,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참여해 불교의 위상을 높인 휴정과 유정과 반면에 승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지켜가려던 선수에 대해서 공부한다.
10주차	조선시대 불교 사상가들2 - 운봉대지, 백암성총, 백곡처능, 충의, 진묵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출가한 승려는 아니었지만, 불교 수행자로서 살아간 김대현의 생애를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조선 후기 주요 선사들인 운봉대지, 백암성총, 백곡처능, 충의, 진묵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출가한 승려는 아니었지만, 불교 수행자로서 살아간 김대현의 생애를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학습인정시간	30시간	총 영상시간	강의 영상 623분 부록 영상 약 45분
이수/평가정보			

1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한국불교 개관	교수자	지혜경
학습목표	- 부처의 다양한 이름들에 대해서 이해한다. - 팔상도를 통해 부처의 생애와 기본 가르침을 배우고 설명할 수 있다. - 불교의 기본교리인 연기법과 사성제를 이해하여 일상의 문제를 분석할 수 있다. - 한국에 전래된 불교의 기본 종파들에 대해서 공부하고, 역사적 변화과정에 대해서 이해한다.		
핵심어	팔상도, 사성제, 연기법, 화엄종, 선종, 천태종		
주요흐름	1. 석가모니는 누구인가 2. 팔상도로 알아본 부처의 생애 3. 불교의 핵심교리 4. 괴로움의 원인 5. 불교의 전래 6. 다양한 불교의 분파들과 한국불교		
읽기자료	마스터니 후미오, <불교개론>, 현암사		
학습요소	영상 63분 40초 기타학습요소: 토론(2문항), 퀴즈(2문항), 부록영상 1개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불교적 세계관을 적용해서 세상을 보는 것은 다른 관점들을 적용해서 보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 불교는 한국사람들의 세계관에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퀴즈1] 불교에서 인간의 삶이 고통임을 자각하고 그 고통을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제안하는 '사성제'는 무엇인지 모두 쓰시오.

답: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

[퀴즈2] 불교에서 '나'를 구성하는 '오온'은 무엇인지 다섯 가지를 모두 쓰시오.

답: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강좌내용

<Intro>

한국의 불교 철학자들 강의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이 강좌는 한국의 여러 철학자들 중에서 불교를 공부한 철학자들의 삶을 발자취를 따라 그들이 고민했던 문제들과 그들이 찾았던 불교적 해답을 탐색해보는 강의입니다. 본 강의에서는 한국의 여러 불교 철학자들 가운데에 28명 철학자의 이야기를 따라 여행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 1강에서는 여러 한국 불교 철학자들의 이야기를 따라가기에 앞서, 이들이 따르는 가르침인 불교를 석가모니의 삶과 사상을 통해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불교철학자들은 석가모니를 롤 모델로 삼아, 그의 가르침을 공부하며 깨달음을 얻고자 인생을 바꿨던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석가모니의 삶을 따라가며, 그의 문제의식과 깨달음의 내용을 살펴보고, 그의 철학을 남긴 주요한 철학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하겠습니다.

<석가모니란 누구인가?>

불교는 세상의 이치를 깨달아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을 추구하는 종교로, 석가모니 부처가 깨달음을 얻고 후 그 내용을 사람들에게 전달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석가모니에게는 여러 이름이 있습니다. 고타마 싯달타, 석가모니, 부처님, 여래, 세존. 고타마 싯달타가 그의 원래 이름이며 다른 명칭은 그가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은 뒤에 얻은 존경을 담은 호칭입니다. 고타마는 그의 성이고, 싯달타는 그의 이름입니다. 석가는 석가족, 모니는 성자 즉, 석가족의 성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국의 성자라는 표현 같은 것입니다. 한국어 발음으로는 석가모니이지만, 원래는 Shakyamuni라고 발음합니다. 부처는 깨달은 사람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부처, 佛, Buddha 합니다. ‘님’은 존경의 표시를 담은 접미사이구요. 불교에서는 누구나 붓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창시자인 석가모니 부처님, 석가모니불 말고도 여러 부처님이 있습니다. 아미타불, 비로자나불.. 등등. 지금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도 깨달음을 얻으면 부처라 불릴 수 있습니다. 여래는 이전 사람들이 수행했던 길을 경험하고 그 길을 따라 온 사람, 즉 부처의 가르침은 새롭게 만들어 낸 것이 아니라, 원래부터 있던 내용을 부처가 체험하고 알려준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세상에서 가장 존경할만한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석가모니 부처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요? 태어나고, 출가하고, 깨달음을 얻고, 그 내용을 알리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부처님의 이러한 생애를 한국불교를 비롯한 동아시아 불교에서는 여덟 개의 그림으로 표현하며, 이를 팔상도라고 합니다. 팔은 여덟, 상은 모습, 도는 그림입니다. 이 여덟 그림의 제목은 1)도술천에서 내려오는 장면. 2)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 3) 사대문 밖으로 놀러갔다가 삶의 문제에 눈을 뜨는 장면 4) 성벽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 5) 눈덮인 산에서 수행하는 장면 6)보리수 나무아래에서 마왕의 항복을 받는 장면. 7) 녹야원에서 깨달음의 내용을 이야기하는 장면. 8) 사라쌍수 나무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그러면 그림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번째, 도술천에서 내려오는 장면은 도술천에 계시던 부처님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세상에 내려온 것을 묘사한 것을 말합니다.

왜 도술천에 부처님이 계시다 이 세상에 내려오셨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의 세계관을 알아야 합니다.

불교는 전생과 윤회의 세계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생은 이전의 삶이며, 윤회는 계속 돌고도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 내가 이 세상에 인간으로 태어나기 이전에 다른 존재로 살던 삶이 있으며, 설혹 죽더라도 내가 이 세상에서 한 일을 바탕으로 다음 생애에 인간이든 다른 존재의 모습이든 또 태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기본적으로 탐욕의 세계로, 다양한 욕심 때문에 살아가고, 힘들어 합니다. 욕망으로 이루어지는 세계에는 또 여섯 가지 존재의 세계가 있는데, 지옥, 동물의 세계, 아귀의 세계, 아수라, 인간의 세계, 천상의 존재들이 사는 세계가 있습니다. 현재 세계에서 분노와 원한으로 다른 사람을 많이 해친 사람은 지옥 세계에 태어나며, 어리석은 행동을 많이 한 사람들은 동물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너무나 욕심을 내면 항상 배고픈

강좌내용

아귀 세계에 태어납니다. 아귀는 목구멍은 머리카락처럼 가느다란데, 배는 방하나만큼 커서, 먹어도 먹어도 배고픔이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항상 욕심을 냅니다. 시비거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싸우기 좋아하는 아수라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선한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은 인간 세상이나 천상의 세계에 태어납니다. 천상계는 고통이라는 것이 전혀 없는 세상이기 때문에 삶이 마냥 즐겁기는 하지만, 수행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깨달음을 얻어 자유로와질 수 없습니다. 오랫동안 즐겁게 살지만, 천상계에서 살다가 다음 생에서 천상계가 아닌 다른 존재의 세계에 태어날 수 있습니다. 반면 인간의 세계에는 고통이 있어서 삶의 진실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면서 수행을 하다가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어 이 윤회의 수레바퀴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습니다. 여섯가지 존재 가운데 인간으로 태어나는 것은 이처럼 수행해서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로와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존재의 세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태어나는 확률은 눈먼 거북이가 거대한 바다에서 떠다니는 나무토막을 만나는 것처럼 매우 어렵다고 합니다.

도솔천은 천상의 세계 중의 하나로 4000년의 수명, 인간세계의 시간으로 따지면 584,000,000년의 머무름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곳은 미래에 인간들을 구원할 미륵보살이 머무르는 세상으로, 미륵보살은 때가 되면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깨달음을 얻어 미륵부처가 되어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어 사람들이 윤회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게 돕는다고 합니다. 보살, Bodhisattva는 부처 이전의 단계로 바로 깨달음을 얻어 윤회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데, 다른 사람들이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자신의 깨달음을 보류시키고, 다른 이들의 깨달음을 돕는 존재를 말합니다. 당시 석가모니도 호명보살로 도솔천에 머물고 있다가 때가 되어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림에 보시면 하얀 코끼리가 보이시죠? 도솔천에 머물던 호명보살이 하얀 코끼리의 모습을 하고 어머니인 마야부인의 꿈으로 내려가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흰코끼리 꿈을 꾸 내용을 남편인 정반왕에게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이 꿈을 신기하게 여긴 왕과 왕비는 당시 뛰어난 꿈 해몽가에게 이 꿈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 해몽가가 말하기를 “이 아이는 앞으로 전 세계를 다스릴 훌륭한 왕이 될 것입니다. 만약 출가를 한다면, 위대한 성자가 될 것입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싯달타의 아버지인 정반왕은 자신의 아들이 자신이 뒤를 이어 왕위를 계승하여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출가를 하는 일을 막기 위해 아들이 궁전 안에서 살며 온갖 삶의 고민과 근심을 접하지 않고, 이 세상에서 즐겁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고 결심합니다.

두번째, 룸비니 동산에서 태어나는 장면입니다.

룸비니는 현재 네팔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처님의 어머니 마야부인이 아이를 낳으러 친정으로 가다가 산통을 느껴서 급하게 천막을 치고 부처님을 낳은 곳입니다. 아이를 낳기 위해서 근처의 나무가지를 잡았는데, 그 나무 이름이 무우수, 근심이 없는 나무라고 합니다. 즉, 아이가 이 세상의 고통과 근심을 없애기 위해 태어난 존재라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지요.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동서남북으로 일곱발자국을 걸은 후 한 손은 하늘을 향해 가리키고, 다른 한 손은 땅을 가리키며 다음과 같은 탄생의 시를 읊습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天上天下 唯我獨尊) 삼계개고 아당안지(三界皆苦 我當安之)” 하늘 위와 하늘 아래 오직 나 홀로 존귀하다.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괴로우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

일곱발자국을 딛었다는 것은 앞의 여섯 세계,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천상을 넘어서는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앞의 구절, 하늘 위 하늘 아래 나 홀로 존귀하다는 것은 전 세계를 통틀어서 자신이 가장 귀한 존재라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나’는 나 혼자만이 잘나고 귀하다는 것이 아니라, 나 뿐만 아니라 각각의 존재에게 있어서는 자신이 가치있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뒷부분이 “온 세상의 모든 이들이 괴로우니 내가 이를 편안하게 하리라.”는 것은 깨달음을 얻어 나 혼자 행복하게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이들의 마음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돕겠다는 것입니다.

태어난 아이는 아홉마리의 용이 나타나 물을 뱉어서 씻겼다는 <불설보요경>이라는 경전의 내용에 따라 여기에는 그 그림을 추가 되어 있습니다.

강좌내용

세번째, 사대문으로 놀러갔다가 삶의 문제에 눈을 뜨는 장면입니다.

아버지 정반왕은 왕자가 출가를 생각하지 않고 세계를 다스리는 위대한 왕이 되기를 바랬기 때문에 맛있는 음식들과 편안한 잠자리, 즐거운 일이 가득한 궁전에서만 살게 하였습니다. 그러다 29세 되던 해, 왕자는 시종인 찬나와 함께 궁궐 밖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궁궐밖으로 나간 첫 날, 쇠달타는 얼굴이 주글주글하고 등이 굽은 늙은 사람을 만납니다. 궁중에서 젊은 사람들과 어울리던 그에게는 그런 모습이 낯설었기에 찬나에게 묻습니다. “왜 저 사람은 주름이 많고 주글주글하며 허리가 굽었는가?” 시종이 대답하기를 “누구나 나이가 들면 저 사람과 같은 모습을 갖게 됩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늙음에 대해서 낯설었던 쇠달타는 이에 충격을 받습니다. 다음 날 이번에는 궁궐의 남쪽 문을 통해 밖으로 나갔던 쇠달타는 병자를 만나고 아픔의 고통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며칠 뒤 이번에는 서쪽문으로 나갔다가 장례 행렬을 만나게 됩니다. 죽음이 두려움을 느낀 그는 며칠동안 고민에 빠집니다. 지금은 즐겁게 살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이 온다는 것에 마음이 복잡해집니다. 그러다 며칠 뒤 북쪽문으로 나가보았는데, 거기에서 웃은 허름하지만 얼굴은 편안하고 행복해보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동안 늙음과, 아픔과 죽음의 문제를 마주하고 나서 죽음이 정해진 삶을 살아가야하는 한탄하며 우울해하고 있던 그에게 그 사람은 신기하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말을 겁니다.

“당신은 무엇하는 분이시길래, 그리 행복한 표정으로 짓고 계십니까? 우리 인간은 피할 수 없는 죽음의 운명을 타고 났고, 사는 동안에도 질병과 늙음으로 자유롭지 못하고 고통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이처럼 괴로움의 속박에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어떻게 평온하고 행복함을 유지할 수 있는지요? 비결이 있다면 말씀해주시요.”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나는 수행자입니다. 삶의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을 찾아 살고 있습니다. 당신도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면 저처럼 생로병사의 삶을 초탈하고 자유를 얻어 행복하게 사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수행자를 만나고 온 뒤 쇠다르타는 고민에 빠집니다.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족들을 버리고 집을 떠나야할까, 아니면 지금 이대로 살아야할까. 깊은 고민 끝에 쇠다르타는 조용히 집을 떠나 수행자의 길로 가기로 합니다. 이와 같이 그의 출가의 계기가 된 이야기를 사문유관이라고 합니다. 동서남북 네 방향의 성문밖으로 나갔다가 삶의 문제들을 당면하여 출가를 결심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만들어진 이야기로 조금은 극적이고 과장되어 있습니다만, 그의 출가가 인간의 근본적 문제, 늙고 병들고 죽는 문제에 대한 답을 찾고자 했던 것을 강렬하게 표현하고자 한 것입니다. 사실 그러한 극적인 사건들이 없었다 하더라도 쇠다르타는 삶과 죽음의 문제에 대해 깊이 고민될 만한 삶의 경험이 있었습니다. 비록 사랑을 받고 살아갔지만, 태어날 때 자신을 낳아준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죽음과 상실의 아픔을 경험한 것이지요. 왕자로 태어나 풍요롭게 살았지만, 쇠다르타가 태어난 나라 카필라국은 강대국인 마가다국과 코살라국 사이에서 있는 작은 소국이었습니다. 카필라국의 왕족인 석가족은 자부심이 대단하였으나, 소국의 왕자로서 고민이 많았겠지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삶의 근본적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 하는 고민을 갖게 되었고, 그는 모든 것을 버리고 답을 찾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문제에 맞닥뜨렸을 때 외면하거나 회피하기 쉬운데, 쇠다르타 왕자는 정면돌파하기로 용기를 낸 것입니다. 이를 “위대한 버림”이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출가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바로 네번째, 성벽을 넘어 출가하는 장면입니다. 쇠다르타 왕자가 출가할 것을 결심하자 여러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 그를 호위하며 궁전을 떠나는 것을 돕습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잠이 든 어린 아들과 아내 몰래 떠나기에 슬픔이 밀려왔으나 왕자 쇠다르타는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는 돌아오지 않으리라 굳게 맹세하며 떠납니다.

그렇게 출가한 이후에 수행을 하는 모습을 그린 것이 다섯번째 “눈덮인 산에서 도를 닦는 장면”입니다. 이 그림을 보시면 출가해서 머리를 깎으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앞에 보시면 머리 깎는 것을 만류하는 아버지의 신하의 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쇠다르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머리를 깎습니다. 그렇게 출가를 했다는 이야기를 아버지의 신하가 어머니처럼 길러주신 그 이모님과 왕자의 부인에게 전하고, 그 얘기를 듣고 두 분이 슬퍼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강좌내용

그리고 옆에 명상하고 있는 수행자의 모습이 보이지요? 깊은 명상 수행을 위해, 몸과 관련된 욕망들을 이겨 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의 기본 욕망인 식욕, 성욕, 수면욕을 제어하기 위해 수행자 싯다르타는 음식을 조금씩 먹으며 6년동안 고행을 합니다. 처음에는 배고픔을 달랠 정도로 먹다가 나중에는 겨자씨 하나만 먹는 집중 고행 수행을 합니다. 오랜 고행 끝에 기력은 딸리고, 몸은 비쩍 말라서 사람 같이 보이지 않았습시다. 이 때 그 앞을 지나가던 수자타라는 이름의 여인이 수행자 싯다르타를 발견하고, 나무의 신인줄 알고 우유죽을 드렸다고 합니다. 그러나 싯다르타는 우유죽을 먹는 행위는 고행을 포기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거절하려고 했으나, 그 때 악사의 노래 소리가 들렸습니다. “줄이 팽팽하면 끊어지리 느슨하면 소리나지 않으리 줄을 알맞게 조여 아름답게 타리라.” 그 노래 가사를 듣고 지나친 욕망을 추구하면 수행의 의지를 내지 못해 깨달음을 얻지 못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지나친 고행도 몸을 망가뜨려 깨달음을 이룰 때까지 수행할 수 없게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수자타가 준 우유죽을 먹고 기운을 차려서 보리수 나무 아래에서 일주일간 깊은 명상의 상태로 수행을 하시다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 명상하는 가운데에 마왕 파순의 유혹을 받게 되는데, 이를 설명한 것이 여섯 번째 보리수 나무에서 마왕의 항복을 받는 장면입니다.

깊은 명상에 들어간 상태에서 깨달음이 바로 앞에 다가왔는데, 마왕 이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방해했는지에 여러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번개를 치게 만들기도 하고, 자신의 아름다운 딸들을 보내 유혹하기도 하고, 마왕의 군대를 데려와 괴롭히기도 합니다. 수행자 싯다르타는 이 모든 유혹과 괴롭힘을 물리칩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마왕 파순이 나타나 속삭입니다. “네가 깨달을 수 있을 거 같아? 당신에게 그런 자격이 있을까?, 우유죽을 먹음으로서 수행자로서 이미 타락한 행동을 했고 또 이전에는 쾌락을 즐기던 왕자였는데 당신이 그걸 과연 할 수 있을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무언가 성취하기 바로 전 우리는 이러한 자기 의심과 회의를 하곤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파순의 속삭임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에 파순이 증명하라고 하자, 땅을 손 끝을 대니, 땅이 갈라지면서 나무 신이 나타나서 “이분은 깨달음을 얻으실 분이다”라고 증언합니다. 이에 마왕이 항복하게 됩니다.

여기서 마왕의 유혹과 속삭임은 바깥의 괴물이라기 보다는 심리적 갈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스스로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그리고 본능적 욕망에 따라 편히 살고 싶은 마음들을 극복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마왕을 항복시키고 얻게 된 깨달음의 내용은 모든 것이 서로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연기법과 그 깨달음의 내용이 완전히 새로운 것이 아니라 이전에 깨달은 사람들이 갔던 길, 고도 있음을 알게 됩니다. 연기법은 뒤에서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그것은 깨달음을 얻고 나서 부처님은 일주일간은 그 기쁨을 즐기시고, 다른 이들에게 이 내용을 알려야겠다고 생각합니다. 누구한테 얘기를 할까 고민을 하다가 부처님은 이전에 고행수행을 함께했던 5명의 친구들을 떠올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있는 녹야원, 사슴공원으로 갑니다. 그에 대한 이야기가 일곱 번째 장면인 녹야원에서 깨달음의 내용을 알리는 장면입니다.

녹야원에 있던 다섯명의 수행자는 부처님이 나뭇대로 깨달음을 얻어서 자기들을 만나러 온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처님을 만나야할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고행을 중간해 포기한 타락한 수행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부처님의 모습을 보니까 얼굴이 빛나면서 뭔가 달라진 모습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한번 이야기를 들어봐야겠다라 생각하고 부처님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때 부처님이 말씀하신 깨달음의 내용이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뒤에서 불교 교리를 설명할 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처님이 가르침을 들은 다섯 명의 수행자는 감탄하며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해서 돌아가실 때까지 여기저기 돌아다니시면서 깨달음의 내용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십니다. 그러다 80세의 나이에 쿠시나가라로 향하시며, 여느 때처럼 가르침을 베풀고 사람들에게서 얻어온 음식을 먹었는데, 그 안에 상한 버섯이 있어서 식중독에 걸리십니다. 그래서 사리수 나무가 있는 숲에서 나무 아래에서 돌아가시게 됩니다. 돌아가시기 전, 제자들이 불교교단의 미래를 걱정하며 후계자를

강좌내용

누구로 해주실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묻자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를 등불로 삼아서, 진리의 가르침을 등불로 삼아서 열심히 수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법구경에서는 말합니다.

“나야말로 나의 주인이다. 달리 주인이 있으랴. 자신을 잘 조어할 때 사람은 진정 얻기 어려운 주인을 얻는다.”라고. 이것이 사라쌍수 나무아래에서 열반에 드는 장면입니다.

부처님의 생애를 그린 여덟 장면은 좀 과장된 면이 있지만, 불교적 세계관을 결합하여, 부처의 삶을 흥미롭게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부처는 인간이 살면서 겪을 수 밖에 없는 실존적 괴로움들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찾아 모든 것을 버리고 뛰어든 용감한 인간이었습니다. 그의 선택은 다른 존재들에 대한 자비심에서 시작해서, 깨달음의 내용을 다른 이들에게 알려주는 자비심으로 끝납니다. 이같은 부처의 생애이야기는 다른 위대한 불교 승려들의 삶의 이야기에서도 비슷한 모습으로 반복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다른 승려들의 생애를 이야기하면서 또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불교의 핵심교리>

이번 시간에는 불교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알아야할 내용들인 불교적 세계관과 연기법, 불교에서 말하는 네 가지 성스러운 진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듯이 불교의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생과 현재 삶, 그리고 내생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계속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난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무엇이 이렇게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나게 할까요? 그건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위입니다. 이 세가지를 합쳐서 업이라고 합니다. 내가 했던 생각과 말과 행동은 항상 흔적을 남기고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내가 누군가를 칭찬을 하면, 좋은 답례의 말을 들을 수 있고, 누군가를 헐뜯으면 상대가 나를 미워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행동은 그에 대해 결과가 있게 되고,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우리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그 책임을 지기 위해서 이 세상에 자꾸 태어나게 됩니다.

태어나서 살다가 늙고 병들어 죽는 과정은 마냥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많은 괴로움을 겪습니다. 왜 겪는지도 모르는 괴로움들을 전생의 업 때문에 겪기도 하고, 비슷한 괴로움들을 계속 반복합니다. 이러한 반복을 끊고 다시는 윤회의 세계에 태어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원한 안식과 행복한 상태에 머물게 되는 것이 해탈입니다. 불교는 해탈을 목적으로 합니다.

해탈을 열반이라고도 하는데, 산스크리트어로 니르바나라고 하며, 그 의미는 모든 고통을 다 태워없애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반은 두 가지로 나눕니다. 살면서 겪게되는 여러 마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진 상태와 그런 상태에서 죽음을 맞이해서 더 이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탈할 수 있을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부처님이 수행을 하였고, 그로 인해 알게된 것이 연기법과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연기법은 조건지어 일어난다는 것으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혼자 갑자기 생기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나 주변 조건들과 함께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아함경에서는 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이것 있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있고 이것 생김에 말미암아 저것이 생긴다.

이것 없음에 말미암아 저것이 없고 이것 멸함에 말미암아 저것이 멸한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은 1차적으로는 제가 강의를 찍어서 K-mooc에 올렸고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기로 결정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제가 강의를 올리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이 강의를 들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Kmooc 서버가 문제를 일으켰다면 어떻게 될까요? 강의를 들을 수

강좌내용

없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 강의를 지금 듣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 뿐만 아니라 주변 조건들, Kmooc의 서버가 문제없이 작동하고 있고, 여러분의 컴퓨터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사과를 그냥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사과씨를 심고, 햇빛과 비 등 여러 조건들이 사과가 열릴 때까지 도움을 주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사과씨를 심지 않았거나, 사과나무가 자랄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우리가 딸 수 있는 사과가 열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존재하는 것은 다른 것들에게 의존해서 생겨나고 사라진다는 것이 연기법입니다.

이러한 연기적 사유에 의거해서 생각해볼 때, 우리가 살면서 겪게되는 괴로움들은 그냥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인이 있을 것임을 알 수 있고, 당연히 그 원인을 없애버리면 고통의 상황이 영원히 해소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가르침입니다.

사성제란 네가지 성스러운 진리로, 괴로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에 대한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성제, 집성제, 멸성제, 도성제를 말하며, 고성제는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 집성제는 괴로움의 원인은 집착이다, 멸성제는 괴로움은 소멸할 수 있다. 도성제는 괴로움을 소멸하는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집성제는 고성제의 원인이 되고, 고성제는 집성제의 결과입니다. 도성제는 멸성제의 원인이 되고, 멸성제는 도성제의 결과가 됩니다. 이들은 이처럼 인과관계를 이룹니다. 그러면 각각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괴로움은 그 속성상 세가지로 나눕니다. 고고는 괴로운 경험, 그 자체가 고통인 경우를 말합니다. 몸이 아픈 것은 그냥 그 자체로 아프고 괴로운 것입니다. 목마름, 배고픔, 스트레스는 괴로움입니다. 너무나 싫어하는 사람과의 만나기 싫은데 자꾸 만나게 되는 것 괴롭지요. 너무 사랑하는 사람인데 다시는 못 만나게 되면 너무나 괴롭지요. 꼭 갖고 싶은 것인데, 어떤 수를 써도 가지지 못하면 괴롭지요. 그게 고고입니다.

괴고란 영원히 그 모습 그대로일 것 같은 것이 파괴되고 사라져서 오는 괴로움입니다. 언제나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길 바라지만, 시간이 흐르면 그 아름다운 모습은 부서지고 늙습니다. 이 변화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 젊고 아름다운 모습을 유지하려고 하면 더욱 괴롭지요. 사랑했던 강아지가 영원히 함께하면 좋겠지만, 늙어가며 이전의 생기를 잃어가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다 죽음을 맞이하여 사라지면 너무나 슬픔니다. 튼튼한 집이 지진으로 무너지거나, 부자였던 사람이 재물이 사라져 가난해지거나. 좋았던 것, 즐거웠던 것이 사라져서 느끼는 고통이 괴고입니다.

행고는 만들어진 것의 괴로움이라는 것으로, 우리 존재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 죽게 되는 그 과정 자체가 괴로움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궁극적인 괴로움으로 바로 아래 나와있는 오온이 괴로움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온이란 불교에서 이해하는 인간존재, 나 입니다. 보통 우리는 “나”는 몸과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교는 이를 좀 더 세분해서 다섯 가지로 나누어 나를 오온, 다섯 요소의 무더기라고 합니다 (색온, 수온, 상온, 행온, 식온). 특히 영혼에 해당되는 부분을 영혼 하나로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의 정신작용을 세분하여 이야기합니다.

색온은 물질적 부분으로 나의 몸에 해당됩니다.

수는 느낌, 감정입니다. 좋은 느낌, 싫은 느낌, 좋지도 싫지도 않은 느낌을 말합니다. 우리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코로 냄새 맡고, 입으로 맛을 보고, 피부의 감각을 통해 부드러움 거친 것 같은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맛을 볼 때 좋다, 싫다 같은 느낌을 갖습니다. 이 느낌은 주관적입니다. 하나의 음식을 맛볼 때도 어떤 사람은 맛있다고 하고 다른 사람은 맛없다고 합니다. 또한 나의 몸상태에 따라 즐겁게 듣던 음악이 좋게 들리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상은 지각 작용입니다. 감각들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바탕으로 무엇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무 그림을 보고 나무인지 아는 것입니다. 대상이 무엇인지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행온은 의지작용으로 그 대상에 대해 갖고 싶은 마음을 내거나 피하고 싶은 마음을 내는 것입니다. 욕구, 욕망을 행온으로 보시면 됩니다.

강좌내용

식은은 우리가 보통 마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수, 상, 행의 내용을 통합하여 판단합니다. 이 마음에 대해서 이후 불교에서는 자의식과 업을 모두 저장해 두는 무의식으로 세분해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마주했을 때, 우리의 사과를 보고, 냄새맡고, 만지며 사과에 대한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이에 대해 좋다, 싫다, 좋지도 싫지도 않다고 느끼는 것이 수입입니다. 그 데이터들을 바탕으로 사과라는 것을 알게 되는 건 상의 작용입니다. 사과의 달콤함에 먹고싶다는 의지작용을 내게 됩니다. 그게 행은입니다. 식은은 이 모든 과정에서 수상행의 내용들을 종합하고 판단합니다. 일단 사과를 알기 위해서는 나와 바깥의 대상을 인지해야하는데, 이것은 식은의 작용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물질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나의 몸을 통해 대상과 접촉하게 되면, 수온, 상온, 행온이 작동하여 사과라는 것을 알아내고 먹고싶다는 의지작용을 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사과가 먹어야 되는 사과인지, 사과를 어떻게 먹어야할지 식은이 판단합니다. 사과가 가게에 전시된 것이라면, 이를 위해 돈을 지불하고 사야 한다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고, 과수원 땅에 떨어진 벌레 먹은 사과를 보고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분별하고 판단하는 것이 식의 작용입니다. 우리는 이 식은을 마음이라고 생각해서, 마음이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여러 작용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지만, 불교는 식은이 주도적 역할을 하긴 하지만, 하나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고, 몸, 느낌, 지각, 의지 작용과 함께 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나의 몸과 나의 정신 중에서 정신 부분을 ‘나’라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독립적인 ‘나의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모든 경험들을 ‘나’를 중심으로 재구성합니다. 내가 밥을 먹고, 내가 옷을 입고, 내가 좋아하고, 내가 싫어하고, 나를 아프게 하고. 그러나 불교적으로 보면, 원래는 밥을 먹는 행위가 있고, 옷을 입는 행위가 있고, 좋아함이 있고, 싫어함이 있고, 아픔만이 있으며, 그러한 작용들을 ‘나’를 중심으로 연결시켜 생각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불교에서는 독립적이고 영원한 나라는 존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도 사람들은 ‘나’라는 영혼, 아트만이 있어서 몸은 죽어도 나의 영혼이 계속 다른 몸을 받아서 태어난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불교가 말하는 ‘나’가 없다는 것은 이러한 영원 불멸의 영혼이라는 것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매 순간순간 다섯요소들이 모여서 작용하는 것을 나라고 생각하는 것뿐입니다. 나는 독립적인 영혼처럼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대상세계와 마주하는 관계 속에서 대상과 나를 구별지으며 나를 인지하고, 여러 정신 작용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몸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 없으며, 느낌은 내가 아니며, 지각도 내가 아니며, 의지작용도 내가 아닙니다. 분별하고 의식하는 마음을 나라고 생각하지만, 이것도 내가 아닙니다. 마치 자동차를 분해해보면 엔진, 바퀴, 핸들 등 다양한 요소들로 쪼개어 볼 수 있고, 이 요소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자동차라 불리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요소들을 다 쪼개어 분해해버리면, 더이상 자동차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물질적 요소와 감수작용, 표상작용, 의지작용, 분별하는 의식이라는 다섯요소가 유기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나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오온이 괴로움일까요?

오온을 통해 세상을 접하면서 다양한 괴로움들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색은, 몸으로 인해서 목마름, 병듦 등의 괴로움을 겪고, 수온으로 인해서 좋고 싫음의 느낌이 있어서 싫은 것을 피하고 싶으나 피하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고, 상온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잘못된 관념, ‘사람들은 나를 버릴꺼야’ 같은 관념으로 괴로움을 겪고, 행온으로 인해서 내가 하고싶은 것을 하지 못하는 좌절을 경험하게 되며, 식은의 분별과 판단,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라는 판단 같은 것으로 괴로움 속에 빠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온이 모든 괴로움 가운데에서 근본적인 괴로움이라고 합니다.

괴로움이 성스러운 진리인 이유는 삶의 괴로움들을 수용하고 인정할 때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와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괴로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불교에서는 갈애, 애착, 어리석음을 원인으로 봅니다.

강좌내용

갈애는 목마른 사람이 물을 찾는 것처럼 좋아하고 강하게 원하는 마음입니다. 강력히 바라는 것을 얻지 못할 때 괴롭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못 만나서 괴롭고, 미워하는 사람 만나서 괴롭고, 갖고 싶은데 가지지 못해서 괴롭습니다.

애착은 좋아해서 계속 가지고 있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존재가 영원히 함께하길 바라지만, 지금의 안락함이 계속되길 바라지만 시간의 흐름 때문에 변화하는 것을 잡을 수 없기 때문에 괴롭습니다.

어리석음은 영원 불변의 '나'에 대한 애착입니다. 앞서 말했듯이 불교에서는 '나'를 오온의 조합일 뿐 우리의 의식이 만들어낸 착각이라고 봅니다. 근데 영원불변의 '나'가 있다고 생각하게 되면, 사랑받고 싶고, 이것저것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실망하고 아프게 됩니다. 나는 언제나 젊고 건강한 상태로 영원히 살고 싶은데, 늙고 병들고 죽게 되니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영원불변의 나라는 것이 착각이라고 보게 된다면, 굳이 타인으로부터 사랑받지 않아도 상관없고, 내가 없으니 내 것을 가지지 않아도 괴롭지 않고, 내가 이루고자 했으나 이루지 못했을 때도 많이 괴롭지 않습니다.

몸의 아픔도 그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흘러가는 것인데,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게 되면 그 아픔도 크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명상할 때 오래 앉아있으면 다리가 저립니다. 그런데 다리 아픈 것에 계속 신경 쓰면 그 통증이 크게 느껴지지만, 집중하고 있던 호흡에 집중하면, 통증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갈애, 애착, 나에 대한 잘못 알고 애착하는 어리석음으로 인해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 삶을 반복합니다. 이것이 집성제, 괴로움을 일으키는 애착에 관한 성스러운 진리입니다.

고통의 원인이 어리석음, 애착, 갈애 이기 때문에, 이 집착의 원인들을 사라지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처럼 괴로움의 원인을 소멸하여 마음이 편안해진 상태를 열반, 해탈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멸성제, 모든 괴로움이 소멸된 성스러운 진리라고 합니다.

멸성제는 부처가 제시하는 길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것이 도성제, 괴로움을 소멸시키는 길의 성스러운 진리이며, 구체적으로 팔정도, 여덟가지 바른 길이라고 합니다. 여덟가지 바른 길은 정견,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합니다.

정견이란, 바르게 아는 것으로 앞서 말한 사성제에 대해서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괴로움이 무엇인지, 왜 괴로운 것인지, 괴로움을 없앤 상태는 어떤 것인지, 괴로움을 없애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해서 잘 아는 것이 정견입니다.

정사유란 바르게 생각하기로, 번뇌의 속박에서 벗어난 생각, 분노나 악의가 없는 생각, 남을 해치지 않는 생각을 말합니다. 번뇌라는 것을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온갖 부정적인 생각을 말합니다. 편견도 될 수 있고, 트라우마도 될 수 있고, 지나치게 갖고 싶은 마음도 될 수 있습니다. 인종차별적 생각, 성차별적 생각이라든가, 어떻게든 성공을 하기 위해 남을 해치는 생각 같은 것은 바르지 않은 생각입니다.

정어는 바르게 말하기로, 거짓말 하지 않고, 남들 이간질시키는 말 하지 않고, 거친 욕설하지 않고, 쓸데없이 허황된 말 하지 않는 것을 바르게 말하기로 합니다.

정업은 바르게 행동하는 것으로 살생하지 않고, 도둑질하지 않고, 음란한 짓 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정명이란 바르게 생활하기 입니다. 바르게 생활한다는 것은 남을 해치지 않는 일로 생계를 꾸려간다는 것입니다. 즉, 남을 속이는 일, 남을 해치는 일, 남을 괴롭히는 일로 돈을 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정정진이란 바르게 노력하는 것으로 아직 생기지 않은 나쁜 마음이 일어나거나 아직 하지 않은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좋은 생각과 좋은 행위를 항상 하려고하는 끊임없이 노력하는 것을 말합니다.

정념이란, 바르게 알아차리는 것으로 매 순간 일어나는 몸의 움직임과 느낌들, 마음의 여러 생각들, 그리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습관적으로 움직이고, 습관적으로 반응합니다. 그 습관들을 알아차리는 게 정념입니다.

강좌내용

정정은 바르게 집중하기입니다. 내가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정정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를 하기로 했다고 하면, 자료를 검색하다가 유튜브를 보는 게 아니라 다시 공부로 돌아와 집중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집중하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평온해집니다.

이 여덟 가지를 제대로 지키면 해탈의 길에 이를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할까요? 먼저 바른 견해를 통해서 내가 지금 고통속에 있으며, 이를 해결해서 자유로워지는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올바른 시각을 가지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이에 맞는 직업을 갖습니다. 불교에선 남을 해치지 않는 것을 중요시 하는데, 이는 남을 해치는 생각, 말, 행동, 직업들이 결국은 나를 해치는 결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존재는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행위에는 항상 결과가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와 함께 매 순간순간 나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알아채고, 그 습관 속에서 고쳐야 할 것들을 고쳐가며,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서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부정적인 말을 하고 날선 말을 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면 이에 대해 부정적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알아차림을 통해서 그 습관들을 고쳐가고, 집중해야 할 것에 집중하면 나를 괴롭히는 많은 부정적인 굴레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는 삶 속에서 겪게 되는 여러 괴로움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방법을 찾아 인생을 바쳤고, 자신이 깨달은 내용을 사람들에게 알려주고자 했습니다. 우리 삶의 괴로움들을 인정하게 도와주고, 괴로움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제거하고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의 가르침은 인도를 넘어서 아시아 전역으로, 현재는 전 세계로 퍼지게 됩니다.

한국불교 개관

<불교의 전래>

불교는 인도에서 시작하여 중국을 거쳐 4세기 후반에 한국에 전해집니다. 불교가 한국에 전해질 당시에 한국은 세 나라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고구려는 한반도의 북쪽에 위치하여 중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었으며, 백제는 한반도의 남서쪽 지역으로, 서해바다를 끼고 중국과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신라는 한반도의 남동쪽 지역으로 고구려나 백제를 거치지 않고 중국과 직접적 교류가 쉽지 않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지형적인 이유로 불교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서대로 전해집니다. 372년 고구려 소수림 왕 때 전진의 승려 순도가 불교 경전과 조각상을 가지고 고구려에 오게 됩니다. 당시 전진의 왕이었던 후진왕이 고구려에 사신을 보내며 불교도 함께 전달해준 것입니다. 384년에는 인도의 승려 마라난타가 동진을 거쳐 백제에 도착하여 불교를 전파합니다. 당시 왕이었던 침류왕이 마라난타를 환영하며 궁전에 머물게 했다고 합니다. 이후 백제의 아신왕은 행복한 삶을 위해서 불교를 믿어야 한다는 법을 선포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6세기에 성왕때는 일본 야마토 왕실에 불상과 불교 경전을 전해주면서 불교를 일본에 전파합니다.

고구려 백제와 다르게 신라에는 불교가 늦게 전파됩니다.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고구려 승려 아도가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그는 신라의 모례라는 사람의 집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하루는 공주가 아픈데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치료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에 아도는 공궐로 찾아가 공주의 병을 낫게 하였고, 공주의 아버지였던 미추왕이 공주를 치료해준 아도에게 소원을 묻자, 아도는 불교 사찰을 짓게 해달라고 해서 불교사찰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불교를 전파했으나 미추왕이 죽은 이후에 기존의 종교, 무속의 사제들이 아도를 공격하였고, 아도는 어느 날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6세기 법흥왕 때, 법흥왕은 불교사찰을 짓고 불교를 공식종교로 인정하고 싶어 했는데, 신하들의 반대에 부딪히게 됩니다. 이 때 법흥왕의 충직한 신하였던 이차돈이 혼자 찬성하였고, 다른 신하들이 그를 죽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러자 그는 죽기 직전에 만약에 부처님이 계시다면 자신이 죽은 뒤에 신기한 일을 보여주실 것이라고 말하고 처형을 당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그의 목이 베어 떨어지는 순간, 붉은 피 대신 흰색 피가 높이 솟아올랐고, 그의 머리는 금강산으로 날아갔으며,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그 광경을 본 신하들은 놀라고 겁먹었고, 법흥왕은 불교를 공식종교로 인정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불교는 이처럼 왕실과 귀족에게 먼저 전해졌고, 이후 왕권을 강화하는 데에 도움을 줍니다. 국가보호를 위한 여러 불교 의례를 통해 백성들을 하나로 통합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불교는 한반도의 사람들에게 이전과는 다른 새로운 세계관, 윤회적 세계관을 제공해주었습니다. 이전의 세계관에서는 산자의 세계인 이승과 죽은 자의 세계인 저승만이 존재하며, 한번 죽은 이는 다시는 이 세상에 태어나거나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불교의 세계에서는 이승을 떠나 저승으로 간 이들이 이 세상에 다시 태어날 수 있었고, 그것을 설명해주는 게 업설이었습니다. 업설은 선한 행동을 한 이는 좋은 결과를 받고, 악한 행동을 한 이는 나쁜 결과를 받는다는 가르침과 전생의 업 때문에 이 세상에 태어났으며, 현재의 생에서의 행동에 따라 다음 생의 삶도 결정된다는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처럼 불교는 당시 사람들에게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을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불교의 분파들과 한국불교>

7세기에 이르러 신라가 고구려, 백제, 신라를 통일한 뒤에 불교는 학문적으로도 문화적으로 융성하게 됩니다. 많은 경전들과 다양한 이론들이 통일신라 시대 때는 전해지고, 신라의 불교로 발전하게 됩니다. 이 당시에는 또한 불교가 일반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한국에 전파된 불교는 대승불교라고 합니다. 동아시아 불교전통에서는 불교를 소승불교와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소승이란 작은 수레를 의미하며, 대승은 큰 수레를 의미합니다. 소승은 수행하는 사람의 해탈과 깨달음을 강조하기 때문에 깨달음의 세계로 이끄는 작은 수레 같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며, 대승은 수행하는 사람만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 불교에서는 중생이라고 부르는 모든 생명을 가진 존재도 깨달음의 세계로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가르침을 많이 담고 있기에 큰 수레 같은 가르침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대승불교권에 속해서 대승불교가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시아에서 통용되는 불교 분류법입니다. 그러나 현재 서양권에서는 상좌부불교, 즉 전문 수행자 집단을 중심으로 엄격히 계율을 지키는 불교와 좀 더 대중적인 대승불교로 나눕니다. 보통 상좌부불교는 서남아시아 지역의 불교가 해당되며, 대승불교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불교를 말합니다.

불교에는 많은 분파가 있습니다. 마치 철학에서 현상학, 실존주의, 해석학, 독일관념론 등이 있는 것처럼, 불교도 아비달마불교, 중관불교, 유식불교, 밀교, 정토종, 화엄종, 천태종, 선종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 아비달마 불교, 중관불교, 유식불교, 밀교, 정토종은 인도에서 시작된 학파이며, 천태종, 화엄종, 선종은 중국에서 시작된 종파입니다. 아비달마불교는 석가모니 부처가 말한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대상을 분석적으로 깊이 있게 탐구하는 학파입니다. 그러나 중국을 비롯한 동아시아에서는 인기가 많지 않았습니다.

중관불교는 가운데 중, 불 관, 이라는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양 극단이 아닌 중도적 입장에서 세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인도에는 사람에게는 변하지 않는 영혼이 있어서 같은 영혼이 언제나 윤회한다는 견해와 사람이 죽으면 아무 것도 없다는 견해가 있었습니다. 불교는 이 두 양극단의 견해에 대해서 중도의 입장에서 있었고, 중관불교는 이러한 중도적 견해를 따른다는 의미에서 중관불교라고 합니다. 불교의 설명에서는 사람에게는 불변의 영혼은 없으나, 연기의 법칙에 의해서 모였던 오온이 모여 한 인간으로 존재했다가, 인연이 다하여 오온이 흩어지면, 그동안 쌓아온 업에 의해서 윤회를 하게 된다고 봅니다. 새로운 인연에 따라 새로운 오온이 모이기 때문에, 이전과 같은 불변의 영혼이 윤회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불변의 영혼이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또한 인간은 나와 남을 구분 짓고, 빛과 어둠, 옳고 그름의 이분법적으로 세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우리는 두 대립적 개념들이 독립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개체라고 봅니다. 빛은 빛이고, 어둠은 어둠이지요. 그런데, 중관불교에서는 이 둘이 분리되고 독립된 것이 아니라 서로 의존하여,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봅니다. 즉, 남을 분리했기에 나를 인식할 수 있는 것이고, 빛은 어둠이 있기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이고, 내가 옳다고 주장하니 그름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한 쪽도 절대적 실체가 없기에 공하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유식불교는 오직유, 의식식, 이름 그대로의 의미를 보면, 오직 의식 뿐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인식하는 세상의 실체는 오직 우리의 의식 뿐이고, 우리의 마음에 따라 세상은 다르게 보인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불교학과입니다. 강아지를 볼 때 어릴 적 개에게 물린 사람의 눈에는 무섭게 보이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의 눈에는 그냥 귀여운 강아지로 보인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은 우리의 경험과 업에 의해서 세상을 보게 하기 때문에 경험과 업에 의한 색안경을 쓰지 않고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의식을 깨끗하게 만드는 수행을 강조합니다.

밀교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으로, 불교 의례에 있어서 신비하고 주술적인 의례와 수행법을 가르쳐주는 학파로 지금 한국불교에는 흔적만 남아있고, 티벳불교와 일본불교에 그 전통이 많이 남아있습니다.

정토종은 인도에서 시작했지만,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더욱 발전하고 융성한 학파로, 개인의 수행을 강조하는 다른 학파와는 다르게, 부처님의 도움으로 윤회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학파입니다. 정토란, 깨끗하게 정화된 세계라는 의미로,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은 부처가 자신의 특별한 힘과 소망으로 누구나 깨달음을 준비할 수 있는 특별한 세계를 만듭니다. 가장 유명한 부처는 아미타 부처이며, 아미타부처가 만들고 다스리는 정토를 서방정토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있는 동안, 또는 죽는 순간이라도 아미타부처의 이름을 간절하게 부르면, 아미타부처의 서방정토에 태어나서 하루종일 아미타부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하다 죽어서는 윤회의 수레바퀴에서 자유롭게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미륵부처의 정토사상이 있고, 정토사상은 통일신라시대 때 귀족 뿐만 아니라 평민계층에게도 널리 퍼집니다.

천태종은 법화경이라는 대승불교의 경전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종파로, 중관불교를 창시한 용수스님에서 시작했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6세기 남북조 시대의 혜문스님에게서 시작하여, 수나라 때 지의 스님 때 융성하였습니다. 지의 스님이 나중에 중국천태산에서 수행하였기에 천태종이라고 부릅니다. 법화경이란 깊은 진리를 담은 연꽃과 같은 경전이라는 의미로, 모든 경전의 왕으로 불리는 경전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내용과 모든 불교의 가르침들은 모두 부처가 되는 길을 알려주고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에 의지하여 천태지의 스님은 그 당시까지 소개된 모든 불교의 교리와 수행법을 하나의 정리된 체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래서 경전을 공부하는 것과 명상수행 하는 것을 함께해야하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모든 존재들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는 것처럼, 지옥에도 부처의 세계가 있고, 부처의 세계 안에도 지옥도 있으며, 나아가 우리의 한 찰나의 생각에 온 우주가 들어있다고 보았습니다. 한국에는 고려시대에 의천스님이 중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후 한국천태종을 시작하였습니다.

화엄종은 화엄경이라는 대승경전의 가르침을 최고의 가르침이라고 믿는 종파로 6세기말 두순스님에서 시작하여, 지엄스님을 거쳐, 당나라 법장스님 때 융성했고, 지엄스님에게 배운 의상스님을 통해 신라시대 때 한국에 전해진 후 한국불교의 주류 학파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화엄경은 크고 바른 깨달음을 얻는 자, 즉 부처를 꽃으로 꾸미는 경전이라는 의미로, 부처가 깨달은 경지에서 보는 세계의 모습과 깨달음에 이르게 하는 수행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후에 제일 먼저 설한 경전이라고 전통적으로 이야기 되어 왔으나, 역사적으로는 훨씬 후대에 만들어진 경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화엄경에서 말하는 부처가 깨달은 경지에서 보는 세계는 각각의 존재들이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닌 우주의 모든 존재는 아주 복잡한 인연으로 연결되어 존재하는 세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를 인드라마, 인드라의 그물을 통해 설명합니다. 인드라는 원래 인도의 천둥번개의 신으로 불교에서 받아들여 불교의 수호신으로 삼았습니다. 인드라 신이 거대한 그물을 가지고 있는데, 그물의 각 그물코에는 투명구슬이 달려 있어서, 서로 서로를 각자의 구슬에 비추면서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모든 존재는 서로 서로 거미줄처럼 복잡하게 연결되어 존재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세계관을 화엄종은 강조합니다. 나아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부처의 본성을 가지고 있고, 부처의 본성이 인연을 만나 다양한 모습을 가지게 된 것으로 봅니다. 마치 물을 담은 그릇에 따라 물의 모양이 바뀌지만, 그 안에 담긴 것은 모두 물인 것처럼 말입니다.

강좌내용

선종은 선불교라고도 하는데, 선, 명상 수행을 중시하는 종파를 말합니다. 전통적으로는 석가모니 부처가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줄 때 연꽃을 들고 그냥 미소지었는데, 여러 제자 가운데에 마하가섭만이 빙그레 미소를 지으면서, 부처님의 가르침을 받은 데에서 시작해서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으로는 중국에서 발생한 학파입니다. 언어적 표현이나 경전의 문구해석에 매달리기보다는, 명상 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중시합니다. 깨달음의 체험은 언어를 통해서 그대로 전달할 수 없으며, 조금씩 왜곡되기 때문에 직접 체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 간에 깨달음의 내용을 언어가 아닌 마음에서 마음으로 직접 전합니다. 나아가 깨달음의 내용을 전형적인 언어적 표현을 넘어서서 표현할 것을 강조합니다. 선종은 신라시대 때 한국에 전해졌고 그 이후 한국 불교의 주류학파로 자리잡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한반도에 전해진 다양한 불교 학파들 중에서 고려, 조선을 거쳐 현재까지 남은 것은 선종이지만, 교리적 측면에서는 화엄종이 한국불교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고려시대 때 한국불교는 국가의 관리 속에서 국가종교로 뿌리내렸습니다. 승려는 승려를 위한 과거시험인 승과를 통해 국가의 관료로 일하였으며, 최고의 자리인 왕사와 국사가 되어서 단지 왕의 스승이 아닌 국가의 스승으로 존경받았습니다. 하지만, 고려시대 말 새롭게 등장한 성리학자들에게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거해야 할 병폐로 인식되면서, 새로운 왕조인 조선시대에 이르러서는 국가로부터 탄압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승려수가 제한되고, 승려의 도성 출입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때 불교의 여러 학파들은 수행을 하는 선종과 경전 공부를 중시하는 교종의 두가지로 통합됩니다. 이처럼 조선시대에 불교는 정치적으로는 탄압을 받았지만, 한편으로는 성리학으로는 사람들의 종교적 욕구가 채워지지 않았기에, 여전히 중요한 종교로서 존재했습니다.

<소개할 사상가들>

한국불교에서 가장 잘 알려진 철학자는 원효, 지눌입니다. 하지만, 그 두 사람 외에도 많은 불교 철학자가 있습니다. 본 강좌에서는 다양한 불교 철학자들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선 불교 전래 초기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그곳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승랑과 원측, 중국유학 후 신라로 돌아와서 통일신라의 기틀을 다지는데 도움을 준 원광과 자장을 소개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한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불교 철학자 원효와 앞서 살펴본 후, 화엄종, 천태종 선종의 주요 불교철학자들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 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한국 불교에 좀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2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유학생들	교수자	지혜경
학습목표	-승랑과 그의 중관 사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원측과 그의 유식사상의 특징을 이해한다. -원광이 말하는 세속오계와 그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신라의 불국토 만들기 작업에서 자장의 역할을 이해한다.		
핵심어	승랑, 원측, 원광, 자장, 불국토, 국가불교		
주요흐름	당시 중국으로 간 많은 유학생 가운데에 중국에 남아서 활동하던 승랑과 원측의 생애를 살펴보고, 승랑의 공부했던 중관철학, 원측이 공부했던 유식철학을 알아본다. 국내로 돌아온 유학생 중에서는 신라의 발전에 도움을 준 원광과 자장의 생애와 그들의 사상을 살펴본다.		
읽기자료	승랑, 원측에 대한 읽기자료 (<한국철학자료집 :불교편1>, 서울대학교 출판부)		
학습요소	영상 46분 58초 기타학습요소: 토론(2문항), 퀴즈(1문항), 부록영상 1개, 읽기자료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유학생들의 삶 속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 유학생으로, 또는 유학을 꿈꾸며 나는 무엇을 배우고 어떤 일을 하고 싶은가?

[퀴즈] ‘유식(唯識)불교’의 ‘유식’의 의미는 무엇인가?

답: 오직 ‘식(識)’만 있다는 뜻 (“오직 의식뿐”, “오직 마음뿐”)

강좌내용

<해외 유학 철학자들>

<인트로 1>

이번 강의에서는 중국에서 유학을 했던 승랑과 원측, 신라의 기틀을 잡는데 기여를 했던 원광과 자장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유학승들>

중국에서 불교가 전래된 이후 고구려, 백제, 신라의 많은 승려들은 가까이는 중국으로, 멀리는 인도까지 유학을 갔습니다. 고승전에 기록된 유학생이 30명, 중국 문헌에 기록된 통일신라시대 때 중국에서 공부한 승려만 117명이 됩니다. 그 중에 105명이 중국에서 선진불교를 공부하여 고국에 돌아와 고국 불교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고구려 승려 의연은 유식불교 계통의 한 학파인 지론학파에 대해서 공부하고, 불교 사찰과 교단의 관리법도 배워서 고구려 불교의 사찰관리 체계를 정비하였습니다. 신라 승려 자장은 중국의 의복제도를 신라에 소개하기도 하였습니다. 백제 승려 발정과 현광은 법화경을 공부하고 돌아와 법화경 신앙을 백제에 전달합니다. 신라 승려 의상도 중국에서 화엄종을 공부하여 신라에 화엄종을 세웁니다.

백제의 겸익은 당시 왕이었던 성왕의 후원으로 인도로 가서 불교 계율을 공부하고 돌아와 계율학의 전통을 세우고 계율을 통해 불교 교단을 정비했습니다. 백제에서는 계율학을 중시했기에 법왕이 불교의 기본 다섯가지 계율 가운데 첫번째 계율인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사냥과 낚시를 금지했습니다. 불교의 다섯가지 계율, 오계는 생명을 죽이지 않는 것, 남의 것을 빼앗지 않는 것, 거짓말 하지 않는 것, 잘못된 성적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술마시지 않는 것입니다. 계율에 대한 학문인 율학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불교 공부는 크게 계율을 지키는 것과 명상수행, 경전 공부로 나뉩니다. 그 가운데에 다른 무엇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는 것이 계율을 지키는 것입니다. 계율을 통해 잘못된 행동이 무엇인지 알고, 계율을 지킴으로서 잘못된 행동을 하지 않고, 나쁜 업이 쌓이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계율은 불교 수행자 집단을 구성하고 유지할 수 있는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불교의 경전은 부처님이 말한 경전, 부처님의 말씀에 대한 학자들의 글인 논서, 그리고, 계율에 대한 글, 이렇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후, 백제는 계율학의 중심지가 되어 일본의 승려들이 백제로 공부하러 오기도 했습니다.

중국에서 유학한 후 그곳에 머물면서 당시 중국불교 발전에 기여했던 학자들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우리가 살펴볼 승랑과 원측입니다.

<승랑>

승랑은 고구려 요동출신의 승려로 5세기에 중국으로 유학을 가서 당시 주류 불교학 중의 하나였던 삼론종의 이론을 정비했다고 합니다. 그는 폭넓게 공부하며, 깊이 사색하기를 좋아하여 경전을 잘 이해했으나 명상하기를 좋아하여 남긴 저술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의 생애나 사상에 대해서는 후대 삼론학의 승려인 길장이 남긴 간단한 기록들을 참고합니다. 승랑은 중국의 북쪽지역에서 삼론학을 배우고, 이후 강남지역으로 내려가서 초당사에 잠시 머무르며 삼론학을 잘못 이해하고 있던 사람들과 토론을 하며,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왔다고 합니다. 또한 유교와 도교를 공부한 주옹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후 남경에 있는 접산의 서하사로 옮겼는데, 당시 양나라의 왕이었던 무제가 승랑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뛰어난 승려 열 명을 뽑아서 서하사로 보내어서 그에게서 삼론학을 배우게 했다고 합니다. 제자들 가운데 승전이 뛰어났고, 그가 승랑의 삼론학에 대한 이해를 후대에 전합니다.

승랑이 공부했다는 삼론종은 중국의 중관불교로, 중관불교의 핵심적인 세가지 논서인 중론, 십이문론, 백론에 대해서 공부하는 학파였습니다. 중론은 중관불교의 창시자인 용수가 지은 책으로 모든 존재들이 불변의 실체가

강좌내용

없이 공하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으며, 용수가 지은 십이문론도 같은 주장을 하는 것이지만, 좀 더 핵심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글입니다. 백론은 용수의 제자인 제바가 지은 것으로 불교 이외의 가르침이나 불교 내부의 가르침 중에서 잘못된 것을 비판하고, 불교의 바른 가르침을 드러내는 논서입니다.

세가지 논서들이 다루고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듯이 삼론종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불변의 독립적 실체가 없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초기불교에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연기적으로 존재한다고 하였는데, 그 주장을 좀 더 심화시킨 것입니다. 나라는 존재, 컵이라는 물건, 개라는 존재, 모두 얼핏보기에는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나는 나, 컵은 컵, 개는 개로 만들어주는 어떠한 특별한 요소, 즉 실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까요? 1장에서 이야기했지만, 불교적 관점에서는 나라는 존재는 다섯 가지 요소들이 매 순간순간 결합되어 이어지는 것이라고 보지요. 이는 미시적 관점에서의 분석적 설명이고, 거시적 관점에서는 어떨까요? 내가 보기에 나와 개, 나와 컵은 아무런 관계도 없어보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존재가 이 공간에 있기 위해서는 나를 만들어준 부모님,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게 도와준 많은 이들, 내가 생명을 가진 순간부터 내가 존재하게 도와준 많은 음식물들이 있기에 내가 존재합니다. 그런 도움들이 없었다면 나는 존재할 수 없었겠지요. 그래서 나는 독립적 존재도 아니고, 나라는 실체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는 나를 존재하게 도와주고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연결되어 있는 다른 모든 존재의 영향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체가 없다는 의미에서 공이라고 합니다. 공이란 허공의 의미로, 허공처럼 텅 비어있다는 것입니다.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이전 불교학파들은 미시적 관점에서 설명한 반면, 중관불교는 이를 거시적 관점에서 설명하고 공이라는 개념을 사용해서 설명합니다. 미시적 관점에서 분석적으로 설명하게 되면 쪼개진 요소들은 또 실재한다고 생각하게 되기 때문에 중관불교는 이를 비판하면서 새로운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중국에 중관불교가 소개되었을 때, 초기 삼론종 사람들은 여전히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였는데, 승랑이 이 부분을 비판하면서 삼론종을 제대로 정립했다고 합니다.

공을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언제나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아니며, 실체가 있음과 없음의 중간의 입장, 중도를 취하기에 중관불교라고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지난 강의 때 이야기했습니다. 이처럼 중관불교는 어느 한쪽에 기울어져 집착하는 것을 배척하고 항상 중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승랑은 이러한 중관불교의 중도적 입장에서 기존 삼론종 사람들의 진리이해에 대해서 새로운 이해방식을 주장했습니다. 중관불교에서는 진리를 세속의 진리와 참된 진리로 나누어 봅니다. 세속의 진리란 언어로 표현된 우리 삶 속에서의 진리로, 이 진리는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달라지는 진리입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떨어뜨리면 아래로 떨어진다”는 것은 중력이 있는 곳에서는 진리이지만, 중력이 없는 곳에서는 진리가 아닙니다. “신분의 차이가 나는 사람과는 결혼해서는 안된다.”는 것은 과거 신분제 사회에서는 진리였겠지만, 현대사회에서는 진리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진리를 세상의 진리라고 합니다. 반면에 참된 진리란, 불교에서 말하는 진리들인 무아, 공, 사성제의 진리를 말하며, 언어를 사용하여 설명하고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지만, 언어로 그 의미를 완전히 전달할 수 없는 진리를 말합니다. 승랑 이전의 사람들은 이 두가지 진리는 모두 진리이기에 불변한다고 생각했는데, 승랑은 이를 비판하며, 두 진리 모두 중관불교 말하는 중도를 가르치는 방법일 뿐이기에 불변하는 것이 아니며, 실체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승랑은 실체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을 끊임없이 경계하는 중관불교학자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승랑은 고구려에서 중국으로 간 유학생이었으나, 당시 중국 불교철학자들의 이해를 앵무새처럼 따라 말하지 않고, 자신의 깊은 사색으로 더 나은 이해와 설명을 통해 삼론종의 선구자로서 삼론종 발전에 기여하였습니다.

<원측>

원측은 7세기 신라 왕족 출신의 승려로 세 살 때 출가를 하고, 열다섯 살 때 당나라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당나라 장안에 도착해서는 당시 유식불교 공부로 유명한 승려인 법상과 승변에게서 다양한 경전들과 유식불교를

강좌내용

공부했습니다. 언어적으로 매우 뛰어나서 산스크리트어와 티베터를 비롯해서 6개국어를 할 수 있었으며, 외국 승려가 왔을 때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정도로 뛰어났다고 합니다. 23살 때에는 깨달음을 얻었으나 지속적으로 다양한 경전들을 공부하였습니다.

원측은 삼장법사로 유명한 현장이 유학가기 전에 같은 스승 밑에서 공부하였고, 현장이 유학을 갔다 온 이후에는 그의 강의를 들으면서 그의 번역 작업에 함께 하기도 하였습니다. 현장은 유명한 소설 서유기의 모델이 된 스님으로, 실크로드의 육로를 따라 온갖 죽을 고비를 넘기며 인도로 유학가서 공부를 하고, 당시 인도에서 유행했던 새로운 유식불교의 서적들을 가지고 17년 만에 뱃길을 통해 중국으로 돌아옵니다. 당나라에 돌아온 후 그는 죽을 때까지 그가 가져온 유식불교에 관한 책을 번역하며, 새로운 유식불교에 대해 강의하며, 유식불교를 중국에 뿌리내리게 합니다. 현장을 삼장 법사라 부르는 이유는 불교의 경전의 세 분야에 대해서 모두 잘 알기 때문입니다. 삼장은 부처의 말씀을 기록한 경, 계율을 적은 책인 율, 학자들의 글인 논을 말합니다.

원측이 현장과의 번역사업에서 주로 맡았던 일은 번역된 자료를 감수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는 23부 108권에 달하는 방대한 저술을 남겼는데, 그의 유식불교에 대한 저술은 티벳, 신라, 일본에 전해져 영향을 끼쳤다고 합니다. 다양한 경전 공부 외에도 그는 명상수행도 게을리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끊임없는 노력에 의해 자신만의 유식학파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는 현장과 다른 유식불교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현장의 수제자 규기가 끊임없이 그를 견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송고승전의 기록에 의하면 현장이 새로운 유식불교에서 중요한 책인 성유식론과 인명소를 강의할 때, 원측이 문지기를 매수해서 몰래 듣고 이 책들에 대해 글을 쓰고 강의를 했다고 합니다. 이 기록에 대해서는 규기의 입장에서 쓰인 중상모략적인 글이라는 의견도 있으며, 이는 규기가 원측을 라이벌로 여기어 꾀박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당시에 학문적으로도 인품적으로도 유명한 불교 철학자였기에 당나라의 태종이 국가의 공식승려 신분증인 도첩을 주어 장안의 원법사와 서명사에서 거주하게 하였습니다. 원측은 거기에서 경전 공부를 하며 강의를 하였고, 잠시 종남산에서 머물다가 고종 때에 다시 서명사로 돌아와 유식불교에 대해 강의하였습니다. 측천무후는 심지어 그를 살아있는 부처처럼 존경하였고, 인도에서 승려들이 올 때마다 그를 초대하여 함께 했습니다. 위낙 원측을 아꼈었기에, 신라의 신문왕이 원측을 신라로 보내달라는 편지를 여러 번 보냈으나 거절했다고 합니다. 84세가 되던 해, 새로운 화엄경을 번역하고 강의를 준비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가 공부한 유식불교는 1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오직 의식뿐” “오직 마음뿐”을 주장하는 학파입니다. 인간이 세상을 바라볼 때는 바깥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합니다. 같은 바깥 세상이지만, 인간의 눈으로 보는 세상과 개의 눈으로 보는 세상, 곤충의 눈으로 보는 세상은 각각 다릅니다. 인간이 보는 빨간 사과는, 개의 눈으로 보면 흑백의 사과이며, 곤충의 눈으로 보면 사과의 모습이 아닌 여러 점들의 집합처럼 보입니다. 다른 감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듣는 소리와 개가 듣는 소리는 다릅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식하는 세상은 인간의 감각에 따라 인간의 의식에 그려진 현상의 세계입니다. 즉, 내가 인식하는 세계는 결국 내 의식 속의 현상의 세계라는 것이 오직 식이라는 것의 의미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식 수준에 따라서, 업의 영향에 따라서 세상을 세가지 모습으로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 세상을 자신의 편견과 경험에 의해서 봅니다. 이렇게 보는 세상을 변계소집성, “이리저리 계산하고 집착한 모습”이라고 합니다. 수행하는 사람들은 편견과 경험에서 좀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세상이 왜 그렇게 보이는지를 연기적으로 살펴봅니다. 이렇게 보는 세상을 의타기성, “다른 것에 의지해서 일어난 모습”이라고 합니다. 완전히 깨달은 사람을 세상을 있는 그대로 봅니다. 이를 원성실성, “완전한 실재 모습”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어두운 밤에 풀이 많은 숲길을 가다가 기다랗고 약간 물렁한 것을 밟았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뱀을 밟은 줄 알고 놀라서 도망칩니다. 그러다 아침에 그 자리에 가서 지난 밤에 밟은 것이 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러 갑니다. 그러다 뱀이 아니라 새끼줄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안심합니다. 뱀인 줄 잘못 알았던 모습이 변계소집성입니다. 다음날 다시 가서 뱀과 새끼줄이 서로 비슷하게 생겨서 오해한 것임을 아는 것이 의타기성입니다. 뱀이 새끼줄이라는 것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원성실성입니다. 하나의 세상을 어느 눈으로 볼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나의 의식을 얼마나 깨끗하게 하느냐에

강좌내용

따라 다르며, 나의 의식을 거울처럼 투명하게, 맑은 호수처럼 잔잔하게 유지하는 것이 유식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상태입니다.

이전 유식불교, 구유식불교에서는 있는 그대로의 세계를 보는 원성실성을 강조했지만, 원측은 새로운 유식불교, 신유식불교의 가르침을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곧 모든 것이 의존적으로 존재하는 의타기성의 세계와 다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서로 의존하여 존재하는 세계가 인간의 세계이며, 깨달음의 세계는 인간세계를 완전히 초월한 세계가 아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원측은 현장의 신유식불교를 공부한 규기와 깨달음의 가능성에 대해서 다른 주장을 하였습니다. 규기의 유식불교에서는 사람마다 각기 다른 수준의 깨달음을 이룰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즉,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처는 아니지만, 혼자 수행해서 불교적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소승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셋 중에 하나 중 무엇이 될 지 모르지만, 여하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씨앗을 가지고 있는 사람, 깨달음의 씨앗이 없는 사람으로 사람의 종류를 나눕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타고난 씨앗이 없다면 깨달을 수 없다는 신유식불교의 주장은 당시 신분제 사회가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원측은 모든 존재는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구유식불교에서 주장한 것으로 평등주의적 입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원측은 구유식불교와 신유식불교를 자신의 기준에 따라서 일관되게 종합하였고, 또한 중관불교와 유식불교를 대립적으로 보지 않고, 이를 서로 보완적으로 보았습니다.

<국가불교와 원광>

한국불교의 특징의 하나로 많은 학자들이 꼽아온 것이 국가 불교입니다. 국가불교란 국가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불교라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승려들은 왕실과 국가의 안녕을 위한 기도행사나 경전을 읽는 행사를 진행한다든지, 국가를 지키기 위해 전쟁터에 함께 가서 전쟁에서 승리하는 주문과 경전을 외운다든지, 실제 전쟁에 참여하기도 하였습니다. 국가의 안녕을 위해 주로 읽었던 경전은 인왕경으로 이 경전 내용 자체가 국가를 평안하게 하고 보호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불교, 또는 나라를 보호하는 호국불교의 전통을 세우는데 크게 기여한 사람으로 원광대사가 있습니다.

<원광>

원광은 신라의 승려로 555년에 태어나 어릴 적부터 유학과 도가의 경전들을 폭넓게 공부하였습니다. 그가 승려가 된 나이는 기록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유사에서 인용한 신이전에 의하면 어릴 적에 출가하였고, 30세에 경주에 삼기산에 절은 지어서 수행했는데, 주술을 배우는 것을 좋아하다가 34살 때 주술을 좋아하던 한 승려가 주술을 행하다가 그 산의 신에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보고 진나라로 갔다고 합니다. 하지만, 삼국유사에 의하면 25살 되던 때에 중국 진나라로 유학을 가서 장엄사에서 민공스님의 제자를 통해 강의를 들으며 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동안 유학과 도가를 통해 세상의 이치를 알았다고 자부하고 있었는데, 불교 강의를 들으면서 그동안 자기가 알고 있던 것보다 심오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어, 승려가 되기 위해 출가했습니다. 승려가 된 뒤에는 여러 사찰의 뛰어난 스승을 찾아 성실론과 열반경을 주로 공부하였습니다. 성실론은 대승불교의 핵심가르침과 공사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논서이며, 열반경은 부처가 죽기전, 불교 용어로는 열반에 들어가기 전에 남긴 내용을 담고 있다는 경전으로 그 핵심 가르침은 모든 존재는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명상 수행도 열심히 하고, 아함경과 다른 경전 들도 다양하게 공부하였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속세를 떠나 산 속을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려고 했었는데, 강의를 해달라는 사람들의 요청에 못이겨 성실론과 반야경을 강의하였다고 합니다. 경전을 해석하는 게 뛰어나고 표현이 아름다워서 사람들이

강좌내용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서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송고승전에서는 “배우러 오는자가 연이어져 물고기 비늘처럼 잇달았다”고 하였습니다.

원광은 중국에서 뛰어난 학자로 이름을 날리다가 600년, 유학간 지 수십년 만에 신라로 돌아옵니다. 진평왕은 그를 성인처럼 존경했으며, 그의 따뜻하며 화를 내지 않는 태도는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였고, 뛰어난 글솜씨로 외교문서와 중요 문서를 쓰는 것을 도왔습니다. 심지어 그에게 나라를 다스리는 방법에 대한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주술과 기적에서도 유명했기에, 무교와 점술을 접목시킨 최초의 신라승려라는 평가도 받기도 합니다. 그의 기적과 관련되어서 몇가지 재미난 설화가 있습니다. 첫번째 설화는 그가 중국에 있을 때, 수나라가 중국을 통일하던 시기라서 사회적으로 좀 불안정하여, 반란군에 잡혀서 죽을 뻔 할 때, 수나라 장군이 탑이 불에 타는 것을 보고 절로 달려갔는데, 원광이 탑에 묶여 있었으나 무언가가 불에 탄 흔적이 없어서 이를 신기하게 여겨서 그를 풀어주었다고 합니다. 아마도 불을 붙였는데, 그가 신비한 능력을 발휘하여 불을 꺾던 것 같습니다.

두번째 이야기는 신라의 왕이 병들었을 때 치료한 이야기입니다. 왕을 치료하기 위해 매일 밤마다 두시간씩 왕에게 불교 강의를 해주고, 계율을 주어 참회하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지났는데 왕이 눈을 떠보니 원광의 머리 뒤로 금색 둥근 후광이 비쳤습니다. 그 후 며칠 뒤 왕의 병이 싸악 낫았다고 합니다.

세번째 이야기는 그가 신라에 무사히 돌아왔을 때 삼기산의 무속의 신에게 감사하면서 신의 얼굴을 보여달라고 하자, 약속한 날 늙은 여우의 모습을 한 신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네번째는, 그가 죽을 때 이야기로, 절의 동북쪽 뜰에서 음악소리가 울리고 이상한 향기가 절에 가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의 죽음을 슬퍼하면서도 신기한 일에 대해서 놀라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의 뛰어난 주술과 신통력에 대한 이야기 때문에 그의 죽음 이후에도 그를 통해 기적을 체험하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죽은 아이를 낳은 사람이 “유복한 사람 무덤 옆에 묻으면 자손이 끊이지 않는다”라는 말을 듣고 원광의 무덤 옆에 죽은 아이를 묻기도 하였다고 합니다. 결과는 번개가 치면서 그 아이를 밖으로 내쳤다고 하는데, 그것이 살린 것을 의미하는 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원광의 사상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는 많은 기록이 없으나,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세속에 사는 사람들을 위해 다섯가지의 계율을 가르쳐 준 이야기가 삼국유사에 전해내려옵니다.

그가 신라로 돌아온 후 귀산과 추항이라는 두 사람이 그를 찾아와 다음과 같은 부탁을 합니다.

“저희는 세속에 사는 선비로 어리석어서 아는 것이 없으니 평생 마음에 새기고 지켜야할 가르침을 주십시오.” 그러자 그는 “불교에는 10개의 보살계가 있지만, 이는 부모님을 모시고 세속에 사는 이들이 지키기 어려운 것이므로 세속에 있는 그대들을 위해 다섯가지 계율을 주리라.

첫째는 임금을 충성으로 섬기고, 둘째는 부모를 효도로 섬기며, 셋째는 벼를 신으로 사귀고, 넷째는 싸움에 임해서는 물러서지 않는 것이요, 다섯째는 생명있는 것을 죽을 때는 가려서 하라.”

이 말을 듣고 두 사람을 다섯번째가 잘 이해가 안 간다고 하니, 다음과 같이 부가설명을 해줍니다.

“첫째는 때를 가리는 것이니, 봄, 여름과 육재일의 기간에는 살생하지 말고,

둘째는 물건을 가리는 것이니, 말, 소, 개 등 가축을 죽이지 않고, 고기 한점도 안되는 작은 동물을 죽이지 않는다.

셋째는 죽일 수 있는 것도 쓸만큼만 죽이고 많이 죽이지 않으며 장난이나 호기심으로 죽이지 않는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귀산과 추항이 이를 어기지 않고 지키겠다고 하였으며, 이후 전쟁터에 나아가서 모두 국가에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육재일이란 매월 8일, 14일, 15일, 23일, 29일 30일로 몸을 재계하는 날로, 이 날은 불교의 수호신인 사천왕이 사람들이 잘하고 잘못된 것을 살펴보기 때문에 행동을 조심하고 오후에는 음식을 먹지 않는 날을 말합니다.

강좌내용

앞의 다섯 가지 계율은 매우 유교적이며 국가주의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왕에게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친구간에 의리를 지키는 것은 유교적 가치가 반영된 것이며, 왕에게 충성하고 싸움터에 나가서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것은 국가를 위해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는 것입니다. 다섯번째 계율만이 불교적 계율의 변형된 형태, 살생하지 않는다는 계율을 약간 조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색채가 들어간 계율이라서 유학교육을 받은 이들이 이해하고 수용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그래서 원광은 좀 더 자세하게 이를 설명해 줍니다. 때와 대상과 양의 한계를 정함으로서 유교와의 충돌 부분을 해결합니다.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을 죽여도 되는 때에, 죽여도 되는 대상을 죽이는 것으로 타협을 본 것이지요.

이처럼 원광은 수행자가 아닌 일반인들을 위해 불교와 유학을 적절히 섞은 계율을 제시하여, 국가에 도움이 되는 국가불교가 뿌리내릴 수 있는 사상적 기반을 제공하였습니다.

<자장>

자장은 왕족출신으로 신라를 불교국가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한 승려입니다.

자장이 태어나기 전 자식이 태어나지 않자, 아버지는 관음보살 상을 만들고 자식 낳기를 희망하며 “만약 아들을 낳으면 아들을 부처님께 바치어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퍼는데 기동역할을 하게 하겠다.”라는 마음을 내어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며칠 후 그의 어머니가 홀연히 별이 품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고 아이를 임신한 것을 느끼는데, 아이가 태어난 날이 석가모니 부처와 같은 날짜여서 이름을 선종량이라 했습니다. 아이는 똑똑했으며 다른 귀족 아이들과 함께 매사냥을 즐겼는데, 하루는 사냥해서 잡은 꿩이 눈물을 흘리는 것을 보고 느끼는 바가 있어서 출가를 했다고 합니다. 성품이 맑아 세상의 더러움에 물들지 않았으며 글재주가 뛰어났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일찍이 부모를 여의고, 결혼을 했었으나 아내와 자식을 두고 출가를 한 뒤, 이후 자신이 가지고 있던 땅을 바쳐서 원녕사를 지었습니다. 수행을 위해 깊고 깊은 산골로 들어가서 수행을 했으나, 이리와 호랑이를 무서워하거나 피하지 않아도 다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주로 했던 수행이 사람의 시체가 썩어 백골만 남는 과정을 시각화하여 보는 수행인 백골관이었는데, 자장은 자신이 조금이라도 졸리면, 가시나무울타리로 막아 방을 만들고, 옷을 모두 벗고 알몸으로 그 가운데에 앉아서 졸다가 몸이 찢리면 잠이 깨도록 하거나 머리카락을 대들보와 끈으로 연결시켜, 졸리면 머리가 당겨져 다시 잠에서 깨게 하였습니다.

그가 산에서 수행할 당시, 마침 승려를 위한 직위가 비어서 선덕여왕은 자장을 임명하였으나 이를 여러차례 거절합니다. 왕이 화가 나서 나오지 않으면 목을 벨 것이라고 하자, 자장은 “나는 차라리 하루 동안 계율을 지키다 죽을지언정, 과계하고 백년을 살기를 원친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강경한 자장의 태도에 왕은 그의 거절의사를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나서도 자장은 계속 산 속에서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수행하는 장소가 너무나 깊은 산골에 있어서 음식을 가져다 줄 사람 없었는데, 어느날 특이하게 생긴 새가 과일을 가져다 주어 먹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는데, 하루는 꿈에서 하늘 사람이 나타나서 그에게 수행하는 이유를 묻습니다. 그가 “오직 중생들에게 이익을 주고자 합니다.”라고 대답하니 불교의 오계를 주며 “이 오계로써 중생에게 이익을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장에게 말했습니다. 이에 자장은 굴 속에서의 수행을 마치고 나오니, 하늘의 선녀들이 앞다투어 나와서 불교신자가 될 수 있는 계율을 받으려고 하였다고 합니다. 불교신자가 되고 수행자가 되는 것은 모두 계율을 받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가신도를 위한 오계를 받으면 불교신자가 되고, 절에서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10개의 사미계, 사미니계를 받으며, 이후 온전한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남자는 250개의 비구계를, 여자는 348개의 비구니계를 받습니다. 이를 구족계, 다 갖추어진 계율이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장의 삶은 부처님의 삶과 유사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태몽 이후 태어나고,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아내와 자식을 버리고 출가합니다. 그리고 석가모니 부처와 생일이 같습니다. 자장과 부처의 삶의 연관성을 통해 자장의 뛰어남을 보여주하고자 하는 서술자의 의도가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강좌내용

이후 자장은 작은 변방의 땅인 한반도에서 공부하기보다는 당시 중심지였던 중국으로 가길 원했습니다. 636년 제자인 승려 실을 포함해서 10명의 사람들과 함께 중국 오대산을 방문하였습니다. 거기에는 흙으로 구운 문수보살상이 있었는데, 제석천, 즉 인드라가 하늘의 기술자들을 데려와 만든 것이라 하였습니다. 그 보살상 앞에서 기도하며 명상을 하는데, 꿈에서 그 상이 자장의 이마를 어루만지며, 산스크리트어로 된 계송을 주었는데, 깨어나서도 그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단어는 기억나는데 그 뜻을 알지못해서 고민하고 있는데, 다음날 한 승려가 와서 이를 해석해줍니다.

“아라과좌낭, 일체의 법을 깨달았으니
달예치거야, 본래의 성품은 가진바 없다네.
낭가사가낭, 이와 같이 법성을 알았으니
다예노사나, 노사나불을 곧 보리라.”

그리고나서, “비록 만가지 가르침을 배웠지만 이 글보다 나은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며 석가모니 부처의 가사와 사리를 주고 사라졌다고 합니다.

계송이 의미하는 내용은 “모든 존재의 본래모습을 깨달아보니 공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존재의 본래 성품을 알았으니 곧 깨달은 자가 되리라.” 노사나불은 오랜 수행의 결과로 된 부처를 말하기에 여기서는 자장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가 됨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문수보살이 이마를 만져주는 것은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는 미리 승인해주는 것으로 불교 용어로는 수기라고 합니다.

이후 문수보살로부터 수기를 받았음을 알고, 오대산에서 내려와 수도인 장안으로 갔습니다. 태종이 그를 환대하였고, 승광별원에 머물게 하였는데, 총애가 두터워서 자주 선물을 보냅니다. 그러나 번잡스러운 것을 싫어하던 자장은 종남산의 운제사 근처 굴 속에 수행공간을 만들어, 그 암굴에서 3년동안 보냅니다. 거기에 머무는 동안 사람들과 하늘의 신들이 내려와서 계율을 받고 불교신자가 되었으며, 온갖 신기한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루는 홍역에 감염된 사람들에게 부처의 계율을 알려주고 아픈 곳을 어루만져 주니 발진이 없어지고 병이 치유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장안으로 돌아가려는데 귀신의 무리가 마중을 나와 따라가려 하자 하늘의 장군의 무리들이 내려와 귀신의 무리와 싸워 그들을 물리친 후 자장에게 말하기를 앞으로 80살까지는 살 것이라 이야기해주었다고 합니다. 장안에 와서 왕으로부터 비단 2백필과 옷을 만드는 비용을 선물받는 등 환대를 받았습니다.

643년 선덕여왕이 편지를 보내, 자장을 신라로 돌려보낼 것을 부탁하였는데, 당 태종이 이를 허락하고, 비단 옷 한벌과 채색된 비단 5백단을 주었고, 당태종의 태자 또한 2백단과 많은 예물을 주었다. 또한 신라에 불교의 경전과 불상이 충분하지 못하다 하여 불교 경전을 포함한 여러 물품을 함께 보내줍니다. 이 물품들은 모두 이후 신라의 주요 절에 보내집니다. 온 나라가 자장의 귀국을 환영했고, 선덕여왕은 그를 분황사에 머무르게 합니다.

어느 해 여름, 자장은 선덕여왕의 요청으로 궁중에서 대승의 논서를 강의하였고, 황룡사에서 보살의 계율에 대한 책을 7일 낮밤으로 강의하였는데,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고 구름과 안개가 강의하는 공간을 가득 덮었다고 합니다. 이에 행사에 참가자했던 이들이 그 기이함에 감탄했다고 합니다. 계율을 엄격히 지켰기 때문에 그가 이러한 신통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후 조정의 신하들은 불교교단을 어떻게 다스릴지 논의합니다. 그들은 불교가 전해진지 오래되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된 규범과 의식이 없음을 걱정합니다. 그래서 계율을 공부한 자장을 총괄하는 승려로 임명하여 규범과 의식을 세워 여러 교단을 총괄하여 다스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왕이 자장을 대국통으로 임명하여 승려들이 지켜야할 규범을 그에게 위임하고 주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장은 불교의 계율을 정비하여, 승려들에게 매달 보름마다 포살법회를 하고, 봄 가을에 계율과 관련된 시험을 치러서 계율을 지키고 어기는 것이 어떤 건지 숙지할 수 있게 돕고, 직원을 두어서 이를 관리하였습니다. 포살 법회란 동료 승려들이 모인 자리에서 자신이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 어긴 내용이 있으면 죄를 고백하고 참회하여 다시는 행하지 않겠다고 결심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강좌내용

이렇게 관리를 하니 계율을 지키는 사람들이 늘어났으며, 나라 백성들 가운데에서 계율을 받고 불교 신자가 되는 집이 열 집중 여덟 아홉집이 되었다고 합니다. 시간이 흘러 통도사를 짓고 거기에 계를 받는 의식을 행하는 곳인 계단을 만들고,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계를 주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태어난 집을 원녕사로 고치고, 낙성회를 개최하여 화엄경을 강의하였더니 52명의 천녀가 감동하며 나타나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에 제자들로 하여금 그 천녀의 숫자만큼 나물을 심게하여 그 나무를 지식수라고 불렀다고 합니다.

또한 그는 10여군데 사찰을 세웠는데, 매년 지을 때마다 신기한 좋은 일들이 생겨서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절을 완성하였다고 합니다.

만년에는 수도였던 경주를 떠나 강원도 수다사에서 머물고 있었는데, 예전에 중국에서 한 번 본 적이 있는 스님이 나타나 다음날 소나무가 우거진 대송정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다음날 대송정에 가보니 문수보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반가워서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묻고 대화를 나누고나서, 문수보살은 태백의 갈반지라는 곳에서 다음에 만나자고 하고 사라집니다.

그 길로 자장은 태백산에 가서 문수보살을 찾는데, 큰 구렁이가 나무아래에서 꼬아리를 틀고 있는 것을 보고 그곳이 갈반지임을 알고 거기에 정암사를 짓습니다. 절은 짓고나서 그 곳에서 문수보살을 기다리는데, 어느 날 늙은 거사가 삼태기에 죽은 강아지를 담아서 메고 와서는 자장을 나꼈다고 합니다. 그러자 제자들이 자신의 스승의 이름을 함부로 부른다고 핀잔을 주고, 자장에게 상황을 알렸는데 자장도 미친사람이라고 쫓아냅니다. 그러자 그 거사가 말하기를 “돌아가자 돌아가자, 아상이 있는 사람이 어찌 나를 알아볼 수 있겠는가”라는 말을 남기고, 삼태기를 뒤집으니 강아지가 사자로 변해서 이를 타고 가버립니다. 자장이 이 말을 듣고 문수보살임을 알고 따라갔으나 찾지 못하고, 산중턱에서 쓰러져 그 자리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은 완전한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사자를 타고 다닌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상이란 나 자신이 잘났다는 오만함, 내 것을 가져야 한다는 소유욕, 나를 사랑하는 마음인 자기에 등을 말합니다. 온 백성의 추앙을 받는 자장은 오만함에 자신을 찾아온 문수보살을 알아보지 못하고 문전 박대했습니다. 불교에서는 부처와 보살은 평범한 사람, 또는 미친한 사람으로 모습을 바꾸어 나타나는 이야기가 많고, 대부분 오만함, 자기중심적 생각으로 부처님과 보살이 눈 앞에 있는데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엄격한 계율 수행 끝에 많은 신기한 일을 체험하고, 기적같은 일을 행했던 자장도 나이가 들어서 오만함으로 인해 문수보살을 만나지 못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함부로 타인을 판단하지 않고 자신을 낮추는 태도의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장은 신라불교를 이끌어갈 계율을 정립하여 신라를 불교의 나라로 만드는 기틀을 잡았으며, 나아가 신라를 부처의 나라, 불국토로 만드는 작업에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신라사람들은 신라땅이 불교와 깊은 연관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신라의 산 이름들을 불교식으로 바꾸고, 거기에 맞는 건축물을 지으며 불교를 토착화 합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신라는 아주 오래전 석가모니 부처 이전의 부처가 살았던 곳이었고, 이전부처님들이 수행하던 절터가 신라의 수도 경주에 일곱 군데 있다고 합니다. 그 중 한 곳이 신라 불교의 중심사찰이었던 황룡사입니다.

신라를 불국토 만들기 프로젝트는 진흥왕이 황룡사를 지으면서 시작됩니다. 원래는 새 궁궐을 지으려하였으나, 궁궐을 짓는 도중 황룡이 나타나서 절을 짓기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황룡사의 대웅전을 짓는 자리 뒤에는 일곱번째 이전 부처님인 가섭부처가 수행을 했던 곳이라고 알려진 돌이 있었다고 합니다.

진평왕 때는 전 가족의 이름을 부처님의 가족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진평왕은 자신의 이름은 석가모니 부처의 아버지인 정반왕으로, 부인의 이름은 마야부인으로,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이름을 석가모니 부처의 삼촌의 이름으로 바꿉니다. 그렇게 되면 진평왕이 딸인 덕만은 자연스럽게 석가모니 부처에 버금가는 자리에 놓이는 것이고 불교의 이상적 통치자인 전륜성왕의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덕만은 또한 열반경에 나오는 여성수행자의 이름으로 중생을 제도하기 위하여 여자로 태어난 보살의 이름입니다. 덕만이 나중에 선덕여왕이 됩니다. 또한 그 뒤를 잇는 진덕여왕의 이름은 승만으로, 승만경을 설한 공주며 여성 수행자의 이름을 따라 지었습니다. 이렇게 신라 왕실을 부처님과 불교의 수행자들과 연결시킵니다.

강좌내용

그렇게 가족들의 이름을 불교적으로 지은 상태에서 불국토의 중심사찰로서 황룡사를 완성해갑니다. 황룡사에 놓을 부처님 상은 아소카왕이 만들다가 완성하지 못해서 바다를 떠돌다가 신라에 전해졌다는 거대한 불상을 완성하여 놓았으며, 자장이 귀국한 이후에 황룡사의 9층목탑을 짓기 시작하여 자장이 가져온 부처님의 사리를 넣어놓음으로서, 불국토의 중심이 되는 황룡사를 완성하였습니다. 황룡사에 굳이 구층의 목탑을 지은 이유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에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자장이 중국에서 오대산 태화지를 지나가는데 하늘사람이 나타나 왜 여기까지 왔는지 묻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하자, 그 사람이 “나라에 무슨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라고 또 묻습니다. 이에 자장이 “우리나라는 백제, 고구려, 일본 등 주변국이 계속 구경을 침범하여 걱정이 됩니다.”라고 대답하니 그 선인이 “지금 그대 나라는 여자가 왕위에 있어서 덕은 있지만 위엄이 없어서 이웃나라가 침략을 꾀하고 있는 것이니 빨리 돌아가시오”라고 말하였다. 이에 자장이 고국에 돌아가서 어떤 일을 해야 이런 일을 막겠느냐 묻자, “고국에 돌아가면 9층탑을 세우시오. 그러면 주변의 나라들이 침략하지 않고, 멀리 있는 나라들도 찾아와 인사할 것이며, 나라가 편안해질 것이요. 탑을 세운 뒤 팔관회를 열고 죄인을 용서하여 풀어주면 외적이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요.” 그런 이유로 황룡사에는 구층의 목탑을 지었는데, 그 높이가 80미터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목탑과 황룡사의 불상은 진평왕 때 옥황상제로부터 받았다는 허리띠와 함께 신라의 세 가지 보물이라 불리었다고 합니다. 안타깝게도 황룡사는 불이 타서 지금은 그 터만 남아있고, 삼보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자장은 통도사의 위치를 찾을 때에도 경전에 근거하여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합니다. 통도사가 있는 곳은 영축산으로 이는 부처님께서 법화경의 가르침을 폈다는 곳입니다. 신라사람들은 인도에 있는 영축산이 신라에도 있다는 생각에 산 이름을 영축산으로 부른 것입니다. 또한 중국의 오대산이 신라에 있다는 생각에 강릉의 오대산이라고 이름 지은 것이며, 중국의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이 살고 있는 것처럼, 신라의 오대산에도 문수보살이 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신라인들은 불교를 자신의 땅에 토착화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자장은 이 프로젝트를 완성시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무리>

예나 지금이나, 선진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유학을 떠납니다. 어떤 이들은 유학을 가서 그 곳에 뿌리내리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그곳에 배운 것을 가지고 고국의 발전에 기여합니다. 불교가 전래된 이후 한국의 승려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랑과 원측은 유학생으로 중국에서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여 이름을 날렸으며, 원광과 자장은 유학생생활 동안 배운 내용과 경험을 활용해서 고국에 돌아와 엘리트로서 신라가 다른 나라를 통일할 수 있는 사상적, 사회적 토대를 만드는 데 기여했습니다. 한국에 관심을 가지고 한국에서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어떤 삶을 꿈꾸시나요?

3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화엄종의 철학자들	교수자	이병욱
학습목표	- 신라시대 의상대상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 고려초의 화엄사상가로서 균여의 생애와 그의 6종류의 저술과 화엄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 의상의 화엄사상이 그 시대에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 알아본다.		
핵심어	의상, 균여, 화엄법계도		
주요흐름	의상의 생애의 주요사건들을 살펴본 뒤, 그의 화엄법계도와 평등사상을 알아본다. 의상이 지었다고 알려진 사찰들에 대해서도 공부해본다. 균여가 주목을 받게된 일화들과 그의 사상적 특징에 대해서 알아본다.		
읽기자료	이병욱, <한국불교 사상의 전개>, 집문당		
학습요소	영상 71분 15초 토론 2문항, 퀴즈 1문항, 읽기자료 제공, 부록 영상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세상은 의상의 말처럼 보는 이의 눈에 따라, 보는 각도에 따라 달라보이는 걸까?
- 그렇다면 세상의 본래 모습이라는 것은 없는 걸까?

[퀴즈] 의상은 자신의 사상을 밝히기 위해서 설명한 육상(六相)의 6가지는 무엇인지 모두 쓰시오.

답: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

화엄의 사상가: 의상대사, 그의 제자와 균여

I. 의상의 생애와 사상

1. 의상(義湘)의 생애

화엄종은 중국에서 화엄종의 2조 지엄(智儼)에게서 화엄사상을 배우고 삼국통일 무렵 귀국한 의상(義湘: 625~702)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연구되었다. 화엄종의 3조 법장(法藏)도 의상과 함께 지엄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는데, 지엄은 법장을 문지(文持)라고 하고, 의상을 의지(義持)라고 평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의상이 신라에 돌아온 뒤에도 법장과 의상의 교류는 계속 이어졌다. 이는 당시 신라 화엄사상의 이해수준이 중국과 대등하였다는 점을 나타내는 것이다.

의상은 중앙정치세력과 연결되기를 거부하고, 그 대신 영주 부석사와 양양 낙산사를 중심으로 지방사회에서 활약하였다. 그는 조직적으로 제자를 양성하였는데, 실천운동을 통해서 화엄사상을 지방민에게 윤표시켰다. 이러한 화엄사상의 흐름은 고려 초기에 활동한 균여에까지 이른다.

(1) 출가와 중국유학

의상의 아버지는 한신(韓信)이고, 그의 성은 김(金)씨였다. 의상은 29세 때에 경주[京師]의 황복사(黃福寺)에서 출가하였다.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 서쪽으로 공부하고 교화하고자 하여, 원효와 함께 요동으로 떠났다. 그런데 요동의 변경에서 순찰병에게 첩자로 오인되어 수십 일 동안 갇혀있다가, 겨우 죄를 면하고 신라로 돌아왔다.

의상은 661년경(영휘永徽 초)에 마침 당나라 사신의 배를 우연히 얻어 타고 중국에 들어갔다. 처음에는 중국의 양주(楊洲)에 머물렀는데, 양주에서 관리[州將]로 있던 유지인(劉志仁)이 의상에게 청해서 관아에 머물도록 하고, 매우 풍족하게 공양하였다. 그 다음에 의상은 종남산의 지상사(至相寺)로 가서 지엄(智儼)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2) 의상의 삶에 나타난 국가불교적 요소

① 의상은 중국에 유학하고 있을 때,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침입을 받을 것을 알리기 위해 계획보자 먼저 귀국하였다.

자세히 말하자면, 신라의 승상(丞相) 김흠순(金欽順: 일명 金仁問)과 김양도(金良圖) 등이 당나라로 사신으로 왔는데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당나라 고종은 장차 크게 병사를 일으켜서 동쪽으로 정벌하려고 하였다. 김흠순 등은 비밀리에 의상에게 사람을 보내어서 의상이 계획한 것보다 앞서 신라에 귀국하도록 권유하였다. 그래서 의상은 670년(함형咸亨 1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의상은 조정에 그동안의 사정을 알렸다. 그 결과 신라는 위기를 넘겼다고 한다.

② 또 의상은 일반 백성의 경제적 안정이 국가의 기본적인 힘이고, 백성의 정신적 안정이 사회안정의 토대라고 생각하였다.

그래서 의상은 삼국통일 후에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무리한 토목사업을 시도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내었다.

자세히 말하자면, 문무왕 21년(681년)에는 경주[京城]에 새롭게 성을 쌓고자 하였다. 그러자 의상은 글을 보내어서 왕의 정교(政敎: 정치와 교화)가 밝으면 초구(草丘: 풀로 뒤덮인 언덕)로 경계를 정한다고 해도 백성들이 감히 넘으려 하지 않을 것이고, 나라는 재앙을 면하여 복이 될 것이지만, 정교(政

강좌내용

敎)가 밝지 않으면 여러 사람을 수고롭게 하여 장성(長城)을 쌓는다고 해도, 나라에는 재앙이 그치지 않을 것이라고 하면서 성(城)을 쌓는 작업을 중지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였다. 이에 왕은 성을 쌓는 것을 중지하였다. (『삼국유사』)

(3) 의상의 청정한 수행

① 의상의 몸을 씻는 방법

『송고승전』에 따르면, 의상은 평소 의정(義淨, 635~713)의 세예법(洗穢法: 몸을 씻는 방법)을 실천해서 몸을 씻고 나서 수건을 쓰지 않고 그대로 마르도록 서서 기다릴 정도였다고 한다. 의상은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신체를 깨끗이 씻고, 그로 인해 몸과 마음에 더러움이 없어지고, 그 결과 불도(佛道)에 이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청정행(淸淨行)을 하였다.

② 의상의 청빈한 생활

의상은 3벌의 옷과 한 개의 발우[삼의일발三衣一鉢]이외에는 다른 소유물을 가지지 않으려고 하였다. 이는 고구려 출신의 승려 보덕(普德)에게 배운 『열반경』의 계율사상과 중국의 율종의 승려 도선(道宣, 596-667)에게 영향을 받은 계율정신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서 신라의 국왕이 의상에게 토지와 노비를 주려고 하자, 이에 의상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불법(佛法)은 평등하여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함께 나누어 쓰고, 귀한 사람과 천한 사람이 함께 지켜 갑니다. 『열반경』에서 팔부정재(八不淨財: 승려가 쌓아두어서는 안 되는 8가지 부정한 물건)를 말했는데, 어떻게 넓은 밭[莊田]을 가지고 노비를 부리겠습니까? 빈도(승려의 경칭)는 법계(우주의 세계)로 집을 삼고, 발우(밥그릇)로 농사를 지어, 법신(法身: 진리)이라는 지혜의 목숨[慧命]이 이 몸을 의지해 사는 것입니다.”

③ 또 『삼국유사』에서는 의상과 당나라의 도선(道宣)이 서로 법력(法力)을 다툰 내용이 나온다. 의상이 당나라에서 종남산의 지엄에게서 배우고 있을 때, 같은 산에서 활동하고 있던 도선과 교류가 있었다. 의상과 도선은 하늘의 공양[天共]을 받았는데, 의상이 더 높은 도력(道力)을 가졌음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 인해 의상은 천제(天帝)로부터 부처의 치아[佛牙]를 빌려왔고, 이것을 중국에 보관하고 있다가 고려 예종의 시대에 송나라로부터 가져와서 궁중에 보관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사실로 믿고 신앙하는 활동도 성행하였다. 이 설화를 통해 후대에 의상에 대한 존경의 마음이 매우 깊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4) 의상의 교화활동: 스승으로서 의상대사

① 의상은 10여 명의 제자에게 『화엄일승법계도』를 강의하였고, 부석사 40일회(四十日會)에서는 화엄사상에 대해서 제자들과 묻고 답하기도 하였다. 태백산 대로방(大蘆房)에서는 화엄사상에 대해 강의하였고, 소백산 추동(錐洞)에서는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기도 하였다.

② 『송고승전』에서는 “제자들이 도움을 청해 물어 올 때, 의상은 너무 서두르지 않고 제자의 마음이 가라앉을 때를 살핀 다음에, 가르침을 전해주어 의문의 여지가 없게 한다”고 말하듯이, 의상은 진지하게 제자를 가르쳤다.

③ 의상은 법장의 『탐현기(探玄記)』 20권을 그의 제자 진정(眞定), 상원(相元), 양원(良圓), 표훈(表訓) 등에게 각기 5권씩 나누어서 강의하게 한 적이 있다. 의상은 먼저 10일 동안 문을 닫고 자

강좌내용

신이 스스로 『탐현기』의 내용을 검토하고, 제자들에게 “썰기질로 인해서 썰기가 자리잡고, 도끼자루를 잡아야 나무를 베는 것이니, 각기 힘써 자기를 속이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이 같은 모습에서 제자의 교육에 임하는 의상의 진지한 모습을 짐작할 수 있다.

(5) 의상과 관련 있는 사찰

『삼국유사』에 따르면, 의상은 열 개의 사찰에 범장의 화엄사상을 전하도록 하였는데, 태백산의 부석사, 원주(原州)의 비마라사(毘摩羅寺), 가야산의 해인사, 비슬(毘瑟: 지금의 경남 창녕)의 옥천사(玉泉寺), 금정(金井: 지금의 동래)의 범어사, 남악(南嶽: 지리산)의 화엄사 등이 바로 그것들이다.

그렇지만, 『삼국유사』의 이러한 주장은 다시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해인사는 의상이 활동하던 시대보다 뒤의 시대인 신라 하대에 성립되었기 때문이다. 신라하대에 활동한 최치원은 화엄의 10찰(十刹) 대신에 화엄 대학(화엄학을 가르치는 곳)이 있는 10산(十山)을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10찰’이라는 개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화엄사상이 신라사회에 널리 전해졌다는 것을 알리기 위한 내용으로 파악하면 될 것이다.

그러면 몇 개의 사찰의 성립에 대해 알아본다.

① 태백산에 화엄종의 근본사찰 부석사가 세워진 것은 676년(문무왕 16)이었다. 『송고승전』에는 부석사의 창건설화가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의상은 신라에 들어온 후에 산천을 두로 돌아다녔다. 고구려와 백제의 바람과 말과 소가 미치지 못하는 땅에 이르러서 말하기를 “이곳은 땅이 신령스럽고 산이 우뚝 서서 진정 법륜(法輪)을 굴릴 장소인데, 어떻게 권종(權宗: 화엄종 이외의 종파)의 무리가 500명이나 될까”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의상은 ‘위대한 화엄의 가르침은 복되고 선한 땅이 아니면 흥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그 때 선묘(善妙) 용(龍)이 항상 의상을 따라다니면서 보호하고 있었는데, 의상의 이러한 생각을 몰래 알고서는 허공 가운데다 큰 신통과 변화를 나타내었다. 그것은 사방 1리(里)가 되는 거대한 바위로 변화하여서 가람(사찰)의 위를 덮고, 떨어질 듯 아슬아슬하게 있는 것이었다. 많은 승려가 놀라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사방으로 달아나 버렸다. 그러자 마침내 의상은 절 안에 들어갈 수 있었다. 의상은 여름에는 그늘에서 겨울에는 양지 바른 곳에서 『화엄경』을 강의하였는데, 사람을 부르지 않았는데도 제 발로 온 사람이 많았다.

[『송고승전』 「신라국 의상전」]

② 지리산 화엄사는 황룡사의 연기(緣起)에 의해서 세워졌다. 그동안 학계에서는 화엄사를 세운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 여러 가지 견해가 있었는데, 그것은 1636년에 작성된 『화엄사사적(화엄사의 역사를 소개한 글)』의 내용이 충실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다가 최근에 『신라화엄사경(新羅華嚴寫經)』이 발견되어 궁금증을 풀 수 있었다. 그 내용은 황복사 승려 연기가 754년(경덕왕 13) 8월 1일에 『화엄경』 사경을 조성하기 시작해서 그 이듬해(755년) 2월 1일에 마쳤다는 것이다. 『화엄경』 사경의 목적은 아버지가 원(願: 목표)하였기 때문이고, 모든 중생이 불도(佛道)를 이루고자 하는 원(願)을 세웠기 때문이다.

③ 해인사는 순응(順應)과 이정(利貞) 등이 신라 왕실의 도움을 얻어서 802년(애장왕 3)에 세운 사찰이다. 기록에 따르면, 순응이 802년에 무리를 이끌고 해인사를 짓기 시작했고, 그러자 성목왕태후가 그 소식을 듣고 여러 가지 선물을 내리면서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순응이 해인사를 짓는 도중에 죽자, 해인사를 완성하는 일은 이정에 의해 완성되었다고 한다.

(6) 저술과 그에 대한 평가

의상은 『화엄일승법계도』와 『백화도량발원문(白花道場發願文)』(관세음보살에 관한 내용) 등을 저술하였다. 이 저술 가운데 『화엄일승법계도』는 일승(一乘)의 핵심을 총괄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 저술은 한반도에서 천 년 동안 화엄종의 귀감이 되었다. 그리고 『화엄일승법계도』는 사람들이 다투어서 진귀하게 간직하는 저서가 되었다.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가 저술된 때는 668년인데, 이 해에 지엄이 돌아갔다. 세상에서는 의상이 부처님의 몸[金山]의 보개(寶蓋: 보석으로 꾸민 일종의 우산)가 나타난 것[幻有]라고 전한다.

『삼국유사』에서는 다음의 신비한 내용이 전한다. 의상이 황복사에 머물 때, 제자와 함께 탑을 돌았다. 그런데 매번 허공을 밟고서 올라가고, 계단으로 오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 탑에는 돌층계가 없었다. 그 제자도 의상처럼 허공을 밟고 탑을 돌았다. 의상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세간의 사람이 이것을 보면, 반드시 괴이하게 생각할 것이다. 그러니 세상 사람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말하였다. 이러한 설화는 의상화엄사상의 신비한 색채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II. 의상의 사상

화엄종은 『화엄경』을 근거로 해서 성립된 종파이다. 『화엄경』은 단순하게 말하자면 부처가 되는 단계를 50단계로 나누어서 접근한 경전이라고 할 수 있다. [『법계도』의 사진을 보여줄 것]

의상이 『법계도』(정식명칭은 『화엄일승법계도』)를 저술하게 된 과정에 대해서 균여의 『일승법계도원통기』(법계도에 대한 주석서)에 전해오는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다. 의상의 『법계도』가 매우 신비한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알 수 있는 내용이다.

의상이 지엄의 문하에서 화엄을 공부할 때이다. 꿈속에서 형상이 매우 기이한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의상에게 “자신이 깨달아서 저술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였다. 또 꿈에 선재동자가 총명해 지는 약(藥) 10여 제(劑)를 주었다. 또한 청의(靑衣)동자가 세 번째로 비결(秘訣)을 주었다. 스승 지엄이 이 말을 전해듣고 말하기를 “신령한 존재가 전해준 것이 나는 한 번인데 그대는 3번이구나. 이는 그대가 많은 것을 경험하고 부지런히 닦아서 이러한 과보(果報)가 나타난 것이다. 신인(神人)의 명령을 계기로 해서 그대가 심오한 이치를 보아서 얻은 내용을 잘 작성해 보아라”고 하였다. 의상은 이에 열심히 붓을 놀려서 『대승장(大乘章)』 10권을 저술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엄에게 잘못된 부분을 지적해 주기를 청하니, 지엄은 “뜻은 매우 아름답지만, 문장은 아주 웅색하다”고 하였다. 의상은 물러나서 번거로운 내용을 삭제하고 어디에도 통할 수 있는 내용으로 만들고 [四通], 그 책의 이름을 ‘입의승현(立義崇玄: 뜻을 세우고 현묘함을 숭상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지엄이 저술한 『수현기(搜玄記)』의 내용을 존중하고자 한 것이었다. 지엄과 의상이 함께 부처님 앞에 나아가서 『대승장』 10권을 불태우면서 “부처님의 뜻과 부합하는 것이 있다면 불타지 않기를 원합니다”고 하였다. 이윽고 다 타고 남은 잿더미에서 210자(字)를 얻었다. 지엄은 의상에게 다시 줍도록 하여 [앞에서와 같이] 간절히 [불타지 않기를] 바라면서 뜨거운 불길에 다시 던졌는데, 마침내 잿더미가 되지 않았다. 지엄은 눈물을 흘리며 의상을 칭찬하였고, 의상으로 하여금 210자를 연결시켜 계송을 만들도록 하였다. 의상은 며칠 동안 방문을 걸어놓고 30구(句)를 만들어 내었다. 그것은 삼관(三觀: 화엄사상에서 완전한 깨달음을 이루는 3단계의 관)의 오묘한 뜻을 포괄하는 것이고, 십현(十玄: 일즉일체의 의미를 10가지 각도에서 설명한 것)의 넉넉한 아름다움을 다 담아낸 것이다.

[『일승법계도원통기』 상권 (『한국불교전서』 4권, 1상~중)]

강좌내용

의상의 『법계도』에는 화엄사상의 핵심이 잘 요약되어 있다. 부처의 경계를 “일즉일체(一卽一切) 다즉일(多卽一)”이라고 표현하고 있다.

1. 의상의 세계관

의상의 세계관은 보는 사람의 관점에 따라 각기 다르게 나타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동일한 물질세계에 대해 중생(생명체)이 바라보는 것과 부처와 보살(중생을 구원하는 존재)이 보는 것이 각기 다르다고 한다.

의상은 세 가지 종류의 세간(세계)을 말한다. 첫째, 기세간(器世間)이다. 이는 구체적인 물질로 이루어진 세계를 말한다. 둘째, 중생세간(衆生世間)이다. 이는 중생이 바라본 세계이다. 셋째,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이다. 이는 부처와 보살이 바라본 세계이다. 누구나 다 똑같이 기세간(器世間)을 바라본다. 그런데 중생이 보면 그것은 중생세간(衆生世間)이 되고, 부처와 보살이 보면, 지정각세간(智正覺世間)이 된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계는 고정된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다. 중생이 바라보면 중생의 세계가 되고, 부처와 보살이 바라보면 부처와 보살의 세계가 된다.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관은 주관과 객관의 상호 교류를 말하는데, 특히 주관의 수양 정도에 따라 세계의 의미가 달리 드러남을 강조한다.

2. 육상(六相)을 설명함

의상은 자신의 사상을 밝히기 위해서 육상(六相)을 설명한다. 육상은 총상(總相), 별상(別相), 동상(同相), 이상(異相), 성상(成相), 괴상(壞相)이다. 이것을 통해서 화엄종의 핵심사상인 일즉일체(一卽一切: 하나와 전체는 연결되어 있다)를 설명한다.

화엄종에서 말하는 여섯 가지 모습[육상]의 설명을 살펴본다. 총상(總相)은 전체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별상(別相)은 부분적인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집을 예로 들면 집의 전체의 모습은 ‘총상’이고, 집의 여러 부분적인 것, 예를 들면 창문, 기둥 등은 부분적인 모습이므로 ‘별상’에 속한다. ‘총상’과 ‘별상’은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그리고 이것을 일즉일체와 연결하면, 총상은 집의 전체적인 모습인 하나에 해당하고, 별상은 집의 부분적인 모습인 여러 가지 내용, 곧 일체에 해당한다. 총상과 별상이 서로 다른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와 전체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다[일즉일체].

동상(同相)은 공통의 모습을 말하는 것이고, 이상(異相)은 서로 구분되는 모습을 말하는 것이다. 집을 예로 들면, 창문과 기둥 등이 집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라는 점에 착안하면 ‘동상’이 되는 것이고, 창문과 기둥 등이 집의 구성요소이긴 하지만 서로 각기 다른 것이라는 점에 착안하면 ‘이상’이 되는 것이다. ‘동상’과 ‘이상’도 사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것이다.

성상(成相)은 사물을 함께 구성하고 있는 측면을 말하는 것이고, 괴상(壞相)은 사물을 함께 구성하고 있기는 하지만 자신의 독자성을 이루고 있는 측면을 지적하는 것이다. 집을 예로 들면, 창문과 기둥 등이 함께 집을 구성하고 있는 측면은 ‘성상’을 말하는 것이고, 창문과 기둥 등이 함께 집을 이루고 있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창문과 기둥이라는 자신의 독자적 모습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면 ‘괴상’을 말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상은 『법계도』의 모습을 가지고 여섯 가지 모습[육상]을 설명한다. 총상(總相)은 법계도의 전체모습을 말한다. 이것을 의상은 근본인(根本印: 법계도의 전체모습)이라고 한다. 별상(別相)은 『법계도』를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굴곡을 말한다. 이처럼 총상과 별상은 동일한 법계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다.

동상(同相)은 『법계도』의 여러 가지 굴곡이 법계도의 공통부분이라는 측면에서 말한 것이다. 이상(異相)은 『법계도』의 여러 굴곡이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처럼 동상과 이상도 동일한 『법

강좌내용

계도』를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다.

성상(成相)은 『법계도』의 여러 굴곡이 『법계도』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괴상(壞相)은 『법계도』에 여러 굴곡이 있지만, 이는 각기 개성을 가진 것이라는 점에 착안한 것이다. 이처럼 ‘성상’과 ‘괴상’도 『법계도』를 다른 각도에서 본 것이다.

3. 의상의 『화엄경』에 대한 관점

의상에 따르면, 『화엄경』은 여러 품(品: 장章)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핵심적 내용은 「십지품(十地品)」에 있다. 「십지품」에 초점을 맞추면 이 「십지품」의 내용은 열 가지 수행단계를 말하는 것인데, 그 가운데서 초지(初地: 첫 번째 단계, 환희지歡喜地라고 한다)의 설명이 중요하다. 그리고 초지(初地)의 설명도 여러

부분으로 이루어졌지만, 일념(一念: 한 생각)이 중요하다고 의상은 주장한다. 이렇게 보면 『화엄경』의 내용은 일념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또 의상은 다른 각도에서 『화엄경』을 설명한다. 『화엄경』을 구성하는 여러 품(品)이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한다. 나아가 『화엄경』의 개별 문장과 구절을 보면, 문장과 구절마다 모두 의미가 있다고 한다.

의상을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화엄경』의 모든 문장과 구절이 다 각기 의미가 있고 소중한 것이면서도, 핵심적인 것은 우리의 한 생각(일념)에 있다는 것이다.

4. 『화엄경』과 그밖의 경전의 구분에 대한 관점

또한 의상은 여섯 가지 모습[육상] 가운데 총상과 별상을 가지고 일승원교(一乘圓敎)와 삼승별교(三乘別敎)를 설명한다. 일승원교는 일승의 가르침을 설명한 완전한 가르침을 말하는데, 이는 『화엄경』을 말한다. 삼승별교는 성문(聲聞: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제자)과 연각(연기의 이치를 깨달은 사람, 부처의 가르침을 직접 듣지는 않았음)과 보살(대승의 수행자, 깨달음을 구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인데, 이는 『화엄경』 이외의 다른 경전의 가르침을 말하는 것이다.

총상(總相)은 일승원교에 해당하고, 별상(別相)은 삼승별교에 해당한다. 그런데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총상(總相)과 별상(別相)은 동일한 사물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다. 따라서 일승원교와 삼승별교도 동일한 가르침을 다른 각도에서 바라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의상은 화엄종의 핵심 경전인 『화엄경』(일승원교)과 그밖의 경전(삼승별교)이 관점이 차이일 뿐이지 모두 의미가 있다고 주장한다.

5. 의상의 화엄사상의 사상사적 의미

화엄사상에서는 본질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상세계의 모든 대립물은 차별이 없다”[모든 사물이 원융한 관계에 있고 나의 인식을 장애하지 않음, 圓融無碍]고 주장하고, “하나가 그대로 전부이고, 전부가 그대로 하나”[一即多 多即一]라는 세계관을 말하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따라서 화엄사상은 신라인과 고구려의 유민과 백제의 유민, 또는 지배계급과 피지배계급이라는 현실적 차별을 뛰어넘어 모든 백성이 통일사회의 일원으로서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이념적 기반이 되었다. 실제로 의상은 교단 내에서 계급평등을 실현시키려고 하였고, 백성의 입장에 서서 문무왕이 성을 세우려는 시도를 중단시키기도 하였다. 그래서 노비출신의 지통(智通)과 빈민 출신의 진정(眞定) 등이 의상의 제자가 되기도 하였다. 이들에 의해 신라의 화엄종은 더욱 발전하여 신라 불교계의 주류가 되었다.

III. 의상의 직접제자

의상의 제자에 대해 『삼국유사』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오진(悟眞), 지통(智通), 표훈(表訓), 진정(眞定), 진장(眞藏), 도융(道融), 양원(良圓), 상원(相源), 능인(能仁), 의적(義寂) 등의 10대덕(大德)이 영수(領首)이고, 모두 아성(亞聖)이며, 각기 전(傳)이 있다. 여기서는 그 가운데 몇 사람을 선정해서 소개하고자 한다.

1. 표훈(表訓)

표훈은 의상의 뛰어난 제자이고, 동시에 의상과 함께 흥륜사(興輪寺) 금당(金堂)에 있는 10성(十聖)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표훈은 의상의 사구계(四句偈)에 따라 오관석(五觀釋)을 지었고, 진정(眞定)이 지은 3문석(三門釋)에 부동건립문(不動建立門)을 추가하여 4문(四門)으로 하였다.

표훈은 신문왕1년(681) 4월에 왕의 청으로 몽성사(夢城寺)에 머물면서 문무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서 예참(禮懺)을 행하였다. 그리고 의상이 세상을 떠난 뒤에는 황복사(皇福寺)에 머물기도 하였다. 특히 표훈이 황복사에서 대정각간에서 삼본정(三本定)을 해석해 준 일은 김대성이 불국사와 석굴암을 세운 것과 관련이 있다.

또한 『삼국유사』에 전하는 해공왕의 탄생설화와 표훈은 관련이 있다. 표훈이 천제(天帝)에게 청하여 경덕왕에게 아들을 얻게 하였다고 한다. 이 설화에서는 여자 같은 해공왕이 정치를 잘못해서 나라와 어지럽게 되었다는 것과 표훈이 하늘세계를 오가는 뛰어난 법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어느 날 경덕왕이 표훈대덕(表訓大德)에게 명하였다. “내가 복이 없어서 아들을 두지 못했으니 바라건대 대덕(승려의 존칭)은 상제(上帝)께 청해서 아들을 두게해 주시오.” 표훈은 명령을 받아 천제(天帝)에게 올라가 말씀드리고 돌아와서 왕께 아뢰었다. “상제께서 말씀하기를, 딸을 구한다면 될 수 있지만, 아들은 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왕은 다시 말하였다. “원컨대 딸을 바꾸어서 아들로 만들어 주시오.” 표훈이 다시 하늘로 올라가 천제에게 청하자 천제가 말하였다. “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아들이면 나라가 위태로울 것이다.” 표훈이 내려오고자 하자, 천제는 또 불러 말했다. “하늘과 사람 사이를 어지럽게 할 수는 없는 일인데, 지금 대사(大師)는 마치 이웃 마을을 왕래하듯이 하여 천기(天機: 하늘의 비밀)를 누설했으니 이제부터는 아예 이곳에 다니지 말도록 하라.”

표훈은 돌아와서 천제의 말대로 왕께 알아듣도록 말했지만 왕은 다시 말하였다. “나라는 비록 위태롭더라도 아들을 얻어서 대를 잇게 하면 만족하겠소.” <중략>

해공왕은 원래 여자였는데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돌 때부터 왕위에 오르는 날까지 항상 여자의 놀이를 하며 자랐다. 비단주머니 차기를 좋아하고 도류(道流: 도사의 무리)와 어울려 희롱하고 노니, 나라가 크게 어지러워지고, 마침내 선덕왕(宣德王)인 김양상(金良相)에게 죽임을 당하였다. 표현 이후에는 신라에 성인(聖人)이 나지 않았다.

[『삼국유사』 2권, 「경덕왕, 충담사, 표훈대덕」]

2. 진정(眞定)

강좌내용

『삼국유사』에 따르면, 진정은 출가하기 전에 군대에 속해 있었고, 집이 가난하여 장가도 들지 못하였고, 군대에서 일하는 여가에 품을 팔아서 홀어머니를 봉양할 정도로 효심이 지극하였다. 의상이 태백산에서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는 소문을 듣고 태백산의 의상 문하에 귀의하였다.

법사 진정은 신라 사람이다. 속인으로 있을 때 군졸로 있었는데, 집이 가난해서 장가를 들지 못했다. 부역의 여가에는 품을 팔아 곡식을 얻어서 홀어머니를 봉양했는데, 집안의 재산이라고는 오직 다리 부러진 술 하나뿐이었다. 어느 날 승려가 문간에 와서 절을 지을 쇠붙이를 구하므로 어머니가 술을 시주했다. 이윽고 진정이 밖에서 돌아오자 어머니가 그 사실을 말하고 또 아들인 진정의 생각이 어떤가를 살피니, 진정이 기쁜 안색을 나타내며 말하였다. “부처님의 일[佛事]에 시주하는 것이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비록 술이 없더라도 무엇이 걱정이 되겠습니까?” 이에 진정은 질그릇을 술으로 삼아 음식을 익혀 어머니를 봉양하였다.

진정이 일찍이 군대에 있을 때, 의상법사가 태백산에서 설법을 하여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말을 듣고, 곧 사모하는 마음이 생겨 어머니께 말하였다. “저는 효도를 마친 뒤에는 의상법사에게 가서 머리카락도 도를 배우겠습니다.”

어머니가 말하였다. “불법(佛法)을 만나기 어렵고 인생은 너무나 빠른 것이다. 효도를 마친 뒤라면 또한 늦지 않겠는가? 그러니 어찌 내가 죽기 전에 네가 불도(佛道)를 아는 것만 하겠는가? 주저하지 말고 빨리 출가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진정이 말하였다. “어머님 말런에 오직 제가 옆에 있을 뿐인데, 어찌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할 수 있겠습니까?” 어머니가 대답하였다. “나를 위해서 출가를 못한다면 나를 지옥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비록 생전에 삼위칠정(三牢七鼎: 풍성한 음식)으로 나를 봉양하더라도 어찌 가히 효도가 되겠는가? 나는 의식(衣食)을 남의 문간에서 얻더라도 천수를 누릴 것이니, 나에게 효도를 하고자 한다면 그런 말을 하지 마라.”

진정이 생각에 잠긴지 오래되자, 어머니가 곧 일어나서 쌀자루를 모두 털어보니 쌀이 일곱 되[升]가 있었다. 그날 이 쌀로 밥을 짓고서 어머니가 말하였다. “네가 밥을 지어 먹으면서 가자면 늦어질 수 있으니, 내 눈앞에서 그 한 되 밥을 먹고 여섯 되 밥은 싸가지고 빨리 떠나라.”

진정이 흐느껴 울면서 굳이 사양하며 말하였다. “어머님을 버리고 출가하는 것이 또한 자식된 자로 차마 하기 어려운 일인데, 하물며 며칠 동안의 음식까지도 모두 싸 가지고 떠난다면 천지(天地)가 저를 무엇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3번 사양했으나 어머니는 3번 권했다. 진정은 그 뜻을 어기기 어려워서 길을 떠나 3일만에 태백산에 이르렀다. 진정은 의상에게 귀의하고 제자가 되었고, 이름을 진정이라고 하였다. 3년 뒤에 어머니의 부고가 왔다. 진정은 가부좌(跏趺坐)를 하고 선정(禪定)에 들어가서 7일만에 선정에서 나왔다. <중략>

그리고 나서 진정은 이러한 체험을 의상에게 말하니 의상은 문도를 거느리고 소백산 추동에 가서 초가를 짓고 제자 3000여 명을 모아 약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였다. 그 강의한 것은 제자 지통(智通)이 요지를 뽑아서 2권의 책을 만들었는데, 『추동기(錐洞記)』라고 이름하였다. 이 『추동기』는 세상에 널리 퍼졌다. 강의를 끝나고 나서 진정의 어머니가 꿈에 나타나서 “나는 이미 하늘세계에 태어났다”고 말하였다.

[『삼국유사』 5권, 제9 효선, 「진정법사 효도와 선행이 둘 다 아름답다」]

위의 『삼국유사』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보완할 수 있다. 『비로사사적기(毘盧寺事蹟記)』에 따르면, 신문왕 3년(683)에 비로사가 세워졌다고 한다. 이 비로사는 진정이 의상에게 공부한 지 3년이 되었을 때, 세워진 절이다. 그 때 의상은 진정의 죽은 어머니를 위해서 소백산 추동(錐洞)에서 90일 동안 『화엄경』을 강의하였다. 이 절이 683년에 세워졌다면, 진정은 680년에 출가한 셈이 된다.

강좌내용

진정은 태백산 대로방(大蘆房)에서 의상대상의 강의를 들은 바 있다. 같은 의상의 제자, 상원(相元)은 진정에게 화엄 가르침에 대해 질문하기도 하였다.

3. 지통(智通)

지통은 이량공(伊亮公)의 노비였다. 7세가 되던 문무왕 원년(661)에 영축산 낭지(朗智)에게 출가하였다. 낭지를 찾아가는 길에 보현보살에게서 계(戒)를 받았고, 또한 도리어 낭지로부터 예(禮)를 받았다고 『삼국유사』에서 전한다. 이는 그만큼 지통이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삼국유사』에서 지통을 성인(聖人)이라고 묘사하는 대목도 있다.

뒤에 지통은 부석사 40일회, 소백산 90일회, 태백산 대로방(大蘆房) 등에서 의상에게서 직접 강의를 들었다. 소백산 추동(錐洞) 90일회의 강의를 지통이 기록한 것이 『추동기(錐洞記)』 2권이라는 것은 앞에서 이미 지적하였고, 이것이 13세기까지는 전해지고 있었음을 이장용(李藏用; 1201-1271)이 『추동기』를 윤색했다는 기록에서 알 수 있다. 『도신장』과 아울러 『추동기』는 의상의 강의내용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의상의 화엄사상을 알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또한 의상은 지통에게 법계도인(法界圖印)을 주었다는 기록이 있다.

신라승 지통은 의상대사의 10대제자 중의 한 사람이다. 태백산 미리암(彌理崙)의 굴에서 화엄관(華嚴觀: 화엄경에 근거한 관법)을 닦고 있었는데, 하루는 갑자기 큰 돼지가 굴의 입구를 지나가는 것을 보았다. 지통은 평상시와 같이 목각존상(木刻尊像)에게 정성을 다해 예배드렸더니, 그 목각존상이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굴앞에 지나간 돼지는 너의 과거 몸이고, 나는 곧 너의 미래 과보의 부처이다.” 지통은 이 말을 듣고서 곧 3세(三世; 과거, 현재, 미래)가 하나[一際]라는 가르침을 깨달았다. 후에 의상대사를 찾아가서 이 깨달음을 말하였다. 그러자 의상대사는 지통의 그릇이 완성되었음을 알고서 마침내 법계도인(法界圖印)을 전해주었다.

[균여 『석화엄지귀장원통초』 하권 (『한국불교전서』 4권, 139하-140상)]

4. 상원(常元)

상원은 다른 곳에서 발음은 같지만 글자는 다르게 표현되었다. 상원은 의상이 부석사에서 40일동안 강의한 모임, 곧 ‘40일회’에 참석하여 의상의 강의를 들었다. 상원은 질문을 많이 한 것으로 보인다. 의상의 저술에서는 상원이 의상에게 질문한 내용이 소개되어 있고, 『도신장』에서도 상원의 질문이 나온다. 또한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같은 동문인 진정에게도 질문을 하고 있다.

5. 오진(悟眞)

오진은 일찍이 하가산 골암사에 살면서 밤마다 팔을 뻗쳐 부석사의 석등에 불을 켜다고 한다. 하가산은 지금의 안동 학가산(鶴駕山)이다. 이는 『삼국유사』에 나오는 내용이다.

6. 도신(道身)

도신은 의상의 강의를 기록한 『도신장(道身章)』 2권을 남겼다. 이것이 도신이 쓴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이유는 『송고승전』에 “뜻을 풀이한 책들 중에 제자의 이름을 따라 이름한 것이 있는데, 예를 들면 ‘도신장’과 같다”고 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신장』에는 지엄과 의상의 문답, 원효의 주장, 의상과 그 제자들의 문답, 지통 등 의상의 제자들의 주장 등이 인용되어 있다. 따라서 의상의 화엄사상과 당시의 화엄사상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자료라고 할 수 있다.

IV. 균여의 생애와 사상

균여의 생애

(1) 균여의 등장와 왕실의 인정

균여(均如: 923~?)는 황주(黃州)에서 태어났고 속성은 변씨(邊氏)인데, 변씨는 이 지역의 촌성(村姓)이다. 균여는 어려서 고아가 되었고, 15세 경에 친형(親兄)인 선균(善均)을 따라서 복흥사(復興寺)로 가서 식현(識賢)화상의 제자가 되었다. 그러나 곧 스승의 가르침에 실망하고, 영통사(靈通寺)의 의순(義順)에게 가르침을 배웠다. 균여가 광종 대에 두각을 나타낼 때까지 계속 영통사에 머물며 의순의 문하에서 공부하였다.

953년(광종 4)에 중국에서 광종을 책봉하는 사신이 왔는데, 그만 계속 비가 와서 책봉의식을 행할 수가 없었다. 그 때 비가 그만 오게 하는 법회를 주관한 사람이 바로 균여이다. 균여는 당시의 국사 겸신(謙信)의 추천으로 이 법회를 맡았다. 다행히 비가 멎어 책봉의식을 무사히 마치자, 광종은 균여에게 대덕(大德)의 지위를 주고, 황주성의 외곽지대에 살던 그의 가족을 성안에 들어와 살게 하고, 토지와 노비를 내려주었다.

그 후 958년(광종 9)에 광종이 돌아가신 어머니 유씨를 위해서 지은 절 불일사(佛日寺)에 벼락이 내리자, 균여를 불러 재앙을 물리치도록 하는 법회를 하게 한다. 이 일이 바로 끝난 다음 궁궐 안에 있는 내도량(內道場)으로 불러서 그곳에 머물게 하였다. 균여는 이처럼 국왕의 후원에 힘입어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떠오르게 되자 화엄학을 강의하여 자신의 식견을 발휘한다.

(2) 균여를 비판하는 사람의 등장

한편 균여가 왕실의 후원으로 불교계의 중심인물로 등장하자, 이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 사람이 있다. 균여의 불일사에서 강의한 것에 대해 오현(悟賢)은 후배로서 겸손하지 못했다고 불평을 하면서 비난하였다. 균여의 생애를 소개하고 있는 『균여전』에는 오현의 꿈에 어느 거사가 나타나 균여를 의상의 일곱 번째 후신이라고 이야기해 주어서 오현의 태도가 바뀌게 되었다고 한다.

(3) 균여가 잘못된 이유로 참소당하고 무고를 죄를 면하다

그런데 균여는 개보(開寶: 968~975)년간에 균여와 같은 귀법사(歸法寺)의 승려 정수(正秀)의 참소에 의해 죽임을 당하려다 겨우 모면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정수가 참소한 내용은 이정수행(異情修行)한다는 것이었다. 이는 순수교리를 연구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해석되기도 하고, 다른 마음 즉 역심(逆心)을 품고 수행했다는 의미로도 이해된다.

『균여전』에는 국왕의 꿈에 신인(神人)이 나타나서 경고하였기 때문에 균여의 억울함이 풀리고, 오히려 무고(誣告)한 정수가 죽임을 당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균여의 행적이 전혀 말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균여의 위상은 그 전에 비해 많이 위축된 것만은 틀림이 없다. 아마도 속청은 면했겠지만 불교계의 영향력은 크게 잃었을 것이다.

(4) 균여 무고사건의 정치사적 의미

이러한 균여의 무고사건은 광종의 말년에 참소가 일어나 무고한 사람들이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과 연관성이 있는 것이다. 광종은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신진세력을 등용하고, 나라를 세우는 데 공이 있었던 신하들을 숙청하였지만, 그의 말년에 벌어진 숙청작업은 이것과도 성격을 달리하는 것이었다. 이는 단순한 세력교체가 아니라, 왕권을 강화하는 데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는 세력은 소탕하고자 한 것이고, 여기에다 반대파들이 서로를 역모에 참여했다는 참소를 벌인 것이다. 그래서 왕위 계승권자인 경종마저도 신변이 위협을 느꼈을 정도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단순히 이정수행(異情修行)한다는 참소만으로도 균여가 쉽게 위기에 몰렸을 것으로 추정된다.

2. 균여의 저술

균여는 초기 화엄학을 대표하는 10종류의 책에 대해 강의록을 남겼는데, 현재까지 남아 있는 것은 5종류이다. 그것은 『법계도원통기(法界圖圓通記)』, 『십구장원통기(十句章圓通記)』, 『지귀장원통초(旨歸章圓通抄)』, 『삼보장원통기(三寶章圓通記)』, 『교분기원통초(教分記圓通抄)』이다. 그리고 일반대중을 위한 저술 「보현행원가(普賢行願歌)」 11수가 있다.

(1) 『법계도원통기』 (958년 8월)는 의상의 『법계도』에 대해 균여가 해설한 강의록이다.

(2) 『십구장원통기』는 『십구장』에 대해 균여가 해석한 것이다. 그리고 『십구장』은 의상의 스승인 지엄이

『수현기』를 저술한 뒤에 그 표지에 『화엄경』의 핵심으로 제사한 10구(句)에 대해 신라 출신의 승려가

설명한 것이다. 그러므로 『십구장원통기』는 『십구장』에 대해 균여가 해석을 제시한 것이다.

(3) 『지귀장원통초』는 법장이 『화엄경』의 특징을 10문(門)으로 나누어서 화엄경의 우월성을 설명한

『지귀장(旨歸章)』에 대해서 균여가 해석을 덧붙인 것이고, 고려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화엄종 승려인

천기(天其)가 찾아서 널리 유통시킨 책이다.

(4) 『삼보장원통기』는 법장의 『삼보장』을 균여가 해설한 책이다. 『삼보장』은 불(佛), 법(法), 승(僧)의

삼보를 화엄사상의 맥락에서 해석한 것이다.

(5) 『교분기원통초』는 법장의 『교분기』를 균여가 풀이한 책이다. 『교분기』는 화엄을 대표하는 저술인

『화엄오교장(華嚴五教章)』으로 알려져 있는 책이다. 『교분기원통초』는 7권분량의 저술인데, 959년,

960년, 962년, 3년의 여름 강의[夏講] 때에 나누어서 강의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저서들은 화엄학을

전공하는 승려를 대상으로 강의한 것이므로, 전문가용이라고 할 수 있다.

(6) 그래서 균여는 일반대중을 위해서 「보현행원가(普賢行願歌)」 11수를 지었다. ‘보현행원’은 『화엄경』에서

중생을 위해 봉사하고 구제하겠다는 보살사상이 잘 나타난 대목인데, 균여가 이것을 이두로 된 시가로 읊었다. 이 노래가 당시에 널리 퍼져 마을의 담벼락에 쓰일 정도였다고 한다. 더구나 이 노래를 열심히 부른 어떤 사람은

그 공덕으로 의술로 고칠 수 없었던 고질병을 고칠 수 있었다고 전하고 있으며, 이 노래를 한시로 번역하였는데

이것이 중국에까지 소문이 나서 중국 사신이 균여를 만나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기록도 남아 있다.

3. 균여의 사상

균여가 『화엄경』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살펴본다.

균여 화엄사상의 특징은 『화엄경』을 강조하는 데 있다. 『화엄경』과 다른 경전을 구분해서 『화엄경』은 부처의 깨달음의 경지인 해인삼매(海印三昧)에서 나온 것이므로, 이는 부처의 본래의 뜻을 직접

강좌내용

적으로 드러난 것이고, 나머지 경전들은 부처가 중생의 근기(능력)에 맞추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부처의 본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화엄경』이 진실한 가르침인 실교(實敎: 실제의 가르침)이고, 나머지 경전의 가르침은 방편의 가르침인 권교(權敎)에 해당한다고 한다.

원래 화엄종에서는 『화엄경』을 별교일승(別敎一乘)이라고 화엄종에서 구분한다. ‘별교’는 다른 가르침과는 구분되는 특별한 가르침이라는 의미이다. ‘일승’은 모든 불교 가르침의 궁극적 도달점을 말한다. 그래서 ‘별교일승’은 불교의 가르침 가운데 핵심적이고 중요한 경전을 말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화엄경』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균여는 화엄사상가이긴 하지만, 한 걸음 더 나가서 이 별교일승에 절대적 의미를 부여하고 있으므로, 이를 ‘별교일승절대론(別敎一乘絶對論)’이라고 학계에서 평가한다.

4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는 불교철학자 - 원효	교수자	지혜경
학습목표	- 원효의 생애와 부처의 생애 이야기의 공통점을 살펴본다. - 원효의 생애 속의 중요한 설화들을 살펴보고, 그 중에 한 가지 이상을 이야기할 수 있다. - 원효 사상의 일심(一心), 화쟁(和爭), 무애(無碍) 개념을 이해한다.		
핵심어	원효, 일심, 무애, 화쟁		
주요흐름	원효의 생애와 관련된 다양한 설화적 이야기를 살펴보고, 그의 대표적인 철학사상인 일심(一心), 화쟁(和爭), 무애(無碍) 사상을 공부한다.		
읽기자료	김원명, <원효-한국불교철학의 선구적 사상가>, 살림		
학습요소	영상 47분 20초 읽기자료 제공, 토론 2문항, 부록 영상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삶 속에서 일어나는 다툼을 원효의 방식으로 해결한다면 어떻게 해결하는 것일까?
나의 방식과 원효의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퀴즈&시험] 없음

강좌내용

<인트로>

이번 강의에서는 한국인이 가장 존경하고 사랑하는 불교학자인 원효의 생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어떤 철학자들보다도 원효에 대해서는 삼국유사와 여러 기록들에 많은 이야기들이 남아있습니다. 여기에서는 그에 관한 유명한 설화들을 중심으로 그의 생애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의 탄생 이야기>

원효는 신라시대의 승려로, 승려가 되기 전 어릴적 이름은 서당이며, 불지촌 설씨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아이가 뱃속에 있었을 때 유성, 별이 어머니의 품으로 떨어지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아이를 임신했을 때 꾸게 되는 꿈을 태몽이라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뛰어난 인물에 대한 특별한 태몽들이 많이 전해집니다.

삼국유사에 의하면, 서당의 어머니가 만삭, 즉 배가 불러 아이를 출산할 즈음에 동네 근처를 지나다가 갑자기 밤나무 아래에서 그를 낳았는데, 그가 태어날 때 다섯가지 빛깔의 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이후 그 나무를 사라수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나무에서 열린 밤을 사라밤이라고 하였다고 합니다. 서당은 어릴 적 부터 총명하여 당시 귀족 집안의 다른 아이들처럼 화랑으로 활동하였으나, 어머니 죽음, 그리고 전장에서 함께 하던 화랑 친구의 죽음을 마주한 이후 삶과 죽음의 문제에 깊은 고민을 하며 출가를 결심합니다. 출가한 후 자신의 집을 절로 만들어 초개사라 했고, 사라수 옆에도 사라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원효의 어린 시절 이야기는 여러 면에서 석가모니 부처의 이야기와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석가모니 부처의 태몽은 흰 코끼리가 어머니 마야부인의 품에 들어왔으며, 만삭의 몸으로 아이를 낳기 위해 친정으로 향해가다가 중간에 무우수라는 나무 아래에서 아이를 낳았고 용들이 나타나 부처님의 몸을 씻어줍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아이를 낳자마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비슷한 점이 보이지요? 특별한 태몽, 나무아래에서의 탄생, 탄생 당시의 신비한 현상, 어머니의 죽음. 나아가 어린 나이에 소중한 사람을 잃어버리는 경험을 두 분은 깊은 성찰로 승화시켜 깨달음을 얻었지요. 이러한 유사점은 원효가 사람들에게 부처님에 버금가는 특별한 존재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승려가 된 이후 원효는 여러 선생님을 찾아다니며 공부를 했으며, 한 명의 선생님만이 자신의 스승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스님들은 한 명의 뛰어난 분을 스승으로 삼아 그 문하의 한 사람으로 머물렀던 반면, 원효는 여러 선생님에게 불교 이외에도 유교와 도교의 가르침도 배웠다고 전해집니다. 배움에 목말랐던 원효는 가깝게 지내던 의상과 함께 당나라로 가서 당시 최신 학문이었던 새로운 유식불교를 공부하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의상은 중국에서 화엄 불교를 공부하고 신라에 화엄불교를 전하고 융성시킨 스님입니다. 의상과 원효는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편이지만, 학문적으로 좋은 도반, 좋은 친구였다고 합니다. 이 두 사람이 서로 의기 투합하여 당나라로의 유학을 결심해서, 원효가 34살 때인 650년, 육로를 따라 고구려를 통해 당나라로 출발합니다. 그러나, 국경지역에서 간첩으로 오인 받아서 한동안 감옥에 갇혀있다가 풀려납니다. 한번 이런 일이 생기면 유학을 포기할 만도 한데, 뛰어난 스승에게서 선진 학문을 공부하고 싶다는 두 사람의 강렬한 열망은 다시 한 번 유학을 결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당나라로 떠나기로 합니다. 그런데, 당진 나루터에서 배를 타기 전에 원효는 유학을 포기합니다. 여기에는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해골물을 마시고 깨달음을 얻다>

배를 타고 가기 위해 항구 마을로 이동하시던 중, 원효와 의상은 밤에 큰 비를 만나게 됩니다. 도저히 비를 뚫고 이동할 수 없어서 두 사람은 머물 곳을 찾던 중, 다행히도 움막 같은 곳을 찾게 되어 그곳에서 잠을 청하게 되었습니다. 한 밤중에 원효는 목이 말라 잠결에 물을 찾던 중 근처에 물이 담긴 그릇을 발견하고 너무나 달게 마셨습니다. 단잠을 잔 뒤 아침에 깨어나서 원효는 너무 놀랐습니다. 두 사람이 밤새 잠을 잔 곳은 움막이 아닌 무덤 속이었고, 밤 중의 목마름을 달래주었던 물은 해골 속의 썩은 물이었던 것입니다.

강좌내용

썩은 물을 마셨다는 것을 아시는 순간 구역질이 일어나 한참을 토했다고 합니다. 누구나 그 상황에서라면 당연한 반응이었겠지요? 한참을 토한 후, 원효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그리 달게 먹었던 물이었는데, 오늘 해골 속 썩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나니 구역질이 이렇게 나니, 이게 무슨 일인가? 어제의 해골 속 물이나 오늘의 해골 속 물이나 달라진 것은 없는데, 달라진 것은 내 생각, 내 마음이구나.” 모든 것은 마음에 달려 있다는 불교의 가르침을 그 순간 경험으로 체득하였습니다. 그리고 원효의 깨달음은 단순한 깨달음에 머물지 않고, 본인이 당면한 문제에 바로 적용되었습니다. 당나라 유학이라는 큰 문제를 앞두고, 어디에서 누구에게서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내가 공부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유학을 포기하고, 신라에서 계속 공부하기로 하었다고 합니다. 반면에 의상은 계획한대로 유학을 떠났습니다.

<원효의 대중교화>

깨달음을 얻은 후 신라에 남은 원효의 삶은 이전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는 경전공부에 매진하며 자신의 깨달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후에는 불교를 대중들에게 알리는 일에 힘썼습니다.

불교 신자가 아니어도 많은 한국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 말을 외우는 사람을 보면 불교를 떠올립니다. 여기에서 나무아미타불이라는 표현을 처음 사람들에게 가르쳐준 사람이 원효입니다.

나무아미타불은 아미타불에게 귀의한다는 의미로, 귀의한다는 것은 믿고 따르다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아미타불은 서쪽의 정토를 다스리는 부처로, 불교 경전에는 아미타불의 이름을 열 번 부르면 아미타불이 만든 서방정토에 태어난다는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교리에 근거하여 사람들에게 나무아미타불의 이름을 부르는 기도, 염불수행을 가르쳐 준 것이 바로 원효입니다. 당시에는 귀족들이 탑을 세우거나 불교 사찰의 건물을 지으면서 정토에 태어날 것을 희망하였는데, 돈도 들지 않고, 어려운 공부를 할 필요 없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수행법을 제시해 준 것입니다. 그는 허름한 복장에 바가지를 두드리고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교화방식에 영향을 준 사람으로는 대안스님과 혜공스님이 있습니다.

대안은 이상한 옷을 입고, 구리그릇을 두드리며 대안대안, 즉, “크게 편안하시게”를 외치며 돌아다니셨다고 합니다. 그냥 이 이야기만 보면, 그의 이 행위는 이상해보이기만 합니다. 그러나 신라의 삼국통일을 위한 전쟁으로 지친 백성들에게 위로와 치유를 위해 한 말이라면 수긍이 갑니다. 사람들이 삶 속에서 겪는 마음의 고통을 없애기 위한 것이 불교이기 때문입니다.

대안의 행실은 독특했으나, 경전공부에도 뛰어났다고 합니다. 신라에 금강삼매경이라는 경전이 들어왔을 때, 순서가 정리되어 있지 않았던 책을 정리해달라고 왕이 스님을 불렀다고 합니다. 송고승전에 의하면, 왕비가 몸이 아파서 이에 대한 치료 방법을 찾았는데, 한 노인이 금강삼매경을 정리해서 이에 대한 강의글을 남기면 낫는다고 하여, 왕이 대안을 불렀다고 합니다. 대안은 책을 순서대로 정리한 후, 그 책에 대해서 강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원효라고 하며, 원효를 추천했다고 합니다. 원효에게 강의를 부탁하자, 원효는 경전이 두가지의 깨달음에 대해서 말하고 있으므로 두 뿔이 있는 짐승의 두 뿔 사이에 책상을 놓고 강의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요청합니다. 왕이 이를 받아들여서 소달구지를 보내주었고, 원효는 소달구지에 앉아 금강삼매경에 대한 다섯 권의 강의록을 쓰게 되니, 그것이 금강삼매경론입니다. 이후 원효는 분황사에 금강삼매경에 대해서 강의했습니다.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대안은 원효가 대중교화로 방향을 전환하는데에 직접적 계기가 되었다고도 하나 이는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대안처럼 원효도 불교경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대중교화를 했던 점이라든가, 대안이 대중교화하는 방식은 원효에게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대안이 구리그릇을 치며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대안대안하던 외치던 것처럼, 원효도 바가지를 두드리며, “나무 아미타불”을 외치며, 사람들의 편안함과 해탈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강좌내용

한편 해공과 원효의 인연에 대해서는 좀 더 극적인 이야기가 남아있습니다.

해공은 천진공이라는 사람의 집안일을 도와주던 할머니의 아들로, 출가 전에는 천진공의 매를 돌보는 일을 했다고 합니다.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매사냥은 한국인들에게 인기있는 스포츠였습니다. 아뭏든 그의 어릴 적 이름은 우조였는데, 근심우에 도울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사람들의 근심을 도와주는 일을 하였습니다. 천진공이 몸에 종기가 나서 아플 때 이를 치료해주었고, 천진공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매 한마리를 동생에게 주었다가 후회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지도 않았는데도 이를 알아채고 매를 찾아다 주었다고 합니다. 천진공의 바뀐 마음을 알아차려 매를 찾아다 주자, 천진공이 그의 뛰어남에 감탄하며, 그동안 종으로 부린 것을 사과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일 이후 스님이 되었는데, 스님이 된 뒤의 행동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삼태기를 등에 지고 노래하고 춤을 추며 거리를 돌아다녔기에 사람들은 그를 부케화상이라 불렀습니다. 삼태기는 재나 비료를 운반하기 위해 짚으로 만든 한국의 전통 농기구입니다. 농기구를 등에 지고 다닌다는 것은 이상하지요. 또한 절의 우물속에 들어가 몇 달식 머물렀는데, 우물 속에서 해공이 나올 때는 해공이 나올 것이라는 신호를 주듯, 푸른 옷을 입은 하늘의 동자들이 먼저 나왔고, 해공이 이어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우물 속에서 나온 그의 몸은 젖어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해공이 신기한 능력을 가진 수행자였음을 말해줍니다.

해공이 향사사에 머무를 때에 원효가 경전을 공부하다 모르는 게 있으면 자주 물으러 왔다고 합니다. 하루는 두 사람이 절 앞 계곡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고, 한켠에서 똥을 누었는데, 똥이 물고기로 변하여서 한마리는 위로 올라가고 한마리는 아래로 내려갔다고 합니다. 두 사람 모두 서로 위로 올라간 물고기가 자기 물고기라고 농담을 주고 받았다고 합니다.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물고기가 수행자를 상징하기 때문에 서로 자기가 제대로 된 수행자라는 것을 농담삼아 이야기한 것이지요. 이 일화로 향사사였던 절 이름이 오어사로 바뀝니다. 나 오, 물고기 어, 내 물고기라는 의미입니다.

대안, 해공 모두 거리를 돌아다니며, 노래하고 춤추며 불교적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전파하였고, 원효도 이들의 방식을 따라 불교를 사람들에게 전합니다. 바가지를 두드리며 나무아미타불을 외치고, 무애가를 부르고 무애춤을 추었다고 합니다. 무애란 걸림이 없다는 것으로 세상의 온갖 규율과 속박, 차별, 편견들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상태를 말합니다. 걸림이 있다는 것은 어떤 일이나 대상을 만났을 때 마음에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비가 오면 비가 와서 옷이 젖고 불편하다고 마음이 편치 않고, 해가 내리쬐면 햇빛이 강해서 얼굴이 새까맣게 탈까봐 걱정합니다. 이것이 걸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비가오면 비가 오는대로 즐겁고, 햇빛이 내리쬐면 내리쬐는대로 따스함을 느끼는 것이 걸림이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우리는 사회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합니다. 예전에는 여자가 집안일을 해야하고 남자가 바깥일을 해야한다는 생각이 한국사회 전반의 생각이어서 집에서 살림하는 남자를 보면 이상하게 생각했습니다. 사실 여자 남자가 해야 할 일이 정해져 있지 않음에도 사회적 통념에 의해 나누어 생각하고, 그에 맞지 않는 삶을 사는 사람들을 이상하게 보거나 비난하였습니다. 이것이 또한 걸림이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것은 내 뜻대로 세상을 보려하기 때문이고, 내 마음에 안차는 일들을 견디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를 내려놓으면, 삶에서 마주하는 모든 사람들과 상황들이 괴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원효는 “일체에 걸림이 없는 사람은 한 길로 생사를 벗어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즉, 세상의 틀과 세상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삶의 상태에 이르는 것이 깨달음을 얻은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원효는 광대가 바가지를 들고 추는 춤을 보면서 무애춤을 만들었는데, 그가 만든 이 춤은 고려시대 때 정식 무용의 형태로 발전합니다. 두 사람이 호리병을 두드리며 앞으로 나갔다가 뒤로 물러서는 춤으로, 열사람의 백댄서가 함께 하였다고 합니다. 그 춤은 귀족에서부터 평민에까지 퍼져서, 귀족들은 호리병을 화려하게 장식해서 추기도 했고, 궁중에서 추는 춤의 하나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춤은 조선시대에도 궁중에서 추었었는데, 그 가사 내용인 무애의 내용이 도덕적 원칙을 강조하는 신유학과는 맞지 않았기에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가사 내용을 임금의 만수무강을 비는 노래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원효는 이처럼 무애의 수행태도를 가지고 귀족과 평민의 구분을 넘어서서 평민들의 깨달음을 위해 불교를 포교하는 데에 일생을 바칩니다. 노래와 춤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끌어 이해하기 쉽게 불교의 가르침을 이야기

강좌내용

해주고, 정토종의 가르침에 기반한 쉬운 나무아미타불의 수행법을 가르쳐주어 한국에 정토사상이 뿌리내리게 합니다. 그의 정토사상은 일본에까지 전해집니다.

<광덕과 엄장>

그가 정토사상에 정통했다는 것은 광덕과 엄장과 관련된 원효의 설화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광덕과 엄장은 친한 친구사이로, 불교에 뜻을 두고 수행을 하며, 둘 중에 서방극락에 먼저 가는 사람이 간다고 알려주자는 약속을 합니다. 극락은 정토의 다른 표현으로 그곳은 큰 즐거움만 있다는 의미에서 극락이라고 합니다.

이후 광덕은 결혼을 하여 집신을 삼는 일을 하며 살아갔고, 엄장은 산속에 머물면서 홀로 농사를 짓고 수행을 하며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해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물들고 소나무 숲에 어둠에 내려올 때, 엄장에게 광덕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나는 이제 서쪽 극락으로 가니 자네는 잘 지내다가 속히 나를 따라오게나.” 이 소리를 듣고 엄장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구름위에서는 하늘의 음악소리가 들려오고 밝은 빛이 땅까지 뻗었다고 합니다.

다음날 엄장은 광덕의 집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 광덕의 부인에게 남편이 죽었으니 함께 지내는 것이 어떻냐고 묻자, 광덕의 아내는 좋다고 합니다. 함께 지내게 되어서 첫날밤을 보내는데, 부부관계를 하려하자 광덕의 부인이 광덕을 거절하며 말하기를 “스님께서 서방정토를 구하는 것은 마치 나무에 올라가서 물고기를 구하는 것과 같습니다”라고 합니다. 이에 엄장이 너무 놀라서 광덕과는 잠자리를 해놓고 왜 나는 거부하며 그렇게 말하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부인이 말하기를 “남편은 나와 십여년을 함께 살았지만 하룻밤도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습시다. 하물며 몸을 더럽혔겠습니까? 우리는 다만 몸을 단정히 하고 바르게 앉아서 아미타불을 염송했습니다. 밤새 아미타불과 극락정토를 그리는 심욕관법을 수행하였고, 깊은 명상 상태에서 밝은 달빛이 방에 들어오면 때때로 그 위에 올라가서 명상을 했습니다. 정상을 다하는 것이 이와 같았는데, 남편이 서방정토로 가려고 아니한들 어디로 가겠습니까? 무릇 천리길을 가고자 하는 사람을 그 첫걸음부터 알 수 있는 것인데, 지금 스님이 하는 관법은 동쪽으로는 갈 수 있을지언정 서쪽으로는 갈 수 없겠지요.”라고 단호하게 이야기합니다. 이에 무안하고 당황한 엄장은 원효를 찾아옵니다. 상황을 설명하고 서방정토에 가는 법을 물으니 원효가 쟁관법을 가르쳐 주었고, 이 수행법을 통해 서방정토로 갔다고 합니다.

삼국유사에서는 이 이야기의 끝에 광덕의 부인이 황룡사의 여종이었지만, 사실을 관세음보살의 화신이라고 하였습니다. 관세음보살, 줄여서 관음보살은 불교의 중요한 보살 중 하나로, 넓은 자비심으로 세상에서 고통 받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고 고통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준다고 합니다. 관음보살은 여러 존재의 모습으로 바꾸어서 사람들이 필요로 할 때 나타나 그들의 수행을 돕습니다. 화신이란 일종의 아바타로,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필요한 모습으로 세상에 나타나는 부처나 보살의 모습을 말합니다. 여기서 광덕의 부인이 광덕과 엄장 모두 서방정토에 태어날 수 있게 도왔기 때문에 관세음 보살의 화신이라 한 것입니다. 심욕관법은 아미타불이 만든 정토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이미지로 그려보면서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지는 해를 바라보면서 서방정토를 생각하는 것, 연못을 보고는 서방정토의 연못을 생각하고, 각각의 부처님의 모습을 그려보는 것입니다.

쟁관법이 어떤 수행법인지 알려져 있지 않지만, 징 같은 악기를 쳐서 소리를 통해 성욕 등의 잡념을 없애는 수행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원효가 바가지를 치며 노래를 불렀다는 이야기에서 추론해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원효와 의상>

원효가 이처럼 정토사상을 바탕으로 대중교화를 하고 있을 때 의상은 중국에서 화엄사상을 배워서 돌아옵니다. 원효와 의상이 이후 교류를 하였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지만, 낙산사 흥련암의 창건설화에서 두 사람을 비교한 흥미로운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유학을 다녀온 후 의상은 낙산 근처 동쪽 바다 한 동굴에 관음보살이 머문다는 이야기를 듣고 관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몸과 마음을 깨끗이 하고 계율을 지키며 일주일간 열심히 수행을 합니다. 일주일 쯤 되던 날 앉아있던

강좌내용

짚으로 만든 방석을 물에 띄우니 방석이 움직여 동굴의 위치를 가르쳐 줍니다. 동굴에 도착하니 용왕이 반갑게 맞으며 여의주를 주었다고 합니다. 의상은 동굴에서 또 일주일간 열심히 기도를 하고 수행을 하니 일주일 쯤 되던 날 관음보살이 나타납니다. 관음보살은 그를 칭찬하며 자신이 앉아있던 산꼭대기에 한쌍의 대나무가 솟아오르는 자리에 절을 세우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세운 절이 낙산사입니다.

한편 원효도 그 소식을 듣고 관세음보살을 만나기 위해 동해로 향합니다. 원효가 낙산사 근처에 도착했을 때, 논에서 벼를 베고 있는 한 여인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고 “그 벼를 제게 주시오.”라며 장난스레 말을 겁니다. 그러자 그 여인도 “벼가 잘 익지 않아 줄 수가 없소이다.”라고 장난스레 거절하였습니다. 다시 길을 가다가 이번에는 다리 아래에서 천으로 된 생리대를 빨고 있는 여인을 보고는 또 장난스레 말을 겁니다. “물을 줍 주시오.”라고 하자, 그 여인이 생리대를 빨던 물을 떠서 원효에게 주었습니다. 당연히 원효는 그 물을 쏟아 버리고 다시 물을 떠서 마셨지요. 이 때 근처 소나무 위에 파랑새 한 마리가 나타나 “제일 좋은 것을 거절하는 스님”이라고 말하고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이게 뭐 일인가 놀라서 소나무에 다가가보니,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이 남아 있었습니다. 원효가 낙산사에 도착해서 보니, 관음보살이 있다던 자리에 관음보살은 없고, 자신이 소나무 아래에서 보았던 신발과 똑같이 생긴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제서야 원효는 낙산사로 오는 도중에 만난 여인들이 관음보살의 화신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혹시나 하는 마음에 동굴로 들어가서 만나려고 했으나, 큰 파도가 일어 동굴로 들어가는 것을 막아 결국 관음보살을 만나지 못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파랑새가 앉아있었던 소나무는 이후 관음송이라 불리게 됩니다.

두 사람을 비교해보면, 의상은 엄격히 계율을 지켰던 승려였고, 원효는 무애행을 했던 수행자였습니다. 관음보살은 모범생 같은 의상을 더 좋아했던 모양인지, 의상을 선택했습니다. 교리적으로 보면 의상은 화엄 사상과 관음보살에 대한 신앙을 결합한 가르침을 폈고, 원효는 유식사상과 정토사상을 결합한 가르침을 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신라시대 때는 의상이 전통적인 승려로 국가적으로 영향력 있는 스님이었던 반면 원효는 재야 인사로 일반 대중에게 더 영향력 있는 스님이었습니다. 그런 상황들이 이 이야기에는 담겨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원효와 요석공주>

원효스님은 여러 경전에 대한 뛰어난 이해를 바탕으로 자기 철학을 하신 분인데, 대중교화를 위해 거리를 돌아다니며 가르침을 편 이후, 당시 불교학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엄격히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지요. 이와 관련해서 원효에 대한 유명한 야사, 세기의 로맨스라 불리는 요석공주와의 사랑이 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요석공주는 신라를 통일한 태종 무열왕의 딸로 일찍 결혼을 했으나 남편을 전쟁터에서 잃어버리고 젊은 나이에 과부가 되었습니다. 원효와 요석공주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이야기는 원효가 어느 날 “그 누가 자루 없는 도끼를 내게 빌리겠는가. 나는 하늘 떠받칠 기둥을 찍으리.”라는 가사를 가진 노래를 부르면서 시작됩니다.

원효가 이 노래를 부르며 다니자, 이 노래를 들은 태종무열왕은 단번에 원효대사가 귀부인을 얻어 훌륭한 인물을 낳기를 바란다는 것을 알아채고, 자신의 딸 중에 요석궁에 살고 있는 과부인 공주를 떠올립니다. 두 사람을 만나게 하기 위해 신하를 원효에게 보냈는데, 마침 요석궁 근처를 지나던 원효는 문천교에서 물에 빠져, 옷을 말린다는 이유로 요석궁에 들어갑니다. 원효는 요석궁에서 3일을 보낸 후 떠났는데, 공주가 임신을 하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됩니다.

러브스토리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밋밋한 이야기이지만, 이 이야기 자체는 스캔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이성과의 사랑을 금지하고 있는데, 당시 가장 뛰어난 승려라고 알려진 원효가 이를 어긴 것입니다. 근대 이후 한국불교에서 승려들의 결혼을 허락하면서 지금은 결혼한 스님들이 계시지만, 신라시대 때만 하더라도 여성과의 동침은 기본 계율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파계승. 그것이 원효를 따라다니는 꼬리표였습니다. 왜 그가 그런 선택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록도 없어서 알 수 없지만, 그 일 이후 원효는 더욱 대중과

강좌내용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이전에는 사람들이 요석공주를 승려와 금지된 사랑을 나눈 비련의 여주인공으로 보았습시다만, 요새는 원효를 대중교화의 길로 이끈 사람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게 원효와 요석공주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기가 훗날 신라의 10대 현인 중의 한명으로 꼽히는 설총이었습니다. 설총은 이두라고 하여 한자를 활용한 한글 표기방법을 고안해낸 유학자입니다. 이두식 표기법은 19세기말까지도 사용되었습니다. 설총의 아버지에 대한 애정은 상당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설총은 아버지의 유골을 모아서 아버지의 모습을 한 조각상을 만들어 분황사에 모시고 매일 정성스럽게 기도했습니다. 하루는 그가 예배를 드리자, 조각상이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고 합니다. 아버지로서 원효도 자식에 대한 애정이 컸던 모양입니다.

<마무리>

이 강의에서는 원효의 생애를 그에 관해 전해 내려오는 유명한 다섯 개의 설화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의 사상]

<인트로>

이번 강의에서는 원효의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효의 사상은 크게 일심 사상, 화쟁 사상, 무애 사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마음>

일심은 한국어로 번역하면 한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는데, 다양한 마음의 모습들을 하나로 포괄해서 지칭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심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의 마음에 대한 불교의 논의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불교는 인간 마음의 고통을 해결하는 데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마음에 대해서 깊이있게 분석하고 연구해왔습니다. 1장에서 살펴보았듯이 불교에서는 인간의 정신작용을 느낌, 인지, 의지, 의식의 넷으로 세분하였고, 이후 의식을 더 세분하며 마음에 대한 다양한 표현들을 사용하여 마음의 작용을 설명하려고 하였습니다.

또한 불교는 우리가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느냐를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인식과정에 대해서도 세분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불교는 인식의 과정에서 사용되는 요소를 18개로 분류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대상을 인식할 때 감각기관을 통해서 인식합니다. 눈으로는 보고, 귀로는 듣고, 코로는 냄새 맡고, 혀로는 맛을 보며, 몸을 통해서는 감촉을 느낍니다. 무언가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색깔과 모양이고, 귀로 들을 수 있는 것은 소리이고, 코로 맡을 수 있는 것은 향기이고, 혀로 알 수 있는 것은 맛이고, 몸을 통해서는 감촉을 느낍니다. 불교는 이 열 가지 외에 생각의 대상과 마음을 추가합니다.

불교에서는 여섯 개의 인식대상을 육경-색성향미촉법, 여섯 개의 인식기관을 육근-안이비설신의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둘을 합쳐서 12입처, 12처라고 합니다. 입처란 정보가 들어오는 곳이라는 것인데, 이미 이 감각정보가 들어올 때 우리의 자의식이 작동하여 나 중심으로 분별하여 해석된 정보가 들어오기에 12입처라고 말합니다. 12처를 통해 해석되어 들어온 정보들은 나의 마음이 결합된 것이기에 불교에서는 이를 이념 붙여 분류합니다.

강좌내용

그래서 각 기관의 한자 이름에 마음을 의미하는 식자를 붙여서 각각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이라고 합니다. 이같이 여섯개의 인식대상과 여섯개의 인식기관, 여섯개의 마음을 합쳐서 18계라고 합니다. 계는 경계를 나눈다는 것으로 같은 종류별로 묶었다는 것입니다.

18계의 분류법은 왜 우리가 싫어하는 음식을 먹어야 할 때는 유난히 그 냄새와 맛이 이상하게 느껴지는지, 사랑에 빠졌을 때는 왜 상대가 마냥 멋지게 보이는지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좋고 싫음을 분별하는 마음이 작용하여서 인식하는 내용도 달라지는 것이지요.

우리는 마음을 하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지만, 불교에서는 이처럼 여섯 개의 감각기관과 연결된 여섯 개의 마음인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과 의근을 포함해서 일곱 개로 세분합니다. 이후 유식불교는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하여 여덟 개의 마음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유식불교는 의근을 일곱번째 식, 말나식으로 부릅니다. 칠식은 자의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칠식은 여덟번째 식을 나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덟번째 식은 아뢰야식이라고 하는데 그동안 우리가 행했던 업의 결과들이 씨앗처럼 저장되는 저장창고입니다. 이를 현대식으로 이야기하면 무의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불교에서는 이를 근본의 마음, 근본식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인식과 존재, 나아가 전 우주가 바로 아뢰야식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대상과 감각기관이 연기적으로 만날때만 존재하는 것이 불교에서 세상을 보는 방식인데, 그러면 세상이 유지되는 것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그래서 아뢰야식이 자연과 인간의 몸을 유지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내가 세상을 있는 그대로 인식한다고 생각하지만, 불교는 내 마음이 대상과 만났을 때 내마음에 형성된 이미지를 우리가 인식한다고 봅니다. 그 인식의 과정은 예를 들어 개를 볼 때, 아뢰야식 속에 저장된 나의 경험 데이터가 작용하면서 개의 모습이 내 마음에 그려집니다. 개의 눈과 짖는 소리를 감각하면서 개와 좋은 경험을 있으면 눈도 둥글고 귀엽게, 소리도 친절하게 그립니다. 그러나 개에게 물렸던 경험이 있으면 개의 표정도 무섭고, 소리는 공격적으로 들리게 그립니다. 그러면서 “저 개는 사랑스러워,” 또는 “저 개는 무서워”라는 판단을 내리게 되지요. 아뢰야식은 이처럼 대상을 이해하는 데에 색을 입히기 때문에, 이 아뢰야식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깨달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사람들이 문제제기를 합니다. 아뢰야식을 깨끗하게 정화한다면, 그 깨끗하게 된 아뢰야식은 아뢰야식이라 부를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제 아홉번째 식 아말라식이라고 이름 붙입니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이런 고민도 합니다. 콩심은 데 콩나고 팥심은데 팥나는 것인데, 우리 안에 깨달음의 씨앗이 있어야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우리 마음에 부처가 될 수 있는 씨앗이 있다고 해서 이를 여래장, 여래의 씨앗을 담고 있는 창고라고 부릅니다. 처음에는 자라지 않는 씨앗 형태로 표현했었으나, 나중에는 불성, 부처의 성품이라 표현하며, 우리 안에 부처의 성품이 있다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처럼 불교에서는 마음을 여덟 개 또는 아홉 개로 세분해보기도 하고, 부처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은 개념들을 써서 설명하기도 합니다. 마음은 하나일 텐데 여러 관점에서, 마음의 역할에 따라 다양한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불교는 이렇게 하나의 대상을 여러각도에서 설명하고 이름붙이기를 잘합니다. 이름은 고정적인 실체가 아니기에 사물은 보는 각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보고, 기능에 따라 다르게 분류하여 이름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설명할 때도 오온, 십이처, 십팔계라고 이름하고, 마음도 육식, 팔식, 아뢰야식, 여래장, 불성 등등 으로 부릅니다. 원효가 일심을 이야기하게 된 것은 이런 다양한 설명들을 하나로 종합하여 이해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일심>

원효는 대승기신론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일심사상을 펼칩니다. 대승기신론이란 대승불교에 대한 믿음을 일으키기 위한 논서로 동아시아에서 매우 중요한 경전입니다. 논서란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 부처님의 말씀에 대해 불교철학자들이 쓴 책을 말합니다. 이 책은 모든 사람들이 일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처가 될 수 있다고 하며, 어떻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일심이라는 개념 하에 불교의 마음에

강좌내용

대한 모든 개념들을 본래상태의 깨끗한 마음, 즉 진여심과 인연에 따라 생겨나고 사라지는 오염된 마음, 즉 생멸심으로 나누어 분류합니다. 그래서 오염된 마음을 본래의 깨끗한 마음으로 되돌리는 것을 깨달음으로 보고, 그 방법으로 네 가지에 대한 믿음과 다섯 가지 수행법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네 가지에 대한 믿음은 마음의 본래상태와 부처님, 부처님의 가르침, 그리고 불교 수행자에 대한 믿음을 말합니다. 이를 진여, 불, 법, 승에 대한 믿음이라고 합니다. 다섯가지 수행법은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지관입니다. 보시는 내가 가진 것을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것인데, 이는 내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는 마음에 기반해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지계는 생각과 말과 행동과 관련된 계율들을 잘 지킨다는 것이며, 인욕은 온갖 모욕과 어려움을 참으면서 원한을 품지않고 보복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 것입니다. 정진은 좋은 것은 계속 지속되게 실천하고, 나쁜 것은 생겨나지 않게 열심히 수행하는 것입니다. 지관은 명상수행으로 잡념 없는 깊은 집중 상태를 지, 깊은 집중상태에서 깨끗해진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관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승기신론의 내용을 바탕으로 원효는 일심의 철학을 주장합니다. 그가 말하는 일심은 불교에서 그동안 이야기한 마음에 대한 모든 개념들, 여래장, 불성, 아뢰야식 등을 모두 포함합니다. 그래서 일심은 모든 존재의 근원이며, 모든 현상을 포괄합니다. 그런데 이 일심은 저 멀리 특별한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니라 중생, 생명이 있는 존재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다르지 않습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도 바로 일심입니다. 다만 일심은 맑고 깨끗한 본래마음과 나의 업과 주변의 대상을 만날 때마다 변화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맑고 깨끗한 본래마음을 회복하고 거기에 머물 수 있도록 수행해야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는 마음을 맑은 호수에 비유하곤 합니다. 맑은 호수에는 주변 풍경이 그대로 비추어 집니다. 그러나 비온 뒤에 물이 탁 해지면, 주변 풍경이 그대로 비추어 지지 않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아서 본래 마음 상태를 유지할 때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앞의 영상에서 살펴본 원효의 해골물 이야기는 바로 그의 일심사상을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의 해골물 이야기가 만들어진 이야기라도 하지만, 그 이야기에 원효의 사상이 압축적으로 잘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것은 결국 내 마음, 한마음입니다. 내 마음에 따라서 해골 속 썩은 물이 갈증을 없애주는 물일 수도 있고, 구역질을 일으키는 물일 수도 있다는 것이 일심 사상입니다. 그리고 일심사상은 모든 존재들의 마음이 곧 일심이기때문에, 모든 존재들은 차별없이 평등한 존재라는 것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화쟁사상>

원효 철학을 특징짓는 화쟁 사상은 서로 다른 불교 이론들 간의 다툼을 화해시킨다는 것입니다. 석가모니 부처 이후 불교가 성장하면서 다양한 경전들이 만들어지고, 여러 학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인도에서는 순차적으로 발달했던 경전들이 중국에 전해지는 과정에서, 발생순서에 상관없이 전해지자, 중국의 불교철학자들은 이를 어떻게 정리할까 고민을 하게 됩니다. 원효의 고민도 그 연장선에 있습니다. 불교의 학파들의 주장 중에는 같은 불교이지만 서로 대립되는 주장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각각 이전 학파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실체가 없다는 공사상을 주장하는 중관불교와 달리 유식불교는 우리의 마음이 모든 것을 만든다는 대립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 이를 어떻게 조화롭게 하나의 체계에서 이해를 할까? 원효의 화쟁사상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제시합니다.

우선 나의 의견이 나만의 관점에서 형성된 의견임을 인정해야합니다. 화쟁을 이야기하면서 원효가 사용한 비유 중에 장님의 코끼리 비유가 있습니다. 하루는 한 임금이 장님 마을에 코끼리를 선물로 보냅니다. 코끼리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장님들이 코끼리 만지고 나서 각각 자기가 생각하는 코끼리에 대해서 말합니다. 귀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큰 부채같다고 말하고, 코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큰 호스같다고 하고, 다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는 큰 나무기둥 같다고 말하고, 꼬리를 만진 장님은 코끼리가 로프같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코끼리를 제대로 인식한 것일까요? 코끼리를 코끼리로 알지 못했기에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들이 만진부분만 놓고보면 그들이 틀렸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자신들의 경험에 의거하여 이야기한 것일 뿐 이니까요. 원효는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론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장님들 같다고 말합니다. 즉, 부분만 보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이니까요. 그러므로 나만 옳은 것이 아님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강좌내용

하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이 많으니, 그럴 때는 어떻게 화쟁시킬 수 있을까요?

원효는 모든 불교학파의 주장들이 불교의 가르침을 나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 각각의 타당성을 따져본 뒤 각 주장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와 한계를 인정하게 하면서 화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각각의 주장의 장점과 주장을 하게 된 배경과 맥락은 수용하되, 논리적 문제등을 지적하면서 서로 소통하게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를 위해서는 일심의 마음으로 주장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일심의 마음이란 각각의 주장들을 모두 동등하게 편견없이 바라보는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고려시대 의천은 화쟁사상에 주목하여 원효를 화쟁대사라고 불렀고, 현대에 와서는 사람들의 심한 의견 대립에 대해, 사람들간의 소통법에 원효의 화쟁사상을 적용하려는 시도들이 있습니다.

<무애사상>

원효의 또 하나의 핵심 사상은 무애사상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무애란 걸림이 없다는 것으로 세상의 규율과 틀, 통념에 얽매이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무애의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특정한 틀이나 해야한다는 강박이 없기때문에 그릇에 따라 모양을 바꾸는 물처럼 자유롭고, 편견으로 상대를 차별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일심의 본래마음상태이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에서는 이 무애의 상태를 깨달음의 최고 경지로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마무리>

원효의 사상을 일심사상, 화쟁사상, 무애사상으로 나누어 설명하였지만, 화쟁사상, 무애사상 모두 사실은 일심사상에 기반합니다. 원효는 우리 마음을 하나의 마음으로 보았고, 차별하지않고 자유로운 하나의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5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천태종의 철학자들	교수자	이병욱
학습목표	- 고려초에 활동한 제관에 대해 알아본다. - 고려 중기에 활동한 대각국사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 고려 무신집권기에 활동한 백련결사의 사상가, 곧 원묘국사 요세, 천인, 천책의 생애와 사상을 알아본다. - 고려시대 천태사상가의 생애와 사상이 오늘날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본다.		
핵심어	제관, 의천, 요세, 무기, 천태종, 백련사 결사		
주요흐름	고려 시대에 활동한 천태 사상가들의 생애와 사상을 순차적으로 살펴보고, 대각국사 의천의 역할과 백련 결사의 의미를 살펴본다.		
읽기자료	이병욱, <한국불교사상의 전개>, 집문당,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기타학습요소	영상 83분 32초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고려시대의 천태사상가

I. 제관의 『천태사교의』

제관(諦觀)의 생애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겠는데, 자세한 것은 알 수 없고, 제관이 중국에 건너간 동기, 활동, 입적에 관한 것만을 알 수 있을 뿐이다. 중국에 건너간 동기는 오월(5대10국의 하나)의 충의왕 전홍숙이 영가현각(永嘉玄覺, 647-713)의 『영가집(永嘉集, 선종의 문헌인데 천태사상의 영향을 받았음)』을 읽다가 모르는 대목이 생겼는데, 그 대목은 천태의 『법화현의(法華玄義: 법화경의 제목을 가지고 자신의 관점을 서술한 저술)』를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충의왕은 고려 광종 11년(960) 고려에 사절을 보내어 천태종에 관계되는 서적을 구하였다.

그러자 고려 조정에서는 서적을 중국에 주면서 제관도 함께 가게 하였는데, 중국의 학자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그 사람들이 대답하지 못하면 그 서적을 그대로 가져오라는 명령을 제관은 받았다. 제관이 오월에 도착한 것은 961년(광종 12년)이었다. 제관은 의적(義寂, 919-987, 천태종의 중흥조)의 가르침을 듣고는 곧 의적을 그의 스승으로 삼고, 의적의 문하에서 천태교학을 연구하고 강의하였다. 제관에게는 『천태사교의(天台四教儀)』라는 명저가 있는데, 이 저서에 대한 중국과 일본의 73종류의 주석서가 있고, 그 주석에 대한 주석, 곧 말소(末疏)도 130종류가 넘는다고 한다.

제관의 『천태사교의』에는 다음의 일화가 전해온다.

제관이 『천태사교의』를 찬술하기 시작한 지 10년 만에 그 일을 마치고, 상자에 넣어두었다. 제관은 육체의 인연이 다해서 결가부좌(結跏趺坐: 앉는 방법의 한가지)하고서 세상을 떠났다. 그 뒤에 신령한 광명[神光]이 상자 가운데서 나타났다. 그래서 상자를 열고 안을 보니, 다만 『천태사교의』 한 권만이 있을 뿐이고, 다른 물건은 없었다. 이 책의 내용은 말과 구절마다 불타의 뜻과 부합하고, 감응도교(感應道交: 감응하여 도道가 서로 교류함)하지 않는 것이 없어 보였다.

[『천태사교의』 (『한국불교전서』 4권, 527하)]

II. 대각국사 의천의 생애와 사상

1. 의천의 생애와 저술

의천(義天, 1055~1101)은 처음으로 이 땅에 천태종을 세운 인물이다. 의천의 휘는 후(煦)이고, 자(字)는 의천이며, 시호는 대각국사(大覺國師)이다. 의천은 문종의 넷째 아들로 태어나서 11세 때 화엄종 승려인 경덕국사(景德國師) 난원(爛圓)에게 출가하여 화엄종의 영통사에서 공부하였다. 31세 때 중국의 송나라에 건너가 여러 사람과 교류하였고, 32세 때 고려에 돌아왔다. 40세 때 해인사로 내려가 은거하였고, 41세(1095년) 때 숙종이 여러 차례 의천을 불러들여, 43세 때 국청사의 주지가 되었고, 47세(1101년) 때 입적했다.

의천의 저술을 살펴보면, 목록으로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藏總錄)』이 있고, 편집한 저술로 『원종문류(圓宗文類)』와 『석원사림(釋苑詞林)』의 일부분이 남아 있고, 그의 저술 『대각국사문집(大覺國師文集)』은 일부분이 손상된 채로 남아 있다.

2. 의천의 시대인식

의천이 그 당시의 시대를 보는 시각은 무척 비관적인 것이다. 당시를 위기의 시대(말법시대)라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해, 경전을 배우는 사람은 경전의 말만 배울 뿐, 불법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고, 스승도 스승답지 못해서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못하다고 보고 있다. 그래서 모두 세간의 명성과 이익만을 쫓을 뿐, 도를 닦는 데에는 관심이 없다고 의천은 한탄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의천은 천태사

강좌내용

상을 받아들여 천태종을 세운 것이다.

의천이 그 시대를 바라보는 시각은 다음의 시에서 잘 나타난다.

慧日千齡罷炤臨 지혜의 해는 천 년 전에 비춤을 그만두었는데
獲峯遺教慶彌深 남은 가르침에서 봉우리를 얻으니 그 기쁨 더욱 크도다.
(堪)嗟此世橫經輩 슬프다. 이 세상에 경전을 제멋대로 해석하는 이들이여!
學法都無敬法心 가르침을 배운다지만 도무지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구나.

師不能師資不資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제자도 제자답지 못하여
欲令光道固難期 도(道)를 빛내고자 하나 진실로 기약하기 어려워라.
悠悠誰識傳燈志 유유한 무리 중 누가 가르침[法燈] 전한 뜻 알리요?
生值斯時足可悲 태어나서 이러한 때를 만난 것을 매우 슬퍼하노라.
[『대각국사문집』 19권, 「감회시도(感懷示道)」 (『한국불교전서』 4권, 563하)]

위 두 시 중, 앞의 시에서는 불법이 쇠퇴하는데 경전을 배우는 사람이 가르침을 존중하는 마음이 없음을 한탄하고, 뒤 시에서는 스승이 스승답지 못하고 제자도 제자답지 못해서 도무지 믿을 만한 사람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의천의 철학은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그리고 의천은 당사가 위기의 시대[말법시대]임을 힘주어 말한다. 다시 말해, 그는 당시에 많은 승려가 명리에만 몰두하고 도를 닦는 일에는 쓸 만한 재목이 없음을 탄식하고 있다.

末法誰知教網頽 위기(말법)의 시대에 누가 가르침의 기강이 무너짐을 알리요?
區區皆被利名催 구구히 모두 명성과 이익[名利]에 막혀있구나.
傳燈輔道眞閑事 가르침[법등]을 전하고 도를 돕는 것이 진정코 한가한 일(도를 추구하는 일)인데
魏統如林愧散材 높은 승통(僧統: 승려의 관직)이 많지만 모두 쓸데없는 재목임을 부끄러워 하노라.
[『대각국사문집』 19권, 「인사우언(因事偶言)」 (『한국불교전서』 4권, 563상)]

다음의 시에서 의천은 당시의 불교계를 보고 안타까운 심정을 읊고 있다. 자세히 말하면, 그는 교(敎)의 기강이 무너지는 것을 한탄하고, 그것을 바로 잡겠다는 의지가 있음을 말하고, 또한 산림에서 도를 닦는 데에도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한다.

教網頽綱足可悲 가르침의 기강이 무너지고 있는 것 참으로 슬프도다.
有心弘護有誰知 가르침을 넓히고 보호하는 데 마음 둔 줄 그 누가 알리요?
無功早退雖堪恥 공(功) 없이 일찍 물러남은 비록 부끄러운 일이지만
爭奈林泉役夢思 임천(林泉: 자연)이 꿈마다 부르는 일을 어찌하리요!
[『대각국사문집』 20권, 「서회(敘懷)」 (『한국불교전서』 4권, 565상)]

3. 의천의 내면세계

의천이 교학(敎學)을 많이 공부했다고 하지만, 자신의 학식에 대해 부끄러워하는 겸손함이 있다. 더구나 의천은 도에 뜻을 두고 있지만, 불법(佛法)을 세간에 퍼는 것에도 관심이 있다. 그래서 의천은 천태종을 세운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의 세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고, 불교계의 개혁에 힘을 쏟았다. 이것이 의천이 현실참여의 입장이다.

강좌내용

우선, 의천이 자식의 학식을 부끄러워하는 내용의 시를 살펴보자.

悠悠無定志 그저 정한 뜻이 없이

不肯惜陰光 세월을 아까워 할 줄 모르니

雖曰功經論 비록 경전과 논서를 공부한다지만

寧知目面牆 어찌 눈앞에 담장에 있는지 알리요?

[『대각국사문집』 19권, 「자계(自戒)」 (『한국불교전서』 4권, 564상)]

위 시에서 의천은 자기가 경과 논을 공부했다고는 하지만 오히려 눈앞에 담장이 있는지 몰랐을 정도로 답답한 자기의 학식에 대해 부끄러워하고 있다.

다음 시에서 의천은 세상일에 참여하는 자기의 마음자세에 대해 말하고 있다. 의천은 산림에서 마음을 닦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지만,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를 갚기 위해서 세상에 나아가 불법을 펼칠 것을 말한다.

屈辱多年寄帝京 굴욕스럽게 여러 해 동안 개경(서울)에 살았지만

教門功業恥無成 교문(敎門: 교학)의 공(功)과 업(業)이 이루지 못함을 부끄러워하노라.

此時行道徒勞爾 요즘 도를 행함은 다만 헛수고일 뿐이니

爭似林泉樂性情 어찌 산림에서 성(性)과 정(情)을 즐김과 같으랴?

事去幾迴興嘆息 일이 지난 뒤에 몇 번이나 탄식했는가?

年來無計報君親 새해가 와도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 보답할 길 없어라.

可憐少壯心如昨 슬프다! 젊었을 적의 마음 어제와 같은데

不覺銷磨四十春 어느덧 사십 세월을 지나갔구나.

榮華富貴皆春夢 부귀와 영화 모두 헛된 것이고

聚散存亡盡水漚 모든 변화 다 물거품 같아라.

除却棲神安養外 정토에 마음을 쉬는 것 말고

算來何事可追求 이리 저리 따져 보며 무슨 일을 추구하리요?

[『대각국사문집』 20권, 「해인사퇴거유작(海印寺退居有作)」 (『한국불교전서』 4권, 565중)]

위 시는 의천이 해인사로 물러난 다음(40세)에 쓴 시이다. 위시에서 의천의 내면세계를 알 수 있다. 대체로 도를 닦을 것을 말하고 있지만, 임금과 아버지의 은혜를 갚을 것을 말하는 대목은 주목할 만하다.

다음의 시에서 의천은 숙종이 불러서 서울(개경)에 올라가는 심정을 읊었다. 여기서 그는 산속에서 도를 닦는 것에 의미를 두지만, 불법(佛法)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임금이자 형인 숙종의 부름에 따른다고 말한다.

北闕猶難違召命 대궐에 대해서는 부르는 명령을 어기기 어렵고

東林還恥負幽閑 동림(東林: 여산의 동림사, 수행을 상징함)에 대해서는 그윽하고 한가함을 등진 것이 부끄럽다.

白雲舒卷雖無定 흰 구름[白雲] 가고 옴이 정한 것이 없다지만

終日依依戀故山 종일토록 몹시도 옛 산을 그리네.

像正宣風喜遇時 상법(像法: 像法時, 가르침과 실천은 있지만 그에 따른 깨달음은 없는 시대)과 정법(正法, 正法時,

가르침과 실천, 그에 따른 깨달음이 있는 시대)의 교풍(교학)이 선양되니 그 때를 만난 것

강좌내용

기뻐하고

反權終爲道推移 권도(權道: 방편)를 반대하면 끝내 도(道)가 변할 것이니
行藏雖繫緣深淺 나가고 물러남에 비록 연(緣) 만남의 깊고 얇음이 있다지만
(倦)鳥知還會有期 고달픈 새 돌아갈 줄 아는 뜻 이해할 날 있으리.

[『대각국사문집』 20권, 「부궐차유제고사(赴闕次留題故寺)」(『한국불교전서』 4권, 565하)]

위 두 시 중, 앞 시에서 의천은 자기의 마음을 흰 구름[白雲]에 비겨서 자신이 산에서 수행함을 연모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고, 뒤 시에서는 도를 위해서 임금의 부름에 따를 것을 말한다. 이것이 의천의 현실참여 논리이다.

그렇다고 해서 의천이 정치의 세계에 뛰어든 것은 아니다. 다음의 시에서 동생인 도생(道生)승통이 정치에 깊이 연루되어 있는 것을 경계하고 있기 때문이다.

停驂竟日情無倦 말 세워 두고 하루 종일 있어도 마음은 싫증이 나지 않으니
摻袂臨歧恨莫任 소매 잡고 갈림길에서 함께 갈 수 없음을 한탄하노라.
何事舊遊偏掛意 무슨 일로 옛 노닐던 곳에만 마음을 쓰는가?
水精山下白雲深 수정산 아래 흰 구름은 깊어라.

[『대각국사문집』 19권, 「송도생승통귀속리산(送道生僧統歸俗離山)」(『한국불교전서』 4권, 562중)]

도생(道生)승통은 의천의 동생으로 정치사건에 연루되어 죽었다. 위 시에서 “무슨 일로 옛 노닐던 곳에만 마음을 쓰는가?”에서 옛 노닐던 곳은 대궐이니, 대궐에 관심이 많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이는 도생승통이 정치에 관심이 많은 것을 경계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 시에 근거하면 의천이 현실참여에 관심이 있지만, 그것이 정치영역에까지 확장되지 않은 것임을 알 수 있다.

4. 의천의 『속장경(續藏經)』 간행

‘초조대장경(고려대장경)’이 완성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각국사 의천(義天)이 중심이 되어 『속장경(續藏經)』을 만들어서 또 하나의 큰 문화적 업적을 이룩하였다. 속장경은 경, 율, 논, 의 삼장이 아니고, 삼장의 주석서를 모아서 간행한 것인데, 의천에 앞서 혜덕왕사 소현(韶顯)이 금산사에 광교원(廣敎院)을 세워서 이러한 사업을 시작하였지만, 그 대표적 사업은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이루어졌다.

의천이 삼장(三藏: 경, 율, 논)의 주석서를 모아서 간행하는 일에 일찍부터 뜻을 두었다. 의천이 송나라에 들어간 것은 불법을 배우기 위한 것이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불교서적의 수입도 그 목표의 하나이었다. 의천은 20년에 걸쳐 국내의 여러 곳과 송나라, 요나라, 일본에 이르기까지 널리 불교서적을 모았다. 그래서 의천은 이것을 간행하기 앞서 그 목록인 『신편제종교장총록(新編諸宗教總錄)』을 만들었다. 이것은 『의천목록(義天目錄)』이라고도 부르는데, 3권으로 된 이 목록에는 모두 1010부 4700여 권의 저술이 소개되어 있다. 여기에는 당나라, 송나라, 요나라 고승의 저술이 들어있고, 신라 고승의 저술도 181부가 포함되어 있다.

의천은 흥왕사에 교장도감(敎藏都監: 속장경을 간행한 기관)을 설치하고, 이 목록에 따라 선종 8년 즈음부터 주석서를 하나씩 간행하였는데, 이 사업은 숙종 6년에 의천이 죽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이렇게 이루어진 『속장경』은 고종 19년에 몽고군의 침입으로 인해서 강화도로 천도할 때, 흥왕사가 불타서 4000권이 넘는 판목(板木)이 불타고 말았다. 지금은 일본의 동대사(東大寺) 도서관 등에 간

강좌내용

행된 속장경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고, 한국에서도 조선 초에 중수하여 간행된 것이 순천 송광사에 전해오고 있어, 한정된 모습이라도 볼 수 있다.

이 『신편제종교장총록』의 역사적 의미는 다음의 4가지이다. 첫째, 이것은 중국, 한국, 일본에 있는 여러 종파의 교장목록이므로, 이를 통해서 당시 대승불교의 교학(敎學)의 전체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이것이 불교의 장소(章疏: 주석서) 목록으로서 그 효시를 이룬다는 점이다. 셋째, 『신편제종교장총록』에 수록된 장소(章疏)들은 거의 없어졌지만, 그 책의 제목은 남아 있으므로, 이것을 통해서 장소(章疏)가 존재하는지 하지 않는지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넷째, 당시 공부하는 승려들의 학문 업적을 파악할 수 있고, 공부하는 승려들의 연결계보를 그릴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신편제종교장총록』의 배열방식도 독창적이다. 여기서는 1단계에서 경(경전), 율(승거 공동체의 규칙), 논(논서: 불교사상을 설명한 책)으로 구분하고, 2단계에서 대승(인도 기원전후 해서 생겨난 불교, 중생교화를 우선시 하였음)과 소승(대승불교 생기기 이전의 전통불교)으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3단계에서 의천의 교학적 관점에 근거해서 『화엄경』을 의미하는 원돈(圓頓)의 문, 『대승기신론』(대승불교의 대표적 논서)을 지칭하는 종돈(終頓)의 문, 유식의 가르침(심리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설명하는 흐름)을 뜻하는 시교(始敎)의 문, 『구사론』(소승불교를 대표하는 저술)을 지칭하는 소승의 문으로 구분한다. 여기서 의천의 독창적 안목은 분명히 나타난다.

5. 의천의 금속화폐(동전) 사용론

의천은 금속화폐(동전)를 사용하면 네 가지 이익이 있다고 하면서 금속화폐의 유통을 주장하였다.

첫째, 금속화폐(동전)라는 것은 적은 분량으로 많은 가치를 대표할 수 있으므로 교환과 원거리 수송에 지극히 편리하다는 것이다. 이는 화폐의 가치척도의 기능과 유통수단의 기능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금속화폐(동전)를 사용하면, 쌀을 화폐로 사용하는 데서 오는 모리배(좋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간교한 술책을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다. 여기서 금속화폐사용을 통해 권세 있는 자들의 부정부패를 막고 청렴한 사람을 우대하려는 의천의 의도를 알 수 있다.

셋째, 금속화폐(동전)를 사용하여 녹봉(관리에게 주는 급여)의 절반이라도 금속화폐로 지불한다면, 쌀로만 녹봉을 지불하는 데서 오는 폐단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넷째, 재산을 축적하는 데서도 금속화폐(동전)만한 우월성을 가진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축재의 수단으로서 금속화폐의 우월성과 유통에 편리한 점을 지적하고 있다. 여기서 의천은 국가의 재산상태를 걱정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데 금속화폐가 일정부분 역할을 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의천은 당시의 화폐유통의 상태를 개괄하고 화폐에 관한 상당히 정리된 견해를 내놓고 있다. 화폐의 통용에 대한 의천의 견해는 당시의 권세가(권력을 가진 사람)들의 모리(옳지 못한 해위로 자신의 이익을 추구함)행위를 폭로하고, 그들의 용전(用錢)반대론에 반박을 가한 것으로 평가받아야 한다.

6. 의천의 사상

(1) 의천의 선교일치

의천은 중국 화엄종의 사상가 징관(澄觀, ?-839)과 종밀(宗密, 780-841)에 많은 영향을 받았다. 여기서의 의천이 종밀의 사상에 영향 받은 점을 살펴본다. 의천은 종밀의 사상에 근거해서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한다. 의천이 선(禪)과 교(敎)를 일치시키는 방식은 언어에 대한 태도에 달려있다. 진리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벗어난 것)도 아니다.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알 수 없어서 미혹하고, 그렇다고 해서 말에 집착해도 진리에 미혹한다. 다시 말해, 의천이 말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말한 것은 선종의 병폐를 겨냥한 것이고, 말에 집착한다고 한 것은 교종의 병폐를 지적한 것이다. 말에 집착하지 않으면서 말을 정확히 사용하는 것이 의천의 목표이고, 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선(禪)과 교(敎)를 일치시킬 수 있다. 그리고 의천은 이것을 해낸 사람으로 규봉종밀(圭峯宗密)을 들고 있다. 따라서 종밀은 의천이 바라는 이상향의 철학을 이룩한 사람이다.

(2) 의천의 원효사상의 수용과 선양

국정사를 세워서 천태종을 열었을 때, 의천은 원효가 천태사상을 받아들인 인물임을 밝힌다.

생각해 보니 해동에 불법이 전래된 지 700년이 되어 비록 여러 종파에서 다투듯이 경연(경쟁)하고, 많은 교(敎)에서 서로 자기의 사상을 진술하지만, 천태종은 이 시대에 그 밝음이 사라졌도다. 과거에 원효보살이 앞에서 그 천태사상을 칭찬하였고, 제관법사가 뒤에서 그 가르침을 전하고 휘날렸지만, 어찌하겠는가? 능력(근기)과 인연(상황)이 익지 않아 천태의 가르침을 빛내고 휘날릴 길 없음에랴! 천태의 가르침이 이 땅에 유통되기를 기다려야 엿드려서 겨우 만날 수 있구나!

[『대각국사문집』 3권(『한국불교전서』 4권, 530중)]

또 다른 곳에서 의천은 원효가 여러 가지 논쟁을 화해시키고, 중생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다는 높이 평가한다.

우리 해동보살(원효)만이 성(性: 본질)과 상(相: 외적인 모습)을 융섭해서 밝히고, 옛[古]과 지금[今]을 은밀히 통괄하여, 백가(百家: 여러 종파)의 다른 논쟁의 단서를 화해시켜, 한 시대의 지극히 공정한 논의를 하였으며, 하물며 신통은 헤아릴 수 없고, 묘한 용(用)은 생각하기 어려우며, 중생(티끌)과 함께 하지만 그 진리의 세계[眞]를 더럽히지 않고, 광명과 화합하지만 그 근본[體]을 바꾸지 않는다. 그리하여 이름이 인도와 중국에 떨치고, 자비의 교화는 저승과 이승을 감싸안으니, 칭찬하여 올리려고 해도, 생각하여 의론하기가 진실로 어렵다.

[『대각국사문집』 16권 (『한국불교전서』 4권, 555상)]

(3) 의천의 유불일치 사상

의천은 유가나 불가가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다르지만, 효(孝)를 숭상하는 데에는 일치한다고 보고 있다. 의천은 『화엄경』이 핵심적 가르침(근본법륜)이고, 이 핵심적 가르침과 대등한 지위에 있는 것이 『범망경(대승의 계율을 밝힌 경전)』인데, 거기서 밝히는 내용은 ‘효’로 돌아간다고 보고 있다. 이는 『화엄경』의 입장과 대등한 『범망경』의 내용을 ‘효’로 요약할 수 있다는 것이고, 결국 『화엄경』의 내용도 ‘효’로 요약할 수 있다는 말과도 같은 것이 된다.

(4) 의천의 균여화엄사상 비판

강좌내용

의천은 화엄종의 선배학자 균여(均如, 923-973)에 대해서는 비판하고 있다. 물론 의천이 처음부터 균여를 비판한 것은 아니었다. 의천은 우리나라 화엄종의 대표적 고승으로 의상(義湘, 625-702)과 균여를 거론하는 글도 있었다. 그러나 의천이 송나라에 들어가 화엄사상가 정원(淨源, ?-1088)에게 한 겨울 동안 화엄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고는 태도가 변한다. 의천은 균여라는 이름은 지칭하지는 않았지만, 당시의 화엄종 사람이 10중 7, 8은 교(敎)와 관(觀)을 함께 닦지 않고 있음을 비판한다. 여기서 말하는 관(觀)은 화엄의 관법(觀法)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으로 균여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의천은 비판한다. 의천이 균여 등을 비판하는 이유는 성스러운 가르침(聖敎)로 밝은 거울을 삼아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의 보배만을 세고 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교(敎)와 관(觀)을 둘 다 닦지 못해서이다. 그래서 의천은 『화엄경』을 전수 받았다 하더라도(화엄종의 인물이라고 해도) 관문(觀門: 관법)을 배우지 않은 사람은 강주(講主: 화엄경을 강의하는 사람)라 해도 믿지 못하겠다고 한다.

내가 항상 한탄하는 것은 해동의 여러 선대의 스승들이 남기신 말씀이 그 학문이 정밀하고 넓지 못하며, 역설이 더욱 많아서, 지금 후배의 몽매한 제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을 책이 백 권에 한 권도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성스러운 가르침[聖敎]으로 밝은 거울을 삼아 밝게 자기 마음을 비추어 보지 못하고[관행觀行을 닦지 못하고], 일생을 구구히 다른 사람의 보배만을 세고 있을 뿐이다. 그러므로 세간에서 말하는 균여, 범운, 진파, 영운 등의 여러 스승의 잘못된 책들은 말이 문장을 이루지 못하고, 뜻이 통변(通變)함이 없다. 그래서 화엄종의 가르침[祖道]을 어지럽게 하고 후생을 미혹하게 하는 것이, 이보다 심한 것이 없다.

[『대각국사문집』 16권 (『한국불교전서』 4권, 556중)]

7. 의천의 제자: 무애지국사 계웅

대각국사의 수제자는 계웅(戒膺)이다. 계웅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태백산인 계웅(戒膺)은 대각국사의 수제자이다. 계웅이 어렸을 적에 절에 살면서 독서를 하였는데, 대각국사가 담장 너머로 그 책 읽는 소리를 듣고는 “이 사람은 진정한 법기(法器: 불법을 수용하고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고 하면서 출가하여 자신의 문하에 있기를 권했다. 계웅은 아침저녁으로 도(道)를 닦는 데 힘쓰더니 도의 깊은 이치를 넉넉하게 들어가서, 대각국사를 계승해서 위대한 법을 널리 알린 지 40여 년에 임금에게도 공경을 받게 되었다. 계웅은 항상 개경(서울)을 떠나지 않았는데, 자주 태백산에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 그리하여 손수 각화사(覺華寺)를 창건하여 가르침[法]의 보시를 크게 열었더니, 사방의 학자가 폭주하여 배우는 사람이 날마다 천백 명에서 줄어들지 않았다. 사람들이 그 강의를 법해용문(法海龍門: 불법의 가르침에서 뛰어난 인재를 양성하는 훌륭한 강의)이라고 불렀다.

[이인로, 『파한집』 중권] (이인로는 고려 명종 때 『파한집』을 저술하였다.)

그렇지만 계웅은 태백산에 은거해서 임금이 불려도 나오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계웅은 원효사상과 관련이 있는 인물이다. 이 점은 ‘무애지국사(無碍智國師)’라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는 것이다. ‘무애’에서 원효의 무애사상(계율에 구애되지 않고 행동함)과 관련이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과거에 원효 대성(大聖)이 고기 파는 곳과 술파는 곳에 드나드는 가운데 일찍이 목 굽어진 조롱박을 가지고 놀면서 시장에서 노래하고 춤추었는데, 그 조롱박을 무애(無碍)라고 불렀다. 그 뒤에 호사자들이 조롱박 위에다 금방울을 매달고, 조롱박 아래에다 채색한 비단을 두어서 조롱박을 장식하였다. 그래서 조롱박을 부딪치면서 나아가고 물러났는데, 모두 음절에 맞았다. 이에 그 곡조에다 경전과 논서의 계승으로 가사를 붙여서 무애가(無碍歌)라고 불렀다. 밭에서 일하는 노인도 이것을 본받아서 조롱박을 가지고 놀았다. 무애지국사 계웅이 일찍이 무애(無碍)를 제목해서 시를 지었다. “이 물건은 오

강좌내용

랫동안 무용(無用)으로 용(用)을 삼았고(진정한 쓰임은 쓰지 않음이라는 의미이다. 예를 들면 공기는 경제적 가치가 없는 것 곧 무용이지만 가장 필요한 것이다), 과거의 사람도 이름하지 않음으로 이름 삼았네.”

[『과한집』 하권]

Ⅲ. 원묘국사 요세의 생애와 사상

1. 요세의 생애

요세(了世, 1163-1245)는 자(字)가 안빈(安貧)이고, 속성은 서(徐)씨이고, 시호는 원묘국사(圓妙國師)이다. 요세는 12세(1174)에 강양(江陽)의 천락사(天樂寺)에서 균정(均定)을 스승으로 모시고 출가하여 천태교관(天台敎觀, 천태종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배우기 시작하였다. 23세(1185) 때 승선(僧選: 승과, 승려에게 행하던 국가의 고시제도)에 합격하였지만, 천태종의 가르침을 공부하는 데 더욱 힘을 쏟았다. 그러다가 보조국사 지눌(知訥, 1158-1210)의 권유를 받아서 정혜결사(수선사결사)에 참여한다. 그리고 나서 49세(1211)에 백련사의 터를 세우고, 54세(1216)에 낙성식을 하였다. 66세(1228)에 백련사결사를 이끌어갈 재목인 천인(天因)과 천책(天頌)이 유생(儒生: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의 신분에서 요세의 제자가 되었다.

요세가 백련사 결사를 주장한 이유는 범부(일반사람)에 대한 인식이 보조국사 지눌과 달랐기 때문이다. 지눌의 정혜결사(수선사결사)는 알고 이해하는 힘이 있는 사람(근기)을 상대로 한 것이라면, 요세의 백련사 결사는 죄와 업장(業障, 업의 방해)이 두터워 자기의 힘으로는 도저히 성불할 수 없는 사람(중생)을 상대로 한 것이다.

2. 요세의 사상

(1) 요세사상의 기초

요세는 천태종의 승려이다. 그래서 요세는 천태종의 사상에 근거해서 자신의 사상을 전개한다. 요세는 모든 존재의 실체의 모습[諸法實相]은 청정하고 고요해서 말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다고 말한다. 여기서 ‘제법실상’은 천태종의 고유의 용어이다.

모든 존재의 실체의 모습[諸法實相]은 청정하고 고요하다. 제법실상을 말하려는 사람은 이치에서 어긋나게 되고, 제법실상을 나타내 보이려고 하는 사람은 근본도리에서 어긋나게 되는구나. 우리 천태종의 궁극적 관심[一大事]은 근기에 따라 이해하도록 하는 것, 이것뿐이로다.

[「만덕산 백련사 원묘국사 비명병서」(『조선금석총람』 상, 592쪽)]

그리고 요세는 앞에서 소개한 것처럼, 천태종의 궁극적 관심[一大事]은 근기에 따라 이해시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 점도 요세 천태사상의 특징이다. 요세 천태사상의 또 다른 핵심은 능력(근기)에 맞게 알맞은 가르침을 펴는 데 있다.

(2) 요세의 방편문: 법화삼매

요세는 자기 자신은 매일 선정을 닦고 경전과 논서를 가르치고, 그밖에 『법화경』을 독송하고, 준제 진언을 천 번 외우고, 아미타불을 만 번 불렀다. 더구나 학인들을 위해서 천태 3대부(『천태종을 대표하는 3가지 저술, 『법화문구(법화경의 주석서)』, 『법화현의(법화경의 제목을 풀이한 책)』, 『마하지관(천태종의 수행을 설명한 책, 이론과 실천을 아울러 서술한 글이다.』)의 내용을 요약한 절요

강좌내용

서(節要書)를 만들 만큼, 불교의 학식도 뛰어났다. 하지만, 요세가 백련사 결사를 만들면서 제시한 수행법은 자신이 하고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적합할 수 있는 것이다. 요세는 구체적으로 법화삼매(法華三昧)와 정토에 태어나기 위한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먼저 법화삼매(法華三昧)부터 살펴본다. 이 법화삼매의 수행법은 천태지의의 『법화삼매참의(法華三昧懺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다. 그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먼저 21일 동안 일심으로 정진하는데, 그 방법은 열 가지로 이루어져 있다. 첫째, 도량(사찰, 수행하는 곳)을 장엄하고 청정하게 하고, 둘째, 몸을 청정하게 하고, 셋째, 3보(三寶)를 공양하고, 넷째, 『법화경』에 나오는 모든 부처님, 보살, 하늘사람, 용, 8부중생(불교를 보호하는 8종류의 존재)에게 의지할 것을 청하고, 다섯째, 부처님을 찬탄하고, 여섯째, 모든 부처님을 공경하고 예배하고, 일곱째, 안(眼), 이(耳), 비(鼻), 설(舌), 신(身), 의(意)의 감각기관인 6근(六根)의 하나 하나에 대해서 각각 참회하고, 그 다음에 수희(隨喜: 다른 사람의 착한 행동에 기뻐하는 것)하고 회향(자신의 공덕을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것)하고, 서원(마음속으로 염원하는 것)을 세운다. 여덟째, 도량을 돌면서 3보(三寶: 불, 법, 승)와 보살을 염하고, 아홉째, 『법화경』을 독송하고, 열째, 좌선해서 실상(實相: 진리)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 열 번째 내용이 공관(空觀: 사물이 공이라고 관조하는 것)으로 승화된다.

위에서 말한 열 가지를 수행해서 하근기(맨 아래의 능력)의 수행자는 계근(戒根, 계율을 지키는 능력)이 청정해지고, 중근기(중간의 능력)의 수행자는 정근(定根, 선정에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청정해지고, 상근기(뛰어난 능력)의 수행자는 혜근(惠根, 지혜를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청정해진다. 또한 각 근기(상근기, 중근기, 하근기)마다 상, 중, 하로 다시 구분된다.

이처럼 법화삼매는 모든 능력의 사람(근기)에게 이익을 주기 위해서 제시된 수행법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그 중에서도 새로 배우는 보살이 깊은 삼매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마련한 방편(교화를 위한 임시의 수단)의 가르침이다. 요세는 자기 자신은 엄격히 수행하였지만, 백련사결사에 참여하는 사람을 위해서 법화삼매라는 방편문(방편의 가르침)을 열었다.

(3) 요세의 정토사상

요세는 결사에 참여한 사람을 위해서 정토에 태어날 수 있는[淨土往生] 수행법을 제시하였다. 요세의 정토관은 유심정토(唯心淨土, 마음이 청정해지면 이 세계가 그대로 정토이다)이고, 이것의 근거를 중국 천태사상가 사명지례(四明知禮, 960-1028)의 사상에서 구했다.

앞에서 말했듯이, 요세의 정토관은 유심정토(唯心淨土)이다. 이것은 한 생각만을 잘 지키면 그 자리에서 정토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나는 정토에 가겠다”라는 생각이 없지만 실제로 정토에 가 있고, 정토는 원래 이 땅에 오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덧 나타나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서로 통하므로 유심(唯心)의 이치를 떠나지 않는다. 이러한 내용은 그가 임종하기 전에 그의 제자 천인(天因)과 나눈 대화 속에서 잘 나타난다.

천인(天因)이 물었다. “임종할 때 선정에 들어간 마음이 그대로 정토이거늘 또 무엇을 구하십니까?” 요세가 답하였다. “이 한 생각을 산란하게 하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그대로 정토가 나타난다. 나는 정토에 간다고 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정토에 가게 되고, 정토는 실제로 오는 것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와 있는 것이다. 이처럼 서로 통하니 진실로 유심(唯心: 마음의 나타남)의 이치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만덕산 백련사 원묘국사 비명병서」(『조선금석총람』 상, 592쪽)]

3. 백련사 2세 천인의 생애와 사상

천인(天因, 1205-1248)은 원묘국사 요세의 뒤를 이어 백련사 2세가 되었다. 천인은 속성은 박씨이고 연산군의 출신이다. 17세에 진사가 되었으나 그만두고, 23세 때 만덕산 요세에게 출가하였다. 조계종의 진각국사 혜심(慧諶, 1178-1234)에게서 조계선(曹溪禪)을 배우고, 다시 만덕산에 돌아와서 『법화경』을 독송하였으며, 요세가 보현도량을 개설할 때 참여하였다. 그 후 요세에게 천태교관(천태종의 가르침과 수행법)을 전수받았다. 요세가 천인을 백련사의 법주(法主: 최고의 책임자)로서 계승시키려 하였지만 천인은 공덕산으로 피신하였다. 그러다가 요세가 법주의 자리에 복귀할 것을 다시 요구하므로 백련사 제2세 법주로 취임하였다. 천인에게 유고시집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남아있지 않고, 『법화경찬(法華經讚)』만이 남아있다.

천인은 스승 원묘국사 요세가 경험한 범부의식(凡夫意識,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것)에 기초해서 참회를 하고,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한다. 다시 말해, 자기 자신을 업장이 두터운 자로 인식하고 끝없는 참회의 생각을 일으키고, 아미타불(정토경전에 등장하는 부처)의 정토에 태어날 것을 바라고 있다. 그리고 천인은 법화사상과 정토를 결합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 천인은 아미타불이 옛날 왕자로 있을 때, 『법화경』을 독송해서 빨리 부처가 되었음을 말하여 사람들에게 『법화경』과 인연을 맺을 것을 권한다.

IV. 백련사 4세 천책의 생애와 사상

1. 천책의 생애와 저술

천책(天頌, 1206-?)의 속성은 신(申)씨이고 고려 태조 때의 공신 신염달(申厭達)의 11대손이었다. 신염달은 신라말에 상주(尙州)에 속해있던 산양현(山陽縣)의 토호로서 이 지역의 기반을 이용해서 태조를 도운 인물이다. 천책은 약관의 나이(20세 전후의 시기)에 예부시(禮部試: 고려시대의 과거시험)에 급제하였다. 천책은 세속의

세계에 대해 회의하다가 청하(淸河) 상국(相國: 최유엄崔有滄)이 천책에게 『법화경』을 금으로 사경(경전을 필사하는 것)하도록 한 것이 계기가 되어 출가하였다. 그래서 23세 때(1228년)에 동지 2인과 함께 원묘국사(圓妙國師) 요세(了世, 1153-1245)에게 출가해서 제자가 되었다.

천책은 출가 후에 그의 스승 요세의 결사운동을 적극적으로 보좌한다. 그리고 상국(相國) 최자(崔滋)는 1241년에 상주(尙州)의 목사로 부임해서 그곳의 공덕산(功德山: 사불산) 미면사(米麵社: 동백련사)를 중수하여 1243년에 공사를 마쳤다. 최자는 이곳에 60여 칸의 도량을 열고 공덕산 백련사라고 이름을 짓는다. 이것이 동(東)백련사이다. 천책은 최자로부터 편지를 받고 1244년에 그곳에 도착하였고, 동백련사의 주맹(현재의 주지)이 되었다. 1247년에 제4차 몽고의 침입이 있었고, 천책은 남해에 있는 암자에 몸을 피하였다.

그 뒤에 천책은 백련사에 돌아가서 백련사의 제4세가 된다. 만년에 천책은 백련사 남쪽에 있는 용혈암(龍穴庵)으로 내려간다. 천책이 1277년에 상서(尙書) 이영(李穎)에게 시로 답하는 내용이 남아 있으므로 72세(1277년)까지는 생존하였음을 알 수 있다. 천책이 언제 입적했는지는 알 수 없다.

천책의 저술로는 『호산록(湖山錄)』과 『해동전홍록(海東傳弘錄)』이 있고, 천책의 저술인지 논란이 되는 『선문보장록(禪門寶藏錄)』이 있다. 『해동전홍록』은 『법화경』의 신행(信行)에 대한 영험담을 모아놓은 것인데, 현재 그 내용의 일부분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호산록』은 천책의 시문을 모아놓은 것인데, 그 동안 단편밖에 볼 수 없었는데, 『호산록』 4권 중, 2권이 새롭게 소개되었고, 그 판본도 ‘대홍사본’과 ‘송광사본’과 ‘일지암본’이 있다.

2. 천책의 사상

(1) 선교일치의 주장

천책은 선교일치(禪敎一致)를 주장하지만, 그 속에서도 교(敎), 곧 경전의 공부를 강조하고 있다.

천책의 산(禪)과 교(敎)에 관한 입장은 ‘선교일치’이다. 그래서 천책은 선종을 가르침을 참구하였고, 거기에서 경전을 읽는 것으로 공부하는 수단[道業]으로 삼았다. 이런 취지에서 천책은 종필의 『도서(선교일치를 논한 저술)』에서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이니 여래의 마음과 입은 반드시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한 말을 인용한다. 천책은 경전의 가르침이 부처의 마음을 말한 것이므로 경전을 공부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처럼 천책은 ‘선교일치의 정신’을 말하면서도 경전을 공부하는 것에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천책은 독송하는 것보다 고요히 명상하는 것이 더 뛰어나다고 하는 것은 소승의 경지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나서 육조대사(선종의 6번째 조사, 혜능)가 “경전에 무슨 허물이 있기에 그대가 생각하는 것을 장애하겠는가?”라고 말한 부분을 인용하면서 경전공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2) 유교, 도교, 불교의 삼교조화

천책은 유교, 도교, 불교의 삼교가 다르지 않다는 점을 주장한다. 그래서 유교의 사람을 만나면 유교를 말하고 불교의 사람을 만나면 불교를 말해서 그 사람이 감동해서 불교에 들어오도록 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삼교가 하나라는 것은 중국의 백련결사(중국 여산廬山 동림사에서 행한 결사)에 참여한 인물, 곧 이주(李舟)와 이상은(李商隱)의 주장을 통해 말하고 있다.

그러므로 불제자는 유자(儒者)를 만나면 유교를 말하고, 불자를 만나면 불교를 논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이 물 흐르는 듯이 해서 그 사람이 보고 듣고서 말심하도록 해야 한다. 지금 각하(운대아감 민호)는 유자이고 나는 불교인이다. 그래서 실제의 행동거지[容儀]도 같지 않고 명분도 같지 않다. 그런데 세존이 말하기를 “내가 세 명의 사람을 보내서 저 중국을 교화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이주(李舟: 중국의 백련결사에 참여한 인물)가 말하기를 “석가모니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주공(周公)과 공자와 같았을 것이고,

주공과 공자가 서방(인도)에 태어났다면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 석가모니와 같았을 것이다”라고 하였다. 이상은(李商隱: 중국의 백련결사에 참여한 인물)도 말하기를 “공자의 스승은 노자[老聃]이고, 노자의 스승은 석가모니이니, 바르게 깨달은 나의 스승에게 머리 숙입니다. 나의 스승에 어찌 삼교의 다름이 있겠습니까?”라고 하였다. [『호산록』 4권, (『한국불교전서』 12권, 40중-하)]

(3) 『법화경』과 천태종 가르침의 국가적 효용의 강조

천책은 태조의 승려 능공(能兢)이 도선(道詵, 827-898)의 비결이라고 하면서 『법화경』에서 말하는 삼승을 회통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會三歸一]는 가르침과 천태의 하나의 마음에 세 가지 관(觀)이 있다는 일심삼관(一心三觀)이 고려가 후삼국을 통일시킨 상황을 정당화해준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고려에서는 대각국사 의천에 의해 천태종이 세워졌고, 중국의 경우를 볼 때 천태종의 역사가 단절된 적도 있다고 한다.

무엇 때문인가? 과거에 태조가 고려를 처음 세웠을 때에 승려 능공(能兢)이 태조에게 도선(道詵)의 성스러운 비결(예언서)을 친히 전하였다. 그것은 다음과 같다. 삼승을 일승으로 회통하고, 삼관은 일

강좌내용

심에 있다는 매우 깊고 묘한 가르침이 후삼국을 통일한 우리나라(고려)와 합치된다. 대각국사는 임금에게 아뢰고 타고난 총명함으로 인해서 선종 3년(1086)에 이르러 대각국사 의천은 송나라에 들어가서 천태종의 가르침을 구하여 이 땅에 전했다. 이 삼승을 회통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종(宗: 천태종)을 받들어서 이 후삼국을 통일해서 하나로 합하는 터전을 복되게 하였으니 그 유래를 숭상할 만하다. 그러나 이 비밀스럽고 요긴한 가르침은 여래가 현재에 활동하고 있을 때에도 오히려 원망과 질투하는 것이 많았는데, 하물며 여래가 열반에 든 뒤이겠는가! 부처의 말씀이 분명하고 후세에 이르러 그 운(運)이 600년(회)을 이어오기는 하였지만, 혹 이 천태종의 가르침이 갑자기 없어지기도 하였다. 그래서 아는 사람들은 모두 애통해 하며 마음을 상하기도 하였다. 다행히 지금 성스러운 임금과 현명한 신하가 천태종의 가르침을 매우 지성으로 외호하고 중흥시킬 것을 발원하니, 어찌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 많은 사람을 불교의 길로 인도함)에 영험이 없겠는가?

[『호산록』 4권, (『한국불교전서』 12권, 44중-하)]

나아가 천책은 『법화경』이 영원토록 이 땅에 선양되면, 대보살이 신력으로 이 땅을 보호해서 고려왕조가 태평한 시대를 맞이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또한 『법화경』에서 대천세계의 많은[微塵數] 보살이 후(後)오백세(석가모니가 돌아간 후에 500년이 지나서 대승경전이 등장함)에 이 『법화경』이 유통되기를 발원하였다. 만약 이 『법화경』의 법문이 오랫동안 널리 선포된다면 반드시 대보살의 신력이 보호할 것이고, 우리나라는 태평한 시대와 거의 근접할 것이다. 만약 묘법(妙法)의 가르침을 선양한다면, 모든 중생에게 24시간 가운데 망념(妄念)이 나타나겠는가? 이 일대사인연이라고 한다면 어찌 이 가르침(『법화경』) 이외에 따로 도리를 구하겠는가?

[『호산록』 4권, (『한국불교전서』 12권, p.44c)]

이처럼, 천책은 『법화경』의 삼승을 회통해서 일승으로 돌아간다는 것과 천태의 한 마음에 세 가지 관(觀)이 있다는 가르침은 고려의 후삼국 통일을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하고, 나아가 『법화경』이 이 땅에 오랫동안 선양되면 고려왕조는 거의 태평한 시대에 근접할 것이라고 한다. 이는 『법화경』과 천태의 가르침의 현실적 효용, 더 정확히 말하자면 국가적 효용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해석된다.

V. 운목무기의 생애와 사상

1. 운목무기의 생애와 저술

천태종은 원나라 간섭기에 들어서서 백련사와 묘련사 계열로 갈라졌는데, 운목무기(雲默無寄)는 백련사 계열의 대표자이다. 그의 법명은 운묵(雲默)이고, 자(字)가 무기(無寄)이며, 법호는 부암(浮庵)이다. 운목무기는 백련결사 4세 천책의 제자인 불인정조(佛印靜照)의 제자가 되어 승과에 합격하였지만, 굴암사 주지직을 버리고, 금강산과 오대산 등 명산을 돌아다니다가, 시흥산에 자리를 잡고, 오직 『법화경』을 송(誦)하고, 아미타불을 염불하였다. 1328년에는 『석가여래행적송(釋迦如來行蹟頌)』을 저술하였고, 그 밖의 저술로 『경책(警策)』이 남아있다. 만년에는 남쪽으로 내려가서 전남 장성군(長城郡) 취령산(鷲嶺山) 취서사(鷲栖寺)에서 입적하였고, 그의 제자들이 석종(石鐘)을 세워 유해를 봉안하였다.

운목이 『석가여래행적송』을 저술한 목적은 석가모니의 행적보다는 말법시대 불자(佛子)들의 자각과 사명감을 촉구하는 데 있다. 그리고 당시의 귀족불교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다. 운목은 『경책』에서

강좌내용

네 가지 은혜 곧 임금의 은혜, 스승의 은혜, 부모의 은혜, 시주(施主: 보시하는 사람)의 은혜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시주의 은혜임을 밝히고 있다.

2. 운목무기의 사상

(1) 당시 불교계에 대한 비판

운목은 당시의 불교계가 부처가 방편으로 여러 가르침을 편 것을 알지 못하고, 한 가지에 집착해서 싸우고 있는 상황을 비판하고 있다.

오호라! 지금 성인(석가모니 부처)이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고, 때는 투쟁의 시기에 속한다. 어리석은 중생은 그 집착하는 마음이 매우 견고해서, 내 편이다. 남의 편이라고 편을 갈라 경쟁하고, 부처님의 방편의 큰 의미를 알지 못해서 부처의 한 근원의 가르침에 대해서 서로 파당을 나누어서 서로 싸우고 있다. 그리하여 마침내 서로 해치는 상황에까지 봉착하고 말았으니, 통탄하고 통탄할 일이다.
[『석가여래행적송』 상권(『한국불교전서』 6권, 506하,)]

구체적으로 말하면, 『화엄경』을 중시하는 사람은 이것이 최고요 다른 것은 말단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고, 『법화경』만을 공부한 사람은 이것이 중요하고 다른 것은 종속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며, 다른 경전과 논서를 중요시하는 사람도 자신이 근거하는 경전과 논서만이 으뜸이요 다른 것은 부수적이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자신만이 옳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주장하여, 자신도 미혹되고 다른 사람도 미혹하게 만드는 잘못된 일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 주장을 교종만이 아니고, 선종에도 적용할 수 있다. 선종의 가르침을 숭상하는 사람은 선종의 가르침이 교종의 가르침 이외에 따로 전한 비밀한 가르침[교외별전 敎外別傳]이라고 주장하고, 경전의 가르침을 낮추어보지만, 이것은 경전의 내용을 잘 몰라서 나온 비판이라고 운목은 평가한다.

또한, 이런 주장을 교종과 선종에 적용할 뿐만 아니라, 수행방법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말할 수 있다. 부처님의 방편정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 자신이 수행한 방법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좌선이 최고라고 하기도 하고, 경전을 독송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하기도 하며, 염불수행이 으뜸이라고 하기도 하고, 보시(기증)하는 것과 계율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다른 수행은 의미 없다고 낮추어 보기도 한다. 이런 부류의 수행자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으리라.

(2) 불교사상에 대한 회통(會通: 여러 주장을 화해하고 소통하는 것)

운목은 앞서서와 같이, 당시의 불교계 상황을 통렬히 비판한 다음에, 부처님의 모든 가르침이 한 가지라는 것을 힘주어 강조한다. 그는 우선 바다의 비유를 들어서 모든 부처님의 가르침이 그 근원에서 는 같음을 밝히고 있다.

지금 어리석은 내가 ‘조사(祖師: 선종의 뛰어난 인물)의 가르침’에 의지해서 한 가지 비유를 제시할 것이니, 그것을 통해서 모든 가르침을 통괄해서 내가 옳다 네가 옳다고 싸우는 많은 논쟁을 잠재우고자 한다. 비유하면, 큰 바다가 은은히 흐르고 있어서 그 물결이 세계 어느 곳에도 흐르지 않은 곳이 없다. 그래서 평지에서, 혹은 높은 언덕에서, 심지어는 산꼭대기에서도 땅을 파면 물이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혹 이 물결이 돌무더기와 부딪치면, 솟아 나와 샘물[泉]이 되고, 많은 샘물이 합해져서 하나의 개천[川]을 이루며, 많은 개천이 모여서 하나의 강을 이루고, 많은 강물이 큰 바다로 흘러 들어가게 되면, 그 바다에서는 여러 강물이 모두 같은 맛이 된다. 이것이 근원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렇지만 저 많은 물(샘물, 개천, 강물)이 각각 이름이 있으니, 어떤 것은 무슨 무슨 샘물이라 하고, 어떤 것은 무

강좌내용

슨 무슨 개천이라 하고, 어떤 것은 무슨 무슨 강물이라 한다. 그러나 그 근원은 다만 한 바다일 뿐이다. 이와 같이, 많은 물이 한결같이 바다에 돌아간다. 따라서 어찌 이 강물은 크고 저 개천은 작다고 하며, 이 강물은 깊고 저 개천은 얕다고 구분하여 물을 구분하는 다른 이름이 물에 존재하겠는가? 부처의 가르침도 이와 같은 것이다.

[『석가여래행적송』 상권(『한국불교전서』 6권, 506하~507상)]

그래서 부처가 여러 가지 다른 듯한 가르침을 전한 것은 방편일 뿐이고, 실제로 모든 부처의 가르침은 한 맛이고, 묘한 가르침[법]이라고 운목은 주장한다. 이 주장에 근거해서 운목은 『화엄경』에 근거해서 보면, 모두가 『화엄경』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법화경』에 의거하면 모두가 『법화경』의 뜻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반야경』과 『방등경(일반적 의미의 대승경전)』에 기초하면, 모두 『반야경』과 『방등경』의 취지로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한다. 그러므로 대승의 근본 가르침에 근거하면, 제한된 집착을 벗어나 모두 화해시켜 차이가 없다고 한다.

그리고 운목은 선종의 가르침도 교종의 가르침과 다르지 않다고 덧붙이고 있다. 선종은 마음을 깨닫는 것을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마음과 교종의 가르침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3) 수행방법에 대한 회통

운목은 앞에서와 같이, 불교사상의 회통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면 그 안에 수행방법에 대한 회통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할 수 있지만, 운목은 따로 떼어내어서 수행방법의 회통을 말하고 있다.

우선 운목은 수행방법의 회통을 말하기 위해서 ‘성안에 들어가는 비유’를 제시하고 있다. 성안에 들어가는 데 성문이 8개 있으므로, 어떤 문(門)을 통해서 들어가는 간에 문제가 없는데, 굳이 다른 곳에 사는 사람을 그 당사자가 살고있는 곳보다 먼 곳의 문으로 들어가게 할 필요가 없다고 잘라 말한다.

우선 왕이 살고있는 성(城)에 들어가자 한다면, 8개의 문(門)이 다 괜찮으니 그 당사자가 사는 장소에 따라 잘 인도해서 돌아가지 않고 곧장 성(城)안으로 들어가게 해야 되는데, 어떻게 동쪽 지역에 사는 사람을 서쪽 문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고, 서쪽 지역에 사는 사람을 동쪽 문으로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는가? 어찌하여 이렇게 잘못 인도하여 그들로 하여금 수고롭게 하는가? 비록 성의 문은 8개이지만, 들어가는 문은 다만 한 개뿐이다. 이와 같이 부처의 가르침이 다른 듯이 보이지만, 모두 한 곳(깨달음의 세계)에 돌아가는 것이다. 그런데 어찌 한 쪽만 옳다고 집착하여 싸우겠는가?

[『석가여래행적송』 하권(『한국불교전서』 6권, 529중)]

그래서 운목은 부처님이 중생의 근기(능력)에 따라 좌선을 가르치기도 하고, 경전을 독송하라고 하기도 하고, 염불을 권하기도 하고, 보시와 계율 등의 여러 가지 선한 행위를 닦으라고 일러주기도 해서, 궁극의 도(道)에 들어가게 하고자 한 것이라고 외치고 있다. 그런데 어떻게 한 수행법만 옳다고 집착하여 싸울 수 있겠는가?

그래서 운목은 자신의 수행방법이 최고라고 우기면서 서로 싸우는 사람들, 병의 근원을 살펴보지 못한 채, 표면적인 임시방편의 약을 조제해 주는 부류라고 평가한다. 그러면서 운목은 모든 것, 다시 말해 우리의 모든 일상동작이 다 부처의 가르침의 나타남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법화경』에서 어린아이가 장난으로 탑을 쌓거나, 건성으로 염불을 한 번만 해도, 그 인연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반드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한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보자면, 불교의 수행자는 자신의 능력에 따라 한 가지 수행법에만 전념하면, 결국 최고의 경지에 이를 수 있게 된다고 운목은 강조한다.

6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통일신라시대 선종의 철학자들	교수자	지혜경
학습목표	- 선종의 발생과 전개과정을 이해한다. - 선종의 핵심 가르침을 설명할 수 있다. - 구산선문의 창시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이해한다. - 초기 한국 선불교의 특징을 이해한다.		
핵심어	선종, 남종선, 홍주종, 구산선문		
주요흐름	1. 열녀란 무엇인가? 2. 열녀의 역사적 형성과정		
읽기자료	이일야, <아홉개의 산문이 열리다>, 조계종 출판사		
학습요소	영상 68분 16초 토론 1문항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선사들이 말하는 “내 마음의 부처”를 보는 것은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

강좌내용

<인트로>

이번 강의에서는 통일신라시대 때 전래된 선불교, 선종의 선사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선종은 다른 학파들보다는 조금 늦은 통일신라시대 후기에 융성하게 되면서 한국불교의 주류 불교가 됩니다. 7세기 법랑이 처음 선불교를 소개하였으며, 왕실에서 관심을 가졌으나 크게 인기를 얻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8세기 말, 신라에서 화엄불교를 공부하던 승려들이 중국에서 가서 선불교를 배워온 뒤 지방 호족들의 지원을 받으며 각각의 수행 그룹, 선문을 엽니다. 이를 고려 중기 때 아홉 개의 그룹으로 정리하여 구산선문, 구산문이라 불렀습니다. 이 강의에서는 구산선문을 시작한 승려들의 삶과 사상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앞서 선종이란 어떤 종파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종의 형성과 특징>

1장에서 간단하게 설명했듯이 선종은 경전공부보다 명상수행을 통한 깨달음을 강조하는 학파입니다. 선이란 산스크리트어로는 디야나 Dhyāna, 팔리어로는 자나 Jhāna로 중국어로 적은 발음이 선나였고, 이를 줄여서 선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심사숙고하다'로, 마음에 잡다한 생각의 일어남 없이 차분하게 유지되어 마음의 본래 모습이 드러난 상태를 말하므로, 간단하게는 명상과 동의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장에서 이야기했듯이, 석가모니 부처가 꽃을 들고 마하가섭과 미소를 주고받으며, 서로 깨달음의 내용을 공유했던 것에서 선불교가 시작했다고합니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덧붙여진 이야기이지만, 선불교의 핵심적 가르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째 이심전심, 선불교의 가르침은 마음에서 마음으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며, 둘째, 불립문자, 언어를 가지고 이론을 세워서 전하는 가르침이 아니며, 셋째, 교외별전, 경전의 가르침이 아닌 따로 전해지는 가르침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선불교의 특징은 언어라는 매개체를 넘어서서 직접적 경험의 공유를 강조하고, 언어로 규정된 사고의 한계로부터 자유로울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수행자들, 선사들의 대화가 담긴 선어록을 보면 그들의 대화는 우리의 일상적 대화법과 거리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것이 부처입니까?”라고 물으면 “마른 똥막대기”라고 답하거나, “할”이라고 소리지르거나 지팡이로 때리기도 합니다. “달마대사가 서쪽에서 중국으로 온 까닭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면 “뜰앞의 잣나무”라고 대답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선종의 일상적인 언어 사용법을 파괴하는 대화법은 어느 한쪽의 의견에 매몰되지 않으면서 있는 그대로 세상을 볼 수 있게 돕는 역할을 합니다.

선불교는 모든 존재가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다는 전제하에 마음 속 부처의 성품을 바로 볼 것을 강조합니다. 이를 직지인심; 경전공부 없이 내 마음을 바로 가리켜 깨달음을 얻는 것이라고 하고, 견성성불; 나의 본래 성품인 부처의 성품을 바로 보아서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이 두가지 모두 선불교의 핵심가르침을 담고 있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선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이란 자신의 본래 성품인 부처의 성품을 바로 보고, 그와 하나되어 지혜로워진 상태를 말합니다.

6세기 달마대사 중국에 선불교를 전했다고 합니다. 달마는 석가모니 부처로부터 선의 가르침을 배운 이십팔대 제자이며, 중국에서는 선종을 시작한 첫번째 사람입니다.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기이한 이야기들이 전해집니다. 하루는 그가 명상을 하고 있는데, 눈이 자꾸 감기며 졸려서 눈꺼풀을 떼어서 마당으로 던져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눈꺼풀이 차나무로 자랐다고 합니다. 각성 성분을 가지고 있는 찻잎과 달마대사를 연결시킨 이야기입니다.

또다른 이야기는 그의 외모와 관련된 이야기로, 이 그림에서 보는 달마대사는 우락부락하게 생겼습니다. 그러나 원래 그의 모습은 미소년의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된 것일까요? 그가 중국에 도착한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무언가를 고향에 두고 온 것이 기억났습니다. 되돌아가서 가져오려 했으나,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아서, 몸은 놔두고 영혼만 고향에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동굴을 발견하여 몸을 놔두고 영혼만 고향으로 향했습니다. 그 때 수행할 곳을 찾던 도사가 그의 몸을 발견하였습니다. 자신의 모습을 좋아하지 않고, 외모کم플렉스를 가지고 있던 도사는 달마의 아름다운 몸을 보고, 자신의 몸을 버리고 달마의 몸 속으로 들어가 그 몸을 가지고 떠납니다. 달마가 돌아와보니 자신의 몸은 보이지 않고,

못생기고 우락부락한 몸만 남아있어서 어쩔 수 없이 도사가 버리고 간 몸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그림의 모습으로 전해져옵니다.

몸이 바뀌었다는 이야기가 조금은 황당하게 들리겠지만, 이 이야기는 선종의 역사적 형성과정에 대한 중요한 힌트를 줍니다. 불교가 처음 중국에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은 도가와 비슷한 학문이라 생각했고, 도가의 개념들을 가지고 불교 경전들을 번역했었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도가적 표현법들과 세계관이 불교와 함께 섞이게 됩니다. 그 과정을 겪으면서 중국에서 만들어진 불교가 선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사의 몸을 입은 달마는 도가의 옷을 입은 불교가 선종이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달마대사의 선종은 그의 제자인 혜가, 승찬, 도신을 거쳐서 다섯번째 세대의 제자인 오조 홍인에 이릅니다. 동아시아의 불교는 계보를 중시합니다. 마치 집안의 대를 잇는 것처럼, 불교의 가르침도 그렇게 이어진다고 봅니다. 달마, 혜가, 승찬의 관계는 마치 아버지, 아들, 손자의 관계와 같습니다. 특히 손자 관계에 있는 경우, 법손, 진리의 손자라는 표현을 자주 씁니다. 비록 혈연관계는 아니지만,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이렇게 집안의 자손이 이어지는 것처럼 보는 것이 선불교가 가진 특징 중의 하나입니다.

<북종선과 남종선>

오조 홍인 이후에 선불교는 북종과 남종이라는 두 학파로 나뉩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육조단경에 다음과 같은 유명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하루는 홍인이 머물고 있는 절에 글자도 읽을 줄 모르는 나뭇꾼 출신 혜능이라는 사람이 제자가 되겠다고 옵니다. 그가 혜능에게 어디서 왜 왔냐고 물으니, 남쪽 지역출신으로 부처가 되기위해 왔다고 대답합니다. 이에 홍인은 “남쪽 오랑캐가 어떻게 부처가 될 수 있겠는가”라고 꾸짖자, 혜능은 “사람에게는 남북이 있으나, 부처의 성품은 남북이 없습니다. 오랑캐의 몸은 스님의 몸과 같지 않지만, 부처의 성품에 무슨 차별이 있겠습니까?” 라고 되물습니다. 혜능의 대답을 듣고 홍인은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라 생각하여 그를 절에 머물게 하기로 합니다. 그래서 그를 절의 방앗간으로 데려가 방아를 찧게 하였습니다.

하루는 홍인이 제자들을 불러 모아 놓고, 깨달음에 대한 계송, 불교적 가르침에 대한 노래를 써보라고 합니다. 당시 홍인에게는 오랫동안 공부한, 아주 뛰어난 제자 신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자신의 눈치를 보느라 글을 내지 않는 것 같자, 신수는 밤에 남들 모르게 남쪽 복도 중간 벽 위에 다음과 같은 계송을 남깁니다.

몸이 보리의 나무라면
마음은 받침대 있는 밝은 거울이니
때때로 부지런히 털고 닦아
먼지가 끼지 않게 하라

다음날 홍인이 이를 보고, 신수가 쓴 것임을 눈치채고, 이 계송을 외우면 나의 참된 본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칭찬하였고, 제자들이 모두 이 계송을 외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신수를 몰래 따로 불러서는 신수가 지은 것인지 확인한 후 조언을 해줍니다. “네가 지은 이 시는 깨달음의 문앞까지는 도달했으나, 들어가지 못했다. 일반인이 이에 의지해서 수행하면 도움이 되겠지만, 궁극적인 깨달음은 얻기 어려울 것이다. 다시 써오거라. 이번에 너의 참된 본성을 제대로 보았다면 내가 네게 가르침과 가사를 주어 너를 내 후계자로 정하리라.” 신수는 더 나은 계송을 짓기 위해 다시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한편 절에 있는 스님들이 모두 신수가 지은 계송을 외우고 다니자, 혜능도 그 계송 듣게 됩니다. 계송을 듣자마자, 혜능은 글쓴이가 자신의 본성을 제대로 보지 못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생각하는 깨달음에 대한 계송을 지어서, 글을 쓸 줄 아는 이에게 부탁하여, 신수의 계송이 쓰여진 벽 옆에 써놓습니다.

강좌내용

보리는 본래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 역시 받침대가 없으니
부처의 성품은 항상 깨끗하거늘
어디 곳에 먼지가 있겠는가?

마음은 보리의 나무요,
몸은 밝은 거울의 받침대라
밝은 거울은 본래 깨끗한데
어디에 티끌과 먼지가 물들겠는가.

다음 날 홍인은 이 시를 보고는 깨달음의 체험을 한 이의 글임을 알았으며, 혜능이 지은 것임을 눈치챘으나, 혹시 문제가 될까봐 사람들 앞에서는 “이것도 아니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밤중에 조용히 혜능을 불러서 <금강경>의 핵심 가르침을 이야기해주고, 그가 금강경의 내용을 완전히 이해하자 그에게 가사를 주어 후계자로 정합니다.

열심히 공부한 신수와 글자도 모르는 나뭇꾼인 혜능 중에서 깨달은 사람은 혜능이라는 것, 흥미진진하지 않나요? 신수와 혜능의 스승인 홍인은 수석제자라는 지위나 그 사람의 출신과 상관없이 제대로 깨달은 사람을 후계자로 삼았습니다. 이것이 선의 정신입니다. 이 일화는 선불교가 경전공부보다 나의 본래성품인 불성을 보는 수행을 중시하며,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수와 혜능의 계승을 좀 더 살펴보면, 신수는 우리의 마음에 먼지가 끼어 더럽혀 지지 않게 항상 닦고 노력해야한다고 합니다. 반면, 혜능은 우리의 마음이 이미 깨끗한 부처의 마음인데, 더럽혀질 이유가 없다고 합니다. 우리 마음이 이미 깨끗한 이유는 실체가 없는 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리는 나무가 없고, 밝은 거울은 받침대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신수의 수행방식은 점차적인 수행이라고 해서 점수라 하며, 혜능은 우리의 마음에 실체가 없고, 그런 의미에서 깨끗하며, 또한 부처가 될 수 있는 부처의 성품을 가지고 있기에 이러한 사실을 바로 체험하는 순간, 모든 마음을 더럽히는 것들로 부터 자유로워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단번에 이 사실을 깨닫는 것, 돈오를 강조합니다. 신수의 점수 수행을 강조하는 선을 북종선, 돈오를 강조하는 혜능의 선을 남종선이라고 합니다.

<남종선과 한국선불교>

이후 혜능의 남종선은 선불교의 주류가 됩니다. 그의 선불교는 그의 제자, 하택신회가 세운 하택종, 그의 법손인 석두최현이 세운 석두종, 또다른 법손인 마조 도일이 세운 홍주종으로 나누어집니다. 하택종은 우리 안의 부처의 마음은 참된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것은 수행을 통해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돈오 이후에 점수가 필요하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반면에 홍주종은 모든 것은 부처의 성품이 발현된 것입니다. 심지어 마음의 분별작용이나 번뇌도 다 포함해서 부처의 성품이기에, 우리의 일상의 마음, 평상심이 바로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봅니다. 석두종도 비슷하지만, 오직 이놈, 오직 부처의 마음만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홍주종과 석두종은 돈오돈수를 주장하며, 그 본래 마음에 대해서 깨달을 것을 강조합니다.

이후 홍주종은 임제의현스님에 의해 임제종으로 발전하고, 석두종은 동산 양계스님의 의해서 조동종으로 발전합니다. 둘의 차이는 수행법의 차이로, 조동종은 묵묵히 내 본래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고, 임제종은 간화 수행법을 제시하는데, 화두 또는 공안이라고 하여 선어록의 주요한 이야기들을 대상으로 삼아서, 집중하는 수행법입니다.

구산 선문의 대부분의 스님들은 마조 도일의 제자들에게 배운 홍주종 계열이지만, 북종과 조동종계통의 산문도 있습니다. 고려 말기 간화선 수행법이 유행하면서 한국선불교의 주류학파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대표 불교종단인 조계종은 육조 혜능이 머물던 조계산에서 이름을 따서 조계종이라고 한 것입니다.

강좌내용

<구산선문>

구산선문, 구산문은 아홉개의 선불교 그룹을 말합니다.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중기까지의 선불교 수행 그룹들을 그들이 활동하던 지역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산문의 이름과 산문을 시작한 사람, 개창자, 각 산문의 주요 활동사찰은 다음의 표와 같습니다. 개창자 이름 옆의 괄호 속 이름은 실질적 개창자로 개창자로 일컬어지는 사람들의 제자들이며, 실제 그 수행그룹을 활성화시킨 사람들입니다. 가지산문은 도의국사가 개창했다고 하나 실제 개창자는 그의 제자 체징으로, 장흥 보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실상산문은 홍척국사가 개창했고, 남원 실상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동리산문은 해철국사가 시작했고, 곡성 태안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성주산문은 무염국사가 시작했으며, 보령 성주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사굴 산문은 범일 선사가 강릉 굴산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사자 산문의 시작은 도윤국사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의 제자 절충이 머물던 영월 흥년사, 현재는 범홍사를 중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봉림산문은 현옥국사라고 하지만, 그의 제자 심희가 창원 봉림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회양산문은 도헌국사가 시작했다고 하지만, 그의 제자 공양이 문경 봉암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으며, 수미산문은 이엄국사가 해주 광조사를 중심으로 활동했습니다. 이 가운데에 성주사, 굴산사, 봉림사, 광조사는 그 터만 남아있지만, 다른 절들을 아직 남아 있기에 방문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각각의 산문을 시작점이 되는 승려들의 생애와 사상을 중심으로 구산선문에 대해서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의와 가지산문>

도의의 생애는 조당집이라는 선사들의 일생을 모아놓은 책에 기록되어 있으며, 관련 인물들의 기록에도 짧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도의 선사는 출가전의 성씨가 왕씨였으며, 북한군, 지금의 서울지역의 사람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 아버지는 흰무지개가 뻗어서 방으로 들어오는 꿈을 꾸었고, 어머니는 어떤 스님과 잠자리를 같이 하는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꿈에서 깨어났을 때 방이 향기로 가득했다고 합니다. 특별한 태몽과 체험으로 인해 부부는 특별한 아이가 태어나겠다고 생각했으며, 그 후 반달 만에 임신사실을 알 수 있었는데, 아이가 39개월만에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때가 750년 경이었습니다. 도의가 태어난 날 한 스님이 와서 아이의 태반을 강가에 놓아두라고 하여 그 말을 따르니, 사슴이 나타나서 1년동안 그것을 지켰는데, 어느 누구도 해치는 경우가 없었다고 합니다. 사슴은 불교에서는 신적인 귀한 동물로의 상징이기에 아이가 그만큼 특별하고 중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후 도의는 20세 즈음에 출가하게 되어, 명적이라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도의는 출가한 이후에도, 불교를 더 깊이 배우기 위해 사신 행렬을 따라 중국으로 떠납니다. 784년, 성덕왕 5년에 신라 사신들과 함께 바닷길을 통해 당나라로 들어가 그곳에서 37년간 공부하였습니다. 그가 당나라에 도착해서 제일 먼저 간 곳은 오대산이었습니다. 문수보살이 머무는 곳으로 알려진 오대산은 화엄학자들의 성지였기에, 도의도 신라에서 화엄종을 공부했었다고 추측해볼 수 있습니다. 그가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하자 허공에서 종소리가 들리고 산에서는 메아리가 울렸다고 합니다. 문수보살이 인정했다는 상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후 광주 보단사로 이동하여 거기에서 구족계를 받아 정식 승려가 되었고, 육조 혜능이 머물렀던 조계산으로 이동합니다. 조계산에서 혜능의 상이 있는 조사당을 참배하려는데, 저절로 문이 열렸고, 그가 삼배를 하며 예배를 마치자, 그 문이 저절로 닫혔다고 합니다. 하나의 기적으로 이해할 수도 있지만, 혜능과 선불교가, 그를 기다렸었고 환영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묘사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강서지역 홍주 개원사로 가서 마조도일의 제자인 서당 지장을 만나 그에게서 본격적으로 선불교를 공부하며 그동안의 의문을 모두 풀고 화엄종의 교학자가 아니라 선수행하는 선사가 되었습니다. 도의의 뛰어난 이해에 서당 지장은 “진실로 법, 불교의 진리를 전하고자 한다면 이런 사람이 아니고 누구에게 전하랴”라고 하며 그의 이름을 명적에서 도의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는 또한 욕심을 버리며 고행을 하는 두타행을 하며 마조의 또 다른 제자인 백장 스님을 찾아뵙기도 했는데, 그에게서도 “강서의 선택이 몽땅 동국으로 돌아가는구나., 즉 중국의 선불교의 핵심을 신라의 승려들이 잘 이해하는구나” 라고 칭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이러한 칭찬을 받고 821년 기대를 갖고 신라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그의 기대와는 달리 사람들은 선불교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에 그는 아직 선불교를 전파할 때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당시 수도였던 경주로 가는 대신 설악산으로 향합니다. 이에 대해 그의 법손인 체징의 비문에서는 “그 때 사람들은 오직 경의 가르침과 관법을 익혀 정신을 보존하는 법만을 숭상하고 있어 무위하며 자유롭게 살아가는 선종에는 아직 이르지 못하여 허망하게 여기고 숭상하지 않는 것이 달마가 양나라 무제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과 같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전을 공부하고, 엄격한 계율을 통해 맑은 정신을 유지하는 수행에서 어찌 보면 너무나 간단하고, 자유로운 선종의 가르침을, 당시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모양입니다.

도이는 설악산 진전사에서 은거하면서 선을 배우고자 하는 제자들을 가르치며, 가자산문의 모태적인 설악산문을 만들었습니다. 점차적으로 뛰어난 당시의 교학자들도 선종을 인정하고 수용하면서, 왕실과 지방호족의 후원도 받으면서 도의의 산문은 점점 세력을 확대하게 됩니다. 그의 법손인 체징의 노력으로 가자산문이라는 독립된 산문으로 자리잡습니다. 도의는 남종선을 신라에 처음 전달한 사람이기에, 가자산문은 한국 선불교의 시작점으로 봅니다.

<도의선사의 사상>

도의선사의 사상은 남종, 구체적으로는 마조의 홍주종 계통입니다. 그가 화엄학자와 대화한 기록에 따르면 그의 사상의 핵심은 생각함도 없고 수행함도 없는 부처의 성품을 강조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모두 육조혜능 사상의 연장선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의 마음은 본래 부처의 참된 성품이 드러난 것이기에 그 자체에는 나를 괴롭히는 잡다한 망상이나 분별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생각함이 없다는 것입니다. 수행함이 없다는 것은 수행을 아예 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부처의 성품은 모든 존재가 가지고 태어난 것이기에, 부처의 성품을 깨달은 상태에서 본다면, 지나친 자기 비판과 자기부정으로 과하게 노력하는 것을 안하게 된다는 것을 말한다 할 수 있습니다.

<홍척과 실상산문>

홍척에 대해서는 기록이 많지 않습니다. 조당집에는 겨우 한줄, “서당스님의 가르침을 이었고, 휘는 홍척이요, 시호는 증각 대사, 탑호는 응적이라고 하였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좀 더 풀어보자면, 그는 도의처럼 서당 지장에게서 배웠고, 생전의 이름은 홍척이었고, 죽은 이후에는 증각으로 불렸고, 승려로서 응적이라는 호를 썼습니다.

최치원이 쓴 회양산문 도현의 비문에도 그에 대한 기록이 조금 남아 있는데, 그 기록에 의하면, 도의보다는 5년 늦게, 826년에 당에서 신라로 돌아와 남악지역에서 머물렀으며, 홍척의 뛰어난 뜻을 들은 흥덕왕과 그의 동생 선강태자가 그의 제자 되기를 요청하였다고 합니다. 그의 사상은 최치원이 쓴 비문 속 문구를 통해 조금이나 살피볼 수 있습니다.

“선의 가르침을 드러내 보이면서, 불교적 진리를 조용히 전하다 보면, 아침에는 일반인이었던 사람이 저녁에는 성인이 된다. 변하는 것이 거창하게 행해지지 않는지만, 단박에 발생한다. 그 핵심 가르침을 살펴보면, 수행하되 수행할 것이 없는 것을 수행하며, 깨달음을 얻되 깨달을 것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고요히 있을 때는 산이 서 있는 것 같고, 움직일 때는 산골의 메아리가 대꾸하는 것처럼, 선이 지니는 무위의 유익함으로 다투지 않고 이긴다. 이에 우리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비우게 해주어 능히 고요한 이익으로 다른 국가들을 이롭게 하되, 그 일을 자랑하지 않으니 참으로 위대하도다.”

강좌내용

남종선의 전통에 서있는 홍척은 단박에 깨달음을 얻는다는 것과 깨달음을 얻었을 때의 무위상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의 핵심은 내 마음의 부처를 깨닫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나의 마음을 조용히 살피기에, 선의 가르침은 요란하게 수행을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하게 경전을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마음이 곧 부처의 본래 마음이라는 것을 깨닫는 수행이기에, 일단 누구나 부처의 본래 마음에 대한 깊은 믿음을 바탕으로 이를 바로 보게 되면, 바로 깨달음의 상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용하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가르침입니다.

무위는 자연의 법칙에 어긋나 억지로 하지 않거나, 인위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나의 본래 마음, 부처의 마음을 깨달고 나면, 그 본래 마음의 움직임에 내맡기기 때문에 수행할 것이 없이 수행하게 되는 것이며, 부처의 본래마음 그 자체가 사실 우리의 존재의 본래상태이기에 따로 깨달을 것은 아니지만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마음은 고요하나 인연과 만나서 활발하게 움직이기에 고요히 있을 때는 그냥 산처럼 고요히, 움직일 때는 활발하게 움직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선의 깨달음에 의해 무위의 행위를 하게 되면, 모든 것이 큰 갈등없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홍척의 사상입니다.

<혜철과 동리산문>

혜철의 자는 체공으로, 공을 체득했다는 의미이며, 출가 전 성은 박씨이고 경주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의 조상들은 젊었을 때는 유학을 공부하고 나이들어서는 노자를 비롯해도가에 심취했었다고 하는데, 이러한 정보는 그가 불교뿐만 아니라 유학과 도가에도 깊은 이해를 하고 있었다고 추측하게 합니다. 다른 승려들의 경우처럼, 그의 어머니도 태몽을 꾸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꿈 속에서 우아하고 엄숙한 모습의 외국승려가 향로를 들고 침대로 다가와 앉아서 “반드시 부처님의 진리를 탐구할 아들을 얻을 것이며 훗날 국사가 되리라”라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그런 태몽과 함께 태어난 혜철은 어릴 적부터 남달랐었습니다. 성격은 항상 차분하고 조용하였으며, 고기 누린내와 생선비린내를 맡으면 피를 토하였고, 도살하는 것을 보면 마음 아파했습니다. 가르치지 않아도 걸가부좌를 하며 앉고, 사람들에게 인사할 때는 합장을 하였습니다. 절을 찾아서 불상을 찾아가 승려들처럼 기도하고 범패를 불렀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에 알 수 있듯이 그는 이미 전생의 인연으로 스님의 삶을 살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15세 때 출가하여, 화엄경을 청강하였는데, 총명하게 잘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바탕으로 책을 써서 사람들의 이해를 돕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동료들은 “어제는 학문을 열심히 하는 친구 였는데, 지금은 이끌어 주는 스승이 되었으니, 참으로 불교계의 안희”라고 칭송했습니다. 안희는 공자의 제자 중 가장 뛰어난 제자였다고 합니다. 혜철이 바로 안희처럼 불교계에서 뛰어난 인물이라는 것을 비유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세 때에 구족계를 받아서 정식승려, 비구가 되었습니다. 계를 받기 전날, 오색구슬이 소매에 들어와 있는 꿈을 꾸었고, 또한 계를 받는 당일에는 그가 계를 받는 곳에서 회오리 바람이 엄청 심했으나, 그가 계를 받고 계단에서 내려오자마자 하늘이 고요하고 조용해 졌다고 합니다.

814년에 석가모니 부처의 가르침을 더 배우고 싶다는 마음을 내어 중국으로 가서 다른 이들처럼 서당 지장을 찾아가 선불교를 배웠습니다. 그러나 오래지 않아서 스승이 돌아가시게 되어, 그 후에 이름난 산을 찾아다니다가 서주의 부사사에서 머물며 대장경 공부를 시작합니다. 그는 3년동안 눕지 않고, 잠시도 쉬지 않으며 아침저녁으로 열심히 정진하였습니다. 그렇게 공부하니 경전구절 중에 이해가 안되는 구절이 없이 다 이해되었다고 합니다.

839년에는 자신이 배운 것을 함께 나누고 싶어서 고국으로 돌아왔으며, 사람들의 환대를 받았습니다. 그의 생애를 기록한 글에서는 이를 공자가 노나라로 다시 돌아온 것에 비유하였습니다. 공부한 것을 강의하는 것 외에도 그는 신비한 기적적인 행위를 하며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하안거, 여름 수행기간동안 그가 머물던 지역에 비가 오지 않아 지나치게 건조하고 가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의 지방관이 혜철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혜철이 조용한 방에 들어가 좋은 향을 피우고 기도를 하니 처음에는 비가 조금씩 내리다가, 필요한 만큼까지 충분히 내렸다고 합니다. 또한 한번은 수행하는 산 속에서 큰 불이 나서 오도가도 못할 때에, 깊은 명상 수행을 하자, 큰비가 내려서 불을 모두 다 꺼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이후 물려드는 사람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가르칠 공간으로 동리산 태안사에 머물면서 동리선문을 세웠습니다. 그곳에 머무를 때 문성왕이 그의 제자가 되었으며 때때로 자문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불교의 가르침을 개인의 삶 속에 적용하게 하기 위해, 불교의 첫번째 계율인 불살생에 위반되는 사냥을 국가에서 금지시켜 달라고 끊임없이 요청하였었고, 왕은 이를 수용하였습니다. 861년, 혜철의 나이 77세일 때 앉아서 수행하다가 좌선상태로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가 죽었을 때, 갈가마귀와 참새가 함께 슬퍼했고, 그 지역의 소나무마저도 푸른색이 봄여름에는 하얗고, 가을 겨울에는 누렇게 되어 슬픔을 나누는 모습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혜철의 사상>

그의 사상에 대해 특별히 남은 기록은 없으나 그의 비문에는 그의 사상을 엿볼 수 있는 몇개의 구절이 있습니다.

“부처는 본래 부처가 없는데도 억지로 이름을 세운 것이며, 나는 본래 내가 없는 것이니 일찍이 어떤 물건도 있는 적이 없다. 자성을 보아 깨달아 마치니 비유하면 현상이 공하면서 공하지 않음을 깨달은 것이다. 묵묵한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이고, 적적한 지혜가 바로 이 지혜인 것이다. 통발과 올라미 밖의 이치는 반드시 그러할 것이니 곧바로 나침반을 얻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에 탄식하여 이르기를 석가모니께서 남기신 가르침도 바다에 막혀 뿔나무밭이 되었고, 여러 조상의 은밀한 말씀에 대하여 이 땅에는 뛰어난 사람이 없다.”고 하였다.

우리는 이름을 부여할 때 대상을 알게 됩니다.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 서로를 알게 되는 첫단계가 통성명, 이름을 서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상을 내가 있는 세계로 초대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유구조에서는 무언가를 언어로 이름지어 부르면, 그것이 영원불변의 실체라는 자동적 사고를 하게 됩니다. 부처라 부르는 순간 부처라는 불변의 실체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부처라는 불변의 실체라든가, 불변의 나라는 존재는 없습니다. 다만 연기의 조합에 의해 잠시 존재하는 부처, 나는 있습니다. 불변의 실체가 없기에 공하지만, 연기의 조합에 의해 잠시 존재하기에 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공하지 않기 때문에, 이야기하고 생각해보기 위해 부처, 나라고 잠시 이름지어 부르는 것뿐인데, 자꾸 그것들이 불변의 실체인 것인양 착각합니다. 이렇게 착각하는 습관을 알아차리고 자유로워진 것이 깨달음입니다.

이처럼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불변의 실체가 없다는 것을 알고, 존재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마음은 고요하고 편안해집니다. 이 묵묵하고 고요한 마음이 이 마음이며,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는 대상들이 있는 그대로 보이면서 지혜가 생기는데, 이것이 바로 깨달음의 지혜입니다. 여기서 통발과 올라미는 언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언어의 그물을 벗어나게 되면 바로 제대로 갈 수 있는 길잡이를 얻게됩니다.

혜철은 당시 이러한 깨달음에 대해 신라사람들이 잘 알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길잡이를 찾기 위해 그는 유학을 결정했으며, 이후 서당을 만났을 때 서당이 원하는 것이 무엇이나 묻자, “말없는 가운데에 말과 법없는 가운데의 법이 신라에 유포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겠다”고 한 것입니다.

<무염과 성주산문>

무염은 왕족 출신으로 무열왕의 8대손으로, 그의 출가 전 성씨는 김씨입니다. 어머니가 꿈 속에서 긴 팔을 가지 하늘사람이 꽃을 내려주는 것을 보고 임신하였고, 그 후에도 자칭 법장이라고 하는 외국 스님이 나타나 10개의 계율을 주어 그것으로 태교를 하게 하였다고 합니다. 801년 12월에 13개월 만에 세상에 태어났습니다.

어릴 적부터 합장하거나 가부좌하는 것에 익숙하였으며, 아이들과 놀 때도 불상이나 탑의 모양을 그리고 만들기 좋아하였습니다. 아홉살 때 공부를 시작하였는데, 한번 본 것은 바로 외울 수 있어서 해동의 신동이라 불렸고, 12살이 넘어서 불교에 뜻을 두고 설악산의 오색석사에서 출가 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북종선을 배우고 돌아온 법성선사를 스승으로 삼아 부족한 것을 열심히 배웠고, 이후 법성이 더 이상 가르칠 것이 없다며 유학 갈 것을 권하였으나 처음에는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석사로 가서 석징에게서 화엄경을 배우다가 유학의 필요성을 느껴서 배를 타고 중국으로 떠납니다. 하지만, 풍랑으로 인해 죽을 뻔하다가 살아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학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또 배를 타고 중국으로 향합니다.

강좌내용

이번에는 중국에 무사히 도착하여 여러 스승을 찾아 다니며 공부를 합니다. 우선 대흥성 남산 지상사에 화엄경 강의를 들었는데, 그곳은 화엄종의 지엄이 화엄경을 가르쳤던 곳입니다. 그런데, 강의 내용이 부석산에서 들은 것과 같아서 실망하고 있었는데, 한 노인이 다가와 “멀리 자신 밖의 사물에서 취하려고 하니 어찌 부처를 알 수 있겠는가”라고 충고를 해줍니다. 이에 바로 깨달아서 화엄경 공부에서 선불교 수행으로 방향을 전환했다고 합니다.

이후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불광사에서 마조의 제자인 여만을 만나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는 무염의 선에 대한 뛰어난 이해에 감탄하며, 훗날 중국에서 선의 전통이 사라진다면, 앞으로는 신라에 가서 신라 승려에게 물어보아겠다며 칭찬하였다고 합니다. 또한 다시 길을 떠나 마조의 수제자인 마곡스님을 찾아가 스승으로 삼아 부지런히 일하고, 남들이 어렵다는 일도 쉽게 해내자, 마곡이 그를 자신의 수제자로 인정해주었습니다. 위낙 정성스럽게 스승을 모시자 함께 공부하는 이들이 중국최고의 효자 중의 하나인 유검루 같은 사람이라고 칭찬하였습니다. 유검루는 아픈 아버지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변을 맛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스승이 돌아가신 이후 또 다시 여기저기 다니면서 안락한 삶 대신에 산 속에서 머물면서 마음을 닦으며 병자를 돌보고 고아와 독거 노인들을 돕는 것을 자신의 일로 삼았습니다. 날씨가 좋거나 나쁘거나 게으름을 피우지 않고, 항상 불편한 기색 없이 고아와 독거노인들을 모시기를 왕을 모시는 것처럼 하고, 정성껏 그들을 도왔습니다. 이런 그를 사람들은 “동방의 대보살”이라 칭송하였습니다.

845년에 30년간의 중국 생활을 마치고 신라로 돌아와서 북쪽에서 머무를 곳을 찾았는데 마침 왕자 혼의 제안으로 성주사에 머물게 됩니다. 성주사는 크게 번성하였고, 그곳을 찾아오는 길을 잃은 사람들을 이끌어 주고, 그들을 변화시켰습니다. 그의 교화활동은 단지 불교를 전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당시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이끌었기에, 왕의 통치에도 도움을 주어, 왕이 스승으로 모시고 조언을 구하였습니다. 당시 현안왕,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 등이 그에게 자문을 구하였기에, 왕궁 근처 사찰에서 머물면서 왕에게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가 해준 조언 중에 유명한 것이 신분이 아닌 능력에 따라 인재를 등용하라고 한 것입니다. 또한 왕이 아팠을 때 병을 낫게 해주기도 하는 등 왕의 정신적 스승으로 활동하였습니다. 헌강왕은 그런 그를 나라의 큰 보배구슬로 비유하기도 하였습니다.

무염은 성품이 공손하고 겸손하였고, 말을 조심스럽게하여 말로써 서로간의 의가 상하지 않게 하였습니다. 검소하게 생활하여 늘 입는 옷이 같았으며, 절을 짓거나 고칠 때, 물을 길고 땔나무를 나를 때 육체적 노동을 마다하지 않고 솔선수범하였습니다. 일에 힘쓰면서 마음을 다스렸고, 손님을 접대할 때는 그 출신에 따라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를 낮추며 차별하지 않는 그의 태도에 당연히 제자들이 기꺼이 그를 존경하고 따랐으며, 이름을 꼽을 만한 제자만 2천명에 달했다고 합니다. 그의 제자의 제자들도 열심히 활동하였기에 후대 사람들은 그의 영향력을 평가하면서 마조가 “용의 새끼”를 길렀고, 신라가 중국을 덮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열반에 들 때도 마지막까지 사람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유언을 남기었습니다.

<무염의 사상>

그의 사상은 그가 제자들에게 남긴 말에서 살짝 엿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이 마신 것으로 내 목마름을 해소할 수 없고, 저 사람이 먹은 밥으로는 나의 굶주림을 구하지 못한다. 어찌 노력하여 스스로 마시고 먹지 아니하느냐? 어떤 이는 교와 선이 같지 않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중지를 보지 못하였다. 말은 본래 많은 것이라 내가 알바 아니다. 대략 같다고 해도 허락할 만한 것이 아니요, 다르다 해도 그른 것이 아니다. 이 고요히 앉아 참선하고 마음이 교묘하게 짓는 것을 멈추는 것이 성인에 가까운 것이다. 부처님 말씀은 분명하니 그대로 따르고 그 뜻은 심오하니 그대로 믿으라. 상을 찾는 이로 하여금 상이 없음을 알게 하며, 길을 가는 사람이 부지런히 행할 뿐 갈래길 속에 갈래길이 있음을 보지 말라.”

강좌내용

선불교의 전통은 앵무새처럼 남의 이야기를 반복하지 않고, 자기 체험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무염은 깨달음은 철저히 자신의 노력으로 얻는 것임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전공부와 명상수행을 구분짓고 대립시켜 보는 것에 대해서도 그것은 우리의 생각이 만들어내는 망상일 뿐이고, 이를 멈추고 조용히 참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부처의 가르침에 대한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이리저리 머릿속으로 따지고 계산하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들을 멈추고 열심히 참선수행하는 것이 바른 길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깨달음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잘 제어야 함을 다음의 구절을 통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비록 몸의 주인이지만 몸이 마음의 스승이 되어야 한다.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근심해야지, 어찌 도가 너희를 멀리하겠는가. 설사 농부들이라도 속세의 얽매임에서 벗어날 수 있다. 내가 달리면 반드시 나아가게 될 것이니, 공자와 노자 같은 위대한 사람이라고 해서 따로 씨앗이 있겠는가”

무염의 사상은 망상을 만들어내는 우리의 마음을 멈추고,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실천하는 삶을 강조합니다. 동방의 대보살로 불렸던 그는 경전공부와 명상수행만이 아니라, 소외받는 이를 돕는 보살정신이 중요하다는 것을 자신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왕족 출신의 승려면서도 겸손한 태도로 주변인을 대하고, 자신을 낮추어 고아와 노인들을 섬겼던 그의 모습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모습이 어때야 하는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범일선사와 사굴산문>

범일은 지방 호족 집안의 아들로, 전해오는 설화에 의하면, 그의 어머니가 바가지로 우물물을 댔을 때 해가 담겨 있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13개월 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이 아이를 낳은 것이기에 창피하여 뒷산에 있는 학바위에 아이를 버렸는데, 학들이 아이를 돌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조당집에서는 그의 어머니가 해를 품는 태몽을 꾸 뒤 13개월만에 아이를 낳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가 태어났을 때는 부처님의 머리처럼 머리가 소라처럼 돌돌말려 올라가 있었으며, 정수리에는 부처님처럼 구슬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15살에 출가하여 20살에 구족계를 받고 중국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 마조 도일의 제자인 염관 제안을 만납니다. 조당집에 기록된 염관과 범일의 선문답은 아주 간략하지만, 범일이 어떤 수행자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라에서 왔다는 범일에게 염관은 “수로로 왔는지, 육로로 왔는지” 묻습니다. 그러자 범일은 “두 가지 길을 모두 밟지 않고 왔습니다.”라고 대답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언어가 아닌 선문답으로 바로 대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염관이 “그 두 길을 밟지 않았다면 그대는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묻자, “해와 달, 동과 서가 무슨 방해가 되겠습니까?”라고 범일은 대답하였습니다. 수로, 육로, 동과 서, 해와 달, 이런 구분은 모두 인간의 의식으로 나누어 보는 것이지만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이들은 서로 대립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의 대답은 이러한 이분법적 사유를 벗어난 대답입니다. 이에 염관은 그를 “동방의 보살”이라고 칭찬합니다.

이어서 범일은 염관에게 “어찌하여야 바로 부처를 이롭니까?”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염관은 “도는 닦을 필요가 없다. 그저 더럽히지나 말라. 부처라는 견해, 보살이라는 견해를 짓지 말라. 평상의 마음이 곧 도이니라.”라고 대답합니다. 이 말을 듣고 범일은 깨달음을 얻어 6년간 염관에게서 선을 배웠습니다.

홍주종의 핵심가르침은 모든 것이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에 평상시의 마음이 곧 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염관은 그 본래마음이 드러나게 그냥 둘 뿐, 보살이 되겠다고, 부처가 되겠다고 너무 애쓰지 말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시험을 너무 잘보겠다고 지나치게 신경쓰다보면 시험을 망치지요? 그러나 열심히 공부하고 평상시처럼 시험을 보면 시험을 잘봅니다. 깨닫겠다고 너무 애쓰다보면, 우리의 본래 본성이 드러나는 것을 방해하고 더럽힐 수 있기에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후 범일은 마조의 다른 제자인 약산을 찾아갑니다. 약산의 여기에 왜 왔느냐는 질문에 범일은 스님을 만나러 왔다 합니다. 그러자, 약산은 “여기는 길이 없는데, 그대가 어떻게 찾아왔는가?”라고 질문하니, “화상께서

강좌내용

다시 한 걸음 나아가신다면, 저는 화상을 뵙지도 못할 것입니다.”라고 대답합니다. 그는 약산의 깨달음이 높아 배우러 왔다고 하면서, 더 높은 경지로 가면 따라잡기 힘들겠다는 것을 선의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약산이 감탄하며, “대단히 기이하구나, 대단히 기이하구나. 밖에서 들어온 맑은 바람이 사람을 열리는구나.”라며 범일을 맑은 바람에 비유하여, 그의 뛰어남을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다 중국에 있을 회창 폐불 사건을 만나게 됩니다. 이는 중국에서 불교를 탄압하던 시기라 승려들이 살아가기 힘들었습니다. 당시 유학중이던 많은 신라 승려들은 이 시기에 공부를 포기하고 고국을 돌아옵니다. 위기의 시기동안 범일은 그곳에서 산속의 열매들을 먹으며 연명하고, 선수행을 하다가 846년 신라로 돌아와 김순식의 후원을 받아 굴산사를 세워 사굴선문을 시작합니다. 경문왕, 헌강왕, 정강왕이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싶어했으나 사양하고 굴산사에 머물렀다. 그의 사굴선문은 영동지역에서 융성했으며, 사람이 얼마나 많이 왔는지, 당시 이곳의 밥을 짓기위해 씻은 쌀의 뜨물이 동해까지 내려가 하얗게 물들었다는 설화가 전해집니다. 그는 굴산사에 가르침을 퍼다가 889년 제자들에게 마음닦는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라는 유언은 남긴 채 열반에 드셨습니다. 그의 영동지역에서의 영향은 매우 컸으며, 그는 지금도 강릉 단오제에서 강릉의 수호신으로, 신앙의 대상으로 숭배되고 있습니다.

<범일의 사상>

범일의 선 사상 자체는 마조도일의 사상과 크게 다르지 않으나, 다른 종파들과의 관계에서 선종이 뛰어난 종파임을 강조하며, 그 입장에서 이론불교, 화엄종의 가르침을 통합적으로 수용하려고 했다는 점이 독특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한국에만 기록되어 있는 진귀조사설을 믿었습니다. 진귀조사설은 석가모니 부처가 혼자 깨달은 것이 아니라 진귀 스님의 도움을 받아서 깨달음을 얻었으며, 이렇게 전해진 가르침이 경전적 가르침 외에 따로 전해진 가르침이라고 하였습니다. 역사적으로 사실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상관없이 이 이야기는 선불교가 초기 불교 이전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알리려는 설화였으며, 범일은 이를 사실로 믿고, 선 사상이 다른 불교의 가르침보다 뛰어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지만 다른 종파에 대해서 배타적이지는 않았고, 화엄은 부처의 언어, 선은 부처의 마음이라고 하며 교학과 선학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또한 다른 선사들과 마찬가지로 스스로의 깨달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어떤 것이 대장부가 힘써야 할 일입니까?”라는 제자의 질문에 범일은 “부처의 계단을 밟지 말고, 남을 따라 깨달으려 하지 말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도운과 사자산문>

도운은 황해도 호족가문 출신으로 출가전 성은 박씨라고 합니다. 그가 태어날 때 어머니는 찬란한 광채가 방안에 들어오는 꿈을 꾸고 16개월만에 그를 낳았습니다. 도운의 외모 또한 예사롭지 않았는데 학과 전설 속 새인 난새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어릴 적에는 꽃을 따다 부처님 상 앞에 바치고, 탑을 쌓는 등 특별한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다 18살에 귀신사에서 화엄의 가르침과 선종의 수행법을 둘다 배우고나서는, 화엄의 내용이 심오하다 할지라도, 선종의 수행이 가지고 있는 구체적 체험과 실천보다는 뛰어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 여기저기 산을 다니며 수행하다가, 28세 때인 825년에 유학을 떠납니다.

중국에 도착해서 마조도일의 제자인 남전을 만났는데, 남전은 도운의 뛰어남을 알고보고는 “우리 종파의 진리의 가르침이 모두 신라로 돌아가는구나”라고 했다고 합니다. 22년이 지난 뒤 847년 그는 귀국하여 금강산의 장담사에 머물렀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물려들었고, 이후 제자가 된 경문왕의 제안으로 쌍봉사로 자리를 옮기게 됩니다. 그러다 868년 71세 때 제자들에게 불교의 가르침을 널리 펼칠 것을 당부하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죽음의 순간에 오색의 빛이 그의 입에서 나와 사람들에게 비쳤는데, 그가 가르침을 펼치는데 힘을 많이 썼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강좌내용

사자산문을 시작점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사자사문의 실질적 시작은 그의 제자 절충 때입니다. 절충은 도운이 금강산 장담사에서 한 강의를 듣고 도운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 후 그는 스승을 떠나 여기저기 돌아다니다가 882년 57세 무렵에 흥녕사 머물면서 가르침을 폈으나, 신라 말 국가가 다시 셋으로 분열된 시기에 흥녕사에 머물 수가 없어서 강화도의 은강선원에서 가르침을 펴다가 열반에 드십니다. 이후 고려가 후 삼국을 다시 통일한 뒤 정종의 제자들이 흥녕사에서 그의 가르침을 펼치게 된 것이 사자산문입니다.

사자산문의 가르침의 특징은 기록이 없어서 알기 어려우나 도운이 화엄과 마조의 선을 함께 공부했던 것으로 볼 때 이 둘을 통합적으로 활용하되 선에 좀 더 중심을 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옥과 봉림산문>

현옥은 귀족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병부시랑,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국방부 차관에 해당하는 관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릴 적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좋아해서 물을 길어다가 물고기에게 주고, 모래를 쌓아서 탑을 쌓았다고 합니다. 출가의 시기와 장소는 모르지만 22살 때 구족계를 받았고, 824년 당나라로 유학을 떠납니다. 당나라에서 마조의 제자인 장경 회회에게서 가르침을 받았고, 이후 문수보살의 성지로 알려진 오대산 근처 도시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후 837년 51세 때 신라로 귀국하게 됩니다. 그가 귀국하던 시기는 정치적으로 신라왕권이 혼란스러웠던 시기로, 당시 그는 흥덕왕의 부탁으로 귀국하였으나, 귀국하였을 때는 왕이 이미 죽어서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수도인 경주가 아닌 남원의 실상사에 머물렀는데 당시 왕이었던 민애왕, 신무왕, 문성왕, 헌안왕이 그의 제자가 되어 그를 왕궁에 초대하여 강의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후 해묵산 기슭에 절을 지어 집중 수행을 하였는데, 경문왕은 현옥이 대궐에 들 때마다 그를 정성을 다해 대접했다고 합니다. 하루는 여름 집중수행, 하안거가 끝나고 자신의 죽음을 직감한 듯 다음과 같은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금년 안에는 법연이 다할 것이니, 너희들은 무차대회를 열어 백암의 전수 은혜를 보답케 하여다오. 그것으로 나의 소원은 끝나는 것이다.”

법연이 다한다는 것은 존재의 인연이 다한다는 것이니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는 것이고, 무차대회는 신분과 성별의 차이없이 평등하게 함께 모여 서로 불교경전을 공부하고 물건들을 나누는 일종의 잔치를 말하며, 백암은 그의 스승 장경회회로, 그가 백암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11월 14일 밤중에, 그가 죽기 전에 갑자기 산골짜기가 진동하고, 새와 짐승들이 슬프게 울고, 절의 종은 두드려도 소리가 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다 다음날 15일 새벽, 현옥은 82세의 나이로 입적하게 됩니다.

그의 사상에 대해서는 자세히 남겨진 기록은 없으나, 무차대회를 열을 것을 유언으로 남긴 것으로 보아서 차별없는 가르침을 좀 더 강조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봉림산문은 실질적으로는 그의 제자 심의가 봉림사에서 시작했다고 합니다.

<도현과 회양산문>

구산문의 승려들이 대부분 중국으로 유학을 다녀와서 남종선, 특히 마조선을 배워서 온 것과는 달리 도현은 유학도 가지않고, 국내에서 북종선의 전통을 지켜온 사람입니다. 선을 신라에 처음 전한 것은 법랑이었는데, 그는 혜능 이전, 사조 도신에게 배워 선불교를 신라에 가져왔다고 합니다. 그의 선불교는 신행에게 전해졌고, 이후 신행이 유학을 가서 북종계열의 지공에게서 가르침을 받아 이를 준범에게 전합니다. 준범은 이를 혜에게 전하여 도현에 이어집니다.

도현은 경주 재력가 집안 출신으로 어머니가 꿈 속에서 과거 일곱개의 부처가운데에 첫번째 부처인 비바시불을 꿈에서 보고 난 후 400일만에 태어났는데, 그 날이 습니다. 바로 석가탄신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갓 태어난 아이가 이상하게도 젖을 물지 않았습다. 가족들이 난감해하고 있는데, 지나가던 도인이 냄새나는 채소와 고기를 끓으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어머니가 이를 따르니 아이가 어머니의 젖을 먹었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9살 때 아버지를 잃고 사경을 헤맸 정도로 힘들어하였는데, 한 스님이 육신을 덧없이 사라지기 쉬우니, 부처님께 귀의하여 부모님 은혜를 갚는 것이 좋으리라하여, 출가를 결심합니다. 당연히 어머니가 반대하였고, 반대하는 어머니를 뒤로하고 부석사로 들어가 불교를 공부합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아프다는 이야기에 어머니를 뵈러가니, 어머니는 병이 나았으나 이번에는 도현이 병에 걸립니다. 여러 의사를 만나도 낫지 않았으며, 한 점쟁이가 말하기를 출가를 해야만 병이 낫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부처님에게 아들의 병을 낫게 해준다면 출가시키겠다고 하니 병이 나아서 출가하게 됩니다.

그의 삶에는 상서로운 설화가 자주 나옵니다. 그가 부석사에서 화엄을 배우고 17세에 율사로부터 구족계를 받았을 때, 계를 받고보니 소매 속에 신기한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자세히 살펴보니 아름다운 구슬이 빛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여름철 집중 수행을 마치고 잠이 들었는데, 꿈에 보현보살이 나타나서 이마를 쓰다듬으며, “고행은 행하기 어렵지만 반드시 이를 것이다”라고 이야기해주었다고 한다. 그래서 이를 깊이 명상 한 뒤 비단과 솜옷을 입지않고 고행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가 구족계를 받을 무렵 구산선문의 주요인물들은 유학 후 돌아와 남종선을 사람들에게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선불교의 정신인 “자신에게서 스스로 찾는 것의 중요함”을 기억하고, 유학 대신에 부석사를 떠나 북종선을 가르칠 수 있는 혜을 찾아갑니다. 북종선을 배운 후 계룡산 수석사에 머물면서 북종선을 전파합니다. 이후 형계산 안락사로 옮겨서 봉암사로 옮겨 가르침을 뿔으며, 오래지 않아 안락사로 다시 옮겨와 입적하게 됩니다.

그의 특별한 사상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으나 왕과 대화 속에서 왕이 마음에 대해 물었을 때 물에 비친 달을 보며, 마음을 물에 비친 달로 비유한 것이 그의 경지를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즉, 마음은 실체가 없는 달과 같은 것임을 선의 방식으로 표현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엄과 수미산문>

이엄은 다른 승려들과 다르게 마조도일의 홍주종을 공부하지 않고, 조동종 계열의 수행법을 공부하여 한반도에 전한 사람입니다. 그의 출가 전의 성은 김씨로, 왕족이었다고 하나 집안이 몰락하여 웅진군, 현재 충남 공주로 내려왔다고 합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임신했을 때 꿈 속에서 한 스님이 푸른 연꽃을 주고 갔다고 합니다. 12세 때 가야 갑사로 출가하여, 덕량법사를 스승으로 삼아 공부하였는데, 매우 영민하였던 출가한지 반년만에 경율론 삼장에 통달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대장경의 분량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그는 대장경의 핵심을 6개월 만에 정리한 것입니다. 엄청 똑똑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공자의 수제자 안희량 부처님의 수제자 중 듣는대로 기억했다는 아난에 그를 비유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16세에 구족계를 받고 896년 사신들과 함께 당나라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조동종의 운거도응의 명성을 듣고 그를 찾아갑니다. 운거가 묻습니다.

“서로 헤어진 지가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빨리왔는가?”

그러자 이엄은 “일찍이 모신 적도 없는데 어찌하여 다시 왔다고 하십니까?”라 대답하고 그의 제자가 되어 6년간 정진하여 그로부터 조동종의 후계자가 됩니다. 이후 도응이 죽은 후 운거산을 떠나 여러 승려들을 만난 뒤 911년 한반도로 돌아옵니다.

그는 다른 구산선문의 주요인물들보다는 후대이기에, 그때는 이미 신라가 셋으로 나누어진 후삼국 시대였습니다. 그는 고구려의 수도에 도착해서 태흥사에 머물다가 사나내원으로 옮겨서 그곳에 주지가 되었습니다. 고구려의 왕이었던 왕건이 그의 명성을 듣고 그를 스승으로 모시고 조언을 구했다고 합니다. 그는 전쟁의 살육에 괴로워하는 왕에게 다음과 같이 조언합니다.

“대저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사물에 있지 않으며, 법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왕은 일반인과 수행하는 방법이 다르니, 임금께서는 비록 군사를 동원하여

강좌내용

적과 싸우더라도 항상 백성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왜냐하면 왕이란 본래 전국토를 집으로 삼고 모든 백성을 자식으로 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고한 사람은 죽이지 말고 죄가 있는 무리만을 엄선하여 다스려야 합니다. 그리고 모든 선을 받들어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널리 사람을 구제하는 것입니다”

이언의 조언은 왕건의 마음을 편안하게 하였고, 이후 왕건은 이언을 가까이 두게 됩니다. 그러나 이언은 조용한 곳에서 선을 펼치고 싶어졌기에 해주로 떠납니다. 왕건도 그의 이러한 바램을 수용하여, 해주 남쪽에 광조사를 지어주고 그곳에서 가르침을 펴게 해주었습니다. 이것이 그의 수미산문의 시작입니다. 이언이 광조사에 머물자 수많은 사람들이 선을 배우겠다고 몰려들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 지역의 민심은 수미산문을 중심으로 결집될 수 있었으며, 이는 왕권의 왕권강화에 도움을 주었다고 합니다.

이언의 사상에 대해서는 자료가 많지 않지만 그가 왕건에게 남긴 조언 중 앞부분, “대저 도는 마음에 있는 것이고 사물에 있지 않으며, 법은 자기로부터 말미암는 것이지, 타인으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에서 간략하게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즉, 진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이지 외부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나의 본래 마음, 부처의 마음이 드러난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법은 인식기관을 통해 내 안에 들어온 대상의 이미지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보는 세상의 모습은 세상의 모습 그대로가 아니며, 내가 쓰고 있는 안경에 의해서 그려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타인으로부터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행이란 나의 본래모습을 그대로 보아, 내가 쓰고 있는 안경을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이언의 말은 “나의 본래 모습”을 강조하는 조동종의 사상이 잘 반영되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산선문 스님들의 생애의 공통점>

구산선문의 스님들의 생애 설명에는 몇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특별한 태몽, 오랜 수태기간, 어릴 적의 특별함. 별이나 태양 같은 빛, 스님의 등장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10개월을 훨씬 넘어서는 최장 39개월 까지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납니다. 보통 아기가 10개월만에 태어나는 데에 반하여, 훨씬 오랜 기간을 뱃속에 있었다는 것은 그만큼 성숙한 존재였다는 것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지혜로운 철학자로 손꼽히 노자는 70년을 어머니 뱃속에 있다가 태어났었습니다. 어릴적에 스님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불교의 전생의 인연법을 반영한 것으로 전생에 스님이거나 불교 수행자였었기에 배우지 않아도 이번 생에서 육식을 피하거나 불교에 친근함을 보이는 행동을 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몇몇 스님은 부처님이 태어난 날과 같은 날에 태어나거나 비슷한 외모를 가지고 태어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그의 특별함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 대부분은 중국선사로부터 칭찬을 받았는데, 그 칭찬의 내용이 선의 중심이 신라로 옮겨갈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천년이 넘게 지난 지금, 한국은 선불교 전통이 가장 잘 남아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중국의 선불교가 쇠퇴해서 한국에서 선의 전통을 찾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나요?

<마무리>

구산선문의 선사들은 불교의 깨달음을 얻기 위해, 자신의 참모습을 보기위해 치열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도현을 제외하고는 모두 힘든 유학생활을 했으며, 그곳에서 배운 것은 고국에서 펼치며, 사람들에게 새로운 불교 수행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한국학을 공부하는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무엇을 배워서 무엇을 여러분의 고국에 전하고 싶은가요?

7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고려시대 선종의 철학자들	교수자	이병욱
학습목표	- 신라말과 고려초 선사사가인 순지의 선사상에 대해 알아본다. - 고려중기의 선사사가로서 이자현과 담진에 대해 살펴본다. - 고려 무신집권기의 선사사가로서 보조국사 지눌과 진각국사 혜심에 대해 알아본다. - 고려말의 선사사가로서 나옹혜근과 태고보우에 대해 살펴본다. - 고려시대의 선사상이 오늘날 어떤 의미 가지고 어떤 위상에 있는지도 아울러 살펴보고자 한다.		
핵심어	순지, 이자현, 담진, 지눌, 혜심 나옹, 보우, 간화선, 수선사 결사		
주요흐름	고려시대 선사사가들을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초기의 순지와 이자현, 담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이들과의 연속성에서 지눌과 그의 제자 혜심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읽기자료	이병욱, <한국 불교사상의 전개>, 집문당, 나옹의 시,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학습요소	영상 68분 24초 토론, 읽기자료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지눌은 언어와 분별은 떠난 깨달음을 이야기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어를 사용해서 세상을 이해하고, 좋고 나쁨을 구별하며 살고 있다. 왜 지눌은 언어와 분별을 떠난 깨달음을 이야기하는 걸까?

[퀴즈&시험] 없음

[고려시대의 선사상가]

I. 순지의 생애와 선사상

1. 순지의 생애

순지(順之)의 생애는 『조당집』 20권(952년 선종의 역사서)에 소개되어 있다. 순지의 속성은 박씨이고, 지금의 평안도 대동강 출신이다. 순지는 약관의 나이(20세 무렵)에 도(道)를 향하는 마음이 무르익어서 부모님께 출가하기를 청하여 오관산(五冠山: 경기도 장단)으로 출가하였다.

그리고 속리산으로 가서 구족계를 받은 뒤로는 매우 열심히 수행하였다. 하루는 산속[公岳]에 있었는데, 어느 신인(神人)이 가르침을 청하고 갑자기 도솔천(불교의 하늘세계의 하나)에 있는 듯한 궁전을 지어냈다. 이에 순지가 인연에 따라 가르침을 전하자 그 궁전이 문득 사라져 버렸다고 『조당집』에 소개되어 있다. 이는 순지의 덕행(德行)의 감응이라고 한다.

그러다가 858년(현안왕 2년)에 중국에 들어갔다. 곧 바로 양산혜적(仰山慧寂, 840-916)을 찾아가서 만났고, 순지는 양산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 후 순지는 양산의 가르침을 이어받았고, 871년(건부乾符 초엽, 당 의종 원년)에 신라로 돌아왔다. 그러자 송악군의 원창(元昌)왕후(태조 왕건의 할머니)와 그의 아들 위무(威武)대왕(태조 왕건의 아버지)이 오관산 용화사(龍華寺)를 회사하였는데, 순지는 그 절의 이름을 서운사(瑞雲寺)라고 고쳐서 불렀다. 그는 65세 때 입적하였는데, 시호가 요오선사(了悟禪師)이고, 탑호가 진원지탑(眞原之塔)이었다.

2. 순지의 선사상

(1) 진리를 단박에 증득하는 길: 돈증실제편(頓證實際篇)

돈증실제편은 실제(진리의 세계)를 단박에 깨닫고서, 지혜와 자비를 단계적으로 닦아나가는 것이다. 이 지혜와 자비를 단계적으로 닦는 것을 세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단계[출전(出纏)의 보현]이고, 둘째, 세간속으로 들어가는 단계[입전(入纏)의 보현]이며, 셋째, 깨달음이 완성된 단계[과후(果後)의 보현]이다.

첫째, 번뇌에서 벗어나려는 단계이다. 이것을 ‘출전의 보현’이라고 하는데 ‘출전의 보현’에서 전(纏)은 번뇌 또는 세속을 뜻하고, 보현은 보현보살(부처의 수행을 상징하는 존재) 뜻하는 것으로, 이것은 여러 행을 닦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출전의 보현’은 번뇌에서 벗어난 여러 가지 행을 닦는 것이다. 그렇지만 간혹 유혹의 대상을 만나면, 번뇌에 물들게 되는 경지이다.

둘째, 세간속에 들어가는 단계이다. 이것을 ‘입전의 보현’이라고 한다. 이는 앞의 ‘출전의 보현’에서 그 수행의 힘을 길러서, 지금은 세간에 들어가서 자비의 행을 닦는 것이다.

셋째, 깨달음이 완성된 경지이다. 이것을 ‘과후의 보현’라고 한다. 이는 자비의 행을 행한다는 분별조차 없는 경지로서, 깨달음이 완성된 경지이다. 돈증실제편(진리를 단박에 증득하는 길)에서는 이렇게 깨달은 다음에, 지혜와 자비를 닦는 과정을 이처럼 세 단계로 구분해서 설명한다.

순지가 말하는 깨달음은 단박에 깨닫는 것이지만, 그 깨달음으로 지혜와 자비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 깨달음에 기초해서 끊임없이 지혜와 자비를 닦아가야 한다.

(2) 교종에 대한 견해

순지는 교종(경전과 교리의 이해를 중시하는 종파)에 대해 외형적으로 비판하고 있지만, 실제내용을 검토하면, 교종에 우호적임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상근기(뛰어난 능력의 소유자)는 교(敎: 경전의 가르침, 교리)에 의지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지만, 하근기(열등한 능력의 소유자)는 교(敎)에

강좌내용

의지해서 진리를 깨달을

수 없다고 한다. 이 점에서 순지는 교(敎)를 비판한다. 그렇지만 긴 시간을 두고 본다면, 하근기도 교(敎)에 의지해서 자기 마음을 닦아서(훈습해서) 언젠가는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순지는 교종에 대해 우호적이다.

(3) 정토신앙에 대한 비판

순지는 정토사상에 대해 비판적이다. 순지는 선사로서 대중신앙인 정토신앙에 대해 비판적이다. 그리고 순지는 공(空: 집착의 마음을 비운다는 의미)을 통달하는 것이 자성(自性: 자신의 청정한 마음)의 정토라고 한다.

순지가 정토에 태어나기를 구하는 것을 비판하는 이유는 자기 안에 있는 정토를 알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정토를 구하게 되면, 진정한 지혜를 일으키지 못하고, 진정한 공(空)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순지는 진정한 지혜가 자성(自性)의 부처이고, 공을 통달하면 이것이 자성의 정토라고 한다. 그런데 다른 선사들은 유심정토(唯心淨土: 마음이 청정하면 이 세계가 바로 정토)를 말하는 것에 비해, 순지는 공(空)을 통달하는 것이 정토라고 말한다. 이 점이 순지 정토관의 특징이다.

그리고 원효는 정토신앙을 포섭하여 선양하였 데 비하여, 순지는 정토신앙에 대해 비판적이다. 이는 시대의 차이에서 생긴 것이다. 원효의 시대에는 불교의 대중화가 필요한 시대이었고, 그에 비해 순지의 시대에는 불교의 대중화는 어느 정도 이루어졌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한 불교의 폐단이 문제가 되는 시대이었으므로, 정토신앙에 대해 비판적이었을 것이다.

II. 고려 중기의 선사상가

1. 이자현

이자현(李資賢, 1061-1125)은 자(字)는 진정(眞精)이고 용모가 현철하며 천성이 담박하였다. 1083년(원풍元豐 6년) 진사과(進士科)에 합격하여 1089(원우元祐 4년) 대악서승(大樂署丞)으로 있다가 벼슬을 버리고 세상을 도피하여 다녔다. 그러다가 임진강을 건너면서 스스로 맹세하며 말하기를 “이제 가면 다시는 서울에 돌아가지 않으리라”라고 하였다.

이자현의 학문은 대개 공부하지 않은 것이 없었으나 깊이 불교의 이치를 연구하였고 특히 참선을 좋아하였다. 스스로 말하기를 “일찌기 설봉(雪峰)어록을 읽고서 번쩍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 때부터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 다시 의심하거나 막히는 것이 없었다”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의 명산을 두루 돌아다니며 옛날의 성현(聖賢)의 유적(遺跡: 남아있는 자취)을 탐방하였다.

이자현은 산에 있으면서는 다만 채소음식과 누비옷으로 검소하고 절제하며 청정한 것을 즐거움으로 삼았다. 절 밖의 다른 동리에 거처하는 집을 지었는데 그 암자, 불당, 정자 등이 모두 10여 개소나 되었다. 불당은 문성(閨性)이라 하고, 암자는 견성(見性)이라 하며, 그리고 선동(仙洞: 신선이 사는 산굴), 식암(息庵: 번뇌를 그치는 암자) 등이라고 하여 각기 이름이 있었다. 날마다 이 속에서 생활하는데 어떤 때에는 홀로 앉아서 밤이 깊도록 자지 않기도 하고, 어떤 때에는 반석 위에 앉아서 하루가 지나도록 돌아오지 아니하기도 하며, 어떤 때에는 견성암에서 선정(禪定)에 들었다가 7일만에 나오기도 하였다.

그리고 이자현이 『능엄경』(불교의 이치와 수행방법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경전)을 중시한 것에서 그가 선교일치를 관념을 가지고 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선(禪)을 이해하는 데 경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므로, 교학을 무시한 선이 아니고, 교학불교와 선불교의 조화를 추구했을 것임을 짐

강좌내용

작할 수 있다. 한편, 이자현의 비문 「진락공중수청평산문수원기비(眞樂公重修淸平山文殊院記碑)」와 이자현이 머물던 문수원의 조경은 주목할만한 것이다.

2. 혜조국사 담진

혜조국사(慧照國師) 담진(曇眞)의 생애는 자세히 전하지 않는다. 담진은 쌍계사(雙溪寺), 화악사(華岳寺), 광명사(廣明寺) 등에서 수행하였고, 쌍봉사(雙峰寺)를 다시 짓기도 하였다. 그리고 담진은 중국으로 건너가서 임제선(임제종의 선법, 중국 선종 5가 7종의 하나)을 전수받고, 그것을 통해서 고려 중기에 새로운 선풍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였다.

담진은 예종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예종의 도움으로 요나라 대장경을 구입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나서 도성(개경)을 떠나서 정혜사(定慧寺)를 세웠다.

담진은 송나라의 정인도진(淨因道臻, 1014-1093)의 문하에서 공부하여 임제종의 법맥을 계승한 최초의 고려출신의 승려이었다. 담진은 1076년(문종 30년)에 송나라로 건너가 3년 정도 머물렀는데, 이 3년 동안에 당시에 이루어지고 있던 송나라의 문물을 경험한 고려의 지식인이라고 담진을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대각국사 의천이 송나라에 건너간 것은 1085년(선종 2년)이고, 이는 담진이 송나라에 유학한 것에 9년 뒤에 이루어진 것이다. 담진은 예종 2년과 9년에 국사로 임명되었는데, 이는 아마도 담진이 북송의 선진문물을 접했기 때문에 가능했을 것이다.

III. 보조국사 지눌의 생애와 사상: 무신집권기의 불교사상가

1. 지눌의 생애

지눌(知訥, 1158-1210)은 국사의 휘(諱)이고, 자호는 목우자(牧牛子)이고, 불일보조국사(佛日普照國師)는 입적한 뒤에 왕실에게서 받은 시호이다. 그는 25세 때 승선(僧選: 승과, 승려를 선발하는 시험)에 합격했지만, 그 자리를 박차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창평(昌平)의 청원사(淸源寺)에서 도를 닦는데 몰두한다. 『육조단경(六祖壇經)』(육조혜능의 말을 모아놓은 것)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다. 28세 때, 하가산(下柯山)의 보문사(普門寺)에서 대장경을 열람하다가, 이통현 장자의 『화엄론』을 통해서 다시 깨달음을 얻었다.

1190년(명종 20년) 그의 나이 33세 때 정혜결사를 실천에 옮겼고, 41세 때 지리산 무주암(無住庵)에 은거하였는데, 『대혜어록』(대혜종고의 말을 모아놓은 저술)을 읽다가 큰 깨달음을 얻었다. 지눌에게는 세 번의 깨달음이 있었는데, 『대혜어록』을 읽다가 깨달은 것이 마지막 깨달음이었다.

지눌이 사람들에게 독송하고 간직(수지受持)하라고 하는 경전은 『금강경』(공사상을 설명하는 경전)이었고, 가르침을 펼 때는 『육조단경』을 기본으로 하였고, 새가 양 날개를 펼치듯이, 여기에 이통현(635-730) 장자(부호)의 『화엄론』(화엄사상을 소개한 글)과 대혜종고의 『대혜어록』을 의지하였다.

2. 정혜결사의 의미

지눌은 원효와 함께 한국불교의 2대 사상가로 평가받는 인물이다. 원효가 대중화운동에서 그 탁월함을 과시했다고 한다면, 지눌은 정혜결사(수선사결사)운동에서 자신의 가치를 세상에 알렸다고 할 수 있다. 우선, 지눌의 결사운동은 정치적 오염에서 교단의 순수성을 지킨 것이라고 평가받고 있다. 여기서 ‘결사’란 뜻맞는 몇 명의 사람이 세상일에 참여하지 않고, 산 속에 은둔하여 수행을 오로지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정혜결사(수선사결사)의 독자적 특징으로 다음의 세 가지를 제시할 수 있다.

강좌내용

첫째, 정토신앙의 비판이다. 지눌이 선정과 지혜를 닦자고 제안을 할 때, 지금은 말법(말세, 혼탁한 세상)시대이므로 정토에 태어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대답한 사람이 있었다. 이 말에 대해, 지눌은 누구나 자기의 본래 마음을 깨달으면 부처가 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치를 모르고 정토에 태어나려고 하는 사람은, 바깥의 모습에만 집착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물론 지눌이 정토신앙에 대해서 비판적 입장만을 취했다는 것은 아니다. 하근기(능력이 부족한 사람) 수행법으로서 제한적인 의미를 인정하고 있다.

둘째, 지나친 선(禪)과 교(敎)의 대립을 비판하였다. 부처의 말씀이 교(敎)이고, 조사의 말씀이 선(禪)이므로, 이 둘은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 지눌의 입장이다. 이 입장에서 보자면, ‘교’를 한다고 해서 글자에만 집착하여 이론만을 고집하는 사람은 문자법사이고, ‘선’이라는 아름다운 이름 아래, 나태하게 지내는 것은 어리석은 선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둘을 비판하고 새로운 선풍을 일으키고자 하는 것이 지눌의 바램이었고, 그것은 선정과 지혜를 둘 다 닦자는 ‘정혜쌍수(定慧雙修)’로 구체화되었다.

셋째, 당시의 불교계에 대한 비판이다. 지눌은 다음과 같이 당시의 불교계를 비판하고 있다. “우리들의 아침저녁의 소행을 돌아보건대 과연 어떠한가? 불법(佛法)을 핑계로 하여 우리를 꾸미고, 이익과 먹고사는 길에만 몰두하고, 세속에 물들어 도덕을 닦지 않고, 옷과 먹을 것을 소비하고 있다”.

당시의 불교계는 최씨 무인정권(1196-1258까지 최충헌과 그의 후손이 집권)과 싸우느라고 많은 사람이 죽어나가는 형편이었다. 최씨 무인정권 이전의 문인 귀족체제에서는 승려도 귀족 못지않은 부귀를 누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 영화를 되찾기 위해서 싸움도 마다하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 이것은 승려의 본분이 아니라고 지눌은 통렬히 비판하고 있다.

3. 지눌의 선사상

지눌은 앞에서 말한 정혜결사(수선사결사)의 운동을 전개하면서 그의 독창적 사상체계를 제시하였다. 그의 사상체계는 일반적으로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선정과 지혜를 둘 다 닦는다는 의미의 정혜쌍수문(定慧雙修門: 성적등지문 惺寂等持門)은 돈오점수(頓悟漸修)에 근거한 것이다. ‘돈오’는 인간의 본심은 모든 부처와 다르지 않다고 깨닫는 것이고, ‘점수’는 번뇌가 단번에 없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선정과 지혜 둘 다를 닦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지눌은 ‘돈오’에 대해서는 말하기를 “범부가 미혹할 때 사대(四大, 지, 수, 화, 풍 4가지 구성요소)로 몸을 삼고, 망상(妄想: 허황된 생각)으로 마음을 삼는다. 그리하여 자기의 성품이 진정한 법신(진리)인 줄 모르고, 자기의 신령한 앎이 진정한 부처인 줄 모른다. 그러다가 선지식(불교를 가르쳐주는 사람)의 가르침을 받아서 자기의 본성을 보고, 자기 마음이 부처와 조금도 다름이 없는 것을 깨닫는 것이다. 이것이 돈오다”라고 한다.

그리고 ‘점수’에 대해서는 지눌은 “비록 본래의 성품이 부처와 다름이 없음을 깨달았지만, 시작도 없는 아득한 습기(남아있는 번뇌)를 갑자기 제거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깨달음에 의지해서 점차로 닦아서(훈습) 공(功)이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점수이다”라고 말한다.

이 점수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닦는 것이다. 여기에도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성정혜(自性定慧, 자연스럽게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고, 둘째는 수상정혜(隨相定慧, 나타나는 현상에 대응해서 선정과 지혜를 닦는 것)이다.

첫째, ‘자성정혜’는 자유롭게 선정과 지혜가 작동하여 원래부터 무위(無爲: 열반)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자성정혜는 깨달은 뒤에 인위적 조작 없이 선정과 지혜가 작동하는 것이다.

강좌내용

둘째, ‘수상정혜’는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리고, 공(空)을 관조하여 마음의 혼란함을 다스려 그 결과 무위(無爲: 열반)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는 선정을 닦아서 마음의 산란함을 다스리고, 공(空)을 관조하여 마음의 혼란함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성정혜’가 근기(능력)가 뛰어난 자가 닦는 방법이라면, 수상정혜는 근기가 열등한 자가 닦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가지의 공통점은 선정과 지혜를 균등히 닦는다는 데 있고, 다른 점은 ‘자성정혜’는 자연스럽게 선정과 지혜가 발휘되는 것이지만, ‘수상정혜’는 선정과 지혜를 갖추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라는 데 있다.

둘째, 화엄종(이통현 장자)의 수행법, 곧 원돈신해문(圓頓信解門: 원만하고 단박에 믿고 이해하는 길)을 말하는데, 이는 화엄종의 이론도 돈오점수의 다른 표현임을 밝히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화엄종의 이론은 이통현(李通玄, 653-729)의 화엄사상인데, 여기서는 자기 마음의 무명분별(無明分別: 어리석음에 근거한 인식)이 모든 부처의 지혜[보광명지 普光明智: 두루 빛나는 지혜]임을 알고, 자신의 성품에 의지해서 선정을 닦아나가는 것을 주장한다.

셋째, 간화선의 수행법, 곧 간화경절문(看話徑截門: 간화선은 지름길이라는 의미, 단박에 깨달음에 이르는 길,)은 ‘개에게도 불성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없다’라고 말한 것 등의 선종의 조사의 말씀에 정신을 집중해서 지해(知解: 일반적 분별과 완전한 깨달음에 이르기 전의 모든 이해)와 말의 자취를 벗어나는 것이다. 앞의 돈오점수는 점수하는 과정이 길어서 그 중에 중간단계, 곧 지해와 말의 자취가 남아 있다. 그런데 간화경절문은 그런 자취를 빨리 뛰어넘을 수 있는 길이다.

4. 진각국사 혜심: 수선사결사 2세

진각국사(眞覺國師) 혜심(慧諶, 1178-1234)는 수선사결사(정혜결사) 제2세이다. 진각국사 혜심에 의해 수선사결사는 더욱 확고한 기반을 다진다. 혜심은 자(字)는 영을(永乙)이고, 자호는 무의자(無衣子)이다. 그는 원래 유자(儒者)의 길을 걸어서 1201년(신종 4년)에 사마시에 합격하여 태학에서 수학한 적도 있었지만, 1202년 수선사의 지눌을 찾아가 출가하였다. 1205년 그의 나이 28세 때에 지눌에게서 깨달음을 인정받았다. 1210년 그의 나이 33세 때에 수선사 2세가 되었다. 그의 저술로 『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 30권, 『조계진각국사어록(曹溪眞覺國師語錄)』 1권, 『무의자시집(無衣子詩集)』 1권 등이 있다. 혜심의 선사상은 대체로 지눌을 계승한 것으로 평가받지만, 그 가운데 간화선을 강조한 것에 특색이 있다.

또한 혜심은 최씨정권의 최우(崔瑀, ?~1249)와 직접적인 관계를 맺어서 서로 돕는 각별한 사이였다. 그래서 최우가 수선사에 참여한 것은 물론이고, 그의 아들 만종(萬宗, 최항의 형)과 만전(萬全, 최우의 아들, 최항, ?-1257)을 혜심 밑에서 출가하게 하였고, 토지를 기증하기도 하여 수선사에 경제적 혜택을 베풀고, 혜심에게는 법복(法服: 승려의 옷)을 보내기도 하면서 여러 가지 융숭한 대접을 하였다. 그에 대해 혜심도 최우를 위해서 축수재(祝壽齋: 왕의 장수를 위해서 부처에게 공양을 올리는 것)를 베풀고, 편지를 보내어 불법을 권하는 한편, 최우의 정치활동에 대해 칭찬하는 내용을 글속에 남겼다.

그리고 고종 32년(1245) 최우의 원찰(願刹: 기증한 사람의 소원을 비는 사찰)이라고 할 수 있는 선원사(禪源寺)가 강화도[강도江都]에 세워졌는데, 이는 수선사의分院(分院: 하부기관)의 성격을 띠는 것이었다. 여기서 수선사와 최씨무신정권의 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최씨무신정권은 수선사 쪽에서 정신적인 면과 정치적인 면에서 후원을 받을 수 있었고, 수선사는 최씨정권에게서 경제적 뒷받침을 받고, 교세를 펼쳐가는 데 도움을 받았다.

강좌내용

그러나 혜심은 이렇게 중앙정치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일정한 거리를 두었다. 최우가 여러 차례에 걸쳐 개경에서 혜심을 맞이하려고 하였으나 응하지 않았다. 그리고 혜심은 보살의 보시행을 강조하고 있는데, 특히 지배층으로서 재물이 있는 사람은 빈민을 위해서 물질적 차원에서 돕는 행동이 있어야 함을 말하고 있다. 이는 천민과 농민의 항쟁과 몽고의 침입으로 인해 피폐해진 백성에 대한 배려에서 나온 것이다.

IV. 나옹의 생애와 사상: 고려말의 선사상가1

1. 나옹의 생애

나옹(懶翁, 1320-1376)은 그의 호(號)이고, 휘(諱)는 혜근(慧勤)이며, 옛 이름은 원혜(元慧)이다. 왕사로서 보제존자(菩提尊者)라는 존칭도 있었고, 그가 거처한 방을 강월헌(江月軒)이라고 하였다. 나옹은 20세 때 공덕산(功德山) 묘적암(妙寂庵) 요연선사(了然禪師)에게 출가하였고, 그 후 여러 산을 다니면서 공부하다가 회암사(檜巖寺)에서 홀연히 깨달음을 얻었으니[開悟], 출가 후 4년 동안 부지런히 도를 닦은 결과이다. 그 후 28세 때 원(元)나라에 건너가 지공(指空, ?~1367)과 평산처림(平山處林, 1279~1361) 등 여러 스승을 만나서 가르침을 받았다. 그렇지만 나옹에게 큰 영향을 준 인물은 앞에 소개한 지공과 평산이다. 특히 지공에게는 삼산양수(三山兩水: 인도 나란다사와 비슷한 입지조건을 의미)을 택하라는 수기를 받아서 회암사를 크게 중창하였다. 39세에 고려로 돌아왔고, 51세 때 공부선(功夫禪: 승과의 하나)을 주관하였으며, 52세 때 왕사에 책봉되었고, 57세 때 회암사를 중창하여 낙성(落成)법회를 했는데, 유생(儒生)들의 상소에 의해서 영원사로 귀양가던 중 신록사(神勒寺)에서 열반하였다.

2. 나옹의 경세(警世: 세상을 경계함) 의식

나옹은 인간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서 부지런히 노력해야 함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

그래서 나옹은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信得家中如意寶 진실로 집안의 여의주 보배(불성)를 얻으면
生生世世用無窮 세세 생생마다 그 쓸에 다함이 없어라.
雖然物物明明現 비록 사물과 사물마다 분명히 나타나지만
覓則元來卽沒蹤 찾으면 원래부터 자취 없어라.

人人有介大神珠 사람마다 큰 신령스런 구슬(불성)을 가지고 있으니
起坐分明常自隨 일어서거나 앉았거나 분명히 항상 따라다닌다.
不信之人須着眼 믿지 않는 사람은 눈길을 돌릴지니

如今言語是爲誰 지금에 말하는 자는 누구인가?(그대가 바로 부처이다)

[『나옹화상어록』, 「경세의벽자(警世外覓者, 밖에서 구하는 세간의 사람을 경계함)」, (『한국불교전서』 6권, 744하)]

앞 시의 ‘여의주 구슬’과 뒷 시의 ‘신령스런 구슬’은 모두 불성을 뜻한다. 그러므로 나옹은 사람마다 불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밖에서 구하지 말 것을 말한다. 이것은 사람이 성불할 수 있는 근거이기도

강좌내용

하다.

그 다음 「경세(警世)」라는 제목의 시 가운데 앞의 두 수에서 나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百年只是暫時間 백 년도 잠깐동안인데
莫把光陰當等閑 세월을 소홀히 보내지 말라.
努力修行成佛易 노력하고 수행하면 부처 되기 쉽지만
今生差過出頭難 금생(今生)을 잘못 보내면 벗어나기 어려워라.
無常忽到教誰替 죽음이 홀연히 오면 누가 대신하리오?
有債元來用自還 빚이 있으면 원래 쓴 사람이 갚아야 한다.
若要未經閻老案 염라대왕의 책상을 지나지 않으려면(죽음을 맞이한다는 의미)
直須參透祖師關 곧장 조사의 관문(화두)을 뚫어야 한다.(깨달음을 얻어야 한다)
[『나옹화상어록』, 「경세(警世)」(『한국불교전서』 6권, 744하)]

앞 시에서 나옹은 세월이 빨리 흘러가므로 수행할 것을 권하고, 뒤 시에서는 나옹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조사의 관문을 뚫을 것, 곧 깨달음을 얻을 것을 말한다.

그 다음으로 「경세(驚世)」라는 제목의 시 가운데 끝 두 수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昨是新春今是秋 어제는 봄이었는데 지금은 가을이네
年年日月似溪流 해마다 세월은 계곡물 흐르는 것 같아라.
貪名愛利區區者 명예와 이익을 탐하여 구구히 처신하는 자
未滿心懷空白頭 그 마음을 채우지 못한 채 헛되이 늙었네.

終朝役役走紅塵 하루 종일 수고로이 속세를 달리다가
頭白焉知老此身 머리가 희어지니 어찌 이 몸 늙는 줄 알랴?
名利稠門爲猛火 명예와 이익과 번성한 가문이 뜨거운 불길이 되니
古今燒殺幾千人 과거와 현재에 몇 천 인을 불태웠을까? (명예와 이익 등을 추구해서 거기에 사로잡혔다)

[『나옹화상어록』, 「경세(驚世)」(『한국불교전서』 6권, 744하-745상)]

위 두 시에서 나옹은 사람이 명예와 이익만을 추구하다가 헛되이 늙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 뒤 시에서는 명예와 이익과 번성한 가문을 불길에 비유하고, 그 불길이 수많은 사람을 태워버린다고 하여, 그 표현을 강렬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고루가(枯體歌: 불교가요, 마른 해골에 관한 노래)」에서는 중생의 현실을 묘사하고 있다. 이것은 「경세(驚世)」라는 시에서 나옹이 보여준 문제의식과 같다.

這枯體機千生 저 마른 해골이 몇 천 생(生)을 보냈는가?
橫形豎像妄勞形 누워 있고 서 있어 망령되이 수고로운 모습을 짓는구나!
如今落在泥坑裏 지금은 진흙 구덩이에 떨어졌으니
必是前生錯用情 반드시 전생에 마음을 잘못 썼기 때문이리라.

無量劫昧性王 무량한 겁(긴 세월을 말함) 동안 마음에 어두움이여!
六根馳散走青黃 6근이 헤매면서 푸른 것과 누런 것에 달리도다.
只知貪愛爲親侶 다만 탐욕과 애착이 친구인 줄 아나니

강좌내용

那得廻頭護正光 어찌 머리를 돌려(인식을 전환해서) 바른 광명을 지키리요?

[『나옹화상어록』, 「고루가」(『한국불교전서』 6권, 730하-731상)]

위 두 시는 「고루가」의 앞 두 시인데, 중생의 현실을 그대로 묘사하고 있다. 그렇지만, 진리를 자각하면 이러한 괴로운 현실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나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這枯體甚癡頑 저 마른 해골 매우 어리석고 완고함이어!

因他造惡萬般般 다른 사람을 인해서 악을 짓는 것이 만(萬)가지구나.

一朝徹見空無有 하루 아침 공(空)하여 있지 않음을 사무쳐 보면

寸步不離脫體寒 조금도 벗어나지 않고(현실세계에 있으면서) 전체가 싸늘하다.(깨달음을 얻는다)

[『나옹화상어록』, 「고루가」(『한국불교전서』 6권, 731상)]

위 시에서는 중생이 비록 여러 가지 악을 지었지만, 진리를 본다면 속박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말한다. 이상과 같이, 나옹은 세상의 어리석음을 경계하고자 하는 의도로 시를 썼고, 어리석음을 경계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인간은 누구나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속에는 청정한 부분, 곧 불성(佛性)도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간은 이와 같이 경계하는 말을 받아들여 수행에 임할 수 있다.

3. 나옹의 선사상

나옹의 「제선자구송(諸禪者求頌:여러 수행자가 계송을 구해서)」이라는 제목의 시를 살펴보자.

放下諸緣心便空 모든 인연을 놓아버리면 마음이 문득 공(空)해지고

掀翻徹底見其功 흔들어 뒤집음(깨달음)이 철저하면 그 공(功)이 나타나리라.

隨身杖子重拈起 몸 가는 대로 주장자를 다시 집어 일으켜서

到處逢人現古風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옛 바람을 나타내리라(가르침을 전한다).

參禪須透祖師關 참선은 반드시 조사의 관문을 통과해야 하나니(화두를 깨달아야 한다)

未得透時莫等閑 조사의 관문을 통과하지 못했으면 한가하게 있어서는 안 된다.

不覺命根都喪盡 어느덧 업의 뿌리가 모두 없어지면

通天徹地骨毛寒 하늘과 땅에 이르도록 뼈와 털이 차가우리라.(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한 것)

[『나옹화상어록』, 「제선자구송(諸禪者求頌)」(『한국불교전서』 6권, 740상)]

위의 시에서 알 수 있는 점은, 나옹이 보는 선(禪)은 모든 인연을 놓아버려서 마음에 집착이 없어 공(空)의 경지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러면 이르는 곳마다 사람을 만나서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다. 조사의 관문(화두, 조사의 이야기, 불교의 핵심을 담은 내용)을 뚫어야 하는데, 조사의 관문을 뚫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노력해야 한다.

그러면, 참선하는 사람의 마음의 자세는 어떠해야 할까? 나옹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立志如山逼拶來 참선하는 뜻은 산과 같이 하여 노력해야 할 것이니

從茲大道自然開 이로부터 큰 도(道)가 자연히 열리리라.

翻身一擲威音外 몸을 뒤집어 위음왕불(威音王佛: 최초의 부처) 바깥으로 한 번 던지면

萬象森羅一笑廻 삼라만상(모든 사물과 현상)이 한 번의 미소 속에 돌아오리라.

강좌내용

學道參禪志若山 도를 배우고 참선함은 그 뜻이 산과 같아야 하나니
堅剛立志用無間 굳세게 뜻을 세워서 그 뜻이 중간에 쉬지 않아야 한다.
通天一擲翻身轉 하늘에 통하도록 한 번 던져 몸을 뒤집어서 구르면(깨달음을 얻으면)
徹底澄清透膽寒 철저히 맑고 맑아 쓸개가 온통 싸늘하다.(깨달음의 경지를 묘사한 것)
[『나옹화상어록』, 「제선자구송(諸禪者求頌)」(『한국불교전서』 6권, 740상)]

위 두 시에서 나옹은 참선하기 위해서는 그 뜻이 산과 같이하야 어느 것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하고, 또한 그러한 뜻을 가졌더라도 중간에 쉬면 안되고, 그 뜻이 중단 없이 계속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그 다음 나옹은 참선하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學道參禪無別意 도를 배우고 참선함에 다른 방법이 없으니
猶如走馬更加鞭 마치 달리는 말에 채찍질을 하듯 하라.
豁開兩眼明如日 활연히 두 눈을 열어 밝기가 해와 같이 되면
照破威音空劫前 위음왕불 이전(최초의 부처, 부모가 태어나기 이전과 같은 의미)을 비추어 보리라. (깨달음을 얻는다)
[『나옹화상어록』, 「제선자구송(諸禪者求頌)」(『한국불교전서』 6권, 740상-중)]

위의 시에서 나옹은 참선하는 방법은 자기를 채찍질하는 것이라고 한다. 다시 말하면, 자기가 어느 정도 공부가 익었는지 돌아켜보고, 다시 정진하는 과정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참선하는 방법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나옹은 그의 신도에게 수행을 권할 때, 승려[僧]와 재가신도[俗], 남과 여, 처음 배우는 사람과 오래 배운 사람을 따지지 않고, 확실한 믿음과 견고한 뜻을 세울 것을 말한다.

만약 진실로 이 큰 일을 밝히고자 한다면, 승려[僧]와 재가신도[俗], 남과 여를 묻지 말고 상근기(뛰어난 능력의 소유자), 중근기, 하근기(열등한 능력의 소유자)인지 묻지 말고, 처음 배우는 사람인지 오래 배운 사람인지 묻지 말라. 다만 그 사람이 확실한 믿음을 세워서 견고한 뜻을 내는 데 있다.

[『나옹화상어록』, 「시지신사염(示知申事廉: 지신사 염홍방에게 가르침을 주다)」(『한국불교전서』 6권, 726상-중)]

그리고 수행하는 방법으로서 간화선(看話禪)을 말한다.

내가 광명사에 있을 때, 일찍이 그대를 위해서 말해준 ‘이 무엇인가’ 화두를, 항상 12시 동안 모든 곳과 모든 때에 절대로 내버려두지 말고, 잘 제기하고(문제의 대상으로 제시하다 의미인데 여기서는 공부하다) 잘 참구해서(공부하다), 조금도 화두에 관한 생각이 끊어짐이 없게 하라. 갈 때도 다만 ‘이 무엇인가’하고, 머무를 때도 다만 ‘이 무엇인가’하고, 앉을 때에도 다만 ‘이 무엇인가’하고, 누울 때에도 다만 ‘이 무엇인가’하고, 옷을 입고, 밥을 먹고, 변소에 가고, 손님을 맞이하고, 내지 공무를 볼 때, 위로 올라가고 내려올 때, 붓을 잡고 글씨를 쓸 때, 끝내 ‘이 무엇인가’하라. 다만 이와 같이 제기하고, 이와 같이 참구하여, 잘 참구하고 잘 제기하면, 홀연히 화두를 제기하지 않아도 화두가 제기되고, 화두를 의심하지 않아도 의심되며, 밥을 먹어도 밥인 줄 알지 못하고, 차를 마셔도 차인지 알지 못하며, 이 허깨비의 몸이 인간세계에 있는지도 모르고, 몸과 마음이 한결같고, 잠자고 깨어있을 때가 한결같게

강좌내용

된다. 이런 경지에서 몸을 뒤집어 한 번 던지면(인식의 변화를 겪으면), 비로소 마음의 근본자리에 이른다. 여기서는 관직을 고치지 않고, 속인의 모습을 바꾸지 않고, 3계(이 세상)의 불타는 집(이 세상이 번뇌로 인해 위태롭다는 것을 비유한 것)을 떠나지 않고, 인도의 28조사와 중국의 6조사(중국 선종에서 제시하는 조사관)와 천하선지식이 전할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것이면서 본래부터 내 안에 간직되어 있던 것[本有之事]을 알게되리라.

[『나옹화상어록』, 「시지신사염(示知申事廉)」(『한국불교전서』 6권, 726중-하)]

4. 나옹의 염불관(念佛觀)

나옹은 마음을 깨닫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면서, 이것을 이루기 위한 방편으로 염불(부처의 이름을 외우는 것)을 제시한다. 그의 염불관(念佛觀)은 「시제염불인(示諸念佛人: 염불하는 사람에게 보이다)」이라는 제목의 시에 잘 나타난다.

幾劫勞勞六道廻 몇 겁을 수고로이 6도(생사를 윤회하는 6가지 세계)를 윤회했던가?
今生人道最爲稀 지금 인간 세계에 태어남이 가장 희귀하도다.
勸君早念彌陀佛 그대에게 일찍 아미타불(서방 극락세계의 부처)을 염할 것을 권하노니
切莫閑遊失好時 한가로이 노닐어(수행한다는 의미) 좋은 때를 놓치지 말지어다.

六道輪廻何日休 6도의 윤회 어느 날에 그칠런가?
思量落處實爲愁 윤회의 결과를 생각하니 실로 근심이 되는구나.
唯憑念佛勤精進 다만 염불에만 의지하여 부지런히 정진하면
拶透塵勞驚到頭 반드시 번뇌(괴로움)에서 벗어나 갑자기 도달하리라.
[『나옹화상어록』, 「示諸念佛人」(『한국불교전서』 6권, 743상)]

위 두 시에서 나옹은 6도의 윤회에서 벗어나기 위해 아미타불을 염(念)할 것을 권한다.

V. 태고보우의 생애와 사상: 고려말의 선사상가2

태고보우(太古普愚, 1301-1382)는 13세에 출가해서 수행에 전념하고, 26세 때 화엄선(華嚴選)에 합격하고 경전을 두루 공부하였다. 30세(1330) 때에 용문산 상원사에서 관세음보살에게 기도를 올려서 12가지 큰 원(願)을 세웠다. 37세(1337) 때 불각사(佛脚寺)에서 『원각경』을 읽다가 깨달음을 얻었고, 이번에는 ‘무’자화두를 공부하였다. 같은 해에 중암(中庵)거사 채홍철(蔡洪哲, 1262-1340)의 집 북쪽에 있는 전단원(梅檀園)에 가서 ‘무’자화두를 깨치고, 38세에 고향에 내려와 있다가 1700개의 공안(화두)을 검토하고, 마지막 관문도 통과하였다. 보우는 38세 때 도를 깨친 이후 삼각산 중흥사의 주지로 있다가, 46세 때 원나라에 들어가 석옥청공(石屋淸珙, 1270-1352)에게서 가르침[法]과 가사(袈裟: 승려의 옷)를 전해 받고, 48세(1348년) 때 귀국하였다. 56세(1356년)에 태고는 왕사가 되어 광명사에 머물렀다. 71세(1371년, 공민왕 20년)에 국사가 되어 영원사에 머물렀다. 81세(1381년)에 우왕에 의해 다시 국사가 되었다.

보우가 임종을 앞두고 남긴 시는 다음과 같다.

사람의 목숨은 물거품 같아서
80여 년의 인생이 봄날의 꿈과 같구나.
임종을 앞두고 육신을 버리니
붉은 해가 서쪽 봉우리 아래로 내려가네.

강좌내용

보우는 임제선의 간화선 사상을 한반도에 확고하게 정착시킨 인물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보조국사 지눌과 진각국사 혜심이 간화선을 소개하여 뿌리를 내리게 하였다면, 이를 정착시킨 인물은 보우이다. 그리고 그는 정토사상을 선사상에 접목하였다. 이런 점은 나옹의 선사상과 비슷한 맥락이다. 여기에 태고는 「잡화삼매가(雜華三昧歌)」에서 화엄종에서 주장하는 해인삼매를 수용한다. 이는 선교일치를 주장한 것이다. 이 점이 나옹의 선사상에 없는 것이다.

이러한 태고보우의 선사상이 형성된 배경은 세 가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수행 체험을 통해서 그의 선사상은 형성되었다. 그는 26세 때 화엄선을 합격하기도 하였는데, 이는 보우가 교학에 대한 이해도 있음을 알게 해주는 대목이다. 그리고 『원각경』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기도 하였는데, 이도 보우의 교학에 대한 이해가 단순한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다가 무자화두를 들어서 의심 덩어리를 해결하고, 38세 때 진정한 견성을 하고, 간화선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되었다. 이처럼 그의 선사상은 자신의 선수행에 기초한 것이다.

둘째, 임제의 선사상을 받아들인 점을 들 수 있다. 임제종의 바른 맥을 이은 석옥청공에게서 법을 이어받은 사실에서 그가 임제의 선사상을 수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셋째, 당시의 시대적 상황이다. 임제사상을 수용한 것은 보우의 경우만이 아니고, 나옹혜근, 백운경한, 무학자초(無學自超, 1327-1405), 지천(智泉, 1290-1374, 나옹의 제자) 등도 임제의 선사상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것은 임제의 사상을 수용하는 것이 개인적 성향의 문제가 아니고, 시대적 배경임을 보여주는 예이다.

그러면 태고는 어떤 이유에서 임제의 선사상을 수용한 것인가? 우선, 원나라의 불교계에서 임제의 선사상이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리고 보조국사 지눌과 진각국사 혜심의 영향이다. 또한 성리학의 도전에 대해서 간화선을 중심으로 대응을 시도한 것이다. 간화선을 통해서 깨침을 주장하고, 불교의 깨달음이 비현실적인 것이 아님을 말하고자 한 것이다.

이 뿐만이 아니고, 보우는 현실에서 여러 활동을 하였다. 1356년(56세)에 보우는 원융부(圓融府: 승정을 관리하는 기구)를 설치해서 구산선문(九山禪門)의 대립을 절충시키려고 하였고, 또한 같은 해(1356년) 공민왕에게 한양으로 도읍을 옮길 것을 건의하였으며, 흥건적이 침입할 것을 미리 알고 이에 대비토록 하였고, 공민왕이 신돈을 물리치도록 간언을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신돈의 정치적 위상을 긍정적으로 볼 것인가 부정적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

보우가 한국불교의 중흥조이고, 조계종의 시조가 되며, 그 법통은 중국선종의 5가7종 가운데 하나인 임제종을 이었다고 한다. 이는 조선 중기에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의 제자 편양언기(鞭羊彦機), 중관해안(中觀海眼) 등에 의해 제기되어 오늘날까지도 영향력이 있는 주장이다.

8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역사와 문화에 기여한 철학자들	교수자	지혜경
학습목표	1. 대동법에 담긴 조선왕조의 유교적 민본이념을 이해한다. 2. 대동법의 시행 배경과 찬반 논의 과정을 통해 조선왕조가 어떻게 하나의 제도를 완성시켜 가는지를 파악한다. 3. 대동법 시행이 조선후기 재정구조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고, 19세기 재정위기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안목을 기른다.		
핵심어	진표, 도선, 혜초, 일연, 왕오천축국전, 삼국유사		
주요흐름	절실한 마음으로 자신을 던지며 수행했던 진표, 한국의 풍수이론을 세운 도선, 불교의 진리를 공부하기 위해 멀리 인도까지 가서 공부한 혜초, 한국 불교와 관련된 역사적 설화를 정리하여 후대에 남긴 일연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읽기자료	삼국유사 (민음사 번역본)		
학습요소	영상 35분 10초 토론 1문항, 읽기자료 제공, 부록영상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진표, 도선, 혜초, 일연처럼 내가 진심으로 이루고 싶은 것에는 무엇이 있을까?

강좌내용

이번 강의에서는 삶의 귀감이 되거나 한국의 역사에 특별히 기여했던 스님들을 소개하려 합니다 소개할 분들은 통일신라 시대 진표율사, 혜초스님, 도선국사, 그리고 고려시대 일연대사입니다.

<진표>

진표율사는 한국불교사에서 가장 치열하게 수행했던 수행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 뒤에율사를 붙이는 이유는 그가 계율의 전문가이고, 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생명체들도 그에게서 계를 받기를 원했고 그가 계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계를 준다는 것은 불교 신자가 되는 세례를 준다는 것입니다.

진표율사는 통일신라시대 때 승려로 지금의 전주지방에서 태어나 12살 때 금산사 승제 스님에게 출가했습니다. 하루는 스승인 승제가 자신은 당나라에서 선도에게 배우고, 오대산에서 문수보살을 친히 만나 오계를 받았다 이야기를 합니다. 보살에게 직접 계율을 받았다는 말에 눈이 반짝이며 진표는 얼마나 걸리냐 묻고, 승제는 1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후 수행을 위해 여러 곳을 돌아다니다가 보살에게 직접 계를 받기 위한 집중 수행에 들어갑니다. 그가 했던 수행에 대해서는 두 가지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첫번째 이야기는 선계산에서 일주일간 돌로 몸을 치며 참회하는 수행을 했는데, 보살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 7일을 더 하니 지장보살이 나타나서 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에 멈추지 않고 다른 산, 변산 능가산으로 옮겨서 또 같은 방식으로 수행을 하니 미륵보살이 나타나서 경전과 점을 치는 막대를 함께 주었다고 합니다. 또 다른 이야기는 보살을 만나기 위해서 능가산 가파른 절벽에 암자인 부사의방을 짓고, 3년을 수행을 했는데, 만나지 못하자 절벽으로 몸을 던집니다. 그런데 푸룻옷을 입은 아이가 그를 받아 안아줘서 이후 21일간 몸을 돌로 두드리며 참회하는 집중수행을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날 손과 팔이 부러지며 땅에 떨어졌고, 일주일째 되니 지장보살이 나타나 손 발을 원래 상태로 붙여주고 가사와 바루를 주었습니다. 바루는 불교에서 사용하는 밥그릇을 말합니다. 그런 경험을 하며 21일을 잘 채우자, 지장보살과 미륵보살이 함께 나타나 참 장하다면서 지장보살은 <점찰선악업보경>을 주고, 미륵보살은 점치는 나무막대를 주며 이 막대로 과거의 잘못과 인과응보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덧붙여 나중에 도솔천에 태어날 것이라고 확인해줍니다.

보살은 이전에도 이야기했듯이 해탈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지만 다른 사람들을 모두 구할 때까지 해탈을 보류하기로 소망을 낸 사람을 말합니다. 지장 보살은 그 가운데에서 지옥에 떨어진 사람들을 모두 구할 때까지 해탈하지 않겠다고 마음을 낸 보살입니다. 미륵보살은 불교의 메시아 같은 존재로 미래에 나타나 부처님이 구제하지 못한 모든 사람을 구제하겠다는 보살입니다. 그는 도솔천에 살고 있는데, 석가모니가 돌아가신 뒤 오십육억 칠천만년이 되는 때, 즉 인간의 수명이 팔만년까지 유지 되는 때,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 깨달음을 얻어 세번의 설법으로 272억명을 구원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미륵보살을 믿는 사람들은 죽은 뒤 그가 사는 도솔천에 태어나기를 소망하거나, 그가 하루 빨리 지상에 내려오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서 구원받기 위해서 계율을 지키고 참회를 하며 몸을 깨끗하게 하는 것을 중요시 합니다.

진표의 몸을 던져 목숨까지 걸고 참회하는 수행을 망신참법이라고 합니다. 그가 왜 이렇게 힘든 수행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그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다만, 참회에 있어 진심이고자 했으며, 그에 감동한 보살들이 그에게 특별한 선물은 주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살을 만나서 계를 받은 이후 금산사로 내려와 큰 미륵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계를 주고, 미륵보살에게서 받은 나무막대, 간자로 점을 치며 참회하는 점찰법회를 열었습니다. 점찰법회란 점을 통해 과거의 업보를 확인하고 참회하는 모임을 말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업보까지 세세히 알 수 없기에 그 업보까지도 점을 통해서 확인하고 참회하며 업을 깨끗이 없애고자 하는 수행법입니다. 점을 치는 도구는 경전에서는 둥근 바퀴모양을 쓰지만, 진표는 미륵보살에게서 받은 189개의 기다란 막대를 사용합니다.

몇 년 뒤 금산사를 나와 속리산으로 가는데, 그의 수행의 능력을 알아본 길가던 소가 무릎을 꿇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이에 소주인이 놀라서 미물인 소도 진표의 위대함을 알아보고 인사하는데 자신을 몰랐다면 그 자리에서 낫으로 머리카락을 깎고 출가합니다. 그 후 금강산으로 향하다가 명주, 현재의 강릉지역에 도착하였는데, 바닷가에서 그를 본 물고기와 자라들이 자신들에게도 계를 달라며 줄을 지어 바다로 이어지는 길을

강좌내용

만들어 진표가 그들을 밟고 바다 안쪽까지 들어가 물고기들에게 계를 주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소식을 들은 경덕왕이 진표를 초대하여 보살계를 받고 비단과 황금을 주어 이를 가지고 발연사를 포함한 여러 절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를 따르고자 하는 이는 많았으나 그는 쉽게 제자를 받지 않았는데, 그의 제자 중에 영심은 자신의 간절함을 표현하고자 복숭아 나무에서 몸을 던지는 망신참법을 해서 수제자가 됩니다.

이후 화암사로 가서 점찰법회를 열고 사람들에게 계를 주며 지내다가 평소에 참선을 하던 바위 위에서 수행하던 모습 그대로 입적합니다. 그가 제자들에게 시체를 치우지 말라고 했었기에 치우지 않았는데, 다음날 몸이 다 부서져 뼈만 남아 가볍게 흠만 덮었다고 합니다.

진표는 자신의 목숨을 걸고 수행을 했습니다. 일반인은 따라가기 힘든 고행이기는 하지만, 진심을 다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혜초와 왕오천축국전>

혜초는 통일신라 시대의 승려로 인도로 여행을 다녀와 왕오천축국전이라는 기행문을 남긴 것으로 유명합니다. 당시 180여명의 구법승, 인도로 불교 순례나 공부를 위해 떠난 승려들이 있었으며, 그 중에 15명 정도가 한반도 출신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쓴 기행문은 1908년 프랑스 학자 폴 펠리오가 돈황에서 발견하기 전에는 기행문이 있었다는 기록만 남아있던 책이었습니다.

그가 여행을 떠나기 전의 생애는 거의 알려진 바는 없는데, 당나라로 건너가 배를 타고 인도로 떠나 8년간 여행을 한 뒤 육로로 당나라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728년, 그가 25살 때입니다.

당나라에 도착한 뒤에 그는 밀교 승려 금강지와 불공삼장을 도와 밀교 경전을 번역하며 밀교승으로서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불공 삼장은 자신의 2000명이 넘는 제자 중에서 뛰어난 여섯명을 뽑았는데, 혜초를 세번째로 뽑았습니다. 또한 궁중의 사찰인 내도장에서 직책을 맡아서 기우제나 의례를 맡아 진행했다고 합니다. 그 후 스승인 불공 삼장이 돌아가신 후 오대산 보리암에서 머물다가 입적하셨다고 합니다.

밀교는 부처의 드러나지 않은 비밀스런 가르침이라는 의미로 밀교적 수행법을 익히면 이 몸이 바로 부처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의 부처는 석가모니 부처가 아닌 비로자나불이라고 빛 자체이며, 모든 부처의 본체인 부처를 말합니다. 수행방법은 손으로는 부처님의 특별한 손 모양을 하고, 입으로는 부처님과 관련된 주문을 외우고, 머리로는 부처님을 생각하는 것을 통해서 부처님과 하나되어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밀교는 하나의 교단형태보다는 다른 수행법들과 섞여서 수행되어왔습니다.

그의 여행기는 바야살리국, 현재 인도 동북부 지역의 작은 마을에서 시작합니다. 그곳에서 만난 옷을 입지 않고 수행하는 자이나교 수행자들에 대해서 언급한 뒤 때로는 석가모니 부처가 돌아가신 장소인 쿠시나가라, 부처님이 처음 다섯명의 수행자에게 가르침을 편 녹야원을 거쳐, 부처님과 관련된 장소들을 방문하며 인도 북쪽지역을 지나 라다크, 티벳, 간다라를 거쳐 페르시아, 아라비아, 비잔틴까지 방문하고 장안으로 돌아옵니다. 그의 여행기는 단지 불교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상황, 기후 등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간다라국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과 군사들은 모두 돌궐인이고 토착인은 호족이며 바라문도 있다... 산이 메말라서 풀이나 나무가 없다. 의복과 풍속과 언어와 기후는 모두 다르다... 나라의 왕은 비록 돌궐족이지만 삼보를 매우 공경하고 신봉하며, 왕과 왕비와 왕자와 수령은 각각 절을 지어 삼보를 공양한다...”

이처럼 그는 방문지의 인종구성, 기후, 언어, 그 지역의 불교현황 등을 다양하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혜초의 기행문이 짧은 해도 그가 방문했던 36개국의 여행지의 기록을 이렇게 세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좌내용

그의 여행과 여행기가 의미가 있는 것은 그 시대에 목숨을 건 여행이었다는 점입니다. 불교가 발생한 곳에 가보겠다는 열망을 가지고, 낯선 곳으로 용기있게 여행을 떠났다는 점입니다. 살아돌 수 없는 험한 길이 될 것이 뻔한 것임에도 도전을 한 것이지요. 안타깝게도 그가 무엇을 느끼고 배웠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한 기록이 없습니다. 다만 왕오천축국전 속에 그가 남긴 몇몇의 시에는 여행의 고단함과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마음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대는 서쪽 길이 멀다고 한탄하나, 나는 동쪽 길이 먼 것을 슬퍼하노라. 길은 거칠고 산마루에는 눈도 많이 쌓였는데, 험한 골짜기에는 도적 떼도 많구나. 새도 날아오르다 깎아지른 산에 놀라고, 사람은 좁은 다리 지나가기 어렵구나. 한 평생 살아가며 눈물 흘리지 않았는데, 오늘 따라 천 줄기나 뿌리는구나.”

<도선>

도선은 통일신라시대 때 승려로 풍수 사상, 지형에 따라 좋고 나쁜 일이 생길 수 있다는 사상을 발전시키고, 고려시대가 시작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도선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선은 출가 전 성은 김씨이고, 영암사람이라고 합니다. 그의 태몽에는 두 가지가 전해집니다. 지역에서 전해내려오는 이야기는 물가에 떠내려오는 오이를 어머니가 먹고 나서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낳아, 근처 바위에 놓았는데, 비둘기들이 아이를 지켜 주었다고 합니다. 그 바위를 지역에서는 도선의 바위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그의 비문에서는 꿈 속에서 어머니가 어떤 사람이 삼키라고 준 밝은 구슬 한 개를 삼킨 이후 아이를 가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비슷한 이야기가 기억나시나요? 앞서 살펴보았던 사굴산문을 세운 범일선사도 두 개의 탄생설화가 전해지며, 지역에서 전해되는 설화는 결혼하지 않은 여성이 임신을 하게 되어 아이를 버렸으나, 아이를 동물들이 보호해 주었지요. 이러한 이야기는 나라를 세운 왕의 건국신화와 유사한 구조입니다. 그만큼 두 스님이 중요하고 그 지역에서 영향력이 컸던 역사적 인물이라는 것은 의미합니다.

15세가 되던 해 도선은 월유산 화엄사로 출가를 하여 경전을 공부했는데, 5년 만에 금세 그 의미를 다 이해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글자만 이해한 공부에 만족하지 못하고, 그 이상을 더 공부하고자 새로운 스승을 찾아갑니다. 당시에는 당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승려들이 선사상을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동리산에서 선사상을 가르치던 혜철대사를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됩니다. 그를 통해 말없는 말과 법없는 법을 배운 후 깨달음을 얻습니다. 그동안 경전을 통해 말로 표현된 불교의 진리인 법에 대한 지식을 가득 채워 두었는데, 말없는 말과 법없는 법을 통해 그동안 공부했던 것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무언가를 배우고 내 안에 채우게 되면, 그것을 절대적인 것으로 생각하려는 경향이 있는데, 그것들을 비움으로서 자유로워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23세에 천도사에서 구족계를 받은 이후, 한곳에 머무르기 보다는 여기 저기 자유롭게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는 두타행을 행하였습니다. 때로는 산 밑에 동굴을 파서 수행하기도 하고, 큰 바위 앞에 임시로 허름한 집을 짓고 좌선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렇게 10년이 넘게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며 수행을 하다가 지리산 근처에서 작은 절에서 수행하던 중 한 낯선 사람의 방문을 받습니다. 그 작은 절은 훗날 사성암이라 부르게 됩니다. 원효, 의상, 도선, 진각, 네 명의 성인이 머물렀었던 곳이기 때문입니다.

도사처럼 보이던 그 사람은 자신이 세상을 떠나 산지 수백년이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을 그에게 나누어주고 싶다고 말합니다. 작은 술법, 작은 기술인데 관심이 있다면 다음날 남해의 물가로 오라고 하고 사라집니다.

강좌내용

도선은 세상사람들을 돕는데 도움이 될 만한 지식이라는 말이 마음에 남아 다음 날 약속한 장소로 갑니다. 그는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쌓아 산과 바다의 지형을 보여주고, 어떤 지형이 사람들의 삶을 평안하게 만드는지, 그리고 어떻게 보완하면, 땅이 편안해지는지를 설명해주고 사라졌습니다. 그를 통해 풍수를 배운 뒤 이후 계속 연구하여 그는 자신 만의 풍수지리 이론을 만들었습니다. 명당만을 찾는 풍수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보완하는지를 알려주는 비보풍수이론으로, 이는 이후 한국 풍수의 기본이 됩니다. 비보란 돕는다는 의미로, 땅의 기운이 너무 세거나 약할 때는 땅의 약해진 기운이 사람들의 삶에도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건축물, 대체적으로 절이나 탑, 불상을 지어서 이를 보완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이전 사람들은 그냥 좋은 자리를 찾아서 절을 지었는데, 그는 지형에 맞게 절을 지어 기운을 보완해줄 것을 제시한 것입니다. 이렇게 지은 절을 비보사찰이라고 합니다.

도선은 우리나라 지형을 다음과 같이 평가합니다.

“우리나라의 지형은 항해하는 배와 같아서 태백, 금강은 뱃머리요, 월출, 영주는 꼬리요, 부안의 변산은 방향키요, 영남의 지리산은 노요, 능산의 운주는 배의 복부이다. 배가 물에 뜨려면 화물이있어 배의 앞부분과 뒷부분 그리고 배의 가운데 부분을 눌러주고, 방향키와 노가 있어서 하행을 제어해주어야만 위험과 표류, 그리고 가라앉음을 벗어나 돌아올 수 있다. 그러니 절과 탑을 세워 땅의 기운을 누르고 불상을 세워 그것을 눌러야 하나니, 특히 운주 아래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곳엔 천불사탑을 세워 그 복부를 견실하게 해야하고, 금강, 월출 또한 더욱 정성을 드려야 하는 것이니 수미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세간에서 월출을 소금강이라 부르는 것은 바로 이런 까닭이다.”

이러한 그의 지형평가에 의해 세워진 사찰이 운주사입니다. 운주사에는 천개의 부처님과 천개의탑이 있는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에 의하면 비보사찰로 짓기 위해 도선대사가 밤새 만들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역사적 고증에 의하면 고려 때 국난을 극복하기 위해 석공들이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도선은 고려시대가 시작되기 전에 옥룡사에서 열반했습니다. 하지만, 도선이 고려시대를 여는 데 기여했다고 하는 이유는 그와 왕건 아버지와의 인연때문입니다.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이 태어나기 전, 태조의 아버지 왕룡이 집을 지을 때 그 앞을 지나가던 도선은 그 집터에 태어나는 사람의 미래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왕룡에게 그 집터에서 왕이 될 귀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라 예언하고, 태어날 아이를 위해 풍수와 관련된 특별한 책을 남겨주었다고 합니다. 이후 왕건은 고려를 세운 이후 도선의 책에 근거하여, 불교의 사찰을 어떻게 지어서 고려의 땅을 안정적으로 만들지에 대해 고민하고 실천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의 생각은 그가 유연처럼 남긴 훈요십조에 잘 남아 있습니다.

훈요십조 2조는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찰은 모두 도선이 산과 물의 기운이 흐르고 거스르는 방향을 헤아려 살펴 보고서 시작한 것이다. 도선이 말하기를, '내가 자세히 살펴서 정한 이외에 함부로 더 창건한다면 척박한 땅의 좋은 기운을 손상시켜 임금이 나라를 다스리는 일이 오래가지 못한다'고 하였으니, 짐이 생각건대, 후세의 국왕·공후·후비·조정의 신하들이 각자 기도를 위해 행여나 개인사찰을 더 짓는다면 크게 근심스러운 것이다. 신라의 말기에 사리를 모신 부도를 앞다투어 짓다가 땅의 좋은 기운을 손상시켜 내부에서 망하였으니, 경계하지 않아서야 되겠는가.”

왕건이 도선의 말이라며 옮긴 부분을 보면, 그의 비보사찰풍수이론에는 단지 불교의 번성이 아니라 사람들이 평안하고 안정된 국가와 국토에서 살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반영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선의 비보사찰풍수는 이후 조선에도 이어져 사찰대신에 조각상, 장승 등 다양한 대체물을 활용하여 풍수 이론을 적용시킵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관악산은 불의 기운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비보풍수에 의거하여 그와 마주보는 자리에 세가지 장치를 했다고 합니다. 마주보게 되는 남대문 근처에 인공연못인 남지를 파고, 숭례문, 즉 남대문을 세우고, 광화문 옆에 물을 뿜는 전설 속의 동물 해태 조각상을 세웠습니다. 숭례문의 현판 글씨를 세로로 써서, ‘례’라는 글자의 작은 불꽃의 모양을 통해 불로 불을 막았다고 합니다. 몇 년전

강좌내용

남대문이 불에 탄 것은 불을 막아주었던 장치 중에서 인공연못과 해태상이 없어져 남대문 혼자 불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불이 났을 때 많은 한국인들이 국가에 안좋은 일이 일어날까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도선의 비보풍수설은 단지 과거의 일이 아니라, 한국인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일연과 삼국유사>

일연은 한국에서 삼국유사를 지은 스님으로 유명합니다. 삼국유사는 한국의 오래된 역사서로, 불교와 설화들 중심으로 정리한 책입니다. 삼국유사는 최초로 단군이야기를 소개하고 최초의 국가로 고조선을 소개한 책입니다. 단군이야기는 들어보셨나요?

하늘임금 환인의 아들 환웅이 인간 세상에 내려오고 싶어하자, 아버지 환인이 천부인을 3개를 주어 태백산 지역을 다스리게 하였습니다. 환웅은 바람을 다스리는 풍백, 비를 다스리는 우사, 구름을 다스리는 운사, 그리고 3000명 일행과 함께 태백산 꼭대기 신단수 아래로 내려와 자리를 잡고 이를 신시라 부릅니다. 근처에서 살고 있던 곰과 호랑이가 인간이 되고 싶어 빌자, 환웅은 쑥한자루와 마늘 스무톨을 주면서 이것을 먹고 백일동안 햇빛을 보지 않으면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였습니다. 곰은 이를 잘 참고 견디어 여자의 몸으로 변했으나 호랑이는 참지 못해 사람이 되지 못했습니다. 곰여인 웅녀가 신단수 아래에서 아이를 낳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러자, 환웅이 잠시 모습을 바꾸어 그녀와 결혼하여 아이를 낳으니 그가 단군왕검입니다. 단군왕검은 아사달을 도읍으로 하여 고조선을 세우고 1500년동안 한반도를 다스립니다. 삼국유사의 기록 이후로 단군왕검은 한민족 최초의 왕조의 왕으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서 일연은 왜 이러한 신화적 이야기를 고려의 역사를 설명할 때 제일 먼저 썼을까요? 민족주의자여서? 그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가 살던 시기가 몽골의 침입으로 힘든 상황이었다는 것을 보면 어느 정도 납득이 갑니다. 만약 여러분의 나라가 외국 세력에 의해 침입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땠을까요? 우리가 그래도 오랜 역사를 가진 멋진 나라잖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기분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좀 기운이 나겠지요?

그래서 한국인들은 일연의 삼국유사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삼국유사를 지은 일연은 어떤 분일까요? 지금은 삼국유사로만 유명하지만, 당시에는 뛰어난 불교에 대한 이해와 수행으로 존경 받던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의 생애를 살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연의 출가전 성은 김씨이고, 어머니가 햇빛이 배에 비추는 꿈을 사흘 동안 꾸고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햇빛이 비추어졌기에 건명이라 불렀다고 합니다. 여러 스님들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가 그러했듯이,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남달랐습니다. 몸가짐이 단정했고 진중했으며 소처럼 성실하고 호랑이처럼 예리했습니다. 어릴적 부터 승려가 되고자 하여 9살 때 무량사로 출가하였고, 14살 때 진전사에서 구족계를 받아서 승려가 되었습니다. 그 후 여러 선사들을 찾아다니며, 선수행을 하여 선사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습니다. 22살 때 승려들의 과거시험인 승과를 보고 수석 합격하였습니다. 하지만, 수도에 머무르지 않고, 경상북도 대구 근처 비슬산 보당암에서 머물면서 수행에 집중합니다. 비슬산은 신선이 거문고를 타는 모습이라고 해서 비슬산이라고 부르는데, 절이 여기저기 많았고, 일연은 22년 간 그곳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1236년 가을에 전쟁이 있어서 피난을 떠나기 앞서 문수보살에게 기도를 했는데, 문수보살이 나타나 무주에서 머물라고 말해줍니다. 무주가 어디인지 몰랐으나, 우연히 비슬산 북쪽에서 무주암을 발견합니다. 문수보살의 말을 따라 무주암에서 머물며, “중생의 세계가 줄어드는 것도 아니요, 부처의 세계가 늘어나는 것도 아니다”라는 화두를 가지고 수행을 합니다. 그러다 어느날 갑자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 때 일연은 “내가 오늘야 삼계가 허깨비 같고 꿈 같은 줄을 알아서 산하대지를 보는데 털끝만큼의 막힘도 없다.”고 말하였다고 합니다.

강좌내용

삼계는 불교에서 말하는 세계 전체를 말하는 개념으로 욕망의 세계, 물질의 세계, 정신의 세계를 말합니다. 욕망의 세계는 이전에 말씀드린 욕도, 지옥, 축생, 아귀, 아수라, 인간, 천상의 세계를 말합니다. 산하대지는 산, 강, 들판으로 중생, 생명체들이 살고 있는 공간을 말합니다. 삼계는 전 우주를 말한다면, 산하대지는 내가 살고 있는 세계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수행했던 화두를 생각해 보면, 깨달음은 부처의 세계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깨달음을 추구하다 보면 부처의 세계를 강조하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둘을 나눠보고, 부처의 세계를 더 갈망하게 되지요. 그러나, 불교의 깨달음은 자의 관점에서 보면, 부처의 세계와 중생의 세계가 각자 실체가 있어 나뉘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구분이란 것은 우리의 관념에 의한 것이며, 그러한 생각과 관념이 만들어낸 차별을 벗어나 보면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 보이는 것입니다. 그 체험을 일연은 하게 되었고, 깨달음을 얻어 모든 세상을 보는 데에 막힘이 없게 된 것입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 왕실로부터 사문대사, 선사의 직위를 받고 44세 때 남해 정림사에 가서 대장경 간행을 돕게 됩니다. 이후 왕의 부름을 받아 강화 선월사에 머물면서 왕에게도 강의를 하며, 지눌의 가르침을 이어 갑니다. 당시 공부와 수행의 깊이가 깊어서 많은 승려의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후 다시 비슬산으로 돌아가 이번에는 인홍사에서 머뭙니다. 인홍사 건물이 오래되어 국가의 지원을 받아 다시 짓고 인홍사라 이름을 바꾸어 머뭙니다. 충렬왕의 명을 받아 1227년 운문사로 옮겨 거기에서 경전을 주석하면 5년간 지냅니다. 1281년 78세일 때 일연을 존경던 충렬왕이 국사의 직위를 주었는데, 원나라에서 쓰는 국사라는 명칭을 피하기 위해 국존으로 바꾸어 보각국존이라고 하였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듯이 일연이 살았던 시기는 고려가 그리 안정된 상태는 아니었습니다. 무신정권과 몽골의 침략, 그리고 국존이 되었을 때는 원나라가 고려를 간접적으로 지배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민족적 자존심을 지키고 싶었던 마음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러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이후 인각사로 거처를 옮깁니다. 그곳에서 선종의 구산문이 모이는 법회를 열어 선종이 다시 융성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일연스님이 돌아가시기 전 다른 스님들과 나눈 선문답은 그가 단순히 삼국유사를 집필한 저술가일뿐만 아니라 뛰어난 선사였음을 잘 보여줍니다.

한 스님이 묻습니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쿠시나가라에서 열반에 드실 때와 스님이 여기 인각사에서 돌아가실 때는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일연스님이 주장자, 수행자의 지팡이를 들어서 한번 내리치고는 물었다. “이것이 거리가 얼마나 되느냐” 그러자, 그 스님이 “그렇다면 옛날과 지금이 멀리 떨어짐 없이 함께 분명 눈 앞에 있습니까?”라 묻자, 스님이 주장자를 다시 한번 더 내리치고 “분명 눈 앞에 있도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그 스님이 “뽕 셋 달린 기린은 바다 속으로 들어가고, 허공에 남은 조각달은 파도 속에서 나옵니다.”라고 하니 일연스님이 답하기를 “언젠가 다시 온다면 그대와 한바탕 놀아보리라.”라 하며 기뻐하였다고 합니다.

질문하는 스님이 석가모니 부처와 일연스님의 열반의 거리를 묻습니다.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발생하는 사건이니 당연히 거리가 있으나, 일연스님은 주장자를 내리치는 행동을 통해 거리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불교적 시간과 공간 개념에서는 한 사건은 과거의 사건과 동시적으로 존재할 수 있거든요. 그래도 스님이 재차 확인하자, 다시 확인해줍니다. 분명 바로 이 눈앞에 둘다 있다고. 그러자 질문했던 스님이 삶과 죽음에 얽매임 없는 자유로운 경지에 대한 이해한 표현을 말하니 기뻐하십니다.

또 다른 스님이 묻기를 “스님 돌아가신 뒤에 무엇을 해드릴까요?” 하니 “이것뿐이다”라고 대답하자, 그 스님이 “임금님께 탑을 하나 만들어 달라해도 괜찮지 않을까요? “ 어디 갔다오느냐? “ 그래도 물어봐야지요.” “ 이 일만 알면 그만이다.”

강좌내용

제자스님은 스님이 돌아가신 후 무언가를 남기고 싶어 물으나 “이것뿐이다”라는 선사다운 대답을 하십니다. 애착을 버리고 현재에 집중하는 것이 선수행자의 자세니까요.

또 다른 스님이 좀 더계시다 가르침을 더 퍼다 가시면 안되겠냐 말하니, 가는 곳마다 부처님 일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이렇게 문답을 마치신 뒤 제자들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십니다.

“매일같이 공부하는 경지를 보고하여라. 가렵고 아픈것과 가렵고 아프지 않은 것이 모호하여 구분이 되지 않는다.” 라고 하며, 주장자를 내려치시며 “이것이 아픈 것이다” 하고 다시 내리치며 “이것이 아프지 않은 것이다”하고 다시 또 내리치고 “이것은 아픈 것이냐, 아프지 않은 것이냐 한번 가려내 보아라” 하셨습니다.

어려운 질문인데, 이것을 알 수 있다면 저희가 깨달은 것이겠지요.

그리고 나서 방으로 들어가셔서 입적하셨는데 그 모습이 마치 살아있는 듯하였다고 합니다. 그 때 계시던 방에서 뒤쪽으로 오색광채가 깃발모양이 불꽃이 타오르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위로는 흰 구름이 덮개처럼 덮여있다가 빛이 하늘쪽으로 사라졌다고 합니다.

고려의 힘든 시기를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일연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후대의 사람들에게도 필요한 삼국유사를 남겨주었습니다. 그는 삼국유사를 통해 외부로부터 핍박받아 힘겨워하는 이들에게 민족의식을 고취하고, 한국 불교 문화의 뛰어남을 이야기하고자 했습니다. 사실 이 강의에서 소개한 많은 통일신라 시대까지의 스님들의 이야기는 삼국유사가 없었다면 소개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표, 자장, 의상, 원효.. 많은 스님의 이야기를 일연이 모아 저희에게 전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그가 남긴 삼국유사는 지금도 한국인들이 과거의 역사를 이해하는데에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마무리>

진표율사와 혜초스님은 자신이 목표한 바를 위해 용기를 내어 어려움을 마주하는 삶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물론 진표율사의 고행은 좀 지나칠정도의 수행이지만, 그러한 각오로 일을 한다면, 못 이룰 일이 있을까요? 혜초스님은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구요. 도선대사와 일연대사는 각각 자신의 자리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통해 더 많은 이들이 힘을 내어 살 수 있게 돕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분들의 삶의 태도는 격변의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가 어떻게 살아야하는지 여러가지 생각을 하게 합니다.

9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조선시대 불교 사상가들 1	교수자	이병욱
학습목표	- 조선 초기 승려인 무학과 함허득통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 김시습에 대해 알아보고, 허응당 보우의 생애와 사상에 대해 살펴본다. - 서산대사 휴정, 사명대사 유정의 생애와 사상, 부휴대사 선수에 대해 살펴본다. 그리고 휴정과 유정이 승병활동을 한 점에도 주목한다. - 조선 불교사상가들의 사상이 오늘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아본다. 불교가 탄압받을 때, 불교사상가의 관점과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불교의 역할에 대해 주목한다.		
핵심어	무학, 함허득통, 김시습, 보우, 휴정, 유정 선수, 유불일치론, 의승병		
주요흐름	조선시대에 활동했던 주요 불교철학자들의 생애와 사상을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조선 건국에 기여를 했던 무학, 유학자들의 비판 속에서 불교와 유교의 유사점을 이야기했던 함허득통과 불교적 사유에 긍정적이었던 김시습에 대해서 공부한다. 이후 탄압받던 불교의 부흥을 꿈꾸며 활동했던 보우, 임진왜란 때 승병으로 참여해 불교의 위상을 높인 휴정과 유정과 반면에 승병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불교의 가르침을 지켜가려던 선수에 대해서 공부한다.		
읽기자료	이병욱, <한국불교 사상의 전개>, 집문당,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기타학습요소	영상 81분 8초 토론 1문항, 부록영상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 불교는 불살생을 이야기하는데, 승려가 군인으로 참여한 것은 어떻게 보아야할까?

[조선시대의 불교사상가 I]

I. 무학대사의 생애와 사상

1. 무학대사의 생애

무학(無學, 1327-1405)은 삼기군(三岐郡, 경남 함천군 대방면) 사람으로 휘는 자초(自超)이고 호는 무학이다. 무학은 18세에 출가하였다. 무학은 20세 되던 해의 겨울에 『능엄경』을 보다가 깨우침이 있었다. 이때부터 잠자는 것과 먹는 것을 잊고 참구하는 데 전력을 다했다. 23세 되던 해의 가을에 길상사에 가서 3년 동안 있었고, 26세 때의 여름 묘향산 금강굴에 있었는데 수행의 공(功)이 더욱 늘어났다. 그래서 혹시 무학대사가 도를 닦다 혹 즐기라도 하면, 큰 종을 치는 듯한 소리가 들려서 무학대사를 경책하였다. 그때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어서 스승에게 자기가 깨달은 경지에 대해 묻고 싶어했다. 그래서 27세 때의 가을에 원나라의 수도인 연경에 가서 지공(指空)을 만나 뵈었다. 그때 지공이 무학의 깨달은 경지에 대해 인정하였다고 한다.

그리고 나서 무학은 다음 해(28세) 가을에 법천사에 들러 나옹을 뵈었다. 나옹은 무학을 한 번 보고서 무학이 불법의 큰 재목임을 인정하였다. 그리고 나서 무학은 무령과 오대산을 유람하고, 다시 서산의 영엄사에 있던 나옹을 찾아갔다. 무학은 나옹의 문하에 수년 동안 있었는데, 하루는 무학이 선정에 깊이 들어 식사시간인 줄도 모르고 선정에 들었다. 그러자 나옹이 이를 보고 “그대는 죽은 것이 아니냐?”고 하였는데, 무학은 웃으면서 대답하지 않았다.

어느날 나옹은 무학의 깨달은 경지가 매우 깊은 것임을 확인하고서 밤에 무학을 부른다. 그리고 나서 나옹은 말하기를 “오늘에야 내가 그대를 속이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였고, 그 뒤에 무학에게 다시 말하기를 “서로 아는 사람이 천하에 가득 찼다고 해도, 마음을 알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는가? 그대와 나는 한 가족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또 말하기를 “도(道)와 사람의 관계는 코끼리와 상아의 관계와 같다. 비록 감추고자 해도 그럴 수 없는 것이다. 그대는 뒷날에 어찌 사람을 위해서 앞에 나서는 걸출한 인물이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였다. 1392년(66세)에 무학은 왕사가 되어서 회암사에 머물렀다.

2. 무학대사의 사상

무학의 선사(禪師)로서의 진면목은 이성계가 조선조를 세운 후, 이성계의 생일날 불교계의 사람을 다 불러놓고 법회를 열었는데, 그 법회에서 무학대사가 설법한 말속에서 찾을 수 있다. 곧 “마음의 근본자리는 부처도 도저히 말할 수 없는 것이고, 조사(선종의 위대한 인물)들도 이것을 제자들에게 전하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전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이런 마음의 근본자리에 대해 생각으로 따져 알거나, 입으로 이렇다 저렇다 라고 말한다면, 이미 선종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였다.

무학은 이런 선사상(禪思想)에 근거해서 유불일치(儒佛一致)를 주장했고, 영아행(嬰兒行: 어린아이 같이 천진스런 행)을 하였으며, 도읍지를 정하는데 풍수지리의 안목을 사용하였다.

첫째, 무학은 유교와 불교의 일치를 주장하였다. 태조 이성계의 생일날에 이태조에게 말하기를 “유가에서는 인(仁)이라 하고, 불가에서는 자비(慈悲)라고 하는데, 그 용(用)은 한 가지입니다. 백성을 보호하시기를 어린아이와 같이 하여야 백성의 부모라고 할 수 있으며, 지극한 인(仁)과 대 자비로 나라에 임해야 자연히 임금님의 수명이 끝이 없고, 임금님의 자손이 번창하며, 사적이 편안할 것입니다”라고 하였다. 이 짧은 말에서 올바른 정치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 그 요점은 백성에게 인(仁)과 자비를 베풀라는 것이고, 그 점에서 유교와 불교는 같다는 것이다. 이는 유교 쪽에서 불교를 비판하기를 “불교가 사회에 암적인 존재이지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없다”라고 한 것에 대해 반론한 것이다.

둘째, 무학은 영아행(嬰兒行)을 행하였다. 영아행은 어린아이와 같이 천진스러운 행을 하는 것이다.

강좌내용

어린이가 같은 행을 하는 것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어리석어서 어린이가 같이 행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선정에 깊이 들어 본래면목을 회복하면, 그 행동이 어린이가 같이 된다는 것이다. 물론 무학의 영아행은 후자(선정에

깊이 들어간 상태)에 속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학은 말하기를 “팔만 가지 행(行) 중에서 영아행이 제일이다”라고 하였다. 그리고 무학은 이러한 영아행을 잘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람을 대할 때는 공손하였고, 중생을 사랑하는 정성도 남달랐다. 이런 것이 모두 영아행에서 우러나온 것이다.

셋째, 무학은 풍수지리에 능하였다. 이태조가 도읍지를 정하려 하여 무학에게 같이 갈 것을 명령하였는데, 무학이 사양하자, 이태조가 무학에게 말하기를 “옛날과 지금에 우리가 서로 만난 것에는 반드시 인연이 있을 것이고, 세간의 사람이 풍수지리를 하는 것이 어찌 무학대사의 도안(道眼)만 하겠습니까?”라고 하였다. 이것은 무학이 선(禪)수행을 통해서 도의 안목[道眼]이 밝고, 그 바탕 위에 풍수지리에도 능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II. 함허득통의 생애와 사상

1. 함허득통의 생애

함허득통(涵虛得通, 1376-1433)은 법명은 기화(己和)이고, 법호(法號)는 득통(得通)이며, 당호(堂號)는 함허(涵虛)이다. 함허는 출가하기 전에 성균관에 들어가 유학을 익혔고, 21세(1396)에 출가하였으며, 22세 때 회암사에서 무학자초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42세(1417) 때부터 2년 동안 3번이나 『금강경오가해』를 강의하기도 하였다. 46세(1421)에 임금의 명령으로 대자사(大慈寺)에 머물기도 하였고, 56세(1431)에는 회양산 봉암사를 중건하고, 그 곳에서 교화에 힘썼다.

그의 저술로는 『금강반야바라밀경오가해설의』 2권, 『금강반야바라밀경륜관』 1권, 『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설의』 3권, 『선종영가집과주설의』 2권, 『현정론』 1권, 『함허당득통화상어록』 1권이 있다.

2. 함허득통의 사상

(1) 삼교일치론

『현정론』에서는 유교, 도교, 불교가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처럼 일치한다고 한다. 그러면서도 은연중에 불교의 우월성을 시사하기도 한다.

묻는다. 도교와 유교와 불교의 동일점과 차이점, 삼교의 우열은 어떠한가? 답한다. <중략> 이러한 내용에 근거하면 삼교(유교, 도교, 불교)에서 말한 것은 그윽히 서로 부합하는 것이 마치 한 사람의 입에서 나온 것과 같다. 만약 실천의 높고 낮음과 활용의 같고 다른 점[同異]에 대해서는 마음의 때를 다 씻어내고 지혜의 눈을 넓히고 맑게 한 뒤에, 대장경과 유교와 도교의 모든 서적을 다 보고 나서 일상의 생활에서 참고해 보고, 태어나고 죽고 화(禍)와 복을 겪어 참고해 본다면, 나의 말을 듣지 않고도 저절로 머리를 끄덕일 것이다. 어찌 내가 억지로 삼교의 우열을 밝혀서, 나의 말을 잘 듣고 있는 그대를 놀라게 하겠는가?

[『현정론』 (『한국불교전서』 7권, 225상-중)]

(2) 기화가 제시하는 삶의 자세

구체적으로 일상생활에서 어떤 모습을 살아갈 것인가? 기화는 일상의 모습은 평범한 사람과 같이 하고, 그 안에 품고 있는 도(道)는 성인과 같게끔 하라고 조언한다. 그래서 자신을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어서, 그 사람에게 존귀한 자리가 돌아가게끔 처세하라고 권한다. 그 이유는 자신은 낮추어

강좌내용

서 가난해지면, 외형은 별거벗은 모습일지 몰라도, 그 마음속에는 깨달음이라는 무진장한 보배가 간직되어 있기 때문이다.

자신을 낮추어 비굴함에 거처하고, 다른 사람을 추대하여 존귀함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가게 한다. 자취는 범부(보통사람)와 동일하고, 도(道)는 성인(聖人)과 같다. 그러므로 “가난하면 몸은 항상 배움을 입지만 도(道)의 입장에서 보자면 마음에 가치를 매길 수 없는 보배가 간직되어 있다”고 말한다.
[『선종영가집과주설의』 상권 (『한국불교전서』 7권, 174중)]

그 다음, 기화는 일상생활의 마음자세를 보다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우선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할 것을 말하고 있다. 호의호식을 구하지 말고, 가난을 택하며, 번뇌의 근원지인 몸에 대한 집착을 떨 수 있는 한, 줄이려고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한다. 그래서 이런 자세는 결국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한 것으로 승화되고, 더 나아가서 아주 작은 생명체(미물)이라도 거두어들이 줄 아는 자비의 마음을 간직하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런 마음자세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는 철두철미한 것으로 자리 잡아야 된다고 기화는 강조한다.

몸을 청결하게 하고 마음을 청정하게 하며, 좋은 반찬을 버리고 가난을 따르고, 몸을 잊는 것을 법(法)으로 삼으며, 중생을 건지는 것을 급하고 간절하게 생각하여 작은 생명체[미물]이라도 버리지 않고, 도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피곤하다거나 싫증 내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러한 것을 생각하고, 이러한 것만을 간직하고 있다. 그래서 빈천(貧賤: 가난하고 천함)도 그 뜻을 굽힐 수 없고, 부귀도 그 마음을 움직일 수 없고, 위력과 무력도 그 지조를 빼앗을 수 없고, 아름답고 고운 것도 그 마음을 어지럽게 하지 못한다.
[『선종영가집과주설의』 상권 (『한국불교전서』 7권, 173하)]

기화의 이런 입장은 몸, 목숨, 재산의 3가지 견고한 것에 대한 이해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기화는 ‘몸’은 아침이슬과 같이 빨리 사라지는 것이고, ‘목숨’도 서쪽에 뉘엿뉘엿 저 가는 황혼과도 같이 금방 없어지는 것이고, ‘재산’은 물거품과 같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범부의 일상생활에서는 몸, 목숨, 재산이야말로 정말로 중요한 것이고, 이것을 위해 자신의 모든 정열과 시간을 바치지만, 기화는 이런 것에 집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는 것이다. 그 대신, 깨달음을 얻어서 진정한 몸, 진정한 목숨, 진정한 재산을 얻으라고 말한다.

3가지 견고한 것[三堅]은 몸은 아침의 이슬과 같고, 목숨은 서쪽에 지는 해의 빛과 같고, 재물은 물거품과 같다는 것이다. 이것(몸, 목숨, 재물)은 번뇌가 있는 것[유루]이어서 모두 견고하지 못한 것에 속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몸이 비어 있고 허깨비 같은 줄 알아서 버리고 아끼지 않으며, 이러한 점에 의지해서 수행해서 번뇌 없는[무루] 가르침의 몸[법신]을 얻는다. 그리고 지혜로운 사람은 목숨이 비어 있고 허깨비 같은 줄 알아서, 이 생각을 기억하고 기억해서 한 순간도 나태한 마음을 내지 않는다. 그래서 번뇌 없는[무루] 지혜의 목숨을 얻는다. 지혜로운 사람은 재산에는 번뇌가 숨어 있음을 알아서 버리고 아끼지 않는다. 그래서 번뇌 없는[무루] 가르침[법]의 재물을 얻는다. 이것이 ‘3가지 견고한 것[三堅]’이다.

[『선종영가집과주설의』 상권 (『한국불교전서』 7권, 180중)]

III. 김시습

설잠(雪岑) 김시습(金時習, 1435-1493)은 생육신(生六臣)의 한 사람으로 자는 열경(悅卿)이고 호는 매월당(梅月堂)이며 본관은 강릉이다. 김시습은 3세에 시를 지었으며, 5세에 『대학』과 『중용』을 공부해서 신동으로 불리었다. 김시습은 5세 때에 이미 세종대왕의 총애를 받았다고 한다. 21세

강좌내용

때에 삼각산 증흥사에서 공부하고 있었는데, 수양대군(세조)가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는 승려가 되었고, 법호는 ‘설잠’이라고 하였다.

31세(1465년)에 경주 금오산에 금오산실(金烏山室)을 짓고, 7년 동안 머물렀다. 37세(1471년)에 서울로 올라왔다. 그러다가 47세(1481년)에 환속해서 안씨를 맞이해서 결혼을 하였다. 그런데 얼마 되지 않아 아내 안씨가 죽고 말았다. 이후 관동지방 등지로 방랑의 길을 떠났다. 마지막에는 충청도 홍산(鴻山) 무량사(無量寺)에 머물렀다.

김시습은 유교, 불교, 도교의 삼교에 두루 밝았다. 또 김시습은 율곡 이이로부터 백대(百代)의 스승으로 추앙받은 인물이다. 불교사상 쪽으로는 천태사상과 화엄사상과 선사상을 자신의 안목으로 융합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불교관련 저술로는 『법화경별찬』과 『화엄일승법계도주』, 『십현담요해』, 『조동오위요해』가 있다.

IV. 허응당 보우의 생애와 사상

1. 허응당 보우의 생애

허응당(虛應堂) 보우(普雨, ?-1565)는 조선전기에 불교의 세력을 복원하기 위해 노력하다 돌아가신 분이다. 한국불교사에서 순교자로 널리 알려진 사람이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이 이차돈(異次頓)이고, 다른 사람이 바로 허응당 보우이다.

보우는 1548년에 문정왕후의 신임을 얻어서 봉은사 주지가 되어서 불교의 세력을 일으키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1550년에는 선종과 교종을 다시 생기게 하였고, 1551년에는 선종판사(선종을 총괄하는 승직)가 되었다. 1565년 문정왕후가 돌아가자 제주도에 유배되어 제주목사 변협(邊協)에 의해 참형되었다. 보우의 저술로 『허응당집(虛應堂集)』 상·하권, 『나암잡저(懶庵雜著)』 1권, 『수월도량공화불사여환빈주몽중문답』 1권이 있다.

2. 허응당 보우의 사상

(1) 선교일치

허응당 보우는 선(禪)과 교(敎)가 다른 것이 아님을 말한다. 다음의 시(詩)에서 선교일치의 내용을 엿볼 수 있다.

至道從來無彼我 지극한 도(道)는 원래부터 자기와 다른 사람이라는 구분이 없는데
奈何君輩鬪宗能 어찌 그대들은 종파의 뛰어남을 갖고 싸우는가?
先恩兩寺皆王化 앞서 두 사찰에 은혜를 내려준 것은 모두 왕의 교화이고
難葉同師一佛乘 아난과 가섭은 일불승(一佛乘: 궁극의 가르침)을 스승으로 같이 섬겼다.
敎卽是禪禪卽敎 교(敎)가 그대로 선(禪)이고 선(禪)이 그대로 교(敎)이니
氷應元水水元氷 마치 얼음은 원래 물이고 물은 원래 얼음인 것과 같아라.
欲知禪敎眞無二 선(禪)과 교(敎)가 진정 둘이 아님을 알고 싶다면
看取須彌最上層 수미산(우주의 중심에 있는 산)의 최고 높은 곳을 보아야 할 것이다.
[『허응당집』 하권, 「시양종장무(示兩宗掌務)」 (『한국불교전서』 7권, 562하)]

四十九年金口說 49년 동안 부처가 하신 말씀이여!

如珠百鍊久來新 마치 구슬을 백 번 단련하는 것과 같아서 오래될수록 새로워라.

飲光微笑禪燈朗 가섭(선을 대표하는 인물)의 미소(염화시중의 미소)로 인해 선(禪)의 등불이 밝았

고

慶喜多聞教海彬 아난(교를 대표하는 인물)의 다문(多聞: 보고 들은 것이 많음)으로 인해 교(敎)의 바다가 빛난다.

講得默觀知性本 강의하는 것으로 묵관(默觀: 고요히 관조함)을 얻는다면 성품의 근본을 알 것이고
默從喧講悟心眞 침묵[默]이 시끄러운 강의를 따른다면 마음의 진실을 깨달을 것이다.

吁嗟逐末虛頭客 오호라! 지말(枝末: 주변적 모습)을 따르는 어리석은 사람이여!

教淺禪深妄指陣 교(敎)는 낮고 선(禪)은 깊은 것이라고 허망한 손가락을 휘두르는구나.

[『허응당집』 상권, 「기감선인병답선교심천지문(寄鑑禪人并答禪教深淺之問)」 (『한국불교전서』 7권, 539하.)]

(2) 「일정론」의 사상: 유불일치

「일정론」의 구체적 내용을 알아보자. 우선 ‘일(一)’은 천하만물이 존재하고 변화하는 근거이다. 유교의 논리로 보자면 ‘천리(天理: 천지만물의 이치)’라고 볼 수도 있다. 이 세상의 모든 만물도 ‘일(一)’을 얻어서 존재하고, 봄·여름·가을·겨울의 변화와 낮과 밤의 변화도 이 ‘일(一)’로 인해서 생겨나는 것이다.

‘일(一)’은 ‘둘’도 아니고 ‘셋’도 아니어서 성실하여 허망함이 없는 것을 말함이다. 하늘의 이치[理]는 그 이치[理]가 비고 조용하여 조짐이 없지만 만 가지 모습이 뽁뽁이 들어서서 어떠한 사물도 갖추지 않음이 없다. 그런데 그 체(體)가 되는 것은 하나[一]일 따름이다. 어떤 사물도 ‘둘’이 되고 ‘셋’이 된 적이 없었다. 그래서 하나의 기운[一氣]의 움직임은 봄에는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여름에는 자라게 하며 가을에는 결실을 맺게 하고 겨울에는 간직하게 하며, 낮에는 밝고 밤에는 어둡게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을 과거에나 지금에나 계속되어 일찍이 한 순간도 어긋남이 없었다. 그리고 천하의 크고 가늘고 높고 낮은 것과 날고 잠수하고 움직이고(동물) 서 있는 것(식물)과 네모지고 둥글고 길고 짧은 것도 이 일(一)을 얻어서 생기지 않음이 없지만, 일찍이 조그마한 차이도 있지 않았다. 이것이 천리(天理)가 항상 하나이어서[一] 성실하여 허망함이 없는 이유이다.

[『나암잡저(懶庵雜著)』 「일정(一正)」 (『한국불교전서』 7권, p.581중)]

‘정(正)’은 사람의 마음이 본래부터 바르고 순수하여 섞임이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마음의 성품에서 측은지심(惻隱之心: 불쌍히 여기는 마음), 수오지심(羞惡之心: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지심(辭讓之心: 양보하는 마음), 시비지심(是非之心: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이 생기는 것과 희노애락(喜怒哀樂)의 거친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마치 거울에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한치의 오차도 없다는 것이다. 여기서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과 희노애락의 용어는 유교에서 사용하는 말이다. 이 점에서 「일정론」은 유교의 용어와 관점에서 불교의 내용을 서술하고자 하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정(正)’은 치우치지도 않고 간사[邪]하지도 않아서 순수하여 잡됨이 없다는 것을 말함이다. 사람의 마음은 그 마음이 고요하고 생각함이 없어서 천지만물의 이치[理]가 마음속에 갖추어지지 않음이 없고, 마음은 신령스럽고 어둡지 않아서 천지만물의 사물[事]이 응하지 않음이 없지만, 치우치게 하거나 간사[邪]하게 만드는 한 생각의 사사로움[私]도 일찍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나의 성품[一性]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惻隱]과 부끄러움을 아는 마음[羞惡]과 양보하는 마음[辭讓]과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이 일어나고, 나아가 희(喜)·노(怒)·애(哀)·락(樂)과 같은 거친 감정에 이르러서는 모든 일에 대응[應]하는 것이 마치 거울이 물건을 비추는 것과 같아서 한 가지 일도 어긋남이 일찍이 없었다. 이것이 사람의 마음이 본래 바르고[正] 순수하여 잡됨이 없는 이유이다.

강좌내용

[『나암잡저(懶庵雜著)』 「일정(一正)」 (『한국불교전서』 7권, 581중)]

허응당 보우는 ‘일(一)’과 ‘정(正)’의 의미를 앞에서와 같이, ‘일’은 천리로서 모든 존재와 변화의 근거이고, ‘정’은 사람의 마음이 바르고 순수하여 잡되지 않은 것이라고 말한 뒤에 이 둘이 하나라고 말한다. 그래서 천지만물과 내가 하나임을 주장한다. 이렇게 되면 사람의 근본이 천지의 근본이 되고, 사람의 마음이 천지의 마음이 되며, 나아가 나의 마음이 바르게 되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게 되고, 나의 기(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기(氣)도 순조롭게 된다고 말한다.

이치[理]라고 하고 마음[心]이라고 하여 비록 이름에는 차이점이 있지만 그 하늘[天]과 사람[人]의 이치[理]와 일(一)과 정(正)의 의미에는 일찍이 다름이 없었다. 그러므로 하늘이 곧 사람이고 사람이 하늘이며 하나[一]가 바름[正]이고 바름[正]이 하나[一]이다. 그리고 사람의 근본[體]이 천지의 근본[體]이고 사람의 마음[心]이 천지의 마음[心]이며, 사람의 기(氣)가 천지의 기(氣)이다. 천지의 상서로운 구름[慶雲], 서기가 감도는 별[景星], 다사로운 날씨에 부는 바람[光風], 비가 갠 날의 달[霽月]은 사람의 마음과 사람의 기(氣)가 드러나지 않음이 없는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천지만물과 본래 내가 한 몸[一體]이고 [따라서] 나의 마음이 바르면 천지의 마음도 바르고, 나의 기(氣)가 순조로우면 천지의 기(氣)가 순조롭다고 하는 것이다.

[『나암잡저(懶庵雜著)』 「일정(一正)」 (『한국불교전서』 7권, 581중-하)]

이러한 ‘일’과 ‘정’의 관계를 알고 나서 이것을 일상생활에 응용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일상생활 속에서 마음을 바르게 하면, 화(禍: 재앙)는 쫓지 않더라도 사라질 것이고 복(福)은 빌지 않더라도 올 것이라고 한다.

일(一)과 정(正)의 의미가 어찌 우연이겠는가? 생각건대, 우리 귀인(貴人)이 12시(時) 동안 가고 머물고 앉고 눕는 가운데 항상 이름[號]을 돌이켜보고 의(義)를 생각해서 우리의 일심(一心)이 항상 바르게 되도록 한다. 그래서 사물을 마주 대할 때 여러 가지 욕심을 섞지 않고, 성품[性]에서 일어난 정(情)을 조화시킨다면[渾] 자연히 화(禍: 재앙)는 쫓지 않더라도 화(禍)는 없어지지 않을 수 없고, 복(福)은 빌지 않더라도 복(福)이 원만해지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그 수명을 보호할 수 있고, 그 자손을 기를 수 있고, 하늘이 길러주는[天長]의 성인(聖人) 시대의 태평함 속에서 녹(祿)과 지위를 영원히 누릴 것이다.

[『나암잡저(懶庵雜著)』 「일정(一正)」 (『한국불교전서』 7권, 581하)]

V. 서산대사 휴정의 생애와 사상

1. 서산대사 휴정의 생애와 저술

서산대사 휴정(休靜, 1520-1604)은 호는 청허(淸虛)이고, 속성은 최씨이며, 오랫동안 묘향산에 머물렀기 때문에 ‘서산대사’라고 불리기도 한다. 휴정은 15세 때 진사과(進士科: 과거시험의 하나)에 응시하였지만 낙방하였다. 이에 몇 명의 친구와 남쪽으로 여행을 하다가 지리산에서 승인장로(崇仁長老)를 만나서 불교의 심오함을 알게 되었고, 결국 출가하였다.

휴정은 21세 때 부용영관(1485-1571)에게 선(禪)을 배워서 그의 법맥을 잇게 되었다. 33세 때 문정왕후에 의해 승과가 다시 생기자 이에 응시하여 합격하였다. 36세 때 선종판사(禪宗判事: 선종을 총괄하는 승직)가 되었고, 그 해 가을에 다시 교종판사(敎宗判事: 교종을 총괄하는 승직)까지도 겸하게 되어 선교양종판사(禪敎兩宗判事)가 되었다. 그렇지만 판사직이 승려의 본분이 아님을 깨닫고 그

강좌내용

자리에서 물러나서 금강산, 두류산(지리산), 오대산, 묘향산 등을 두루 돌아다니면서 제자를 지도하는데 힘썼다. 73세(1592) 때 임진왜란이 터지자, 임금은 휴정에게 팔도도총섭(八道都總攝: 조선시대 최고의 승직)이라는 직함을 주었고, 이에 휴정은 전국 사찰에 격문을 돌려서 전쟁에 참여하도록 격려했다. 그리하여 휴정의 제자를 중심으로 해서 승군(僧軍)이 형성되었는데, 그 숫자가 50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그 후 그 자리를 사명에게 물려주고, 85세 때 묘향산 원적암(圓寂庵)에서 세상을 떠났다.

저술로는 『선가귀감(선에 대한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것)』, 『삼가귀감(유교, 도교, 선에 대한 좋은 말을 모아놓은 것)』, 『청허당집』, 『심법요초』, 『선교석』, 『선교결』, 『설선의』, 『운수단가사(의례에 관한 글)』, 『삼로행적(청허의 스승에 관한 글)』이 있다.

2. 임진왜란 때 승병의 활동

휴정은 순안(順安) 법흥사(法興寺)에서 전국의 사찰에 격문을 띄워 승군을 모집하게 하였고, 황해도 의엄(義嚴)을 총섭(摠攝: 조선시대의 승직의 하나)으로 임명하고, 관동의 사명대사 유정(惟政)과 호남의 처영(處英)을 장수로 삼아서 승려를 동원하고 통솔하게 하였다. 1592년(선조 25년) 8월에 조헌과 함께 전사한 영규(靈奎)로 인해서 승군에 대한 조정의 인식이 호의적으로 바뀌었다.

승군은 임진왜란 초기에는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1595년(선조 28년) 4월 한양을 탈환하는 데 참여하고, 전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가기까지 해주산성과 평양성 탈환에 참여하였다. 그 이후에는 노동력이 필요한 수송과 산성을 건설하는 일을 주로 담당하였고, 해당 지역의 승려들이 이런 역사(役事: 토목사업과 건축사업)에 동원되었다.

임진왜란에서 활동한 승군의 장수는 대부분의 서산대사 휴정의 제자이었다. 휴정의 뒤를 이어서 도총섭에 임명된 의엄과 유정, 그리고 처영, 태능(太能), 인오(印悟), 법견(法堅), 해안(海眼) 등이 휴정의 제자이었다.

이 중 뛰어난 활약을 보인 승려는 유정이었다. 그는 승려의 신분으로 일본에 건너가 외교교섭을 벌였고, 이는 조정에 깊은 인상을 심어주었다.

승군의 장수와 승군의 활동에 대한 대가는 군직(軍職: 무관의 벼슬)과 선과(禪科: 승과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도첩, 곧 승려신분증을 의미)를 주는 것이었다. 도총섭이 승려들의 공로를 평가하고 보고하는 대로, 선과를 발급해서 직접 나누어주게 하였고, 이것은 도총섭의 권위를 세워주어서 많은 승려를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배려이었다. 이를 통해 서산대사와 그 제자들은 불교계를 실질적으로 장악할 수 있었다.

그런데 도총섭이나 총섭은 비변사(備邊司: 국정을 총괄한 최고의 관청)에서 임명되고 통제되었고, 승군의 노동력이 필요할 때마다 관청에서 임시적으로 도총섭을 임명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후기에도 필요에 의해 계속 지속되었는데, 이는 불교계에 큰 부담을 주는 일이었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서 보자면, 불교의 사회적 위치를 높이고, 사회적 역할을 확보한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었다.

그러나 임진왜란에 승군으로 활동한 것에 대한 문제점도 드러났다. 휴정의 제자 정관일선(靜觀一禪, 1533-1608)은 전쟁의 상황에서 승려들이 본분을 잊어버리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승려들이 절을 떠나 활동해서 속세의 습관이 생겨나고, 그래서 출가한 본래의 뜻을 잊어버리고 계율을 버리고서 헛된 명성만을 쫓아다니는 폐단이 생겼다”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물질적인 피해와 경제적 피해도 엄청났다. 병란과 약탈의 피해와 경작지의 황폐화를 겪었고, 더구나 지역별로 승군을 동원하고 나누는 과정에서도 부담이 늘어났다.

그리고 승군의 운영을 자급자족의 체계였는데, 그것은 둔전(屯田: 개간하지 않은 땅, 이 땅을 개간해서 국방에 활용함)이나 사위전(寺位田: 사원전, 사원에 소속된 토지)에서 생산된 쌀을 가지고 해야 운영하는 것이다. 이러한 승군 운영의 현실적 어려움을 낳았고, 그러자 공을 세워 직책을 받은 많은

강좌내용

수의 승려가 환속하기도 하였다. 여기에다 승군의 위세가 지나치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승군이 관청의 일을 돕는 것에서 여러 가지 폐단도 생겨났다. 승려의 사회적 활동과 세력확대에 대한 비판과 우려가 일어난 것이다.

3. 휴정의 사상

휴정의 사상은 선사상을 중심을 두면서도 경전을 읽고, 염불하고, 진언을 외우는 수행을 보조적으로 인정하는 것이다. 나아가 유교와 도교와 불교의 일치도 주장한다. 이것이 조선조 불교의 기본적인 틀이 되었다.

여기서는 『선가귀감』의 내용을 간단히 알아본다.

우선, 『선가귀감』에서는 교의(敎義: 가르침의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는 그것을 버리고 선지(禪旨: 선의 의미)를 공부(참구)하라고 한다.

그러므로 배우는 사람은 먼저 여실한 가르침으로 불변(不變: 핵심적인 것)과 수연(隨緣: 가변적인 것)의 두 가지 의미가 자기 마음의 성품[性]과 모습[相]임을 자세히 밝히고, 돈오(頓悟)와 점수(漸修)가 자기 수행의 처음과 끝이라는 것을 자세히 밝힌 연후에 교의(敎義)를 놓아버리고, 다만 자기 마음에 나타난 한 생각으로 선지(禪旨)를 공부(참구)해서 자세히 해나가면, 반드시 얻은 바가 있을 것이다. 이것이 이른바 몸을 벗어나는 활로(活路)라는 것이다.

[『선가귀감』 (『한국불교전서』 6권, 636중)]

그리고 『선가귀감』에서 “원컨대 모든 도를 구하는 사람은 자기의 마음을 깊이 믿어 스스로 굽히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라고 하고,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주석을 하고 있다.

자신을 굽히는 것은 교학자(敎學者: 이론을 공부하는 사람)의 병이고, 자신을 높이는 것은 선학자(禪學者: 선수행자)의 병이다. 교학자는 선문(禪門: 선종)에서 깨달아 들어가는 비밀스런 가르침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교학자는 방편의 가르침을 깊이 믿고, 진실과 허망을 따로 집착해서 관행(觀行: 관법)을 닦지 않고, 다른 사람의 보물을 세고 있기 때문에 교학자는 스스로 물러서는 마음을 내는 것이다. 그에 비해, 선학자(선수행자)는 교문(敎門: 불교의 이론)에 마음을 닦고 번뇌를 끊는 바른 길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다. 그래서 선학자는 비록 번뇌가 일어나도 반성(참괴)하는 마음을 내지 않는다. 수준은 초보자인데 가르침에 대한 교만[法慢]이 많기 때문에 말하는 것이 도를 넘어 지나치다. 이러한 까닭에 뜻을 얻어 마음을 닦는 사람은 스스로 굽히지 말고 스스로 높이지 말라는 것이다.

[『선가귀감』 (『한국불교전서』 6권, 638중-하)]

VI. 사명대사 유정(惟政)의 생애와 사상

1. 사명대사 유정의 생애

유정(惟政, 1544-1610)은 자(字)가 이환(離幻)이고, 자호(自號)는 사명(四溟)이다. 속성은 임씨이고, 본관은 풍천(豐川)이다. 7세 때 할아버지에서 역사를 배웠고, 13세 때 고향을 떠나 황악산 아래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던 유촌 황여헌(黃汝獻, 1486-?)을 찾아가서 『맹자』를 배웠다. 그러다가 어느 날 “속세의 학문은 천박하고 좁은 것이어서 세속의 인연에 얽매어 있는 것이니, 어찌 불교의 가르침을

강좌내용

배우는 것만 같겠는가?”하고, 직지사(智異山)로 가서 신묵(信默)화상을 뵙고 출가하였다. 처음에 『전등록(傳燈錄)』을 읽기 시작하였는데, 다 배우지도 않았는데, 그 뜻을 깨달았다고 한다. 그래서 장로들도 유정에게 물을 정도였다고 한다.

유정은 18세 때에 승과에 합격하였고, 이후 여러 쟁쟁한 유학자들과 교류한다. 32세 때 선종의 핵심사찰 봉은사 주지로 천거되지만, 사양하고 묘향산의 서산대사 휴정을 뵙고 성종(性宗: 화엄사상)을 배운다. 유정은 3년 동안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성품이 안정되도록 하는 것[安心定性]에 뜻을 두어 바른 가르침을 얻게 된다. 35세 때 휴정을 떠나서 보덕사에서 3년을 보내고, 38세 때에는 팔공산, 청량산, 태백산 등을 두루 거쳐서 43세 때 옥천산의 상동암에서 무상(無常)의 이치를 크게 깨닫는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제 핀 꽃 오늘은 빈 가지 뿐이네, 인생도 그와 법이라네. 삶도 하루살이 같은 것인데 어찌 광음을 헛되이 보낼 것인가? 그대들도 신령스런 성품을 가지고 있는데, 일대사(깨달음을 얻는 것)를 마치지 않고 있으며, 부처도 내 마음 속에 있는데 어찌 밖으로만 내닫는가?

이후 유정은 홀로 선방에 들어가서 열흘 동안이나 선정에서 들어가기도 하였다. 46세 때 유정은 오대산 영감난야(靈鑑蘭若, 난야는 암자를 의미함)에 머물고 있었는데, 뜻밖에 정여립(1546-1589)의 역모(逆謀)사건에 얽히게 되어 강릉부(현재 강릉시)에 구속된다. 그러나 그곳의 유생(儒生; 유학을 공부하는 선비)들이 유정의 억울함을 진정하여 곧 풀려나게 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의 스승 서산대사 휴정도 모함을 받아서 임금의 국문(조사)을 받았지만 풀려나게 된다.

47세에 금강산에 들어가서 49세 때 임진왜란을 맞이하게 된다. 이 때부터 나라를 위해서 승병장으로 일하게 된다. 61세(1604년)에 일본에 수신사(修信使)로 가서 일본에 있던 3500여 명의 포로를 데리고 귀국하였다. 유정은 64세 때 치악산으로 들어갔지만, 선조가 돌아갔다는 말을 듣고 옆드려 곡하다가 병을 얻어 해인사로 내려가서 병을 치료한다. 광해군이 여러 차례 유정에게 약을 내리고, 관리가 서울로 모시고 와서 병을 고치게 하였지만, 67세 때 입적하였다.

문도들이 유골을 거두어 해인사 서쪽에 부도를 모시었다. 문하에 송월응상(宋月應祥) 등의 많은 제자가 있었고, 훗날 영조는 밀양에 ‘표충사(表忠社)’라는 액자[額]를 내려서 유정의 충성을 기리었다. 유정의 저술로 『사명당대사집』 7권, 『분충서난록』이 있다.

2. 사명대사 유정의 사상

(1) 화엄사상

유정은 『화엄경』을 중시하였다. 유정은 『화엄경』을 체(體)와 용(用)으로 나누어 본다. 체(體)는 생기지 않는다는 불생(不生)이고, 용(用)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불멸(不滅)이다.

크도다, 화엄(華嚴)의 돈교(頓教: 진리를 그대로 보여주는 가르침)여! 체(體)는 본래 불생(不生)이어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으며, 용(用)은 실로 불멸(不滅)이어서 이롭고 무너지짐도 없다. 이것이 많은 가르침의 근본이며 모든 법(法)의 종(宗)이다. 그러므로 하늘은 『화엄경』으로 인해 맑고, 땅은 『화엄경』으로 인해 평안하며, 그리고 『화엄경』으로 인해 산은 우뚝 서고 천은 흐르며, 『화엄경』으로 인해 새는 날고 짐승은 뛰어다니며, 『화엄경』으로 인해 초목은 쉬고 곤충은 움직인다.

[『사명당대사집』 제6권, 「화엄경발(華嚴經跋)」 (『한국불교전서』 제8권, 62상)]

(2) 수행관

유정은 인간은 누구라도 진리를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 유정은 어리석고 지혜로움이 고정된 것이

강좌내용

아님을 말하고 있다. 혼탁한 파도와 맑은 물이 그 근본은 같지만, 현상에서 보자면 서로 다르듯이, 범부와 성인(聖人)도 그 근본은 같지만, 현상에서 보자면 다르다. 따라서 가장 어리석은 범부도 진리를 자각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열려 있다.

맑은 거울과 혼탁한 금(金)은 원래 다른 것이 아니고, 혼탁한 파도와 맑은 물도 같은 근원에서 함께 나왔다. 따라서 그 근본은 같지만 그 지말(支末: 주변적 모습, 현재의 모습)이 다른 이유는 거울의 경우에는 닦고 닦지 않음에 있고, 물의 경우는 움직인 것과 움직이지 않은 것에 있다. 범부와 성인(聖人), 어리석은 사람과 못난 사람도 그 성품[性]은 이와 같다. 다만 미혹함과 깨달음으로 구별할 뿐이니 누가 어리석고 지혜로움에 중자가 있다고 하는가?

[『사명당대사집』 6권 「원준장로법화후발(圓俊長老法華後跋)」 (『한국불교전서』 제8권, 61하)]

그러면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어떠한가? 유정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수행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자력(自力)이다. 이는 한 생각에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다. 둘째는 타력(他力)이다. 이는 아미타불에게 귀의하여 극락정토에 태어나는 것이다. 여기서 자력(自力)은 선(禪)의 돈오(頓悟: 단박에 깨달음)를 의미하고, 타력(他力)은 정토(淨土)에 태어나는 염불수행을 의미한다.

[『사명당대사집』 제6권, 「원준장로법화후발」 (『한국불교전서』 제8권, 61하-62상)]

VII. 부휴대사 선수(善修)

부휴(浮休, 1543-1615)는 범명이 선수(善修)이고, 호는 부휴이며, 속성은 김씨이고, 전북 남원출신이다. 부휴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에게 “뜬세상이 매우 어두우니 저는 장차 출가하려고 합니다”고 했는데, 마침내 출가를 결심하고 지리산에 들어가서 신명장로(信明長老)에게 출가하였다. 부용영관(1485-1571)에게서 그의 가르침, 곧 심법(心法)을 배웠다.

그 후 한양에 가서 당시의 재상 노수신(盧守愼, 1515-1590)의 장서를 빌려보았는데, 7년 만에 다 보았다. 또한 필법도 매우 뛰어나서 당시에는 사명대사와 함께 상대하기 어려운 두 사람이라는 의미의 ‘이난(二難)’이라고 불리었다.

임진왜란 때, 부휴는 덕유산의 초암에 있었는데, 왜군이 왔다는 소문을 듣고 암굴에 몸을 숨기고 있다가 저녁 늦게 왜군이 물러갔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샣길을 따라 암자로 돌아가려고 하였다. 그 때 돌연히 왜군 10여 명이 숲속에서 나와서 칼을 휘둘렀으나, 부휴는 손을 모으고 서서 태연하게 있으면서 동요하지 않았다. 이에 왜군은 이상하게 여겨서 부휴에게 절을 하고 물러났다고 한다.

또한 광해군의 시대에 두류산(지리산)에 머무를 때의 일이다. 미친 사람의 무고를 당해서 제자 벽암(碧巖, 1575-1660)과 함께 한양에 압송 당해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 광해군이 부휴를 직접 만나고 가르침을 듣고 나서 크게 기뻐하여, 자란가사(紫欄袈裟: 보랏빛 천으로 장식한 가사), 벽릉장삼(碧綾長衫: 푸른 비단으로 장식한 옷), 염주 등을 선물로 주었고, 그밖에 전기한 물건들을 후하게 내려주었다.

부휴는 평생토록 신도로부터 받은 것을 한 가지도 간직한 적이 없고, 모두 필요한 사람에게 주었다. 그의 뛰어난 인품과 덕화(德化)로 인해 가르침을 묻는 무리가 700여 명에 이르렀다고 한다.

10 주 차 강 좌 운 영 방 안

강좌주제	조선시대 불교 사상가들2 / 마무리	교수자	이병욱
학습목표	- 조선후기 선사인 운봉대지의 사상을 알아본다. - 백암성총, 백곡처능에 대해 살펴본다. - 초의 선사의 생애와 사상, 문학과 다도에 대해 살펴본다. - 진묵의 삶을 설화를 통해 살펴보고 그것의 의미를 검토한다. - 월창거사 김대현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본다. - 조선 후기 사상가들의 사상 속에서 근대적 사유의 흔적을 알아본다.		
핵심어	운봉대지, 백암성총 백곡처능, 초의, 진묵, 김대현		
주요흐름	조선 후기 주요 선사들인 운봉대지, 백암성총, 백곡처능, 초의, 진묵의 생애와 사상을 살펴보고, 출가한 승려는 아니었지만, 불교 수행자로서 살아간 김대현의 생애를 시대적 순서대로 살펴본다.		
읽기자료	초의의 시, 불교신문사 편, 〈한국불교인물사상사〉, 민족사		
학습요소	영상 57분 51초 보고서, 참고도서 정보 제공		

기타학습요소 운영계획

[토론] 없음

[퀴즈&시험] 없음

[보고서]

한국불교 사상사들 중에서 마음에 든 철학자에 대한 에세이

[조선시대 불교사상가2]

I. 운봉대지의 생애와 사상

1. 운봉대지의 저술과 생애

『운봉선사 심성론』의 저자 운봉대지(雲峯大智)는 서산대사로 알려진 청허휴정(淸虛休靜, 1520-1604)의 제자계열에 속하는 인물이다. 청허의 제자에 편양언기(鞭羊彦機, 1581-1644)가 있고, 그 제자에 풍담의심(楓潭義諡, 1592-1665)과 우화설청(雨花說淸)이 있다. 『운봉선사 심성론』에서는 운봉이 ‘우화설청’의 제자라고 하며,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인도, 중국의 조사와 한국의 고승에 관한 글)』(『한국불교전서』 10권)에서는 운봉이 ‘풍담의심’의 제자라고 한다.

그리고 운봉의 저술 『운봉선사 심성론』에는 2개의 판본이 있는데, 국립중앙도서관 소장본에서는 제목이 ‘심성론’이고, 고려대학교 소장본에서는 제목이 ‘운봉선사 심성론’이며, 고려대학교 소장본의 간행년도는 1686년(숙종12년)이다.

운봉대지의 생애에 대해서는 현재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운봉선사 심성론』에 따르면, 운봉은 갑계(甲契: 승려들의 계)를 조직했고, 백련암(白蓮庵)을 중심으로 해서 백련(白蓮)염불결사를 이끌었음을 알 수 있다.

2. 운봉의 사상: 선교일치

운봉은 선교일치를 주장한다. 운봉은 불성(佛性: 부처가 될 가능성), 여래장(如來藏: 사람의 마음에 여래의 종자가 있음), 심지(心地: 마음)가 같다고 하는데, ‘심지’에 대해서는 달마가 전한 것이 바로 이 마음이라고 하고 있다. 여기서 불성과 여래장은 ‘교’에 속하는 개념이고 ‘심지’는 ‘선’에 속하는 것이므로 불성, 여래장, 심지가 같다는 것은 선교일치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교[性教]에서 말하기를 “모든 중생이 모두 공적인 진심[空寂真心]을 가지고 있고, 시작 없는 때부터 본래부터 성품은 스스로 청정하고 분명하여 어둡지 않고 밝게 항상 알고 있으며 미래를 다하도록 항상 머물고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것을 불성(佛性)이라고 이름하고, 또한 여래장(如來藏)이라고 이름하며, 또한 심지(心地)라고 이름한다. 달마(중국 선종의 초조)가 전한 것도 이 마음[心地]이다.

[『운봉선사 심성론』 (『한국불교전서』 9권, 12상)]

3. 운봉의 불교계 비판

운봉은 당시의 불교계에 대해 비판한다. 스스로 선사(禪師)와 장로(長老: 덕행이 높고 나이 많은 승려)라고 부르는 사람에 두 유형이 있다고 한다. 하나는 앞 시대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이는 마(麻: 삼)를 짚어지고 더 좋은 금(金)을 버리는 격이다. 다른 하나는 말은 그렇듯 하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미화하는 사람이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사람들에게 바른 지혜[正知見]를 열어줄 수 없다고 운봉은 비판한다.

또한 지금 선사(禪師)와 장로(長老)라고 스스로 부르는 사람에 두 가지 부류가 있다. 첫째는 앞의 말을 고집해서 마(麻)를 짚어지고 금(金)을 버리는 사람이다. 둘째는 족하다고 말하면서 자신의 그릇됨을 꾸미고 헛된 것으로 실질을 삼는 사람이다. 이 두 유형의 사람은 모두 헛된 경우에 속하는 것이다. 두 가지 유형의 사람은 실제로 결정된 뜻이 없으니 어찌 사람들에게 바른 지혜[正知見]의 사람이 될 수 있겠는가? 만약 결정된 뜻이 없다면, 소리를 듣고 점치는 사람과 같아서 사람들이 동쪽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사람을 따라서 동쪽으로 달리는 꼴이니, 가히 슬프고 탄식할 만하다.

강좌내용

[『운봉선사 심성론』 (『한국불교전서』 9권, 13하)]

이상 소개한 내용은 운봉이 당시의 불교계를 비판하고 있는 것이지만, 이는 현재의 불교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도 과거의 말씀만을 고집하고 새로운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선사가 있고, 또한 말을 그렇듯 하게 해서 자신의 잘못을 감추는 사람은 언제 어느 때도 존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II. 백암성총

백암성총(栢庵性聰, 1631-1700)은 속성은 이씨이고, 전라도 남원출신이며, 백암은 호(號)이고, 성총은 법명이다. 13세에 순창의 취산(鷲山) 취암사(鷲岩寺)에 출가하였고, 16세에 구족계(정식승려가 받는 계율)를 받았다. 18세 때에 방장산의 취미(翠微, 1590-1668)에게 가서 9년 동안 공부하고, 30세부터는 강사로서 경전을 강의하였다.

그 이후 이름난 산을 두루 돌아다녔는데, 특히 승주의 송광사(松廣寺), 낙안의 정광사(澄光寺), 하동의 쌍계사(雙溪寺) 등을 오가면서 후학을 지도하였다. 또한 외전(外典)에도 밝았고, 시문(詩文)에도 뛰어나서 당시의 이름난 선비와 교류가 잦았다.

1681년(숙종 7년) 51세 되는 해의 가을에 호남지방의 임자도(荏子島)에 사람은 타지 않고 불교경전만을 실은 큰 배 한 척이 도착하였다. 이는 명나라 평임엽(平林葉)거사가 찍어낸 『화엄경소초(華嚴經疏鈔)』, 『대명법수회헌기(大明法數會玄記: 가르침을 숫자에 의해 정리한 것)』, 『금강경기(金剛經記)』, 『기신론기(起信論記)』, 『정토보서(淨土寶書)』 등의 190권이였다. 이 소식을 들은 성총은 매우 기뻐하면서 대중(大衆)과 함께 절을 하고 이 책들을 간행하기도 결심하였다. 당시는 승려가 사회적으로 천대받고, 경제적으로도 궁핍하였을 때이므로, 불교서적을 구입한다든지 본다고 하는 것이 제약된 분위기라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성총은 궁중 등에 들어간 불교서적을 구입하고, 이미 흩어져 버린 불교서적을 여러 곳에서 다시 모아서 6년 만에 대부분 수집할 수 있었다. 이어서 9년이 지나서 1695년(숙종 21년)에 5천 판(板)으로 이를 새겨서 간행사업을 완수하였다. 그러자 성총은 ‘한 시대의 불교의 가르침을 일으킨 종사’라고 추앙받았으며, 동방에서 제일가는 공적이라고 칭찬받았다. 이와 같은 간행은 고려시대에 대각국사 의천이 여러 장소를 모아서 속장경을 만든 것과 비교할 수 있다고 하겠다. 성총은 주로 낙안의 정광사에서 판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승주 선암사(仙巖寺) 등에서 화엄대법회를 베풀었는데, 각지에서 모여든 여러 사람이 성총의 학덕을 존경하였다.

성총의 제자로 20여 명이 있지만, 주목할만한 인물은 무용수연(無用秀演; 1651~1719)이다. 무용은 침핑대사(枕肱大師)의 문하에서 공부하다가, 22세 때 성총에게 와서 공부하였고, 이것이 인연이 되어서 성총의 법제자가 되었다. 무용은 백운암과 송광사 등에서 공부하였고, 특히 성총이 정광사에서 『화엄경소』와 『정토보서』를 판각할 때 적극적으로 도왔으며, 성총이 선암사에서 화엄대법회를 열 때도 스승을 도왔다. 성총이 돌아간 뒤에는 그의 자리를 물려받아서 조선의 남방 불교계의 대종장(대종사)이 되었다.

III. 백곡처능

백곡처능(白谷處能, 1617-1680)은 속성이 전씨이고, 자(字)는 신수(愼守)이며, 법명은 처능이고, 법호는 백곡이다. 15세에 출가하여 속리산에서 살았다. 17~18세 무렵에 한양으로 올라왔는데, 한양에서 백곡은 한문과 유학(儒學)에만 전념하였다. 이 때 동양위(東陽尉: 정숙옹주와 결혼) 동애(東涯) 신익성(申翊聖, 1588-1644)의 집에 머물면서 경전과 역사에 관한 책을 읽고, 유학과 문학과 역사에

강좌내용

대한 깊은 이해를 얻었다.

동애 신익성의 집에 4년을 지낸 뒤에 무언가 미진함을 느끼고, 그 길로 지리산 쌍계사로 내려가서 벽암각성(碧岩覺性, 1575-1660)을 찾아뵙고 그의 제자가 되었다. 이 때가 20세를 조금 넘긴 무렵이었다. 벽암각성의 문하에서 20년을 공부한 뒤에 벽암각성의 가르침을 이어받았다.

그 뒤에는 백곡은 한양 가까운 산사에 머물렀다. 1674년 58세 때에 팔도선교도총섭(八道禪敎都摠攝)이 되어서 남한산성에 있다가 3개월도 못되어서 물러나고 말았다. 이후 백곡은 남북을 두루 다니면서 속리산, 성주산, 청룡산, 계룡산 등지에서 가르침을 펼쳤다. 백곡은 대둔산 안심사에 가장 오래 머물렀는데, 1680년(숙종 8년) 64세로 입적하였다. 그의 저술로는 『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이 전한다.

백곡의 『대각등계집』에는 국가에서 불교를 배척하는 정책에 반대하는 상소, 곧 「간폐석교소(諫廢釋敎疏)」가 있다. 현종이 즉위한 해(1660년)에 양민이 승려가 되는 것을 금지하고, 현종 2년(1691년)에는 한양 안에 있었던 ‘인수원’과 ‘자수원’의 두 곳의 비구니 사찰을 폐지시켰고, 봉은사와 봉선사 두 사찰도 폐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대해 백곡은 그것의 부당함을 알린 것이다. 이는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에서 승려가 승병으로 참여한 활동으로 인해 불교계의 힘이 어느 정도 성장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

IV. 초의선사의 생애와 사상: 백파와 논쟁

1. 초의의순의 생애와 저술

초의의순(草衣意詢, 1786-1866)은 자는 중부(中孚)이고 호가 초의이다. 초의는 전남 나주군 삼향면에서 태어났다. 15세 때 운흥사에서 벽봉민성(碧峰敏性)에게 출가하였다. 19세에 대흥사의 완호윤우에게 구족계를 받았다. 24세(1809년)에 강진에 유배생활을 하던 다산 정약용(1762-1836)을 만나서 유학(儒學)도 공부하였다. 39세(1824년)에 일지암(一枝庵)을 다시 세우고 그뒤로는 계속 이곳에서 머물렀다. 이 일지암이 초의의 사상을 형성시킨 곳이다.

초의의 저술로는 『선문사변만어(백파의 주장을 반박한 글)』, 『초의시고』, 『일지암문집』, 『동다송(다도의 경서라고도 말해짐)』, 『다신전(차와 관련된 내용을 뽑은 글)』, 『진목조사유적고(진목에 관한 설화를 모아놓은 글)』 등이 있다.

2. 백파의 입장: 3가지 선(禪)을 제시함

백파공선(白坡巨璇, 1767-1852)은 『선문수경』 등을 저술하였는데, 여기서 백파는 독자적 주장을 전개하였다. 백파는 선(禪)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접근한다. 백파가 구분한 세 가지 선은 조사선(祖師禪), 여래선(如來禪), 의리선(義理禪)이다. 이 중, 조사선의 경지가 가장 높고, 그 다음이 여래선이며, 맨 마지막에 있는 것이 의리선이다. 이 의리선은 선에 대한 교학적 이해라고 말할 수 있다. 대개 일반적인 선 불교 이해는 ‘의리선’에 그치거나, 아니면 ‘의리선’의 영역에도 들어가지 못한다.

그러면, 조주의 ‘무’자화두를 가지고 조사선, 여래선, 의리선의 예를 살펴보자. ‘무(無)’를 언어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이러한 ‘무’자화두에 대한 이해가 현실생활에 나타나는 여러 번뇌에 대해 전혀 힘을 쓰지 못한다면, 이는 ‘의리선’에 속한다. 그 다음, ‘무’의 의미를 어느 정도 체험하고, 그 ‘무’자화두에 대한 체험이 현실에 나타난 여러 근심과 걱정 등에 대항하는 힘이 되어준다면, 이는 앞의 ‘의리선’과는 그 수준이 다른 것이다. 그렇지만, 부처와 같이 아주 번뇌를 끊어버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더 수행해야 한다. 이것은 ‘여래선’에 속한다. 그 다음, ‘무’의 의미를 완전히 깨달아서 부처님의 경지와 같이 어떤 번뇌도 다 끊는다면, 이는 ‘조사선’의 경지이다.

3. 백파에 대한 초의 비판

초의는 선(禪)은 부처의 마음이고, 교(敎)는 부처의 말씀이므로, 이 둘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입장에서 출발한다. 그래서 진실한 본래 참마음을 깨달으면, 교(敎)도 선의 경지에서 읽을 수 있고, 언어에 집착하여 진리에 어두우면, 선의 이치를 담은 말씀이라 해도 교(敎)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 그래서 초의는 언어에 집착하지 말고, 본래의 참마음을 단박에 깨달을 것을 강조한다.

이런 입장에서 초의는 백파가 선(禪)을 세 종류로 구분한 것에 대해 비판한다. 그 대안으로 초의는 두 종류의 선(禪)을 제시한다. 그것은 ‘조사선’과 ‘여래선’이다. 초의가 말하는 ‘조사선’은 언어를 벗어난 선인데, 이것을 격외선(格外禪)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초의가 주장하는 ‘여래선’은 언어 속의 선인데, 이것을 의리선(義理禪)이라고도 한다.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조사선’과 ‘여래선’을 구분하고, 가르침을 기준해서는 ‘격외선’과 ‘의리선’으로 구분한다는 것이 초의의 주장이다. 다시 말하면, 언어로 전하지 않고 마음과 마음으로 전한 것이 ‘조사선’과 ‘격외선’이며, 언어에 의지해서 이치와 뜻을 밝힌 것이 ‘여래선’과 ‘의리선’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조사선’과 ‘여래선’은 고용주와 고용인과 같이, 서로 우열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4. 초의의 문학과 다도(茶道)의 세계

초의는 문학과 다도를 통해서 깨달음의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음을 보여주려고 노력하였다. 영조 때, 이 조판서와 대제학을 지낸 홍석주(洪奭周, 1774-1842)는 『초의시고』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초의를 평가하고 있다. “초의대사는 학자와 선비들과 교류하기를 좋아했지만, 초의의 시와 글은 속세의 티끌을 벗어나 있고, 깨끗하고 간명하다. 초의의 시와 글은 마치 중국의 당과 송의 시와 글과 같이 군더더기가 없고 맑다. 초의의 시에는 세간의 사람을 깨우치는 구절이 많다.”

홍석주의 견해와 같이, 초의는 ‘시’라고 하는 현실의 작용인 묘유(妙有)를 통해서 깨달음의 진공(眞空)의 세계에 도달하려고 하였다. 초의는 현실의 여러 활동이 그대로 깨달음의 세계와 연결되어 있음을 전하고자 한 것이리라.

그리고 이 점은 초의의 다도를 전한 활동에서도 짐작할 수 있다. 초의는 홍석주의 권유를 받고 다도의 경전이라고 할만한 『동다송(東茶頌)』을 저술하였고, 그는 다도의 달인으로서 당시의 사람이 다도에 대해 거의 망각하고 있을 때, 이를 전하기 위해서 노력한 인물이었다.

그리고 차를 마시는 것은 자신을 돌이켜 보는 데 매우 도움이 된다. 당나라 때, 조주가 학인들에게 차나 한잔 마시라고 답한 것도, 거칠게 음미해보면, 허튼 소리나 일삼지 말고 차나 한잔 마시면서 자신의 본심에 대해 돌이켜 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라는 말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이, 차는 불교의 수행과 밀접히 관계있는 일상의 일이었고, 따라서 ‘진공’과 ‘묘유’를 서로 함께 연결시키려고 한 초의가 이 다도를 강조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는지 모른다.

현실과 깨달음의 세계를 구분하지 않고 연결시키려는 초의의 이러한 태도에서 불교의 근대적 사유가 싹트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행해진 불교의 억압에서 벗어나 일상생활 속에서 불교문화가 꽃 피우기 위해서는 현실을 벗어나지 않는 새로운 수행법이 필요했고, 이러한 수행법에 대해 처음으로 그 방법의 일단을 제시한 사람이 바로 초의라고 생각한다.

V. 진묵대사

진묵(震默, 1562-1633)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진묵에 대한 최초의 자료는 『진묵조사유적고』인데 이는 진묵이 죽은 후 214년이 지난 1847년에 초의선사가 전해져 내려오는

강좌내용

내용을 편찬한 것이다. 이 내용은 설화적인 것이 주류를 이룬다. 그래서 정확한 역사적 사실과는 거리가 있다. 그렇지만 이처럼 전해져 오는 내용 속에 당시 민중이 원하던 승려의 모습이 깃들여 있다고 생각한다.

진묵이 태어날 곳은 전북 김제시 만경읍인데, 당시에는 불거촌(佛居村)이라고 하였다. 태어날 때 불거촌의 초목이 3년 동안 시들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은 모두 “세상에 드문 인물이 태어날 것이다”고 말하였다. 진묵이 태어나자 주위에서는 “불거촌에 부처님이 태어났다”고 하였다. 7세에 전주 봉서사(鳳棲寺)에서 출가하였는데, 불경을 읽고 해석하는 데 막힘이 없었고, 경전을 한번 보고 모두 외었다.

진묵이 봉서사의 동자승이 되었을 때이다. 봉서사의 주지가 동자승 진묵에게 절의 입구를 지키는 신장단(神將壇: 신중을 모시는 제사단)의 신중(神衆: 부처를 보호하는 존재)에게 향을 올리는 소임을 맡겼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주지의 꿈에 밀적신장(금강의 무기를 가지고 부처를 보호하는 존재)이 나타나서 부처님을 호위하는 신장(부처를 보호하는 존재)이 부처님에게 공경을 받으니 불안하기를 데 없다고 하면서 진묵으로 하여금 향을 올리지 말게 해달라고 하였다. 이 일로 인해서 이 절의 대중은 진묵의 비범함을 알았다고 한다.

봉서사에서 5리 정도 떨어진 곳에 봉곡(奉谷) 선생이라고 부르는 유학자 김동준(金東準, 1573-1661)이 살았다. 봉곡선생은 당시에 걸출한 인물로 알려졌다. 진묵은 만년에 봉곡선생과 교류하면서 정신적 교류를 하였다. 하루는 봉곡선생이 진묵에게 『주자강목』을 빌려주고 사람을 하나 딸려 보냈다. 진묵은 길을 걸어가면서 책을 대충 읽고 한 권씩 땅에 떨어뜨리고 가더니 한 권의 발문만을 가지고 절 안에 들어갔다. 뒷날 봉곡이 진묵에게 책을 빌려가서 버리는 것은 무엇 때문인지 물었고, 진묵은 “고기를 잡은 뒤에는 고기 잡는 통발(고기잡는 도구)은 잊는 법이다”고 답하였다. 이에 봉곡이 책을 꺼내어서 그 내용을 물으니 진묵은 한 글자도 틀리지 않고 대답하였다.

한 번은 길을 가다가 소년들이 물고기를 잡아서 시냇가에서 끓이고 있었다. 진묵은 “잘 놀던 물고기가 죄 없이 삶아지는 괴로움을 받는구나”고 하였다. 이에 소년은 진묵을 조롱하며 말하기를 “선사께서 고깃국을 먹고 싶은 것이군요”라고 하였다. 소년들이 고기를 먹으라고 하자 진묵은 고기를 다 먹고 냇가를 향해서 설사를 하자 고기들이 살아서 물 위로 솟구치며 뛰놀았다고 한다.

진묵이 봉서사 근처 상원암에 머무를 때의 일이다. 탁발승이 먼 곳으로 탁발을 떠났다가 한 달쯤 지나서 돌아와 보니 진묵의 얼굴에는 거미줄이 쳐있고, 무릎 사이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다. 먼지와 거미줄을 치우고 인사를 드리니 진묵은 “왜 이렇게 일찍 왔느냐”고 하였다.

진묵은 어머니에 대한 효성이 대단하였다. 전주 우아동 일출암에 살 때 어머니를 인근의 왜막촌에 머물게 하였다. 여름이면 모기가 극성을 부리기 때문에 어머니가 고통을 겪자 산신령에게 부탁을 해서 모기를 쫓아버린 일도 있다.

하루는 진묵이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은 뒤에 절문 밖을 나섰다. 시냇가를 거닐던 진묵은 지팡이를 세우고 물가에 서서 손으로 물 속에 비친 자기의 그림자를 가리키며 말하였다. “저게 비로 석가모니 부처의 그림자구나.” 시자가 “그것은 진묵스님의 그림자입니다”고 하자, 진묵은 “너는 다만 허망한 모습만 알 뿐이고 석가모니의 참모습은 알지 못하는구나”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팡이를 메고 방에 들어가서 가부좌를 한 다음에 제자를 부른다. “나는 곧 떠나리니 그대들은 물을 것이 있으면 꺼리지 말고 물어라.” 한 제자가 진묵의 법통에 대해 궁금해하자, 진묵은 “내가 무슨 법통(불법의 전통)을 잇고 말고 할 것이 있겠는가”라고 하였고, 거듭 간청을 하자 “비록 세간의 명성과 이익에 대한 집착을 넘어서

강좌내용

지는 못했다고 해도 휴정의 문하로 해두거라”고 하였다. 그리고 나서 지극히 평화로운 모습으로 열반에 들었다. 이 때가 세속의 나이 72세요, 법랍은 52세였으며 인조 11년 1633년 10월 28일이었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서 짐작할 수 있는 것은 진목이 선(禪)수행을 하였고, 당시 주류문화이었던 유교를 공부하였으며, 유교적 가치인 ‘효’를 받아들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내용은 당시 사람의 눈에 가장 뛰어난 승려가 가져야 할 덕목이었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VI. 월창거사 김대현의 생애와 사상

1. 김대현의 생애와 저술

월창거사 김대현(金大鉉, ?~1870)은 대대로 한성 곧 서울에 살아온 관리의 집안에서 태어났다. 김대현이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40세 무렵이라고 한다. 김대현이 최초로 읽은 경전은 『능엄경』이고, 결국에는 김대현이 배운 유가와 도가의 모든 지식을 버리고 불교경전에만 몰두했다. 1860년에 현재의 안동으로 가서 머물렀고 10년 뒤인 1870년에 돌아갔다. ‘월창(月窓)’이라는 호는 매일 조용한 밤에 창문을 열고 달을 쳐다보며 홀로 앉아있기를 좋아해서 이름 붙인 것이라고 한다.

김대현은 불교와 관련된 저술을 많이 하였지만, 임종에 이르러서 두 가지 저술 『자학정전(字學正典)』의 일부와 『술몽쇄언(述夢瑣言: 꿈의 내용을 서술한 소소한 이야기)』만을 남기고 모두 불살라 버렸다. 김대현이 창가에 쓰러져 누워 있다가 꿈을 꾸었는데, 잠에게 깨어나 꿈 이야기를 하였더니 듣는 사람이 어리둥절하였다. 그래서 그 꿈 이야기를 적어두고 『술몽쇄언』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자학정전』은 현재 전하지 않는다.

그밖에 『선학입문(禪學入門)』(1855년)이 있다. 이 저술은 천태지의(天台智顗)의 『석선바라밀차제법문(釋禪波羅密次第法門)』 10권을 요약한 것이다. 이 저술의 서문에서 당나라와 송나라 이후 선종의 교외별전(부처의 가르침 이외 따로 전한 가르침)이 세상에 성행하였는데, 능력이 있는 사람은 경절문(徑截門: 간화선) 수행을 좋아해서 천태종의 가르침을 모습에 집착하는 것이라고 해서 공부하지 않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은 염송(念誦)을 좋아해서 천태종의 가르침이 매우 어렵다고 생각해서 감히 공부하려 들지 않는다. 그래서 천태종의 가르침이 제대로 전해지지 않았다고 김대현은 말한다. 김대현은 선(禪)에 입문하는 초보자와 능력이 부족한 사람을 위해서 『선학입문』을 저술하였다.

김대현의 문하생으로서 유운(劉雲)이 있다. 유운은 29세부터 김대현의 문인이 되어서 수십 년 동안 김대현의 가르침을 받았다고 한다.

2. 김대현의 사상: 인생관과 세계관

김대현은 『술몽쇄언』의 「탁숙(托宿: 세간의 지혜와 의리는 잠시 의탁하는 곳에 지나지 않는다)」에서 세간의 지혜와 의리(義理: 바른 도리)에 대해 비판한다. 세간의 학자는 분별하는 것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을 ‘의리’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학문하는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거치는 하나의 단계이고 최종 목적지는 아니다.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세간의 학자는 잠시 의탁할 곳에 지나지 않는 것에 매달려서 오로지 그것을 추구하지만, 그래 가지고는 세간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고 김대현은 갈파한다.

탁숙(托宿), 세간의 학자는 분별을 지혜라고 생각하고, 시비를 따지는 것을 의리(義理)라고 생각한다. 그리하여 죽을 때까지 애를 쓰지만 한 사람도 세간에서 벗어난 사람이 없다. 세간의 학자가 지혜와

강좌내용

의리라고 생각한 것이 학문에서 잠시 의탁하는 곳이지 진실로 쉴 수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것을 모르기 때문이다. 무엇으로 그러한 사실을 분명히 아는가? 꿈속에서 분별하는 것이 정연해서 조리(條理: 서로 들어맞는 것)가 있을 수 있는데, 이미 그 꿈을 깨고 나면 꿈속의 조리 있는 분별은 쓸모가 없는 것이다. 바둑판 위에서는 시비가 분명하게 근거가 있다. 그렇지만 이미 바둑판을 치우게 되면 바둑판에서의 시비는 자연히 그친다.

[『술몽쇄언』 (『한국불교전서』 10권, 932하-933상)]

김대현은 「우취(愚醉: 세간의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게 술에 취한 것과 같다)」에서 세간의 총명한 사람을 비판하고 있다. 세간의 총명한 사람도 재물, 여색, 명예, 부귀, 문예(문학과 예술)에 취한 것이 어리석게도 술에 취해서 일생을 헛되이 보내는 사람과 다르지 않다. 차라리 어리석게도 술에 취해 사는 사람은 큰 죄와 허물은 짓지 않지만, 총명해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더 좋지 않은 결과를 일으킨다. 왜냐하면, 총명해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를 키우고 어떤 일에 천착해서 자신의 청정한 마음을 해치기 때문이다. 김대현은 이처럼 총명하고 재주 많고 지혜로운(세간의 지혜) 사람에게 반성할 것을 촉구한다.

우취(愚醉), 세간의 총명한 사람은 어리석게도 술을 즐기는 사람을 보면 문득 말하기를 “안타깝구나! 술에 취해서 꿈결처럼 태어나고 죽어서 헛되이 한 세상을 보내는구나”고 한다. 그러나 세간의 총명한 사람은 자신의 역량을 알지는 못한다. 세간의 총명한 사람도 어찌 재물, 여색, 명예의 기세[名氣], 부귀, 문예에 취한 것이 아니겠는가? 마음은 본래부터 청정해서 한 물건도 존재하지 않는다. 혹 조금의 세간의 가르침이 생각 속에 남아있어서 청정한 마음의 본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한다면, 모두 술에 취한 부류이다. 저 어리석게도 술에 취한 사람은 별다른 생각이 없어서 큰 죄와 허물도 없다. 그에 비해 총명해서 일을 벌이기 좋아하는 사람은 번뇌가 그 본래의 성품을 없애고 천착함(깊이 파고드는 것)이 그 마음의 진실을 없앤다. 이는 차라리 어리석게도 술에 취해 지내서 헛되이 일생을 보내는 사람보다 못한 것이 아니겠는가? 아! 총명하고 재주 있고 지혜로운 사람은 크게 반성해야 하지 않겠는가? 『술몽쇄언』 (『한국불교전서』 10권, 933상-933중),

김대현은 앞의 「우취(愚醉)」에서 세간에서 총명한 사람이 재물, 여색, 명예의 기세, 부귀, 문예를 추구하는 것이 어리석게도 술에 취해서 인생을 헛되게 보내는 것과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 못한 것이라고 하였는데, 『술몽쇄언』의 다른 대목에서 개개의 항목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는 귀함과 천함에 대해서 알아본다.

김대현은 귀하고 천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근거하는 것이지 자기 자신의 삶에 근거한 판단은 아니라고 한다. 그러므로 자신이 천하다고 해서 근심할 필요가 없고 또 자신이 귀하다고 해서 교만할 필요가 없다고 한다. 귀하고 천한 것은 자신에게는 뜬구름(덧없는 세상일)과 같은 것이라고 갈파한다.

귀천(貴賤), 옛날에 낮에는 하인이고 밤에는 천자(임금)가 된 사람이 있었다. 알지 못하겠구나! 천자가 낮에 하인이 되는 것을 꿈꾼 것인가? 하인이 밤에 천자가 되는 것을 꿈꾼 것인가? 깨어 있을 때에는 사람들이 나를 천하다고 하고, 꿈속에서는 사람들이 나를 귀하다고 한다. 귀하고 천한 것은 다른 사람의 평가에 달려있는 것이지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귀하고 천한 것은 나에게 실로 뜬구름과 같으며, 낮과 밤은 마음에서 보자면 모두 허깨비의 경계이다. 그러하니 어찌 천하다고 해서 근심할 것이며 귀하다고 해서 교만하겠는가? 세간에서 부유함과 귀함으로 스스로 오만한(방자하고 건방진) 사람은 꿈에 빠져서 아직 깨어나지 못한 것이다.

[『술몽쇄언』 (『한국불교전서』 10권, 930하)]

또 김대현은 「승봉(蠅蜂: 쇠파리와 꿀벌)」에서 세간에서 총명하고 지식이 있다는 사람이 이익을

강좌내용

좓아서 이쪽에 추종하기도 하고 저쪽에 따르기도 한 것이 쇠파리와 꿀벌이 좋은 냄새나 비린내를 좓아다니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비판한다. 그러면서 김대현은 세간에서 꿈속의 환상(幻相: 허깨비의 모습)에 빠지지 않은 사람이 얼마나 될지 묻고 있다.

승봉(蠅蜂), 쉬파리[蒼蠅]가 향기로운 냄새나 비린내를 맡으면 동쪽으로 가기도 하고 서쪽으로 가기도 하며, 꿀벌[黃蜂]이 울긋불긋한 꽃[紅紫]을 보고 홀연히 가기도 하고 오기도 한다. 이것을 보고 사람들은 미물(微物: 하찮은 동물)이 경박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한다. 세간의 사람이 꿈속에서 멀리 동쪽에 있기도 하고 갑자기 서쪽에 있기도 하며, 즐거울 수 있는 것을 보고는 기쁘게 웃고 근심될 만한 것을 보고는 슬피 운다. 이처럼 뜻[意]은 경계에 따라 전개되고 마음은 일[事]에 따라 변한다. 사람은 꿈속의 환상(幻相: 허깨비의 모습)은 무상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른바 총명하고 지식 있다는 사람이 아침에는 동쪽에서 웃고 저녁에는 서쪽에서 화를 낸다. 별안간 장(張)가를 따르더니 지금은 이(李)가를 추종한다. 세력에 따라 나아가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며, 이익에 따라서 추종하거나 등지거나 한다. 이러한 행동은 쇠파리와 꿀벌보다 못할 뿐만 아니라, 차라리 꿈속의 환상보다도 못하다. 세간에서 꿈속에 있지 않은 사람이 몇 명이 되는가?

[『술몽쇄언』 (『한국불교전서』 10권, 934중)]